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1. 3. 23.(화), 14:00 ~ 17:4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신안준(위원장), 강동진, 권기혁,
김이순, 김종헌, 목수현, 안창모,
오용섭, 이광표, 추미경(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 「6 · 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복원	(공 개)
2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주변 기념물 설치	(공 개)
3	사적 「구 도립대구병원」 내 소화시설 설치	(공 개)
4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 개)
5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기념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6	「소방 헬기 까치2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7	「한국수어교재 수화」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8	「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9	「조선말 큰사전 원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유지	(공 개)
【검토사항】		
10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1	「상주 주조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2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3	「진관사 석가불 괘불도 및 괘불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4	「각사사료수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5	국외 환수 국유문화재(백범 김구 유묵 ‘광명정대’) 관리청 지정 계획 보고	(공 개)
16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안건번호 근대 2021-02-01

1. 국가등록문화재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복원

가. 제안사항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소장 국가등록문화재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의 복원(보존처리)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의 복원(보존처리) 계획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제787호, '20.6.24. 등록)

(3) 세부내용 : 훼손된 종이기록물의 복원(9,360매)

※ 총 81,420매 연차적 시행 중, 현 3,074매 보존처리 완료

※ '21년은 기록정보관리단 용역이행관리 숙련도 고려 1일 작업량을 최소기준으로 산정

(단위 : 장 / 백만원)

구 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복원수량	81,420	3,074	**9,360**	12,480	12,480	12,480	12,480	12,480	6,586
			60장/일	80장/일					
복원비용	8,673	291	**972**	1,340	1,340	1,340	1,340	1,340	710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기록물이 전반적으로 부스러짐, 찢김, 마모, 변색 등의 손상이 진행된 바, 장기적인 보존을 위하여 복원(보존처리)이 필요하며, 문화재의 현 상태와 재질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1.3.9.) : 문화재전문위원 ○○○

○ 6.25전쟁군사기록물 9,360여매의 1) 종이 산성화에 따른 부스러짐, 찢김, 가장모서리 마모, 2) 오염, 재질 변색, 잉크 탈색, 3) 펀치, 테잎, 접힘 등으로 인한 손상, 4) 기타 산성화, 곰팡이, 충해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함.

○ 사전조사 및 사진촬영, 기록물 상태검사, 건식 클리닝, 탈산, 보수영 종이 제작, 결손부 보강, 탈산, 건조, 납품검수, 보존상자 제작 및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현상변경 계획이 적절함.

○ 기존 1차 작업 후의 사업 추진과 관리 경험 및 '복원요청서'등의 기록화 등으로 전체 현상 변경 사업이 적절히 처리 및 관리될 것으로 판단됨.

바. 현상변경 계획

1) 현상변경(복원)의 대전제

가) 복원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원 상태로 되돌려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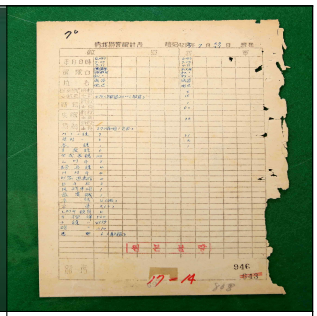
나) 원래의 형태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복원과정은 여러 방법으로 기록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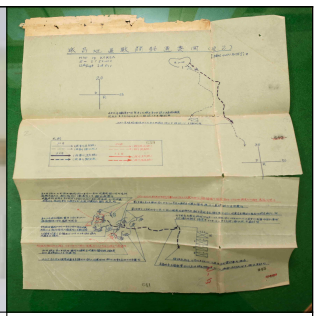
라) 기록물의 분실, 훼손,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 외부 반출은 금하며 복원작업은 부대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2) 손상상태

가) 종이의 산성화에 따른 부스러짐, 찢김, 가장자리 마모, 펀치구멍

			
부스러짐	**찢김**	**가장자리 마모**	**펀치구멍 손상**

나) 오염, 재질 변색, 잉크 탈색, 접힘에 따른 손상

			
오염	**재질 변색**	**잉크 탈색**	**접힘에 따른 손상**

다) 기타 : 산성화, 곰팡이, 충해 등

3) 보존·복원처리 계획

가) 사전조사 및 사진촬영

(1) 서고에서 반출한 기록물의 수량, 상태 확인(인수점검)

＊주 단위 반출, 복원치리 및 검수를 원칙으로 진행

(2) 크기, 형태, 기록용지 재질, 기록재료, 손상상태 등 파악

＊참고1 : 종이기록물 상태평가 조사표

(3) 보존, 복원처리 前 상태 사진 촬영

(4) 외부전문가 위촉, 자문회의를 거쳐 구체적 복원방법 등 결정

＊'20년 사업진행간 자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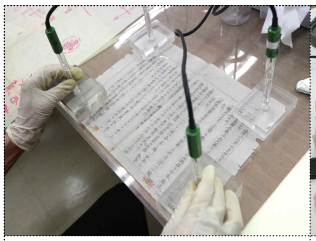


학술 전문가를 통한 복원 자문회의
(충북대 교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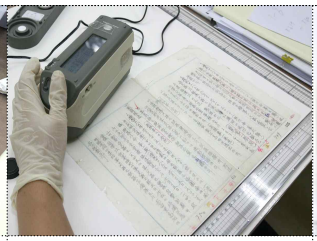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학예연구사 자문

나) 기록물 상태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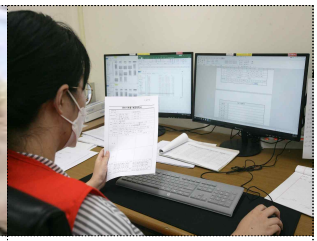
PH농도 측정



색차값 측정



두께 측정



측정값 기록, 보고서 작성

(1) 낱장으로 된 기록물 전체의 물성조사 (샘플링 미실시)

(2) 크기(가로×세로), 두께(mm), 무게(g), 평량(g/m^2), 밀도(g/cm^3) 측정 및 기록

(3) 크리닝 전·후 기록물 산성도(PH농도) 및 색차값(분광색측) 측정

(4) '종이기록물 상태평가 조사표' 첨부

＊【참고1】 : 기록물 상태평가 조사표

다) 건식 클리닝

(1)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의 오염 제거

＊도구로 사용된 붓은 1일 단위 세척(식염수)하여 청결 유지

(2) 클리닝 시 테이프, 스테이플러 제거

※ 양지 위주인 해당 기록물의 특성 상 수분이 닿으면 잉크 번짐, 쪼그라듦, 변색 등 문제 발생하므로, 수분 포함되는 '습식 클리닝'은 지양

라) 탈산

(1) 복원 前 대상기록물 PH 농도 : 평균 5.91

＊전체 대상량 9,360여 매 中 10%에 대해 표본검사 실시

(2) PH농도 7(중성) 에 가깝도록 탈산처리

(3) 산화마그네슘(MgO)을 미세분말로 만들어 스프레이식으로 분사

마) 보수용 종이 제작

(1)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손부 보강에 필요한 종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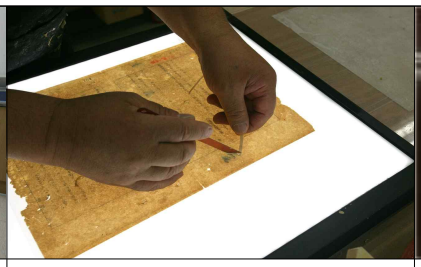
(2) 섬유의 종류, 종이 두께, 밀도 등 물리적 특징 고려하여 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

(3) 조사된 종이의 색차값에 맞추어 천연염료(오리나무 열매 등)로 자연염색

바) 결손부 보강



결손부 보강



결손부 보강



배접

(1) 접히거나 구겨진 종이기록물 펴기 (필요시 약한 열 가해 펴기)

(2) 결손부의 용이한 확인을 위해 '라이트 박스' 이용

(3) 지력(紙力)이 약화되거나 결실된 기록물은 뒷면에 배접지를 접착

＊배접은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

(가) 배접지의 재질과 강도는 원본기록물 재질과 특성을 고려함

(나) 배접지는 5g을 기본으로, 대형요도(지도) 등 전지크기 이상의 기록물은 8g까지 사용

(다) 배접 시 중성풀(소맥전분)을 이용

사) 탈산

(1) 복원 後 추가 탈산작업을 통해 기록물 영구 보존력 강화

(2) 산화마그네슘(MgO)을 미세분말로 만들어 스프레이식으로 분사

(3) 문자 탈산 미실시 : 기록된 잉크의 종류, 재질 등의 분석이 난해함에 따라 기록물에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문자탈산은 미실시

(4) 현상변경(복원처리) 이후 5년 주기 탈산 예정('21년 9월 탈산장비 도입)

아) 건조

(1) 복원처리 완료된 기록물을 중성흡수지 앞뒤로 덧대어 강한 샌드위치 패널에 넣어 압착 건조

(2) 완전히 마를 때 까지 흡수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건조

(3) 건조시 압력은 처음에는 약하게, 기록물이 건조됨에 따라 점차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

(4) 복원처리 완료된 기록물에 대해 매 장별 사진촬영, '복원처리 결과서' 작성

* 【참고2】 복원 요청서, 【참고3】 복원 결과서(앞면, 뒷면)

자) 납품 검수



전문가를 통한 '복원 결과물 검수' 자문 ('20년 사업진행 간 검수 자문 예시)

(1) 기록물 반출, 상태검사, 클리닝, 복원, 포장, 검수 및 납품 등 일련의 절차는 주 단위 처리 원칙

(2) 복원처리 완료된 기록물을 '복원처리 결과서'에 근거하여 검수

* 【참고3】 복원 결과서(앞면, 뒷면)

(3) 검수자는 사업시작 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사전방문하여 검수에 필요한 직무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한 상태로 검수 진행 예정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3. 30.(화) 방문 예정

(4) 검수간 하자 식별 시 '바)' 과정으로 돌아가 하자보수 실시

* 과업관리책임자 임명. 전반의 복원절차 확인, 감독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을 11.20.한으로 설정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시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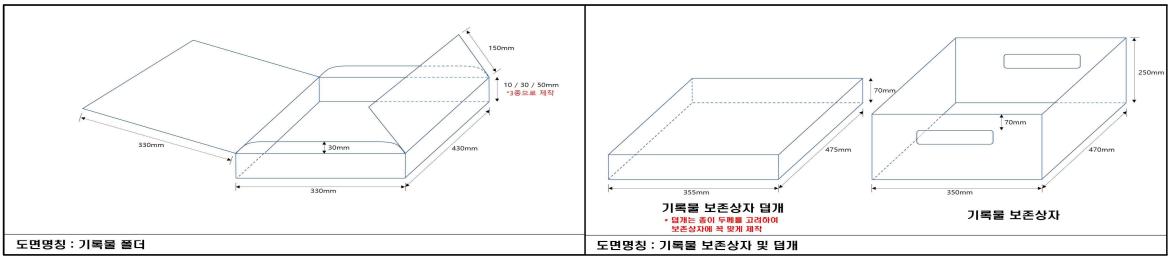
차) 보존상자 제작 및 포장

(1) 보존폴더 및 상자 제작 일반사항

(가) 중성지(PH농도 7 이상) 사용

(나) 접합부 및 모서리에 일체의 부식(부패)을 유발하는 제품(풀, 접착제 등) 사용 지양

(2) 보존폴더 및 상자 규격



도면명칭 : 기록물 폴더 | 도면명칭 : 기록물 보존상자 및 덮개

(가) '박스형 폴더' 편성 지침 및 규격

- 기록물 건별 '박스형 폴더'에 편성
- 편성 대상 기록물 : 전투경과, 작전계획 등 요도를 제외한 기록물
- **내부규격 기준 : 가로 420mm×세로330mm×높이10mm/30mm/50mm**
  * 높이는 10mm, 30mm, 50mm 3종으로 제작

(나) '보존상자' 편성 지침 및 규격

- 1차 편성된 폴더를 박스에 재편성
- 편성 대상 기록물 : 전투경과, 작전계획 등 요도를 제외한 기록물
- **보존상자 내부규격 기준 : 가로 470mm×세로350mm×높이250mm**
- **덮개는 종이 두께를 고려하여 보존상자에 꼭 맞게 제작**

(다) 요도(도면) 편성 지침 및 규격

- 기록물 건별 '중성지 파일형 폴더'에 편성
- **가로 1,250mm×세로860mm 크기 이하로 제작**

(3) 복원이 완료된 모든 종이기록물의 각 낱장 사이에 중성지(한지)를 간지로 끼워넣어 포장

(4) 복원이 완료된 모든 종이기록물은 건별로 중성지 포장을 실시, 중성지로 제작한 보존상자에 담아 납품

(5) 위 '자)' (납품검수) 과정을 거친 후 보존상자에 담겨 납품된 기록물은 항온, 항습 시스템을 갖춘 서고에 보존

(6) 보존상자 제작 지연 시 검수완료된 기록물은 항온항습 시스템을 갖춘 서고에 임시 보관하되 기록물 분실 우려 있으므로 과업관리책임자 통제 하 위치정보 확인 및 수량파악 철저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참고1】 종이기록물 상태평가 조사표

종이기록물 상태평가 조사표

기록물명		생산연도		조사일	
규격(크기)	□A6 □B6 □A5 □B5 □A4 □B4 □A3 □기타(가로*세로)			두께	mm
형태	□ 전체제본 □ 끈철 □ fastener철 □ 폴더 □ 철없음, 속지만있는 것 □ 보존용표지 □ 중성지봉투 □ 보존상자(상자번호) □ 기타				
기록재질	□ 한지 □ 미농지 □ 백상지 □ 모조지 □ 중질지 □ 감열지(팩스용지) □ 신문지 □ 갱지 □ 코팅지 □ 사진 □ 트레이싱페이퍼 □ 천 □ 도면용지 □ 기타				
기록재료	□ 먹 □ 금니 □ 은니 □ 타자 □ 사무용프린터 □ 복사잉크 □ 볼펜 □ 형광펜 □ 볼록판인쇄 □ 옵셋인쇄 □ 공판 □ 먹지 □ 싸인펜 □ 색연필 □ 연필 □ 기타				
전체의 훼손열화상태	□ 정상 □ 약열화 □ 중열화 □ 강열화				
읽을 수 없는 페이지	□ 없음 □ 1~4매 □ 5~9매 □ 10매이상				
종이의 수분(%)					

훼손열화상태		비고
A. 파손(찢김)	□ 무 □ 약 □ 중 □ 강	
B. 가장자리 마모	□ 무 □ 약 □ 중 □ 강	
C. 건조화(바스라짐)	□ 무 □ 약 □ 중 □ 강	
D. 오염	□ 무 □ 약 □ 중 □ 강	
E. 재질변색	□ 무 □ 약 □ 중 □ 강	백색도(%) :
F. 잉크탈색	□ 무 □ 약 □ 중 □ 강	
G. 산성화	□ 무 □ 약 □ 중 □ 강	pH :
H. 곰팡이	□ 무 □ 약 □ 중 □ 강	
I. 충해	□ 무 □ 약 □ 중 □ 강	

훼손특이사항 (기타사항)	기타의 기록	필요한 보존 조치
		□ 보존상자
		□ 보존봉투
		□ 철 제본
		□ 금속류 제거
		□ 테이프 제거
		□ 마이크로필름 촬영
		□ 산성지의 탈산처리
		□ 복원
		□ 기타

등급	훼손열화 상태평가 기준
무(0)	훼손열화 상태가 없는 상태
약(1등급)	훼손열화 상태가 미비하게 존재하나 보존·복원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중(2등급)	훼손열화 상태가 존재하여 간단한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강(3등급)	훼손열화 상태가 존재하여 긴급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06-바-S-04-21-03

【참고2】 복원 요청서

6.25전쟁 군사기록물 복원 요청서

기록물 단위 제목	수도 지형 고지 전투 (1-8) ('52.9.6 ~ '52.9.20)		
* 관 리 번 호	g0000008	* 해당면(시작~끝)	662, 663 (660~622)
* 상 자 번 호	전투상보-1	생 산 기 관	수도사단
위 치 정 보	B202-6-16-9-1-1-전투상보/1	생 산 년 도	1962년
사진 앞면		사진 뒷면	
			

복원 요구 내용

기록자료	지질확인 ☑	
	기록방식 ☑	□필사 □인쇄 □복사 □타자 □팩스 □스크랩(부착물) □기타( )
	필기재료 ☑	
편철	편철형태 ☑	□전체제본 □끈철 □Fastener(스테이플러) □철 없음(속지만 있음) □보존용표지 ☑폴더 □중성지 봉투 □보존상자(상자번호) □기타( )
	편철구멍 ☑	□상좌 □상중 □상우 □하좌 □하중 □하우 □기타 □없음
크 리 닝 ☑		
주 름 제 거 ☑		
테이프 제거 ☑		
스테이플러 제거 ☑		
결실부 보강 ☑		□리프캐스팅 □수작업
배 접 ☑		□양면 □앞면 □뒤면 □부분 □안함( )
P H 측 정 ☑		□테두리1( ) □테두리2( ) □중앙( )
비 고		

【참고3】 복원 결과서(앞면)

6.25전쟁 군사기록물 복원 처리서

기록물 단위 제목		한강방어 전투(1-1) ('60.6.29 ~ 7.2)			
* 관 리 번 호		g0000001	* 해당면(시작~끝)		6 (4~10)
* 상 자 번 호		전투상보-1	생 산 기 관		수도사단
위 치 정 보		B202-8-16-8-전투상보/1	생 산 년 도		1960
기록물 크 기	복원 전	27.3×19.5 [cm]	기록물 두 께	복원 전	0.04 [mm]
	복원 후	27.6×19.8 [cm]		복원 후	0.06 [mm]
기록재료	지 질	면박지			
	방 식	☑필사 ☐인쇄 ☐복사 ☐타자 ☐팩스 ☐스크랩(부착물) ☐기타( )			
	필기재료	잉크펜(청)			
편 철	형 태	☐전체 제본 ☐끈철 ☐Fastener(스테이플러) ☐철 없음(속지만 있음) ☑보존용 표지 ☐폴더 ☐중성지 봉투 ☐보존상자(상자번호) ☐기타( )			
	구 멍	☐상·좌(개) ☑상·중(2 개) ☐상·우(개) ☐기타(개) ☐하·좌(개) ☐하·중(개) ☐하·우(개) ☐없음(개)			

사 진	복원 전	복원 후
앞 면		
뒷 면		

색 도	1	2	3	4	평균	1	2	3	4	평균
L	86.93	86.23	83.20	84.28	84.23	86.33	86.82	89.94	86.17	87.36
a	0.20	0.36	-1.13	0.61	-0.06	0.88	0.87	1.37	0.42	1.04
b	5.84	6.10	6.26	4.38	5.57	7.19	8.73	-2.17	11.14	4.68

PH 측정	☐테두리1( ) ☐테두리2( ) ☐중앙( )									
	A	B	C	D	평균	A	B	C	D	평균
	9.27	7.97	9.02	6.70	7.89	8.43	8.38	8.46	8.39	8.41

【참고3】 복원 결과서(뒷면)

복원 전 상태기록			
재질변색	☐		
반 점	☐		
결 실	☑	상단 제본 했던 위치, 우측 변 아랫방향으로	
찢김·갈라짐	☐		
구 김	☐		
바스라짐	☐		
접힘·말림	☑	좌측 변, 하단 변, 상단 일부	
가장자리마모	☐		
테 이 프	☐		
수정테이프	☐		
스 탬 프	☐		
필기재료 번짐	☐		
스테이플러	☐		
금속류 녹자국	☐		
오염·얼룩	☐		
곰 팡 이	☐		
충 해	☐		
수침흔적	☐		
화재흔적	☐		
기타 특이사항	☐		
복원 작업 내용			
크 리 닝	☐	☐습식 ☐건식	결 실 부 보 강 ☑	☐리프캐스팅 ☑수작업
평 탄 화	☑	건조판		☑한지 ☐콜지
테이프제거	☐		배 접 ☐	☐양면 ☐앞 ☐뒤 ☐부분
스테이플러제거	☐			☐한지 ☐콜지
탈산(약품명)	☑	MgO(마그네슘 옥사이드)	보존 조치 ☑	☑간지(중성지, 한지) ☑중성폴더 ☑중성상자
기록물 두께	☑	0.06 [mm]		
비 고				
작 업 일		2020.07.10	작 업 자	손 용 학

안건번호 근대 2021-02-02

2. 사적「인천 팔미도 등대」주변 기념물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인천 팔미도 등대」주변에 기념물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인천 팔미도 등대」주변에 기념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사적「인천 팔미도 등대」(제557호, '20.9.15. 지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로 28(무의동 산373 외 1필지)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374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미 고시 지역임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80m 이격

○ 세부내용

- 사업명 : 인천상륙작전 팔미도 등대 탈환·점등 기념물 설치
- 재 질 : 석재 및 알루미늄
- 규 격 : 1.6m×1.7m×1.5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 내용은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인천상륙작전 팔미도 등대 탈환 점등 기념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1.3.11.) : 문화재위원 ○○○·○○○

○ 현재 계획된 기념 조형물은 디자인, 규모, 재질 등이 문화재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미흡하고 팔미도 등대의 역사성 및 의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 현재 계획은 기념 조형물에만 집중되고 기념 조형물과 주변과의 조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현재 계획 위치에 기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기념조형물 및 주변 경관이 문화재 및 팔미도의 기존 경관과 조화되도록 주변 지형과 경관에 대한 정비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함

바. 참고사항

(1)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재보존 영향여부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21.1.20.)

- 현재 예정된 위치는 사적인 등대에 접근하는 경로상에 중요한 여백의 공간 중 하나임. 특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천년의 빛'의 위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안된 기념물의 위치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음
- 현재 팔미도 등대 뿐 아니라 팔미도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섬과 등대관련 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조사 되어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헐적으로 각각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작은 섬에 중요한 문화재 주변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현대사와 관련된 사건과 현장 및 유물과 흔적에 대한 전체 조사 후, 본 기념물의 적절한 위치와 디자인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제안된 디자인은 팔미도 등대의 역사적 성격과 입지의 특성 및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 기념물은 인천상륙작전에 성과를 세운 KLO부대 자체를 기념하기도 하지만 부대가 팔미도에서 행한 역할을 제대로 드러내야 함. 따라서 기념물의 형태와 입지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 문화재위원 ○○○**('21.2.2.)

- 팔미도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모이거나 머무는 곳인 천년의 광장이나 선착장에서 보이는 경관(등대 직원 숙소, 기념물 설치장소, 문화재인 등대, 구집무실, 철조망, 군부대시설)이 자연경관에 비해 난삽함. 따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위치보다는 다른 장소(예를 들어 포대, 산책로 주변 등)를 찾아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나 설치가 불가능할 시 기 제안된 장소에 설치하되, 기념물의 규모(높이 및 폭)를 축소하고 반사가 심한 재료를 지양한다. 설치한지 20년도 안된 천년의 광장 조형물의 기단부 판석이 군데군데 이격, 파손된 것을 볼 수 있음.

- 금속재인 경우 반사가 심한 색상, 광택재를 지양하고 석재인 경우 판재. 물갈기를 지양하여야 함. 주변(해안)의 자연색인 녹색, 갈색이 보다 조화로울 것임.

○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 ○○○**('21.2.4.)

- 신청 시설물의 설치 위치는 구 팔미도등대 관리사무소의 전면으로 넓은 의미에서 팔미도 등대 관련 유적의 경관관리에 큰 영향을 주는 곳으로 판단됨
- 시설물 계획안을 보면 규모가 높이 2.6m, 반경 3m로 주재료는 스테인레스와 알루미늄으로 계획되어 있음. 재질의 특성상 빛 반사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경관 침해가 우려되고, 규모 역시 일러스트로 제시한 것보다 실제 체감 상으로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어 팔미도 등대 일대의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음.
- 팔미도등대는 입지와 관리주체의 특수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적 승격과정에서 시문화재위원회에서도 팔미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상륙작전 KLO·8240부대 팔미도등대 탈환·점등 기념물 설치'는 구 팔미도등대 관리사무소의 관리방안과 팔미도등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경관관리 계획이 제시된 후, 그 속에서 적절한 규모와 재질을 검토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

사. 의결사항

○ **부결**

- 현재 계획된 조형물은 디자인 재질 등이 문화재 및 주변 경관을 저해하며, 조형물 설치 장소에 대한 정비도 필요함

○ 출석 10명 / 부결 9명, 제척 1명

안건번호 근대 2021-02-03

3. 사적「구 도립대구병원」내 소화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구 도립대구병원」내 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구 도립대구병원」내에 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북대학교병원장

(2) 대상문화재명 : 사적「구 도립대구병원」(제443호, '03.1.28. 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구 도립대구병원 내

○ 세부내용 : 소화시설 설치

구분	세부내용
1층	60개 천공(바닥 및 벽체), 소화 설비(스프링클러 / 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설치
2층	69개 천공(바닥 및 벽체), 소화 설비(스프링클러 / 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설치
2층	11개 창호 보강, 소화설비(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 설치
옥탑1	13개 창호 보강, 소화설비(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 설치
옥탑2	20개 창호 보강, 소화설비(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 설치
지붕	소화설비(스프링클러) 및 배관 설치(목조트러스)

※ 기존 석면 천장 및 석고보드 천장 철거 후 신규 천장 설치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구 도립대구병원」내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1.2.26.) : 문화재위원 ○○○

○ 지정 문화재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소방시설 설치 계획은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설치 범위와 수량, 시각적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병원의 대한의원 본관(사적 제248호), 강북삼성병원의 경교장(사적 제465호) 등의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참조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보류**

- 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위해 소화시설 외부 노출 및 수량 조정 필요

○ 출석 10명 / 보류 10명

안건번호 근대 2021-02-04

4. 사적「대구 계산동성당」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대구 계산동성당」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계산동성당」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1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1.1.26.) : **부결**

・ 사유 : 과도한 높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희도아파트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장(조합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대구 계산동성당」(제290호, '81.9.25.)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계산동 2가)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13(수동, 희도아파트)

※ 허용기준 : 3구역(평지붕 26m 이하, 경사지붕 30m 이하)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70m이격

○ 신청내용 : 공동주택 신축(기존 아파트 철거 후 재건축)

구분	1차 심의('21.1.26.)	금회 신청
대지면적(㎡)	2,748.55	2,748.55
건축면적(㎡)/연면적(㎡)	1,322.63 / 33,337.4389	1,322.63 / 33,697.6812
세부용도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최고높이	119.5m(지하6층～지상36층), 1개동	116.6m(지하6층～지상35층), 1개동

<기존 아파트 현황>

○ 건축면적 / 연면적 : 1,241.34㎡ / 7,337.57㎡

○ 건축규모 / 준공일 : 지하 1층 ～지상 9층(1개동, 53세대) / '75.9.25.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사적「대구 계산동성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허용기준 3구역)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을 **재건축하고자 재신청**한 것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1.1.14.) : 문화재위원 ○○○·○○○·○○○

<최초 신청에 대한 의견임>

○ 신축 건물이 계산동성당과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계산동성당에서 신축건물 방향으로의 경관 시뮬레이션과 시내 각 주요 지점에서(계산동성당이 보이는) 계산동 성당과 신축건물이 함께 보이는 경관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 계산동성당 주변 고층 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신축 건물의 높이 조정이 필요함

바. 참고자료

(1) 도지정문화재(대구 제일교회 / 지방 유형문화재 제30호)에 대한 영향검토 의견

○ 대구광역시장 의견/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결과('21.3.19.)

- 대구제일교회와 이격거리가 불과 40여미터 정도여서 신청도서와 같이 건축할 경우 제일교회 및 주변 역사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축소 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건축물의 형태와 사용재료, 질감 등을 주변 환경에 맞게 설정해서 역사환경에 훼손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구 제일교회 주변 일대와 희도맨션은 역사가 오래된 곳이므로 사업시행 전 대구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련 자료 등을 기록화 할 필요가 있다.
- 신청지는 대구읍성과 관련한 지역으로 사업 시행 전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요함.

○ 대구광역시장 의견('20.12.30.)

- 대구제일교회(대구 유형 제30호)는 1908년 재래양식과 서구건축양식을 절충한 형태로 창건되어 그 후 1933년에 현재 적벽돌조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대구에서 가장역사가 오래된 근대 의료기관인 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처음 시작된 곳도 대구 제일교회에서 선교사가 개설한 제중원이었습니다.

- 공동주택 신축부지는 조선시대 대구읍성 내부에 위치한 곳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본정소학교, 희도보통학교가 있었고 인근에는 대구제일교회, 구 교남YMCA회관, 계산동성당 등의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대구지역 근대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자 역사적인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당해 문화재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관 또한 보존하여야 하며,
- 대구제일교회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의 3구역으로 건축물 높이 기준이 평지붕은 26m이하, 경사지붕은 30m이하로 되어 있으나 신청건물의 높이는 97.4~119.5m로 허용기준의 3배 이상입니다. 이는 문화재의 상대적 왜소화 초래, 문화재 배경 및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건물의 높이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시 문화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 신청지는 대구읍성과 관련한 지역으로 희도맨션 철거 시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요

사. 의결사항

○ **부결**

- 과도한 높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출석 10명 / 부결 10명

안건번호 근대 2021-02-05

5.「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기념관」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기념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1.26.)를 거쳐 등록 예고한「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기념관」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연세대학교박물관장

(2) 검토내용

○ 문화재명칭(안)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기념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134)

○ 소 유 자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수　　량 : 2동

○ 면　　적 : 전시실 1동 / 642.31㎡, 전시실 별관 1개동/ 47.03㎡

○ 건립시기 : 1927년

○ 구　　조 : 석조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9.5.20.)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연세대학교→문화재청)

○ ('19.10.4.)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자료 보완(고증자료 등)

○ ('21.1.26.)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5) 등록예고 : '21.2.3. ~ 3.5. (30일간) * 의견 없음

※ 문화재 명칭(연세대학교 제출안)

1안) 원한경(H.H.Underwood) 사택　　2안) 언더우드가(家) 사택

3안) 언더우드 사택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연세대학교 3대 교장 언더우드의 사택으로 지어져, 근대기 교육시설 내에 위치하는 사택으로서 서양식 건축양식과 재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950년대 건물의 변형 과정도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1.26.)를 거친 등록예고 기간('21.2.3~3.5) 중 이견이 없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건물 소유자가 제안한 문화재 명칭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19.10.4.)

- 국내에 선교사 사택은 많이 남아있지만, 학교 설립자의 주택이 주변환경과 함께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는 사례는 드물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언드우드가기념관은 6.25전쟁과 2016년의 화재로 신축 당시의 모습에서 일부 달라졌으나, 큰 틀에서 신축 당시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차고와 정원 등 연희전문학교 사택의 환경조건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주택뿐 아니라 부속시설과 정원까지를 묶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19.10.4.)

- 언더우드 가는 4대에 걸쳐 한국고등교육과 의료에 헌신한 바가 매우 크다. 근대기 미국 기독교선교회 및 선교사의 한국 기독교선교사업의 큰 줄기였던 교육과 의료 측면에서 이들의 역할은 큼.
- 한국전쟁 와중에 사택이 폭격받아 개축하는 과정에서 원형에서 많이 달라졌고 연세대학교에 기증 이후에도 전시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내부공간이 변경됨. 물론 20세기초 미국의 전원주택 양식의 외관상 특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근대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짓고 살았던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던 양식의 사택이나 주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희소성이 있음.
- 무엇보다 사택이 위치하는 땅과 사택에 살았던 인물과 관련된 역사성이 집 자체의 건축적 가치보다 더 크다.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봄.

○ **문화재전문위원 ○○○('19.10.4.)**

- 1927년 연세대학교 3대교장 원한경 박사의 사택으로 지어졌으며 건축연한 등 등록문화재 조건을 충족 하며, 소유자가 대상건물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토대로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한국전쟁 당시까지의 원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연세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관련 인물에 대한 기록과 근대기 교육시설 내에 위치하는 사택으로서 서양식 건축양식과 재료의 특징이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큰 변형이 있었던 1950년대 이후 개축 배경에는 한국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건물에 변형 과정 또한 신청대상 건물이 갖는 역사적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 명칭은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가옥'으로 함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기념관　(구) 언드우드 사택

2. 용　　도 : (현) 전시실　　(원) 주택

3. 소 재 지 :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4. 소 유 자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전시실 (석조벽체 + 목조지붕틀 + 철골조), 별관1층(석조)
  ○ 준 공 일 : 1927년
  ○ 수량/면적 : 전시실 1개동 / 642.31㎡, 전시실 별관 1개동/ 47.03㎡
  ○ 층수 : 전시실 1개동(지하1층～지상2층), 전시실 별관 1개동(지상1층)

6. 조사자 의견('19.10.4.)

<문화재위원 ○○○>

1) 개요
  ○ 연희전문학교 제3대 교장인 원한경(H.H. Underwood) 박사가 1927년에 교장 사택으로 지은 건물이다. 6.25전쟁 때 건물 일부가 파손된 후 원 규모보다 작은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되었다.
  ○ 건물의 연혁과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자료가 남아있다.
  - 1974년 : 원일한 이사가 주변 대지와 함께 연세대학교에 기증됨.
  - 2006년 : 내부가 일부 리모델링됨.
  - 2012년 : 지붕기와 교체
  - 2016년 : 화재로 일부가 소실됨.
  - 2018년 : 화재로 소실된 부분에 대한 내부 복원 공사를 거쳐 2018년 5월 이후에 언더우드가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20년대 미국의 보편적인 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 전면에 돌출된 2개의 Bay Window가 특징적인 석조건축이다.
  ○ 막돌쌓기 형식으로 지어졌다.
  ○ 다락층에는 채광을 위한 도머창이 설치되었다.
  ○ 6.25전쟁때 피해를 입었으나, 1955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고쳐 지어졌다.
  ○ 저층부는 원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전후에 복구된 부분도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950년대 건축술을 보여주는 일부가 되었다.
  ○ 2016년에 내부가 일부 소실되었으나, 복원 공사를 통해 6.25전쟁 이후 모습을 회복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① 기념관

- ㅇ 6.25 당시 2층이 파괴되어, 신축 당시와는 다르게 개축되어졌으나, 1층의 막돌 쌓기의 석조 외벽체와 현관을 비롯하여 1층의 기본 공간구조는 신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ㅇ 신축 당시의 2층은 6.25전쟁 때 파괴된 이후 복구되지 않았으며, 2층이 위치했던 곳은 다락층이 도머창과 함께 조성되었다.

② 차고

- ㅇ 막돌쌓기 석조로 지어진 1층 건축이다.
- ㅇ 실용적으로 지어진 건축으로 신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ㅇ 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주차장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ㅇ 연세대학교 캠퍼스 서측 구릉에 위치하여, 기념관 주변은 사택으로 사용될 당시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ㅇ 창립자인 언더우드가를 기념하는 시설로는 가장 적절한 건물이다. 현재 사용중인 기념관은 학교 설립이래 현재까지 선교와 교육에 봉사해온 언더우드 가문의 이야기를 전하고 정신을 이어가기에 적합한 보존 관리 및 운영계획이라고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ㅇ 대학측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념관으로서의 관리 운영계획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도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계획대로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ㅇ 국내에 선교사 사택은 많이 남아있지만, 학교 설립자의 주택이 주변환경과 함께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는 사례는 드물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ㅇ 언드우드가기념관은 6.25전쟁과 2016년의 화재로 신축 당시의 모습에서 일부 달라졌으나, 큰 틀에서 신축 당시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차고와 정원 등 연희전문학교 사택의 환경조건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주택뿐 아니라 부속시설과 정원까지를 묶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ㅇ 명칭은 '언더우드가 기념관'임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 언더우드(H. H. Underwood, 한국명 원한경(元漢慶), 1890~1951)가 1927년 연희교정 서편 언덕 너머에 지은 사택으로, 1951년 2월 그의 사망 후 아들 언더우드(H. G. Underwood, 한국명 원일한, 1917~2004) 가족이 살았고, 1952년 한국전쟁 와중에 폭격받아 집이 크게 파괴되자 1955년 단층 건물로 재건하여 1974년까지 살다가 사택을 전담·임야 등 1만여 평과 함께 연세대학교에 기증했다. 사택을 포함해 원일한이 기증한 땅은 1920년경 원한경의 부친이자 원일한의 조부 H. G. Underwood, 1859~1916)이 매입한 곳이다.

○ 1974년 연세대학교에 기증된 이후 기숙사, 어린이집 등으로 전용되었다고 전하지만 기록은 없으며, 2005년부터 전시공간으로 사용한 기록만 남아 있다.

○ 2016년 다락층에 화재가 난 후 2017년경 내부수리를 거쳐 2018년 전시관(언더우드家 기념관)으로 지금까지 사용중이다.

○ '별관'으로 불리는 부속건물은 언더우드 사택의 차고로 사택과 같은 시기에 지어졌고, 1974년부터 창고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2017년경 내부수리를 거쳐 현재 언더우드가기념관의 부속시설로서 전시실 겸 세미나실로 사용중이다.

○ 별관은 사택과 달리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지붕·실내마감·창호의 변경은 있으나 구조체는 신축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 설계는 미국 건축사무소 W. Malcolm Gray-Architect에서 했고, 연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4장의 건축도면(1925 작성)에는 프로젝트명이 "Residence in Seoul, Korea for Dr. & Mrs Horace H. Underwood D. H. Green Delineator"라고 되어 있다.

○ 준공 이듬해인 1928년 H. H. 언더우드(원한경)가 연희전문학교 부교장으로 취임했지만, 설계프로젝트는 언더우드 부부 주택이므로 부교장용 사택이 아니라 언더우드 부부를 위한 사택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20세기초 미국에서 유행한 교외주택 형식을 따르고 있다. 석조로 된 거칠고 단단한 외벽, 지붕보다 훨씬 높게 올린 굴뚝, 정면 포치, 다락층 구성 그리고 '네덜란드 식민지 형식' 주택에서 채용하는 2단 박공지붕(gambrel roof)지붕 처리가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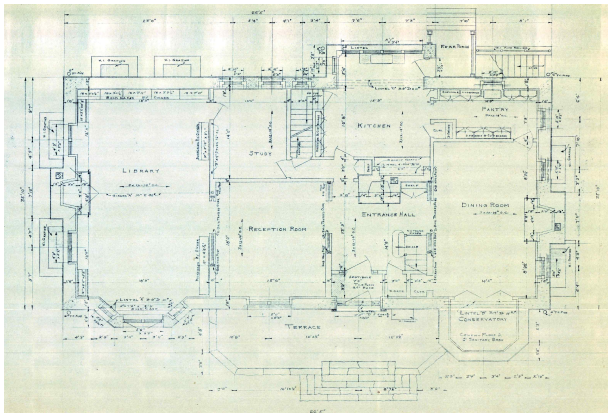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2년 한국전쟁 중 집중포격으로 건물이 크게 파괴되자 1955년 2층에서 1층으로 개축되면서 원형에서 가장 크게 벗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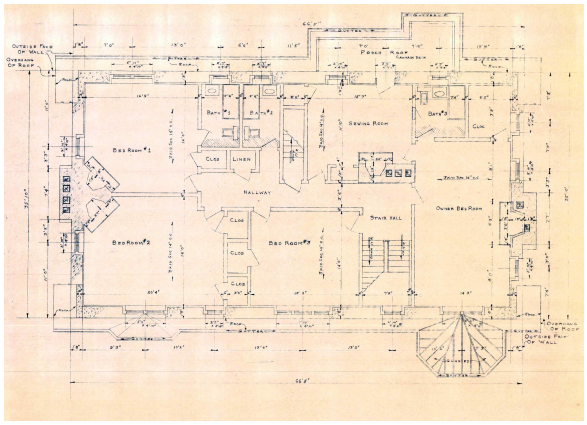
○ 작은 수리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2006 내부 리모델링, 2012년 지붕재 교체 사실만 내역 없이 간략히 남아 있다.

○ 전시시설로 사용중이던 2016년 11월 25일 다락층과 지붕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진화 후 복원공사를 하면서 중앙부 굴뚝을 제거하였고 2018년 5월 11일 '언더우드家기념관'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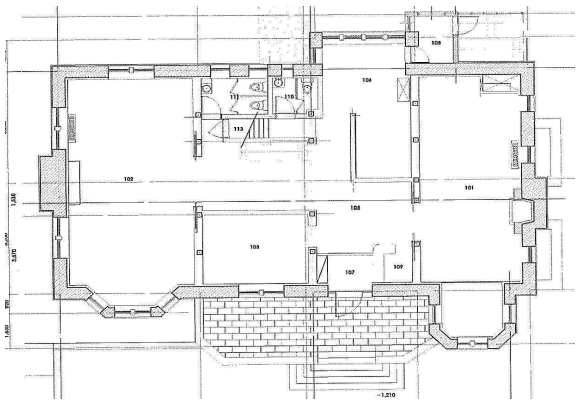
○ 신축 당시 작성된 평면도와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리하면서 작성한 평면도를 비교하면 내부공간의 변형 정도를 알 수 있다. 1층 평면도에서 실내를 4개 영역으로 구획하는 내벽 부분에 기둥을 추가해서 유지하는 대신 각 구역 안은 대부분 바뀌었고 특히 1층에서 지하층·2층으로 연결하는 계단의 변경·철거가 큰 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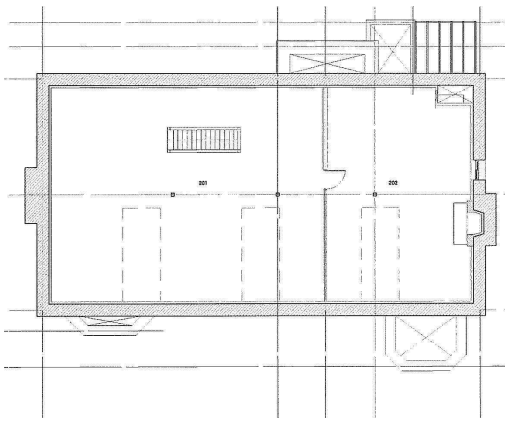
1층평면도(1927 작성)



2층 평면도(1927 작성)



1층 평면도(2018 작성 추정)



2층(다락층) 평면도(2018 작성 추정)

○ 이런 복원공사를 거친 후라 노후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붕처마 아래 개판이 부서진 부분이 배면 쪽에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관리 여건과 주변환경은 좋은 편이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언더우드家기념관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며 보존·관리면에서 적절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검토

○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택으로는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구 진해해군통제부 병원장 사택>, <구 문경금융조합 사택>, <강경 화교학교 교사와 사택>, <동해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원주 기독교 의료선교 사택>(제701호), <구 복전농업 주식회사 사택 1 및 2>,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영덕 영해 양조장 및 사택>,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이 있다. 이중에서 본 조사대상 건물과 같은 유형은 교육기관의 교사이자 선교사 사택은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이다.

○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등록문화재 제62호)은 1912년 건축된 석조 조적벽식 구조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인데, 교정 안에 지어진 관계로 본 조사대상 건물과 같은 전원주택 형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 다른 등록문화재 기독교 선교사 사택은 벽돌조적조 서양식 주택이다. 석조이면서 20세기초 서양에서 유행한 전원주택 형식을 그대로 수용한 본 조사대상 건물은 같은 유형의 기존 등록문화재 사택들과 차별점을 가진다.

7) 등록가치 의견

○ 언더우드 가는 4대에 걸쳐 한국고등교육과 의료에 헌신한 바가 매우 크다. 근대기 미국 기독교선교회 및 선교사의 한국 기독교선교사업의 큰 줄기였던 교육과 의료 측면에서 이들의 역할은 크다.

○ 한국전쟁 와중에 사택이 폭격받아 개축하는 과정에서 원형에서 많이 달라졌고 연세대학교에 기증 이후에도 전시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내부공간이 변경되었다. 물론 20세기초 미국의 전원주택 양식의 외관상 특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근대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짓고 살았던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던 양식의 사택이나 주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희소성이 있다.

○ 무엇보다 사택이 위치하는 땅과 사택에 살았던 인물과 관련된 역사성이 집 자체의 건축적 가치보다 더 크다.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사택 및 차고를 일괄하여 등록하고 명칭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과 별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1927년에 건립.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 원한경 박사가 교정 서편 언덕에 지은 사택으로, 회고록에 의하면 정확히 설계자가 확인되지 않지만 그레이(Gray)라는 이름에 설계자가 언급되고 있음.

○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이후 사택은 규모가 축소되어 개축됨

○ 1974년 그의 아들 원일한 이사가 학교에 1만여평 기증, 기념관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 11월 25일 화재로 인해 내부가 소실되어, 이후 복원공사를 거쳐 2018년 5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으로 재 개관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연세대학교 캠퍼스의 중앙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념관은 건물에 장변이 동서축으로 배치된 장방형 평면으로, 주출입구는 남쪽에 설치되어 있고, 기념관 동측 맞은편으로 별채가 설치되어 있음.

○ 회고록에 어린시설 회상 따르면, 건립 당시의 평면구성은 현관이 딸린 방과 큰거실, 현관 진입 후 오른편에 벽난로가 설치된 식당과 온실, 현관 맞은편 배면에 벽난로(현재 굴뚝은 없음)와 출입구가 위치하고, 지하 출입 계단, 서재 등이 있었음이 기술되어 있으며 당시의 공간구성과 개략적인 규모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음.

○ 현재 언더우드가 기념관의 평면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4개의 전시실과 안내실, 로비, 화장실 및 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다락과 기초자료실, 지하층은 2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2개실, 침실, 창고 및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며, 본래의 평면을 재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구조와 마감은 석조이며 외벽은 다각형의 돌을 막쌓기 방식으로 마감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지붕이나 창문의 형태 등 케이프 코드(Cape Cod)와 콜로니얼(Colonial) 양식과 같이 미국식 주택양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입면은 장방형의 평면에 정면 중앙부 외부계단(5단)과 현관이 위치하고, 정면의 좌측으로 베이윈도우, 우측으로 실내공간이 베이윈도우 형식으로 외부로 돌출되어 있음. 배면은 지하1층과 지상1층으로 진입하는 계단과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1층으로 출입구에는 전실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음

○ 한국전쟁 이전 1927년 사진 자료에 의하면 2층 규모에 경사지붕에 양측면에 굴뚝 폭 정도에 너비에 멘사드형의 지붕으로 구성됨. 현재는 2층 규모로 복원되어 졌으나, 2층은 경사지붕으로 구성된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립 당시의 규모에서 건물 높이의 낮아져 개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지붕에 경사도가 지금보다 가파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도머창이 없는 경사지붕에서 한국전쟁 이후 개축된 사택 사진에는 현재의 모습과 같이 정면 지붕 경사면에 3개의 평지붕으로 구성된 도머창이 설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있어, 전반적으로 규모와 지붕의 형태 등에 변형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별관은 정방형의 평면에 맞배지붕의 경사지붕으로 당시 차고 용도로 건립되었으며, 현재는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 별관의 1930년대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에 의하면 외부형태와 차고의 출입구 등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물의 위치 등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1927년 건립 당시와 한국전쟁 당시 사진 자료에 의하면 파괴된 이후에도 건물의 규모(건축면적)와 외벽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후 개축과정에서 건물의 높이와 지붕의 형태 등 1차 변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2016년 화재 이후 내부공간은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으며, 복원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2차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수리내역을 보면 한국전쟁 이후 건물의 규모가 축소되어 개축되었으며, 2006년 내부 리모델링과 2012년 지붕기와가 교체된 것으로 확인됨.

○ 2016년 11월 25일 화재 이후 내부 복원공사가 진행됨

○ 기념관의 사용되면서 소유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되는 노후화, 또는 훼손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연세대학교 교내에 위치하고 있는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학교법인 연세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문화재 저해 요소가 없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학의 교육과 선교 역사와 함께 한국전쟁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당시 서양식 주택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건물로 소유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계획과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 일부 변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과정이 한국 근현대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가 남아 있어, 신청대상에 보존과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다. 기타사항

○ 별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추후 고증자료 확보 및 연구가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 중 교육시설의 사택 또는 선교사 가옥으로는 공주 구 선교사 가옥과 원주 기독교 의료 선교 사택 등이 있음

○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가옥(제233호)은 공주지역에서 1921년 기독교 선교 초기에 건립된 서양식 주택으로, 미 감리교 선교사 사택 사용되었으며, 공주에서 선교와 교육 및 관련 인물과 연관된 건물로 역사와 건축적 가치가 높게 평가됨.

○ 원주 기독교 의료 선교 사택(제701호)은 1918년 건립된 선교사 사택으로 건립 당시 건축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원주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던 초기 건립된 건물로 기독교 선교의 역사와 교육, 의료, 생활문화 등을 살펴볼 수 유산으로 가치를 평가 받음

○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 전파와 교육 사업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와 관련된 사택으로 유사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전쟁이라는 근현대사 속에서 불가피한 건축적 형태의 변형이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변형된 계기는 한국 근현대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고증자료가 남아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1927년 연세대학교 3대교장 원한경 박사의 사택으로 지어졌으며 건축연한 등 등록문화재 조건을 충족 하며, 소유자가 대상건물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토대로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한국전쟁 당시까지의 원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연세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관련 인물에 대한 기록과 근대기 교육시설 내에 위치하는 사택으로서 서양식 건축양식과 재료의 특징이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큰 변형이 있었던 1950년대 이후 개축 배경에는 한국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건물에 변형 과정 또한 신청대상 건물이 갖는 역사적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구. 원한경 사택’ 또는 ‘구. 언더우드가 사택’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됨

안건번호 근대 2021-02-06

6.「소방 헬기 까치2호」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보라매안전체험관 소장「소방 헬기 까치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12.22.)를 거쳐 등록 예고한 소방안전 분야 문화유산인「소방 헬기 까치2호」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심의내용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 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 재 지
소방 헬기 까치2호	1건 1점	○기장: 949cm ○기폭: 150cm ○기고: 354cm	1979년	보라매 안전체험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안전체험관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3~9월) : 근현대문화유산 소방안전 분야 목록화 조사

○ ('20.11.27.)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소방 헬기 까치2호)

○ ('20.12.22.)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

- '소방안전 분야 문화유산'으로 함께 논의된 '소방헬기 까치2호'·'서천 비인 소방사이렌탑'·'국산 소방 완용펌프' 중 '서천 비인 소방 사이렌탑'은 등록 제외

(4) 등록예고 : '20.12.31.~'21.1.29.(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한국 최초로 도입한 소방 헬기로, 수많은 사건사고에서 인명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가치 측면에서, 예고내용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11.27.)

- 소방 헬기 '까치 2호'는 고층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중증응급환자 후송, 방재 작업 등을 위해 1980년 5월 도입된 현재 유일한 한국 최초의 소방 헬기로서, 가장 기동성이 뛰어나고 인명구조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의 도입과 운영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현재 엔진은 매각되어 있으나, 이는 기체 존치를 위한 노력과 협상의 결과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와 같은 대형 사고에서 인명구조 작업 및 공중지휘통제를 담당하는 등 소방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므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1980년에 전면적 사용이 시작되어 등록 가능 시기와는 10년 정도의 간극이 있으며, 현재 전시 장소의 문제점으로 시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

○ ○○○○○ ○○○('20.11.27.)

- 소방 헬기 '까치 2호'는 한국 최초로 도입한 소방 헬리콥터로서, 1980년 도입 후 2005년 퇴역하였음. 해당 유물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년)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등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와 재해구호에 큰 역할을 담당한 유물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정부 중고 장비는 매각하여 예산을 회수 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소방 관계자들이 까치 2호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면 매각 외의 보존 방안을 모색하여, 엔진만 매각하고 기체는 보존하여 전시하기로 결정함. 기체의 외형은 당시 사용하던 원형을 완벽하게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까치 2호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임.

○ ○○○○○ ○○○('20.11.27.)

- 소방 헬기 '까치 2호'는 우리나라 소방항공 역사를 간직한 최초의 소방헬리콥터 모델로서, 인명구조, 산불진화, 소방훈련, 방역방제 출동 등을 수행하였으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등 주요 재난사고 현장에서도 활동하였음. 해당 유물은 현재 엔진은 매각되었고, 기체는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전시 중에 있는데,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보존환경상 훼손, 멸실 우려가 매우 높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철저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소방 헬기 '까치 2호'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3. 소 유 자 : 보라매안전체험관

4. 조사자 의견('20.11.27.)

<문화재위원 ○○○>

1) 개요 : 소방 헬기 까치2호((500MD))

○ 고층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중증응급환자 후송, 방재 작업 등을 위해 1980년 5월 도입된 헬리콥터임

- 미국 휴즈사의 경헬기500MD (기종 : MD500D(미국 맥도널글러스사 제작)[1)]
- 대한항공 면허 생산 제품(까치 2호)함과 화재보험협회 기증(까치 1호) 제품으로 2대가 도입됨: 까치 1·2호기로 명명(관련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됨)
- 구입가: 1억 5천만원
- 까치 1호기는 1996년 9월 1일 추락으로 불용처분됨
- 까치 2호는 2005년 노후로 용도폐지(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매각 진행-엔진만 매각하고 기체 등을 보존하기로 결정
- 보라매안전체험관 실외 전시
- 까치 1, 2호기 도입(1979) 이래 현재(2020) 전국 31대의 소방 헬기 운영중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규격 및 사양

- 기장 : 9.49m

---

1) 원제조사인 휴즈(Hughes)사가 1984년 맥도넬더글라스((McDonnell Douglas)사 산하로 들어감에 따라 까치 2호의 제조사에 혼동이 생김(관련 문서에 따라 제작사를 맥도넬더글라스 혹은 휴즈로 다르게 명기, 헬기 기체 내의 부품들에 HUGHES가 새겨짐. 맥도넬더글라스사는 1997년 보잉사에 합병됨)



그림 조종석 패달에 새겨진 제작사 이름

- 기폭 : 1.50m
- 기고 : 3.54m
- 자체중량 : 669kg(기체중량 599kg)
- 탑승인원 : 5인(조사에 의하면 4인승으로 보임)
- 순항거리 : 483km
- 순항속도 : 240km/h
- 체공시간 : 2시간 10분
- 엔진출력 : 420Hp 단발(확인안됨)
- 항공기 제작 일련번호:79004

ㅇ 용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소방 방재, 인명 구조, 방제

- 1970년대 대형화재 사고 발생: 조기 진압 필요성 대두(대연각호텔 화재(71.12.25 / 163명 사망), 대왕코너 화재(72.08.05 / 6명 사망), 시민회관 화재(1972.12.02 / 53명 사망), 대왕코너 화재(1974.11.03, 88명 사망), 로방싸롱 화재(1978.03.05), 라이언스호텔 공사장 화재(1979.4.22.) 등 대형 화재 사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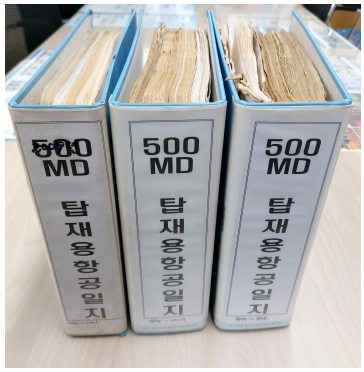
· 1970년대 이런 대형사고 발생 시 대개 주한미군 혹은 공군에 도움 요청해 해결
  * 소방헬기는 미국 휴즈사의 경헬기인 500MD
  * 도입된 2대의 헬기를 각각 까치 1·2호의 이름을 부여
  * 헬기 1대는 화재보험협회가 기증(까치 1호)
  * 1대는 대한항공 면허생산한 제품(까치 2호)으로 구입비 1억 5천만원.

· 대형 사고 발생시 미흡하고 부진한 인명구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울시 “대형화재종합대책” 수립
  * 헬기 도입
  * 31개 고층건물에 헬리포트 설치
  * 소방항공대 조직(현재 이를 바탕으로 31대의 소방헬기가 운영됨)

- 도입 이후 25년 간 3000회 이상의 출동 및 2983시간의 비행, 942명의 인명 구조

· 소방 관련 역할
  * 방화(防火), 화재 진압 시 컨트롤타워로의 상황정보 제공
  * 각종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사고 출동 인명구조(기록)
  * 1983.12.17. 중구 다동 롯데빌딩 화재 현장 5명 구조
  * 1980 ~ 2005 산불진압 450여회

· 수해 지역에서의 인명구조 작업
  * 1984.09.02. 강동구 풍납동, 성내동 수해지역 630명 구조
  * 1987.07.27. 구로구 개봉동 수해지역 26명 구조
  * 1990.09.11. 강동구 풍납동 성내동 수해지역 155명 구조



까치2호(500MD)의 항공일지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항공 방재
  * 수도권 삼림 및 도심 방역:방제(비행 기록 존재)
  * 1980 ~ 1999 수도답, 산림 방재 및 도시방역 1,500여 회

ㅇ 보존 경위

- 2005년 소방헬기는 노후화로 인한 행정재산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서울시 자산으로 매각을 통한 세입자산으로 전환
- 매각을 위한 절차 진행

· '05.7.4. 노후 소방 헬기(서울005호기 소방헬기 까지2호) 용도 폐지 및 매각계획 수립
  * 감정가 : 감정가격 3억8천6백만원(2000년 한국감정원)
  * 노후화로 인한 활용 능력 저하
  * 대체기종(서울002호기) 도입으로 사업목적 상실
  * 과다한 정비소요 비용 발생으로 경제적 운용한계 초과
  * 용도 폐지 결정된 재산으로 매각 처분 후 세입 조치

- 소방 역사 유산으로서의 중요성 대두 : 기체 보존, 엔진 매각 결정 배경

· 2005. 7. 20, 매각방법을 위한 심의위원회(2005년 7월 7일) 심의에 따른 '서울005호기 소방헬기 까치 2호'에 대한 매각방법 최종 결정
  * 소방 최초로 도입된 헬기로 역사적 보존 가치에 주목
  * 기체와 엔진을 분리. 엔진 등 부속품만 매각하기로 결정
  * 추후 소방박물관, 안전체험관 등에 전시하기로 결정

-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퇴역 이후 5년간 서울소방항공대(김포공항 소재)에서 보관하다 보라매 안전체험관개관(2010. 5. 25)으로 이동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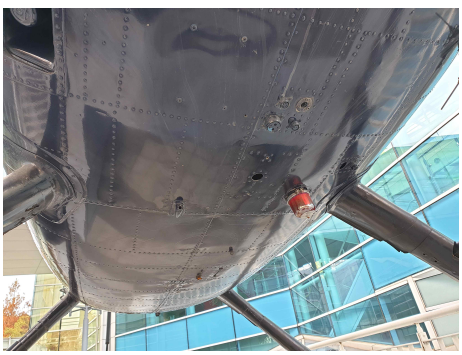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ㅇ 현 유물 상태

- 엔진 매각에 따라 불가역적 훼손이 이루어짐
- 이런 훼손에도 불구하고 기체는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됨
- 기체에는 큰 변형이나 훼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외부
  * 헬기 날개 아랫부분에 "119 서울005", 본체 뒷부분에 "서울소방"이라고 적혀있음



소방헬기 측면


헬기 아래 부분:외관상 큰 손상없이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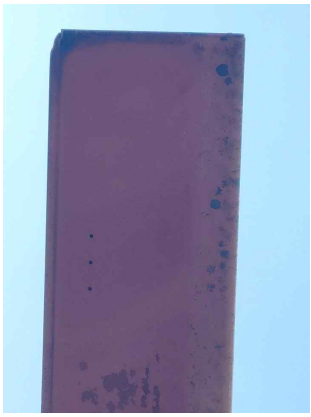
- 외부 전시에 따라 오염이 보임:전반적으로 외부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블레이드 부분에서 도색 박리 및 부식이 진행 중임을 볼 수 있음.



문 주변의 도장 박리:큰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블레이드의 도장 박리. 도장 박리가 진행 중



- 내부:
  · 계기판 상태는 양호-계기판의 변형없이 보존
  · 조종간의 연결부분의 도장 박리가 진행



계기판



조종간



도장 박리 및 부식이 진행중인 조종간

· 내부는 특히 습기에 의한 곰팡이로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됨
  * 좌석의 방석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등받이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안전벨트의 경우 방석과 비교하면, 훼손 정도는 심해 보지 않으나 곰팡이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음.
  * 객실 뒤편 격막 부분의 헬기 관련 정보 표식은 가독 불가능 정도로 손상됨



손상된 좌석 커버.



객실부의 좌석등박이와 안전벨트



객실 뒤편, 오염에 의한 손상 진행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 실외에 전시- 인근 보라매 공원의 호수와 인공 폭포, 분수로 인해 주변은 습기가 많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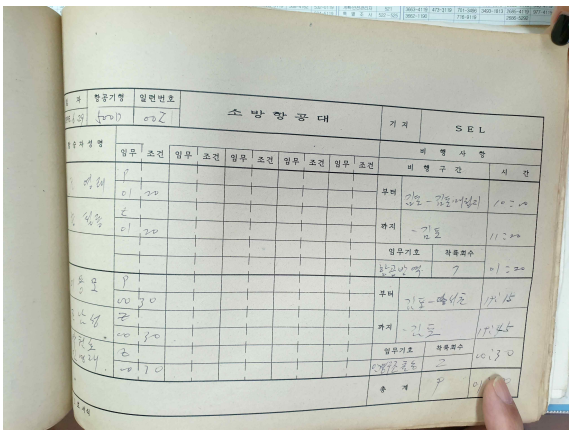
○ 실외 전시에 따라 오염과 습기에 의한 부식 및 도색 박리, 곰팡이에 의한 훼손 등이 진행,
○ 보호각 혹은 가림막 설치 등의 보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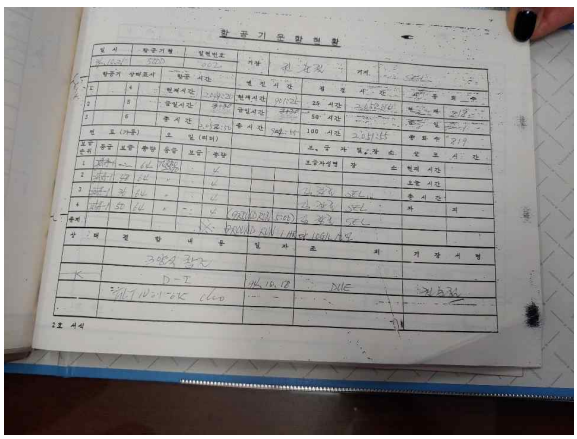
○ 현대사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대형 사고의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한 유물로
○ 까치2호와 비행 일지의 동시 전시로 대형 사고의 교훈을 반추할 수 있음
○ 사고 현장에서 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노고 역시 되새길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등록

○ 판단근거
- 소방역사에서 최초 헬기 도입에 의한 화재 대처 방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임:가장 기동성이 뛰어나고 인명구조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의 도입과 운영의 시작을 유물로 남기는 의미를 가짐
- 까치2호는 대한항공이 '면허 생산'한 제품으로 휴즈사의 재원을 수입, 대한항공에서 조립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술 이전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
- 엔진 매각으로 이루어진 불가역적인 훼손은 기체 존치를 통한 유물의 보존을 위한 노력 및 협상의 결과로 봐야 함
- 이 헬기의 역사적 사회적 가치는 엔진 매각에 의한 훼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서울시 및 수도권의 확장, 비대화, 밀집에 의한 각종 사고 및 화재 사건, 부실공사에 의한 붕괴 사고 등에 동원됨
  * 성수대교붕괴사고('94.10.2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06.29.)와 같이 한국 현대사에 큰 상처를 남긴 이 두 대형 사고에서 인명구조 작업 및 공중지휘 통제를 담당(운행 일지 보존됨)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기록-19:145, 19:45 2회 출동으로 기록됨



성수대교 붕괴 시 출동 기록

  * 이 두 사건 이외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화재 진압 및 방재, 구급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방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김
  * 이에 관한 일지들도 보존됨
  * 운행 일지와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엔진 매각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요 사건들을 정리해 따로 부본으로 정리해 둘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무엇보다 함께 도입된 까치 1호는 추락으로 폐기되어 한국 최초 소방 헬기로는 유일한 유물임

○ 등록에서의 문제점

- 1980년에 전면적 사용이 시작되어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가능 시기와는 10년 정도의 간극이 있음
- 현재 전시 장소의 문제점으로 시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500MD, 서울005호기, 까치2호 등으로 불렸음. 헬기에 적힌 것은 서울 005호이지만, 초기 명명은 까치 2호로 현장에서도 교신시 까치2호로 불렸음

○ “소방헬기 까치2호”가 적당하다고 봄

○ ‘서울005호’로 할 경우: 최초 도입의 의미에 혼란이 올 가능성 내재

- 새로운 헬기가 도입되면 기존 헬기에 새 번호를 부여함.
- 이런 번호 부여 방식은 중간 추락 등으로 폐기되어 번호가 없어져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일반적인 번호 부여 방식은 아님.
- 이런 사항을 감안해 005호로 등록할 경우 ‘최초’의 의미에 오해 발생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소방헬기를 도입할 때 명명한 까치2호로 부여하면서 유물의 특징을 ‘소방헬기’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

1) 개요

○ 이 유물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소방 헬리콥터로서, 1980년 도입한 뒤 2005년 퇴역 할 때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 와 재해구호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 특히 한국 최초의 소방헬기일 뿐 아니라, 대한항공에서 면허생산 하였다는 점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제작한 소방헬기라는 의미도 있음.

○ 약 25년 동안 활동을 마치고 노후하여 퇴역할 때가 되자, 통상적으로는 정부 자산이므로 중고 장비로 매각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것을, 이 헬기의 역사성을 인정한 관계자들이 보존할 것을 건의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보존하게 되었음.

○ 퇴역 당시 부품 매각을 위해 내부의 엔진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음.

○ 하지만 외형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보존된 경위를 감안하면 유물로서 전시하고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소방헬기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에서 다른 소방장비가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한국에는 1970년대 말까지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서울이 급격히 도시화하면서 고층건물 화재 등 헬리콥터를 이용한 인명구조의 필요성이 높아짐.

○ 특히 1979년의 라이온스호텔(서울 충무로) 화재 사망사고가 계기가 되어 서울시에서 소방헬기 도입과 소방항공대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1979년 12월 미국 휴즈사의 경헬리콥터 500MD 두 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 대(까치 1호)는 화재보험협회가 기증, 다른 한 대(까치 2호)는 휴즈사의 면허를 받아 대한항공에서 제작하여 1억 5,180만원에 발주함.

○ 이후 퇴역할 때까지 3,091회의 출동을 통해 약 3천 시간에 가까운 활동(기체 비행시간 2,983시간 45분, 엔진 670시간)을 통해 인명구조와 재난 현장 지휘, 도시방역과 산불진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

○ 1980년 도입된 두 대의 “까치” 헬리콥터 가운데 “까치 1호”(서울001호)는 1996년 중랑하수처리장 주변 방역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로 중랑천에 추락, 대파되어 불용처분 됨.

○ “까치 2호”는 “까치 1호”의 사고 후에도 9년 동안 최초 소방헬기의 명맥을 이으며 활동함.

○ 도입 당시에는 “까치”라는 기명(機名) 외에도 “서울001호”와 “서울002호”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았음.

○ 까치2호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년)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등 비극적인 사고의 현장에 투입되어 공중 지휘통제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함.



○ 항공기는 신규도입된 기종에 앞 번호를 내어주는 관행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1997년과 1999년에 에어버스에서 두 대의 소방헬기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까치 2호는 종래의 “서울002호”를 새 헬기에게 내어주고 두 자리 밀려 “서울005호”(4호는 기피하여 사용하지 않음)로 등록됨.

○ 이에 따라 2005년 까치 2호가 퇴역할 당시의 문서에는 서울005호로 지칭되고 있고, 현재 보존 전시 중인 기체에도 “서울005”라고 도장되어 있음.

○ 신규 기체가 속속 도입되고, 오래된 기체의 수리 부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2005년 용도폐지를 결정함.

○ 그런데 정부 자산의 사용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장비는 매각하여 예산을 회수 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소방 관계자들이 까치 2호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전면 매각 외의 보존 방안을 모색함.

○ 2005년 7월 전문가 심의 결과 기체 전체를 일괄매각하면 약 3억8천6백만원(2000년 한국감정원 평가 기준)의 가치가 있지만, 중요한 소방유물을 보존하는 일의 가치도 높으므로 엔진만 매각하고 기체는 보존하여 전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2005년 8월 4일 김포공항 소방항공대 격납고에서 정식으로 까치 2호의 퇴역식을 열고, 기체는 보라매안전체험관(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보존 전시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외관상 원형은 거의 완벽하게 보전되어 있음.

○ 내부를 들여다보면 엔진이 있어야 할 공간이 비어 있지만, 실제 관람객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외관상으로는 완벽하게 보전되어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이밖에 특별한 변형 또는 개조의 흔적은 없으며, 퇴역 직전까지 사용할 당시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약 15년간 야외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몇 가지 문제점이 보임.

○ 우선 내부의 조종석 시트나 바닥 깔개 등이 심하게 노후되었음. 이들은 합성수지 재질이어서 원래 온도 변화나 햇빛에 약한데, 야외에서 햇빛과 외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노후화가 가속된 것으로 보임.
○ 로터나 기체 표면의 도장도 비바람과 햇빛에 마모된 흔적이 보임.
○ 또한 운전석 문이 잘 여닫히지 않아서 나사로 고정 해 놓았는데, 정식으로 수리할 필요가 있음. 실제 사용되지 않는 기체이므로 문을 개폐할 일은 없겠지만, 현재와 같이 임시변통으로 고정하는 것보다는 문화재 위상에 맞게 적절한 수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이밖에 내부의 계기판과 조종간 등은 원형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청소 정도로 보존 조치가 가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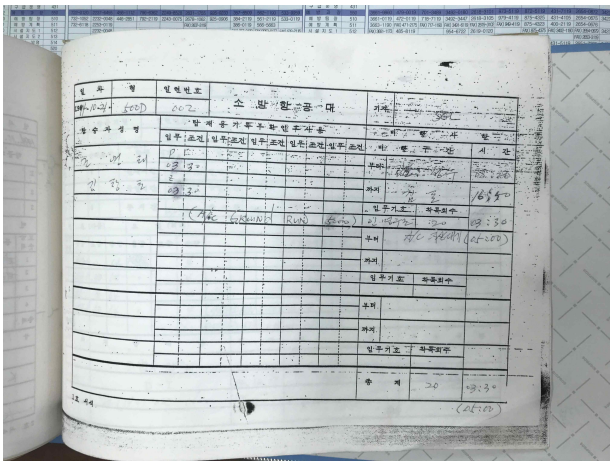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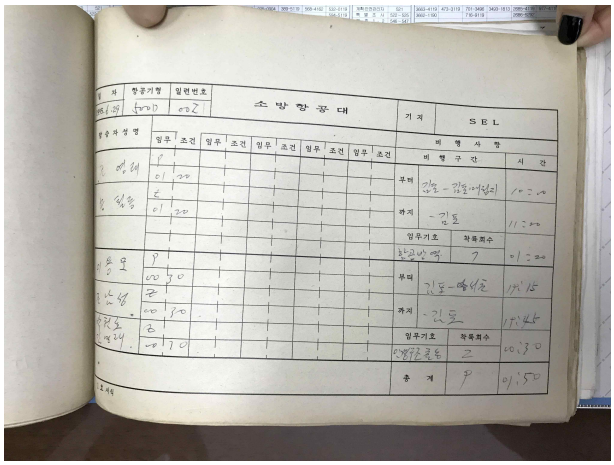
○ 현재 전시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 하지만 원래 격납고 안에 있어야 할 헬기가 야외에 전시됨으로써 비바람과 햇빛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임.
○ 노후화가 추가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원래 사용하던 당시처럼 격납고에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그렇게 할 경우 전시와 교육을 위해 보존을 결정한 원래 취지와 모순됨.
○ 따라서 더 이상의 노후화를 막으면서도 전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에 두되 최소한 캐노피 정도는 설치하여 비바람과 햇빛을 막아주어야 함.
○ 현재 안전체험관 건물이 디귿(ㄷ)자 형태로 되어 있고, 까치 2호는 그 가운데 부분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형태를 활용하면 캐노피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현재 보존된 위치가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의 전시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까치 2호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부족하므로, 추가 전시물(설명 패널 등)을 통해 이 부분을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
○ 현재 까치 2호에 대한 설명은 헬기 앞의 작은 푯말 하나가 전부인데, 이를 통해 까치 2호의 내력과 가치 등을 알기는 대단히 어려움.
○ 별도의 전시 패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까치 2호의 내력과 중요성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까치 2호가 출동했던 주요 사건 등을, 아래에 언급할 운행일지 등의 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면 교육적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임.
○ 기체의 활용 방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행일지 등 관련 문헌 자료의 보존과 활용 방안임.
○ 현재 보존 연한이 경과된 관련 문서들 중 다수가 절차를 거쳐 폐기되었기 때문에, 까치2호가 문화재로 지정된다 해도 추가적인 정보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음.
○ 현재 다행히도 운행일지가 남아있는데,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 10. 21)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 6. 29) 당일의 출동 기록이 남아있음.

○ 운행일지는 성수대교 사고 당일에는 20회 착륙, 삼풍백화점 사고에는 2회 착륙 등 당시의 급박했던 사정을 생생하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귀중한 자료임.
○ 까치2호의 전체 매각 대신 기체 보존을 결정한 과정도 문서로 남아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있음.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체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운행일지와 퇴역 관련 문서 등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적인 전시 기획이 필요함.
○ 또한 운행일지와 퇴역 관련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기체와 함께 문화재 일괄 지정 등)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존하는 소방헬기로서 최초라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것은 이것이 유일하므로, 가치는 매우 높음.
○ 소방헬기 이외의 소방장비들, 즉 소방헬기와 팀을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차 등의 장비들과 함께 전시하면 학습의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방차 등이 보존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이상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는 충분함.
○ 엔진이 매각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부 자산이었다는 속성을 감안하면 기체 전체 매각을 막고 엔진만 매각한 것도 관계자들의 상당한 결단 덕택에 가능했던 일이었음.
○ 부분 매각으로 기체 외형을 보전한 결정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혜안이라고 평가해야 함.
○ 기체의 외형은 당시 사용하던 원형을 완벽하게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까치 2호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임.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소방헬리콥터 “까치 2호”로 제안함.
○ 상술하였듯, 도입 당시의 명칭은 “까치 2호”였고 공식 명칭은 “서울002호”였음.
○ “서울002호”는 도입 당시의 명칭이고 퇴역할 때는 “서울005호”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명칭에 포함하면 혼동의 여지가 있음.

○ “까치 2호”는 “서울002호”처럼 서류상의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 이름으로 기종을 식별하였고 운용과 관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관계자 모두가 인정하는 고유한 명칭임.
○ “까치 2호”로 명칭을 정할 경우 “최초”라는 말에서 “1호”를 기대하는 심리와 배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음.
○ 하지만 이것은 “까치 1호”와 “까치 2호”가 동시에 도입되었으므로 둘 다 최초의 소방헬기이며, “까치 1호”는 사고로 조기퇴역했으므로 “까치 2호”가 유일하게 남은 최초 소방헬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임.
○ 위에 제안했듯이, 까치 2호의 기체 뿐 아니라 운행일지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지정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1) 개요

○ 1976년 처음 공급되기 시작한 500MD 헬기의 민수용 초기모델(일명 ‘잠자리비행기’로 알려짐)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항공대인 서울시 소방항공대가 1979년 발대 당시 도입한 미국 MD500D 헬리콥터(헬기명 : 까치)를 대한항공이 면허 생산하여 납품한 것임.
○ 소방 헬기 “까치 002호”는 2005년 8월 4일 퇴역할 때까지 인명구조 344회(942명), 산불진화 450회, 소방훈련 309회, 방역방제 1,512회 출동 등 총 3,091회의 출동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등 주요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동하였음.
○ 우리나라 소방항공 역사를 간직한 최초의 소방헬리콥터 모델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엔진은 매각되었고, 기체는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전시 중에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주요 연혁
- 1979년 미국 맥도널드더글러스사의 MD500D 기종을 대한항공에서 면허 생산하여 1980년 3월 도입하여 소방 헬기 “까치 002호”로 명명하였음. 도입이후 2005년 8월까지 퇴역할 때까지 주요 재난 사고현장에 총 3,091회 출동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제원
- 기장 : 9.49 m
- 기폭 : 1.50 m
- 기고 : 3.54 m
- 엔진 : 단발 420 마력
- 자체중량 : 669 kg(기체중량 599 kg)
- 탑승인원 : 5인
○ 주요 활동 사항
- 소방 헬기 “까치 002호”는 1983년 12월 서울시 중구 롯데빌딩 화재현장에서 5명을 구조하였고, 1984년 9월 강동구 풍납동, 성내동 수해현장에서 630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음. 1990년 9월 강동구 풍납동 수해지역에서 155명을 구조하였으며 그 외에도 산불진압 출동 450회 등 총 3,091회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수행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소방 헬기 “까치 002호”는 2005년 용도폐기결정 및 매각방법 의결(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3725 ; 엔진은 매각하고 기체는 소방 최초로 도입된 헬기로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으므로 보존키로 의결)에 따라, 엔진을 제외한 기체가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옥외에 노출되어 전시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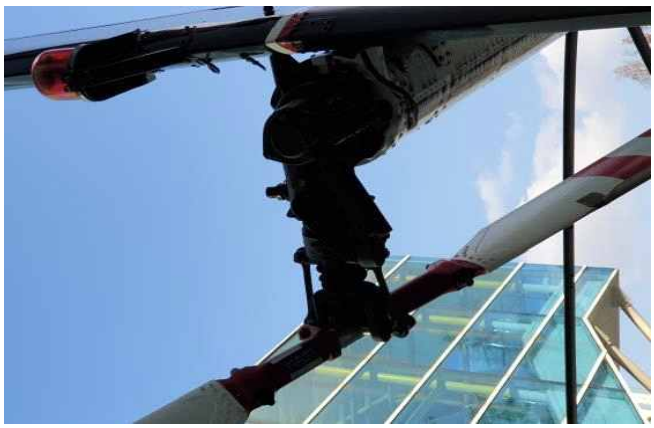




○ 소방 헬기 “까치 002호” 기체 외관 및 내부 공간, 조정장치 및 패널, 통신장치 등은 변형 없이 최초 사용 당시의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여 보존되고 있음.

○ 현재 보라매안전체험관 입구 옥외에 노출상태로 전시되어 있는 관계로 기체 외부의 부식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체 내부의 경우에도 좌석 및 바닥 등이 부식, 손상 및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시급하게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방 헬기 “까치 002호” 서울시 소유로서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전시하여 관리하고 있어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편임.

○ 그러나 조사대상 문화재가 옥외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어서 기체의 특성상 외부환경(햇빛, 눈, 비, 바람 등)의 영향으로 파손, 부식, 손상 등 원형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체계적인 보존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소방 헬기 “까치 002호” 는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에 전시하여 안전체험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소방안전분야 문화유산으로서 근현대 우리 사회의 재난 사고현장에서 함께 해온 소방 헬기 “까치 002호”의 활동한 역사적 자료를 정리하여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소방 헬기 “까치 002호”와 유사한 것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음. 1979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어 운용되었던 2대의 소방 헬기 “까치 1호”와 “까치 2호” 중 “까치 1호”는 1996년 8월 31일 항공 방제작업을 수행하던 중 장안빗물펌프장 앞 중랑 천변에 추락해 반파되어 폐기처분되었고 현재 “까치 002호”만 남아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우리나라 재난사고 대응의 역사와 함께 한 최초의 소방헬기 “까치”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어 운용되었던 소방 헬기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임.

○ 현재 보라매안전체험관 전시중인 소방 헬기 “까치 002호”는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보존 환경상 훼손, 멸실우려가 매우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 유산임.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소방 헬기 “까치 002호”

안건번호 근대 2021-02-07

7.「한국수어교재 수화」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국립서울농학교 소장「한국수어교재 수화」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1.26.)를 거쳐 등록 예고한「한국수어교재 수화」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심의내용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 년대	소유자	소 재 지
한국수어교재 수화	1건 2점	21.2×15.2cm	1963년	국립 서울농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3 국립서울농학교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3~9월) : '근현대문화유산 장애인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20.12.17.)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1.1.26.)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4) 등록예고 : '21.2.3.~3.4.(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1963년 서울농아학교 교사들이 수어 교육을 위하여 필수어휘를 한글로 정리한 교재로서, 이후 편찬된 수어사전의 바탕이 된 점 등 한국 청각장애 특수교육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예고내용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재위원 ○○○('20.12.17.)

- 본 유물은 서울 농아학교(現국립 서울농학교) 교장이었던 김기용과 교사들이 당시 체계화되어있지 않던 수어를 정리한 책임. 해당 유물은 농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단어를 정리하고, 이를 한글로 설명하여 한글을 익힌 농인들과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한국 농아교육의 역사적인 유물로서의 의미가 있음. 또한 농인들의 언어를 정리한 최초의 책자이며, 이후 수어 사전의 토대가 되는 사전적인 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ㅇ ○○○○○ ○○○('20.12.17.)

- 본 유물은 1963년 서울농학교에서 수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수어기호를 해설·정리한 책으로, 시각·동작에 의해 전승되던 언어표현을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하여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비청각장애인들도 수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의의가 있는 유물임. 해당 유물은 한국 청각장애인의 언어생활이 최초로 기록된 것으로, 그들의 언어생활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수언어학, 소수자의 역사, 특수교육의 역사, 사회언어의 역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음.

ㅇ ○○○○○ ○○○('20.12.17.)

- 본 유물은 1963년 제작된 책으로,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기본 생활어휘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구화 교육의 병폐를 막고 수화 교육을 정상적인 교육 방법으로 채택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유물임. '수화'는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어사전 내용의 바탕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발간 의미, 역사적 가치, 희귀성 등을 고려해 보면 다른 언어 소통의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그 뜻을 기리고 발전시킬 가치가 있음.

ㅇ ○○○○○○ ○○○'20.12.17.)

- 본 유물은 1963년 수어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기호 해설 책자로, 방법적·인위적·문법적 수어는 되도록 피하고 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수어를 체계적으로 해설함으로써 쉽게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 책임. 해당 유물은 농인들이 교육과 사회 등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글수어 보급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유물임. 따라서 농인들의 언어로서 한국수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각장애 특수교육의 역사 차원에서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한국수어교재「수화」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3(신교동 1-1) 국립서울농학교

3. 소 유 자 : 국립서울농학교

4. 조사자 의견('20.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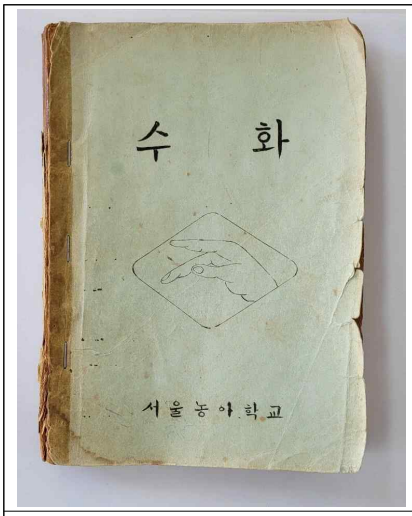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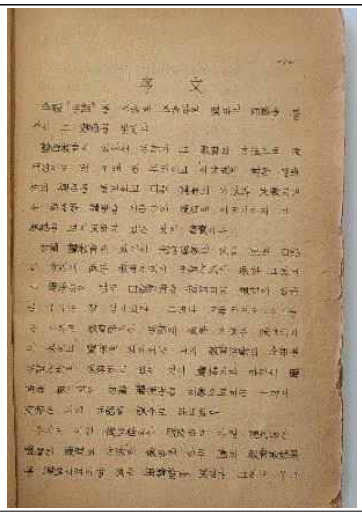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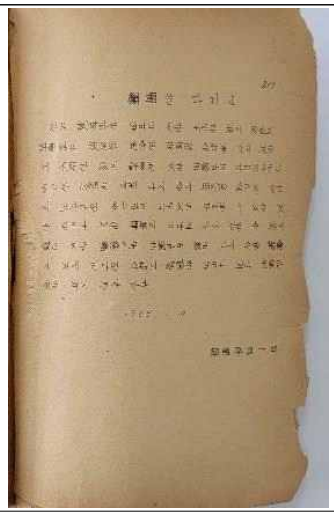
<문화재위원 ○○○>

1) 개요

○ 1963년에 서울 농아학교(현재 국립 서울 농학교의 전신)에서 발간한 수화 교재로, 당시 교장이던 김기용과 교사들이 그때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농인들의 수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임. 한국 최초의 수화 책으로 이후 수화 사전의 기초가 된 사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농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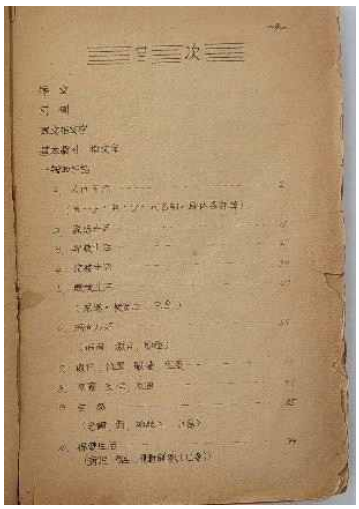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수화>는 서울 농아학교에서 당시 교장인 김기용을 비롯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손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언어 방식인 수화(手話)를 익히는 데에 교재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당시 농인들이 사용하던 수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펴낸 일종의 교과서임. 수화는 현재 농인들의 언어라는 의미로 '수어(手語)'로 표기하고 있으나 손과 손가락 모양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를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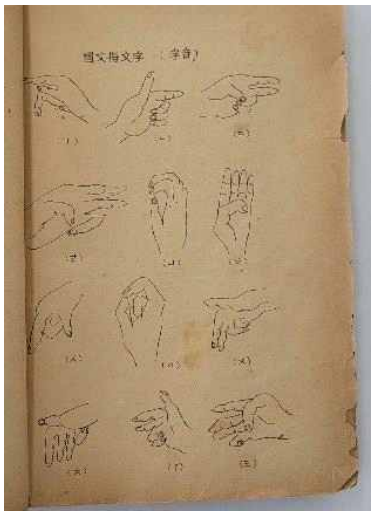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수화> 표지</td>
<td>서문</td>
<td>'편집을 마치고'</td>
</tr>
</table>

○ <수화>는 4.6배판(세로 21.2cm, 가로 15.2cm) 크기에 등사판으로 인쇄한 책자로서, 전체 217쪽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지에는 손으로 말하는 언어라는 뜻으로 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서문은 당시 교장 김기용이 썼으나 217쪽에 '편집을 마치고'에는 편집위원 일동 명의로 되어 있어 당시 농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 편집위원이 이 책을 편찬했음을 알 수 있음. 편집 후기에 1963.1.10.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 간행 시기를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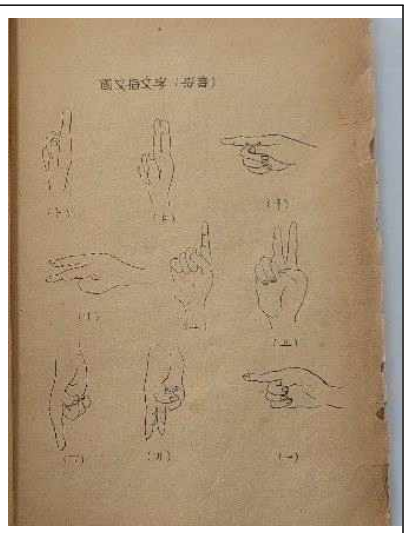
○ <수화>의 내용은 범례와 국문 지문자(指文字), 기본 수의 지문자, 영문 지문자를 손 모양 그림으로 싣고, 14개의 장은 구체적으로는 1장 인간 관계(남·녀·노·소·대명사·신체각부 등), 2장 가정 생활, 3장 학교 생활, 4장 종교 생활, 5장 직업 생활(직장·기관 등 포함), 6장 시간 생활(시간·세월·계절), 7장 처소·위치·수량·정도, 8장 교제·교신·교통, 9장 자연(색조, 동·식물 포함), 10장 보건 생활(병원·위생·운동·훈련), 11장 정신적 감정적 동작(명사, 형용사, 기타 포함), 12장 동사, 13장 음식과 의복, 14장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러한 분류는 <수화>가 문자 중심의 가나다 체계보다는 농인들이 익혀서 사회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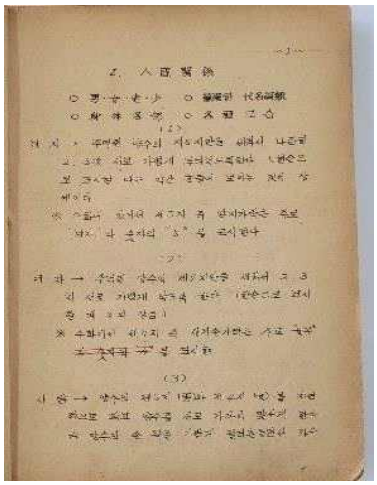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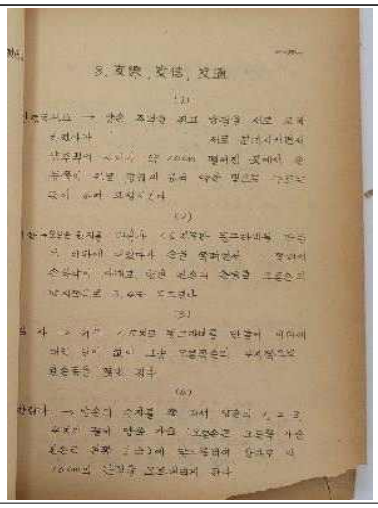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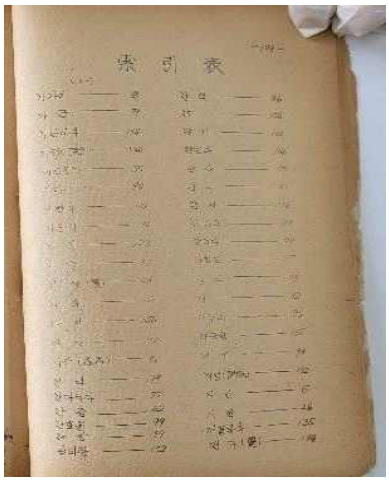
국문 지문자(자음)



국문 지문자(모음)

○ 그림으로 제시된 한글 지문자는 1946년에 국립맹아학교 교장이었던 윤백원이 창안한 것을 수록한 것임.

○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은 한글로 이루어져 있음. 예를 들면 1장 인간 관계는 남녀노소, 간단한 대명사류, 신체 각부, 각종 모습의 내용을 담은 42개의 단어를 싣고 있는데, '남자'는 "주먹 쥔 양수의 제5지만을 세워서 나란히 2,3 차 서로 가볍게 부딪치도록 한다.(한 손으로 표시할 때는 약간 흔들어 보이는 것이 상례이다) ※ 수화에 있어서 제5지 즉 엄지가락은 주로 '남자'와 숫자의 '5'를 표시한다."와 같은 식으로 어떠한 개념을 손과 손가락의 동작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농아인'은 "1. 오른손 바닥 손가락 부분 전부로 입을 막았다가 다시 귀를 막아 보인다. 2. 왼손으로는 입, 오른손으로는 귀를 각각 동시에 막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 사회적인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제8장 교제·교신·교통의 경우 '안녕하세요', '미안', '감사'와 같은 인사말과 '뉴-스' 같은 외래어, '비행기' '오토바이' 등 교통 수단 등 38개의 단어를 싣고 있음. 색인표는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ㄱㄴㄷ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단어 수는 총 1,025개임.

		
1장 인간 관계	8장 교제·교신·교통	색인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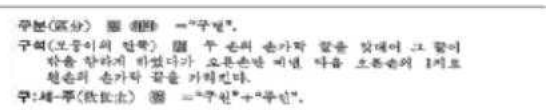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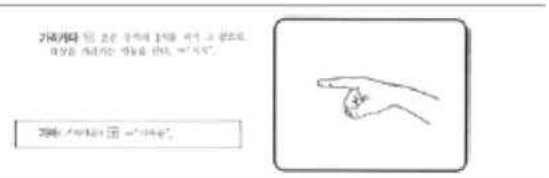
○ 이처럼 <수화>는 농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단어를 정리한 것이며, 이를 한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한글을 익힌 농인들 또는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한국의 농인 교육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제생원 맹아부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는 1945년에 국립맹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함. 국립맹아학교는 1947년에 중학과정이 설치되었고, 1959년에는 맹 교육과 농 교육이 분리되어 서울 맹학교와 서울 농아학교로 개명됨. 이후 1964년에는 서울 농아학교에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되었고, 1980년에는 유치원 과정도 신설됨. 따라서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이 실시되게 됨.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1926년에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 점자를 가르쳤으나 수화는 일본 수화를 가르쳤다고 함. 제생원 및 국립맹아학교에서는 따로 수화 교육은 하지 않았고 해방 후에는 주로 구화(口話-입 모양으로 말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식)를 가르쳤다고 함.

○ 1963년에 수화 교재인 <수화>가 편찬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 농아학교가 농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으로, 중학교에 이은 고등학교 과정 설치를 앞두고 농인들의 고유 언어인 수화를 교육 체계 내에서 가르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현재 편찬 당시의 관련 자료 등은 남아 있지 않으나, 당시 서울 농아학교장 김기용이 쓴 '서문'에 따르면 "농아교육에서 수화가 그 교육의 방법으로 사용된 지는 오래 전부터"이고, 서구 여러 나라에서 구화 교육이 권장되어 왔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교육활동의 전부를 수화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사용되는 수화를 묶어보기로 한 것"이라고 함. 이 서문에서는 수화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전은 아니며, 다만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수화를 되도록 무리없이 묶어 놓고 교육적으로도 이를 연구 검토하여 보자는 데에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수화의 습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따라서 이는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한국 농아교육의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로서 마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 시행되어, 한국 수어가 음성 언어의 종속적인 언어나 보조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농인들의 독자적인 언어 체계임이 법적으로 인정됨

○ 사전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수어 사전은 1982년에 <표준수화사전>이 시작이었으며. 이후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함께 만든 <수어사전>(2005)을 거쳐 2015년부터는 국립국어원에서 <한국 수어 사전>은 온라인(http://sldict.korean.go.kr)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화>는 이러한 사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음. 2021년 1월 현재 국립국어원 온라인 수어 사전에서는 일상생활 수어 3,827, 전문 용어 수어 10,278, 문화정보 수어 1,627개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화>에서 선정한 일상 생활 용어가 3배수 정도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번	사전/편찬기관(편찬자)	출판 연도	표제어	미시 구조
1	《표준수어사전》 표준수어사전 편찬위원회	1982	5,494개	
2	《수어사전》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3	5,966개	
3	《표준수어》 김승국	1993	5,966개	
4	《한국수어사전》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2005	6,800여 개	
5	《한국수어사전》 김삼찬 외	2005	9,818개	
6	《한국수어사전》 국립국어원 (온라인)	2015	12,793개	

〈표 1〉 국내에서 편찬된 한국수어사전

(출전 : 최혜원, 이현화, 「대한민국 수어사전의 현황과 발전 방향」『보이는 언어의 기록, 수어사전』(2018 국립국어원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8, 81-82)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수화>는 1963년 발간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 다만 두 권 중 한 권은 책 등이 일부 파손되어 있으며, 종이 지질이 좋지 않아 열화가 이루어져 만지면 부서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보존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수화>는 국립 서울 농학교 역사관에서 보존되고 있어 보존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적절한 항온항습 장치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온의 상황에 전시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캔 복사본을 전시하고 원본은 더 이상의 노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보존할 필요성도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수화>는 1982년 발간된 <표준 수화 사전>을 비롯해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표준 수어 사전>의 원형과도 같은 존재로, 농인들의 수어가 발달해 가는 변천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농인들의 언어 체계인 <수화>는 농인 자신들은 물론, 일반인 등 비농인 사회에서도 농인 문화가 재인식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농인들의 언어 체계를 정리한 <수화>와 유사한 예로,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훈맹정음>을 들 수 있음. <훈맹정음>은 1926년 제생원 맹아부 교사 박두성과 맹인 제자들이 창안한 한글 점자로, 맹인들이 한글을 익혀 지식을 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문화 자원임.

○ <수화>는 언어 체계를 새로 창안한 것은 아니고, 농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수화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나, 농인들의 수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농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농인들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자이며, 이후 수화 사전의 토대가 되는 사전적인 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또한 이러한 <수화> 와 같은 자료의 문화재 등록은 우리나라에서 소수자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음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 책자는 등사본으로서, 발간 당시의 부수는 파악되지 않아 현재 존재하는 2권 외에도 복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서울 농학교 및 기타 기관을 조사한 결과로는 위의 2권 외의 복본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책자의 제목인 <수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

1) 개요

○ 한국 최초의 수어사전으로, 1963년 1월 10일 서울농학교에서 제작, 발간되었음. 국내 최초로 수화기호를 해설한 책. 이 책은 당시 사용되던 수어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는데, 방법적·인위적·문법적 수어는 가급적 피하고 자연적 수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수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 현재 원본 2권이 서울농학교 역사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외 복본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에서 표준 수화사전이 간행된 것이 1982년으로, 이 책은 표준 수화사전이 나오기 전에 발행된 한국 최초의 수어사전으로 의미가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 한국 청각장애인의 국어의 역사는 해방이후 본격화됨. 1946년 9월에는 국립맹아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윤백원에 의해 한글 지문자가 창안. 해방 직후 일본어를 대신하여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에 따라 창안된 한글 지문자는 손가락의 배열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자음 15자, 모음 17자를 자유롭게 표현했음.
- ○ 지문자는 일종의 표음문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수어는 시각·동작에 기반해 어휘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2]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관용어의 경우에는 수어를 활용하고, 새로운 단어 등의 경우에는 지문자를 이용해 표현하고 이후 관용어가 되면 수어 어휘를 자리매김됨.
- ○ 이와 더불어서 1963년 서울 농학교에서는 수어를 교육을 활용하기 위해 『수화』를 제작, 발간했음. 『수화』는 한국 최초의 수어사전으로, 당시 사용되던 수어를 정리하여 소개했음. 수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문자화되어 있는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임. 다시 말해 1963년의 『수화』는 최초로 한국어 수어를 정리한 책자임.
- ○ 방법적·인위적·문법적 수어는 가급적 피하고 자연적 수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당시 자연적인 방식으로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수어의 사용법을 기록한 것이라 보임. 수어는 지역별로도 방언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서울지역에서 통용되던 수어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됨.
- ○ 이후 한국에서 표준 수화사전을 간행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한국표준수화사전 편찬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1979년임. 그 결과 다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82년 표준수화사전이 출판됨.
- ○ 한편, 해방 이후 1950~60년대 전반까지도 청각장애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편성되었음. 1967년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국어과와 직업교과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언어지도와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특징이었음. 1983년 제3차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일반학교와의 통합·교류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학부부터 수어를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음.
- ○ 구체적으로는 『수화』에는 어휘가 약 1,000여개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가나다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음. 주제는 인간관계, 가정생활, 학교생활, 종교생활, 직업생활, 시간생활, 처소, 위치, 수량, 정도, 교제, 교신, 교통, 자연, 보건생활, 정신적/감정적 동작, 동사, 음식과 의복, 세계각국 및 우리나라 등 총 14개의 범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음. 어휘집이기에 수어의 통사구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국립국어원의 수어 어휘수는 12,000여개임. 대부분의 어휘는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수화』에 수록된 어휘가 현재 한국 수어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여기에 수록된 어휘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수화를 표현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일상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추린 것이라 함. 또한 윤백원의 지문자 역시 『수화』에 같이 포함되어 있음.
- ○ 1963년에 수어의 어휘집이 작성된 것 역시 주목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음. 1962년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사가 무자격자가 50%이상이고, 교육을 대폭개선할 것이 논의되기도 함(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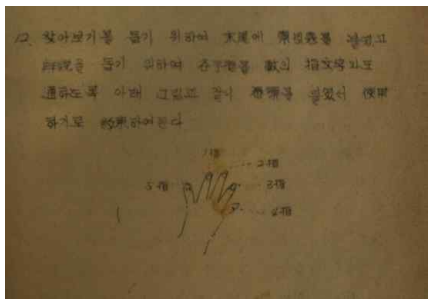
2) 전세계적으로 수어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발달했음. 한국의 수어는 일본의 수어와 유사성이 많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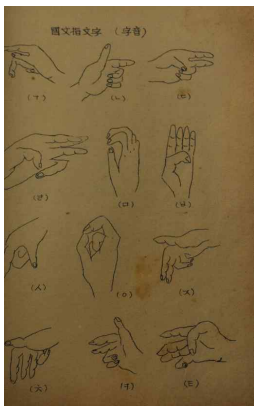
1962.7.24.). 수화 책이 간행이후 하반기에는 국제농아교육자 대회에 농학교의 교사 등이 참가해 갈로데트 농아대학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동아일보 1963.6.26.). 이후 체계적인 특수교육과정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런 책자의 간행이 기여했을 것이라 추측됨.

- ㅇ 해방이후 농학교와 맹학교가 분리되고, 농학교의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수어와 관련된 기본적 교재 정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음. 체계적인 교재와 전문적 교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던 시점임. 또한 농교육에서 수어와 구화의 대립은 지속적으로 존재했는데, 1960년대에 구화법 유일체계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구화에 비해 수어 교육이 다소 낙후[3]되어 있던 상황임. 실제로 수어를 통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당시 통용되던 수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당시 이 책자는 농학교의 교사가 참여하여 집필한 것이며, 교장인 김기용이 발간사를 작성했음.
- ㅇ 김승국(1983)[4]에 의하면 한국, 일본의 수화의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양국 간의 55.5%의 동형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의 보편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일간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라 함. 한국의 수어는 기본적으로 일본식, 미국식 수어가 도입이 되면서 습합된 형태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음.
- ㅇ 이 책은 한글로 수어의 사용법을 정리해둔 것인데, 한글을 익히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일차적으로 교재로 사용하여 직접 익히기 보다는 수어의 어휘를 정리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일종의 시각·동작에 의해 전승되던 언어표현을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한 것이고,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비청각장애인들도 수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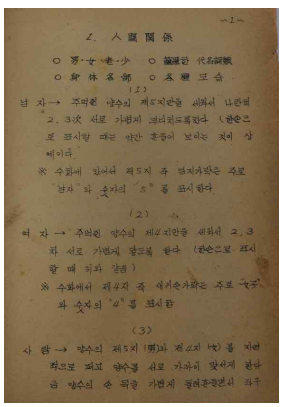


수화책 표지


손가락 위치



국문지문자



인간관계와 관련된 수화 표현

3) 구화는 입모양에 대한 훈련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며, 수어는 손과 동작을 통해 언어 표현을 습득하는 방식임. 구화는 음성문자 체계를 임모양을 훈련해 습득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이를 배우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수어의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배울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청각장애인 교육에서 구화와 수어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 공동체에서 수어사용은 단순히 기능적 특성 뿐 아니라 농문화, 청각장애인의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음.

4) 김승국(1983) 한국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 **63년 이후부터 사용되지만, 다소 변형된 어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역사

63년 자료 : 5,4지만을 편 “사람”을 나타내는 손모양을 하여 편 손가락의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양손을 맞붙였다가 왼손만을 그 모양대로 좌우로 돌려서 흔들면서 아래로 이동.

현재 : 4·5지를 펴서 세운 두 손을 마주댔다가 오른손만 약간 흔들면서 아래로 내린다.



‘역사’ 한국어수어사전(2020)

② 나

수화 2쪽(63년) : 오른손 제1지로 ‘코’ 또는 ‘가슴 중앙’을 가리킨다.

현재 :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다.



‘나’ 한국어수어사전(2020)

③ 승리 :

수화 56쪽(63년): 만세와 같은 시늉

현재 :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에 1지만 편 오른 주먹을 4지 밑면이 닿게 힘주어 올려놓는다.

○ 63년에 있지만 사라진 어휘

-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어휘들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역사적 지명이기에 사라진 것들임

① 주번생(수화 9쪽) : 좌우손 1,2,3지로 숫자 ‘7’을 만들어서 왼손은 우로, 오른손은 좌로 서로 어긋나게 스쳐지나가게 한다.

② 동화백화점(수화 83쪽) : 양손 제1,2,3지를 접어서 좌 제1지 옆에 우 제4지 옆을 올려놓고 오른손을 떼서 반대형식으로 즉 우 제1지 위에 제4지를 얹게 한다.

※ 신신백화점, 반도호텔, 수도극장, 세기극장, 국도극장, 아카에데미극장, 국일관, 한일관, 경남극장, 시공관[5] 등 건물 관련 어휘 다수 ➜ 거의 소멸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종이가 탈색이 되고 마모가 시작되고 있음. 책자가 바스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노후화가 발생하고 있음. 내용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님.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기념관 등을 마련하여 유물을 보존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보존활동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 책자를 스캔하고 원본을 유물처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수화』(1963)책자는 당시 일상에서 활발히 사용되던 수어를 집대성한 자료의 성격임. 수어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현대어에서도 어휘의 발음이 변화를 하는 것처럼 수어 역시 변화하고 있음.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어, 한국의 특수어의 변천과정과 사회사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

○ 소수집단의 특수언어에 대한 기록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에, 포용적 역사서술의 가장 기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박두성의 훈맹정음 등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체계로 『수화』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있음.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 공동체와 협력으로 만들어졌지만 박두성 개인의 역할이 컸음. 반면 『수화』(1963)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들의 집합적으로 축적되고 전승되던 비문자적 언어활동을 활자로 기록한 것임. 또한 고유의 문화를 처음으로 활자화해서, 비청각장애인들도 이 언어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매체로 기능했음.

○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의 고유한 언어체계로 이것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이기에, 청각장애인의 언어생활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책자라고 볼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수화』(1963)는 한국 청각장애인의 언어생활이 최초로 기록된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언어생활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 이는 특수언어학적 자료, 소수자의 역사, 특수교육의 역사적, 사회언어의 역사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음.

○ 한국에서는 수어는 「한국수화언어법」에 의해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되어 있고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정의되어 있음. 『수화』는 이런 고유한 언어를 최초로 기록한 사전적 성격의 책자임.

- 본 책자는 특수언어의 기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수화에 대한 기록과 윤백원이 창제한 지문자가 공히 같이 수록되어 있음. 지문자 역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고 볼 수 있음.

○ 수어는 명실공히 청각장애인의 대표적인 언어임. 2019년 당시 청각장애인 등록장애인은 398,000(통계청)명이라고 하는데, 2017년 이루어진 ‘한국수어 사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수어’라고 응답한 농인은 69.3%로 조사되었음.

---

5) 당시 대중문화가 라디오와 영화가 중요했는데, 영화관 등이 다수 언급되는 것은 라디오에서 소외되었을 청각장애인들의 문화이용을 보여주는 것임.

○ 농인의 제1언어는 명실공히 ‘수어’라고 볼 수 있음. 이런 농인의 대표적인 언어에 대한 최초로 활자화된 기록이 『수화』(1963) 책자임.
  - 이는 소수자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포용적 역사서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소수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전승해나간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
○ 특수교육의 역사와 농문화의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의 정체성과 농교육의 변화과정을 알려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청각장애인의 교육은 현재도 수어와 구어가 이중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수어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디딤돌이 되었던 책자라고 볼 수 있음. 일반 사회와의 동화가 보다 용이한 구화에 비해, 수어는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농문화의 핵심적인 언어문화로 인식이 되고 있음. 이 책자는 이전까지는 동작의 전수를 관습적으로 습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문자화/활자화 했다는 것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음.
○ 당시의 사회언어학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해방 이후 어떤 어휘가 일상언어로 사용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 또한 당시 사용되다 현재 사라진 어휘를 통해 당시의 언어습관과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음.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수화』는 청각장애인 최초의 사전적 성격의 책자라고 볼 수 있음. 집필진들은 이것이 체계적인 사전이 아니기에 사전이 아니라고 서술했지만,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어휘를 주제중심적으로 작성한 사전적 성격을 갖고 있음. 현재 수화의 법적 명칭은 수어이지만, 이것은 책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명칭은 『수화』를 추천함.

<○○○○○ ○○○>

1) 개요

○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시켜 오늘날의 문화·문명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언어와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과 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동의 결과임.
○ 그러나 언어와 문자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함.
○ 말은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며, 시간적으로 오늘 말한 것을 내일 다시 들을 수 없는 애로점이 있음.
○ 문자도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말과 문자는 의사소통의 대상이 한 명의 사람과 다른 한 명의 사람의 좁은 범위였었음.
○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은 수많은 노력을 해 왔음.
○ 말의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곧 문자임.
○ 말은 청각적 기호이며 문자는 시각적 기호임.
○ 말의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발명한 도구가 곧 확성기 및 전화기임.
○ 말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달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곧 라디오임.
○ 문자의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곧 팩스임.

○ 문자를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곧 책이며,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문, 잡지 등임.
○ 말만으로, 또한 문자만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한 가지 의견을 말과 문자와 그림으로 전달하려는 욕구가 발생함.
○ 시인들이 시집을 출간하고도 시낭송회, 시화전을 개최하는 것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모든 미디어 방식을 다 동원하여 시인의 시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
○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각적인 말의 소리와 시각적인 문자를 동시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화상으로까지 전달하는 멀티미디어 방식의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 텔레비전(TV)임.
○ 그러나 텔레비전은 그 전달방식이 일방적이어서 의사소통의 다방면은 폐쇄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이 곧 인터넷을 통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방식임.
○ 이처럼 인간의 의사소통의 방식의 변화를 계속 추구하여 반영하여 온 결과가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간의 문화 문명은 가속적으로 발달하여 가고 있음.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언어적 약자들이 있음
○ 그들은 곧 시각적 청각적으로 전달하는 말과 문자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전달 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함.
○ 동일한 인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에 어긋나는 일임.
○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의사소통의 방법과 도구를 창안하고 보급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
○ 그것은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시각 장애인들이나 청각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 최근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의사소통의 도구인 훈맹정음을 비롯한 각종 점자 관련 자료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매우 훌륭한 국가적 조치라고 생각함.
○ 그러나 아직도 청각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의사소통의 도구인 '수화사전'(수어사전)을 창안하여 그것을 보급하고 또 그렇게 노력한 일에 대해서는 그러한 국가적 조치가 없었음.
○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문자로 볼 수 있는 수어를 수집하여 이를 농아인들의 교육에 활용해 온 수화사전이 발견되었음.
○ 이 수화사전을 통해 수화사전을 만든 동기, 그 방법과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여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최근에 그 자료를 찾아 문화재 등록의 충분 조건을 갖춘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기술한 내용에 근거한 것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수화' 2책은 국립서울농학교 소장본으로 1963년에 제작된 책임.
○ 이 책은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어 수화사전의 최초의 것으로 보임.
○ 이 책은 세로 21.2cm, 가로 15.2cm인 책임.

○ 동일한 책이 두 책이 있는데, 책1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지만, 책2는 약간의 훼손이 있는 편임. 그러나 내용 파악에는 지장이 없는 편임.
○ 이 책은 필경사(筆耕師)가 철필로 등사원지를 등사판에 대고 써서 롤러로 밀어 인쇄한 책으로 소위 필경본임. 이 필경본도 현재는 매우 귀한 책이 되고 있을 정도로 드문 책으로 생각함.
○ 지질은 양지(洋紙)임.
○ 표지 제목은 '수화'이고 발간 주체는 '서울농아학교'임.
○ 별도의 판권지 등은 없음. 이것은 판매용으로 편찬 간행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임.
○ 모두 217쪽임.
○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目次
序文
國文指文字
基本數의 指文字
一般的 手話
1. 人間關係 (男女老少 代名詞 身體各部 等)
2. 家庭生活
3. 學校生活
4. 宗教生活
5. 職場生活 (職場, 機關도 包含)
6. 時間生活 (時間, 歲月, 節季)
7. 處所, 位置, 數量, 程度
8. 交際, 交信, 交通
9. 自然 (色調, 動・植物 包含)
10. 保健生活 (病院, 衛生, 運動訓練(口令))
11. 精神的, 感情的 動作 (若干의 各種名詞, 形容詞, 其他를 包含)
12. 動詞
13. 飮食과 衣服
14. 世界各國 및 우리나라(附 서울特別市)
英文指文字
索引表
編輯後記

○ 서문은 1963년 1월 10일에 서울농아학교 교장 김기용(金基容)이 썼음.
○ 이 서문에 이 책의 편찬의도가 기록되어 있음.
○ 이 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음.
① 농아 교육에서 수화가 교육방법으로 사용된 역사가 오래됨.
② 그러나 구화(口話)와 수화(手話)의 방법과 선택에 논쟁이 있었음.
③ 구화교육의 폐단이 우려됨.
④ 현실적으로 농아교육에서는 수화를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
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화를 묶어 보기로 함.
⑥ 이 책은 수화의 사전이나 수화법을 규정하는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수화를 묶어 교육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자는 의도가 있고 동시에 이 수화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내용에 의하면 이 당시에 口話와 手話 교육 방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구화 교육의 병폐를 막고 수화 교육을 정상적인 교육 방법으로 채택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음.
○ 범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수록 단어 : 대체로 국민학교 저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화로 표현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선택함.
② 지문자(指文字)는 서울농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윤백원(尹伯元) 선생님이 창안한 것으로 현재(1963년 당시)도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③ 그러나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지문자와는 7개(ㄱ, ㅅ, ㅇ, ㅋ, ㅖ, ㅞ, ㅟ)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은 오늘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이희선, 2005, 한국 기초수화교재 비교 분석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④ 우리나라 수화는 구미의 것과는 다른, 일본의 수화와 흡사한 것이 많음.
⑤ 이 책은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호적 방법을 묶은 것임.
⑥ 분류는 실용할 목적으로 한 것임.
⑦ 문법적인 것은 손을 대지 않음.
⑧ 참고로 한 문헌은 서양의 두 책임(책제목 생략).
○ 指文字는 다음의 특징을 보임.
① 國文指文字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고 손의 그림으로 표시하였음.
② 자음 글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과 ㅆ 이 있음.
그러나 ㄲ, ㄸ, ㅃ, ㅉ 이 보이지 않음.
③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ㅖ ㅖ, ㅚ, ㅟ, ㅢ, 의 17개임.
그러나 ‘ㅘ, ㅝ ’등은 없음
④ 數의 지문자는 1-10, 100, 1000, 만, 억, 조로 이루어져 있음.
⑤ 영문 지문자는 A -Z 그리고 &가 있음.
○ 이 수화사전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분류	어휘수
1	인간관계	42
2	가정생활	47
3	학교생활	71
4	종교생활	47
5	직업생활	35
6	시간생활	61
7	처소 위치 정도 수량	61
8	교제 교신 교통	38
9	자연	79
10	보건생활	58
11	정신적 감정적 동작	146
12	동사	56
13	음식과 의복	85
14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	67
15	附(부) 서울특별시	63
	총계	956

○ 이 956개의 어휘는 일반 언어생활자들에게는 소위 국어의 기초어휘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로 생활과 연관된 생활어휘임을 금새 알 수 있음. 따라서 이 어휘들은 농아인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기초어휘들은 언어학자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한 수많은 말뭉치(corpus)를 통해 이들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어 결정하지만, 농아인들에게는 그러한 조사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농아인들이 늘 사용하는 수화를 눈여겨만 보아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화들의 어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이 수화사전의 목록을 보면 이 수화사전이 농아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파악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됨.
○ 뒤에 색인표가 있는데, '가-하'까지 되어 있음.

항목	갯수	항목	갯수
가	172	아	171
나	50	자	110
다	72	차	46
라	7	카	9
마	66	타	17
바	84	파	16
사	144	하	54
계			1,018

○ 앞의 목록에서는 그 숫자가 956개인데 비해 색인표에서는 1,018개가 된 것은 수화사전에서 복합적으로 설명한 것은 따로 떼어 색인표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임.
○ 편집후기에서 눈여겨 볼 내용이 있음.
○ 그것은 '처음 試圖하는 일이니만큼 서투른 점이 많았고'의 '처음 시도하는 일이니만큼'임.
○ 이 기술은 편찬자들이 이때까지 수화사전을 본 적이 없어서 이 편찬자들이 1963년에 처음 시도한다는 내용임.
○ 이것은 곧 이 책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화사전임을 증명하는 것임.
○ 이 수화사전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음.
① 指文字는 손그림으로 표시하였음.
② 手話는 표제어를 주로 단어로 하였고 가끔 관용어도 보임(예: 안녕하세요 등).
③ 기본단위는 단어인데, 명사가 많고 용언은 적은 편임. 이것은 손으로 표시하기 쉬운 시늉말은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임.
④ 수화의 언어도 합성어가 있음.
예) 천막 -> '천, 옷깃'의 표시 + 집
바ㄴ구ㄹ -> '쇠' 표시 + 바느질하는 시늉
⑤ 명사와 동사를 연계시킨 것이 있음.
밝다 -> '낮'과 같음.
어둡다 -> '밤'과 같음.
이것은 '밤'의 의미와 '낮'의 의미까지도 설명한 것임. 또한 이 설명은 이 사전이 수어사전이면서 동시에 수화사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임

⑥ 후대의 수화사전(예컨대 국립국어원의 사전)에서는 손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 수화사전에서는 그림이 없음. 이것은 그 당시의 인쇄기술 등으로 보아, 특히 필경으로는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시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⑦ 단어에는 외래어도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이 책제목이 '수화'인데, '수어'라고 하지 않은 이유

- '수어(手語)'와 '수화(手話)'의 '語'와 '話'는 곧잘 혼용되어 왔음. 예컨대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1895년에 편찬된 대역어휘사전인 '국한회어(國漢會語)'는 초기에는 '國漢會話'라고 했다가 '國漢會語'로 수정한 것임

○ 사전인가 단순히 수어모음인가의 문제

- 어휘를 모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고 어휘를 표제어로 하여 이에 풀이말을 붙인 것이 사전임. 따라서 이 수화사전도 단순히 수화를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생활영역별로 어휘를 분류하였고, 일정한 표제항과 풀이말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당연히 사전이라고 할 것임.

○ 사전의 표제어 분류방식

- 이 책에는 표제어의 배열방식이 현대의 언어사전과 마찬가지로 표제어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人間關係, 家庭生活, 學校生活, 宗敎生活, 職場生活' 등처럼 생활양식에 따라 분류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사전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의미영역별로 분류하고 배열하는 방식이 더 전통적인 방식이었음.

○ '사전'이란 어휘는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어휘이고 이전에는 이들을 '보(譜)' 또는 '유서(類書)'라고 하였음.

○ 그리하여 '재물보(才物譜)'나 대부분의 유서에서는 의미영역별로 분류하여 천문, 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이 속에 배분하여 넣었음.

○ '수화'의 분류방식은 어느 한 행위의 범위 안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임. 예컨대 '밤'과 '낮'을 자모순으로 배열하면 전혀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따로 찾아내어야 하지만, 같은 부류 속에 배치되어 있으면 연관성이 있어서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동일한 부류 속에 배열된 단어들은 빈도수가 많은 단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하여 예컨대 인간관계에서는 '남자, 여자, 사람, 결혼, 소년, 소녀, 청년 노인・늙은이, 어린이・애기, 어른, 신사'등으로 시작하여 '피, 뼈, 살'로 끝남.

○ 이 수화사전이 오늘날의 수화사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의 가장 방대하고 또한 정부에서 노력하여 편찬한 『한국수화사전』(한국표준수화 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편찬,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간행, 2005)과 비교하여 보았음.

○ 각 분야별로 한 예씩 뽑아 비교하였음.

○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분류	단어	수화	한국수화사전	차이
인간관계	남자	주먹 쥔 양수의 제5지만을 세워서 나란히 2,3차 서로 가볍게 부딪치도록 한다. (한 손으로 표시할 때에는 약간 흔들어 보이는 것이 상례이다).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5지 옆면을 두 번 댔다 뗀다.	동일

분류	단어	수화	한국수화사전	차이
인간관계	여자	주먹 쥔 양수의 제4지만을 세워서 2,3차 서로 가볍게 닿도록 한다. (한손으로 표시할 때 위와 같음)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두 번 마주 댔다 뗀다.	동일
가정생활	아버지	오른손 제1지로 코 옆을 위에서 아래로 슬쩍 스치고 나서 1지로 꼬부리고 5지를 세워서 내민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동일
학교생활	학교	양수를 쭉 펴서 양손의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고 손가락 끝이 비스듬히 위를 향하게 하되, 좌의 거리와 얼굴 좌우의 거리가 각각 10-20cm 가량 떨어지게 한 다음 양손 전체를 전후로 약간 흔들어 보인다.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앞에 세워 한 번 당긴다.	유사
종교생활	목사	오른손의 1지를 펴서 이(齒)를 가리킨 후 오른쪽 귀윗 머릿 부분을 가리킨 후 1지를 접고 5지를 세워서 힘있게 면전에서 나타내 보임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을 입 오른쪽에 댔다가 이마 오른쪽에 댄 다음, 약간 위로 올리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세운다.	유사
직업생활	대통령	오른손의 1,2,3,4지로 뒷목을 치고 남자라는 수화를 한다.	오른 손바닥을 목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세워 약간 위로 내민다.	동일
시간생활	시계	왼손 손바닥 중심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오른손의 1,2,3,4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돌려 내려서 시계바늘이 가는 표시를 한다.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왼 주먹으로 손목 등에 올려 놓는다.	상이
처소 위치 정도 수량	곳(장소)	오른손에 마치 밥공기를 쥔 듯이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고 손가락이 약간 꾸부러진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다가 급정거한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유사
교제 교신 교통	안 녕하세요	양손 주먹을 쥐고 양팔을 서로 교차하였다가 서로 분리시키면서 양 주먹의 사이가 약 10cm 벌어진 곳에서 손등 쪽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밑으로 누르는 듯이 하여 고정시킨다.	두 주먹을 쥐고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아래로 내린다.	동일
자연	색깔	오른손 5지 끝으로 턱밑을 고이고 1,2,3,4지 끝을 턱 앞에 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 턱에 대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동일
보건생활	약	왼손의 손바닥 중앙부를 오른손의 2지 끝부분으로 눌렀다 당겼다 한다.	오른손의 2지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전후로 두 번 문지른다.	상이
정신적 감정적 동작	생각	1지만 반 가량 펴서 그 끝을 옆머리에 대고 구멍을 뚫듯이 약간 움직인다.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바닥을 코에 대고 상하로 비스듬히 움직인다.	상이
동사	한다	오른손 주먹으로 왼팔목 위를 2,3차 두드린다.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두 번 두드린다.	유사
음식과 의복	포도	좌우 양손의 1,5지로 동그라미를 만든 후 손톱끝이 서로 맞닿게 한 다음 양손을 반대쪽으로 상하로 번갈아 약간 서너번 부딪쳐 움직이게 할 것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동일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	동양	오른손 제1지로 코를 가벼이 눌러 보인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콧등을 스쳐 코 아래로 내린다.	동일

○ 이상을 비교하여 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 수화사전이 후대의 수화 사전의 모태가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관리만 잘 하면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지(韓紙)가 아닌 양지(洋紙)이어서 산화(酸化)의 위험이 있으니,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차광을 통하여 잘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 '수화'는 국립서울농학교에 보관되어 있고, 또 그곳에는 자료실이 별도로 잘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 이하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 자료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어서 보존 관리 여건이 잘 되어 있는 편임.

○ 뿐만 아니라 이 '수화'가 수화의 발생지로 추정되는 국립서울농학교에 보존되어 있어서 더욱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아자들을 위한 수화 통역이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수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때임.

○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초로 편찬된 수화사전인 '수화'를 출판하여 농아자들에게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육에 이용하여 새로운 문화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 선인들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업적이 등장하게 된 과정과 배경, 방법 등을 후대에 계속 전하기 위해 유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문자가 없는 국민들, 즉 그 당시로서는 문자 약자들에게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창제한 세종대왕을 널리 기릴 뿐만 아니라, 그 문자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로 지정하였고(국보 제70호),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며, 또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업적들이 나오고 있는 현대에 최근에 한글 문자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에게 훈민정음과 다를 바 없는 '훈맹정음'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그 문화적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도구인 '수화'를 수집하고 또 만들어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고 있는 수화사전인 '수화'를 역시 문화재로 등록하여 동일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그리하여 농아자들을 위한 수화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여져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

7) 등록가치의견

○ 인간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발명하거나 창안한 사람들과 그 도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들 도구들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것을 창안한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음.

○ 그리하여 최초의 전화기, 텔레비전, 한글 타자기, 컴퓨터 등을 중요한 문화재로 등록하여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또한 더 나은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널리 그 업적을 선양하고 있음.
○ 그러나 언어적 약자인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해 왔었음.
○ 점자의 발명이나 수화의 발명 또는 창안이나 정리 등은 전화기, 라디오, 한글 타자기 등의 발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1963년에 편찬되어 간행된 '수화'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수화사전임.
○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책은 몇 부가 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국립서울농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필경본 '수화' 2책이 유일한 것으로 보임.
○ 이 '수화'는 검토해 본 결과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화사전' 내용의 상당수의 바탕이 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수화'의 발간 의미, 역사적 가치, 희귀성 등을 고려해 보면 다른 언어 소통의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발전시킬 충분한 가치가 있음.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로 지정할 때의 명칭 문제
○ 문화재 명칭을 단순히 '수화'라고 하였을 때, 보통명사인 '수화'와 고유명사인 문헌인 '수화'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그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우리나라 최초의 수화사전 '수화'

<○○○○○○ ○○○>

1) 개요

○ <수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手語)***기호를 해설한 책자의 명칭임.

* 음성 대신 손의 움직임을 포함한 신체적 신호를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시각언어로서 손가락이나 팔로 그리는 모양, 그 위치나 이동, 표정이나 입술의 움직임 등을 종합하여 행해짐.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자연언어에 속하므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이 존재하며 음성언어의 모국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자연 습득됨. 수어는 보통 농인들에 의해 사용되며,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청인(聽人)이 배워서 사용하기도 함..청인과 농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가 존재함. 음성한국어는 한국인 농인에게 외국어임. 몇몇 나라에서는 농문화에 속한 이들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어를 공용어로 정하기도 함. 한국도 2016년 2월 3일 공포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가 2016년 8월 4일부터 (한국어의 뒤를 이어) 2번째 법정 공용어가 됨.

○ **농인(聾人)***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手語)나 구어(口語)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해 왔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옴. 예전에는 농아(聾啞)라고 표현되었으며, 현재는 병리적이 관점에서 칭하는 청각장애인이 아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聾人)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서서히 정착되어가고 있음.

* 말 그대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농아(聾啞)'라는 표현도 있는데, '聾(귀머거리 농)'은 듣지 못하는 사람, '啞(벙어리 아)'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함.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청각에만 문제가 있으면 농인이라 부르기도 하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보통 농아인을 줄여서 농인(聾人)이라 함.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聾人)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대개의 법령들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2019년 기준 국내 377,094명이 있음.

○ 농인(聾人)에 대한 교육은 구미제국(歐美諸國)에서 농학교 교육이 제도화된지 약 1세기 후인 1880년경 자선적 구제기를 거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개화기에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함. 1894년 평양에 국내 최초의 맹학교인 평양여맹학교를 설립한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로제타셔우드홀 여사는 청각장애아 교육을 위해 조선인 이익민을 중국의 농학교에 파견하여 농교육 방법을 연수케 함. 연수를 마친 이익민은 귀국 후 평양여맹학교에서 본격적인 농교육에 착수하였으며, 이로부터 수어가 교육에서 활용, 발전되어 감. 그러나 당시 어떤 수어가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1913년 일제치하 조선총독부 제생원(濟生院)에 맹아부(盲啞部를) 두었던 것이 광복과 더불어 국립맹아학교(國立盲啞學校)로 개칭, 오늘의 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의 모체가 됨. 1913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제생원(후에 국립서울농학교의 전신이 됨)에서 청각장애아 교육이 본격화됨. 당시 제생원에서는 일본수어를 사용하는 등 조선인 청각장애아를 위한 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음. 당시 제생원에서는 입학과정에서부터 구화반과 수화반으로 나뉘었으며, 특히 농학생을 평가할 때 복도를 걷게 한 후 음성으로“좌” 혹은 “우”를 말하면 학생이 좌측 혹은 우측으로 제대로 걷는지에 따라, 그리고 음성언어로 대화 시 발음 정도에 따라 소리의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1학년 1반으로 배정하는 식이었으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인지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1학년 2반으로 배정하여 수화언어로 교육을 시행함. 이외에도 조선총독부의 내부 국장직을 겸임한 일본인이 해방 직전까지 제생원 원장까지 맡아 운영하면서 “세계 어느 농학교의 교육방법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수어교육을 지향하다가 구어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일본수어와 일본식 농교육을 도입하여 철저한 식민지 교육”이 시행되었음. 이때부터 한국수어는 사회의 혼란과 무관심 속에서도 상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농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됨.

○ 1935년에는 이창호 목사가 평양에 개교한 평양광명맹아학원에서 한국수어를 지도하며 농학생들을 가르침. 당시 제생원에서는 수어교육뿐만 아니라 청능교육 및 언어교육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때 청능기기와 일본식 발성지도 방법을 농학생에게 도입하였고, 수어법 위주로 지도하다가 후에는 구어(口語)와 함께 이중언어를 지도해 나갔다고 함.

○ 해방 이후 제생원은 국립맹아학교로 개편되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59년 시각과 청각을 나누어 청각장애학교로 분리 독립, 현재 서울농학교로 이어지고 있음.

○ 1946년 9월에는 국립맹아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윤백원에 의해 한글 지문자가 창안되었으며, 해방 직후 일본어를 대신하여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에 따라 창안된 한글지문자는 손가락의 배열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자음 15자, 모음 17자를 자유롭게 표현하게 됨. 이와 더불어서 1963년 서울농학교에서는 수어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수화>를 제작, 발간함에 이르게 됨.

○ 1960년대 당시에도 농교육은 수어방식보다 날로 구어교육을 지향하는 향하는 시기였음. 실제 교육활동의 전부를 수어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실정임. 농학생들 상호간은 물론 농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의사소통 방식은 거의 수어를 소개하고 있음.

○ 당시 서울농학교는 구어교육 도입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구어교육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언어적 활동을 보면 전부 수어에 의존하고 있는 농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함.

○ <수화>는 수어사전이나 수어법을 설명한 것이라기보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수어를 되도록 무리 없이 묶어 놓아 교육적으로 이를 연구 검토하여 보자는 것에 의의를 두고 수어습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의 습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만들어짐.

○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수어기호를 해설한 책자로서 교육현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준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임.

○ 2016년 2월3일 제정되어 동년 8월 4일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우리나라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힘. 이 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한국수어의 언어적 가치가 인정되는 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수어서적인 <수화>는 역사적으로 귀중한 사료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당시 사용되던 수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 방법적·인위적·문법적 수어는 가급적으로 피하였으며, 자연적 수어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음. 수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 이 책의 특징임.

○ 이 책의 명칭을 <수화>라 표현함은 편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함임. 수록된 단어는 대체로 그 당시의 초등학교(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수어로 표현하기에 무리 없는 것을 선택한 외에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아쉬운 단어를 추려서 보충하였으며, 책자에 첨부되어있는 한글지문자는 윤백원 선생의 창안에 의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수어는 대체로 일본의 그것과 합의한 것이 많다고 보고, 프랑스 전통 농교육(교과목을 교사가 수화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통해 퍼진 미국의 농교육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봄. 그러나 참고로 영어 알파벳지문자 즉 [메뉴얼 알파벳]만을 첨부함.

○ <수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글지문자(한글지화). 숫자지문자(지숫자). 자연적 내지 상징적(회화적, 묘사적)수화 등으로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호적 방법을 모두 한데 묶어 놓았으며, 방법적 인위적 문법적 수화는 되도록 넣지 않음. 단어들을 보면 원형(현재적) 또는 명사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번호는 단어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번호를 붙임.

○ 분류에 있어서도 모순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당시의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 현실을 중심으로 하여 방법적으로만이 다룰 수 없기에 절충하여 실용화하기 위해 시도하였음.

○ 수(數)에 있어서는 기본수자표와 수량도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필 수 있게 두 부분으로 함.

○ 그 당시 농학교에 재직중인 농교사들도 참여하여 담당하였으므로 비교적 정확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해설'에 미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였으며, 애매한 것과 문법적인 면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수록된 내용들은 주로 학교생활과 농성인들이 사용하는 **협회수어***나 표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담아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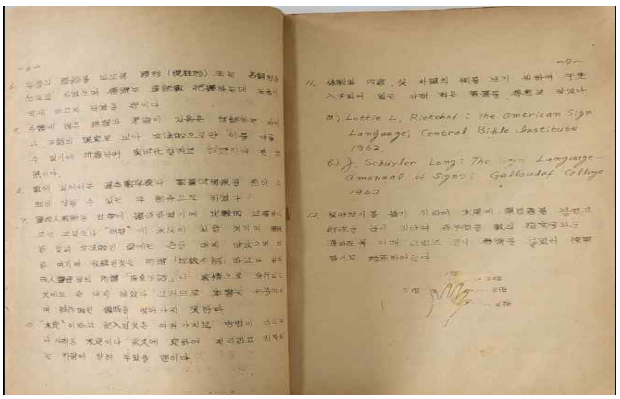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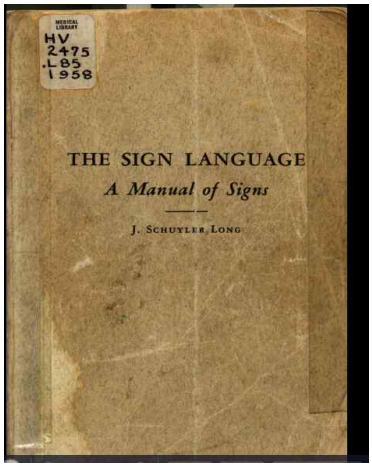
* 농인의 권익옹호,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현을 지원하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정책건의 및 농아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단체임. 1948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인을 조직하여 자조자립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농아협회(현, 한국농아인협회)가 창립됨.

○ 내용 가운데 미정(味定)이라고 적은 것은 여러 가지로 방법이 다르거나 아직은 미정이나 미구(未久)에 정하여질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표시해둔 것이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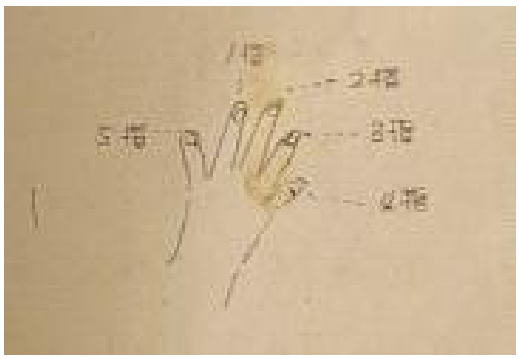
○ 체제와 내용 및 외국의 예를 보기 위하여 당시 입수한 아래에 적은 저서를 참고로 하였음.

① Lottie L, Riekehof :The American Sign Language ; Central Bible Institute, 1962.

② Schuyler Long ; The Sign Language - manual of Signs ; Gallaudef College, 1962.

	
<수화> 6, 7쪽 (7쪽에 참고문헌이 적혀있음)	② Schuyler Long ; The Sign Language - manual of Signs ; Gallaudef College, 1962.

○ 찾아보기를 돕기 위하여 말미에 색인표를 붙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수지를 수의 지문자와 통하도록 다섯 손가락에 번호를 붙여서 사용함.

<각 수지의 번호표시> ● 5지 (엄지손가락) ● 1지 (둘째손가락) ● 2지 (세째손가락) ● 3지 (네째손가락) ● 4지 (새끼손가락)	

○ <수화> 내용에 수록된 어휘들 (1) 1963년에 있지만 사라진 어휘들, (2) 그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로 사용되는 어휘들, (3) 그 이후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다소 변형된 어휘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1) 1963년 <수화>에 있으나 사라진 어휘들

< 수 화 > 1963			
1	p.12	**보통사범과**	보통사범과는 1964년 제10회 20명 졸업 후 폐지됨. (국립서울농학교100년사(2013) p.123)
			*<수화>책자 외에 각종 수어사전에서 '보통사범과'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음.
2	p.83	**신신백화점 • 종로(화신) 백화점**	1955년에는 종로1가에 신신백화점을 개점후 1980년대에 화신백화점을 운영하던 화신그룹이 모두 해체됨.
			*<수화>책자 외에 각종 수어사전에서 '신신.종로(화신)백화점'단어는 찾아볼 수 없음.
3	p.83	**미도파**	1933년 일제강점기에 조지야(丁子屋)백화점으로 일본인에 의해 세워져 2002년 롯데에 넘어가 2003년 롯데미도파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해오다가 2013년 롯데쇼핑과 합병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
			*<수화>책자 외에 각종 수어사전에서 '미도파'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음.
4	p.83	**동화백화점**	1930년 10월 24일 개업한 미쓰코시 경성점을 그 시초로 하며, 해방 이후 동화백화점(東和百貨店)으로 영업하다가, 1963년에 삼성그룹으로 흡수되어 상호를 신세계백화점으로 바꿈.
			*<수화>책자 외에 각종 수어사전에서 '동화백화점' 단어는 찾아볼수 없음.
5	p.84	**한일관**	***현존**하고 있으나 <수화>책자 외에 각종 수어사전에서 '한일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음.
6	p.84	**국일관**	***현존**하고 있으나 <수화>책자 외에 각종 수어사전에서 '국일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음.
7	p.85	**시공관**	시공관(市公館)은 1936년에 일본인 이시바시 [石橋良祐] 가 세운 극장으로, 주로 일본영화를 상영함. 광복 후 동안은 일본의 소유로써 국제극장(國際劇場)으로 불리었고 후에 서울시가 접수하여 시공관으로 개칭함.
			***현존**하고 있으나 <수화>책자 외에 각종 수어사전에서 '시공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음.
* 사라진 어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음.			

(2) 1963년 이후 <수화>에 있는 단어와 비슷한 형태로 사용되는 어휘들

	수화 1963		표준수화사전 1982		한국수화사전 2005		손말사전(북한) 2005		일본수화사전 2006	
	페이지	단어	페이지	단어	페이지	단어	페이지	단어	페이지	단어
1	9	교사(선생님)	119	교사(선생님)	.233	교사	*	*	273	先生
2	9	학교	1259	학교	1978	학교	629	학교	112	學校
3	14	공부	199	공부	77	공부	116	공부	436	勉强
4	15	시험	677	시험	85	시험	453	시험	210	試驗
5	50	생각	571	생각	971	생각	467	생각	124	考える
6	51	희망	1394	희망	2143	희망	662	희망	138	希望
7	74	독일	257	독일	488	독일	227	도이췰란드	549	ドイツ
8	82	창경원	1071	창경원	1723	창경궁	*	*	*	*
* 일본수화에서 빨간색으로 된 표시는 수화동작이 다름을 의미함.										

(3) 1963년 <수화>에 있으나 이후 다소 변형된 어휘들

	수화 1963		표준수화사전 1982		한국수화사전 2005		손말사전(북한) 2005		일본수화사전 2005	
	p	단어	p	단어	p	단어	p	단어	p	단어
1	45	병원 적십자+집	471	병원 오른손끝으로 왼손등 청진기대듯이 치는시늉+집	814	병원 오른손가락 1, 지끝으로 왼손등을 치는 동작+집	356	병원 오른손끝으로 왼손등 청진기 대듯치는 시늉+오른손 펴서 손마디 모두 경사지게 벌린다.	412	病院 한손으로 다른 한손의 손목에 진맥을보는동작을 한 후+ 건물 모양 그려준다.
2	20	보건사회부 (오른손 엄지손배에대고 '배부르다'+ 책임 수화)	472	보건사회부 오른손 엄지손배에 대고 배부르다+양손 책임 수화	815	보건복지부 건강+몸+영양+책임(한손으로)	*	* *	NHK 手話 CG	厚生勞動省 양손1지만펴서 동시에 한손은 一자모양, 몸앞에놓고 다른한손으로↙모양을 그려주며 내려준후+"일하다"+양손펴서오른쪽 어깨위치에 세운 상태로 엇갈리게 스쳐준다.

3	6	변소 ①.오른손 1,2,3지 펴서 그 끝이 아래로 향한 후 아랫배에서 손등쪽으로 3.4차약간내어젓는다. ②용변 끝난후 손씻는 시늉	467	변소 영어알파벳을 각각 나타내 준다. W+C	2090	화장실 한손1,5지로 C모양,2,3.4지로 W자를 동시에 나타내 준다.	353	변소 오른손 구부린 손끝을 가슴쪽에 댄후 스쳐 내리면서 손가락을 아래로 경사지게 펴준다.	337 338	トイレ ① 손씻는 동작 ② 한손1,5지로 C모양,2,3.4지로 W자를 동시에 나타내 준다.
4	56	승리 만세와 같은 시늉	664	승리 1지만 편 왼주먹 위에 역시 1지만 편 오른손을 힘있게 올려놓은 다음 5지만 세운 주먹을 위로 올린다.	176	이기다 (승리) 주먹쥔 양손5지만 펴서 나란히 세웠다가 오른손을 위로 올린다.	449	승리 오른손주먹쥐고 첫째손가락을 펴서 위로 올린다.	111	勝つ 양손주먹쥔손 엄지손가락만 펴고 붙인상태에서 한쪽을 눌러주는 동작.
5	83	동대문 붉다+양손1지로 지붕모양그린다)	262	동대문 東+양손1지만 펴서마주하여 기와지붕모양(궁궐)을 그리며 아래로 내린다.	501	동대문 한손ㄷ자 지문자를 한 상태에서 다른한손으로는 기와지붕모양(궁궐)나타냄	*	*	*	*
6	1	노인 • 늙은이 오른손1지끝으로 이마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지나게 한 후+양손으로 '사람' 수화	203	노인 오른손 펴서 5지 턱에대고 1.2.3.4지를 반회전 시킨후+ 양손으로 '사람' 수화	398	노인 오른손 펴서 5지를 턱에 대고 1.2.3.4지를 반회전 시킨 후+ 양손으로 '사람' 수화	200	늙다+사람 주먹쥔 오른손 1지만펴서 왼쪽이마에서 오른쪽이마로 스쳐준 후+ 한손으로 '사람' 수화	514	老人 주먹쥔 한손 5지만 펴서 구부리고 꼬부랑모습으로 움직여주는 동작(5지(남자)/4지(여자)
7	83	서대문 희다+양손1지로 지붕모양그림	578	서대문 西+양손1지만펴서 아래로↙↘모양으로 내려준다.	982	서대문 西+양손1지끝을 구부리고 마주댄후 기와지붕을 그리며 내린다.	*	* *		* *
8	78	신의주 오른손전체 약간구부려서 편후 머리위 5cm 위에 세우고 손바닥이 전면을 향하게 한 후 왼손 주먹등을 오른손 팔굽밑	687	신의주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 팔꿈치를 올려놓고 손가락을 반쯤 구부려 손목을 돌리고+ 장소 수화를 해준다.	1155	신의주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 팔꿈치를 올려놓고 손가락을 반쯤 구부려 손목을 돌리고+ 장소 수화를 해준다.	460	신의주 오른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워 펴서 손가락 끝을 벌린 다음 그 자리에서 팔목을 놀려 손바닥 윗모서리와 아래	*	* *

		에 붙이고 오른손 손목을 왼쪽으로부터 돌려 손바닥이 후면을 향하게 한다.						모서리가 번갈아 좌우로 빨리 흔들리게 한다.		
9	72	**고무신** 지우개 고무로 지우는 동작을 한 후+신발	87	**고무신** 왼손바닥 위에 1지만 반쯤 구부린 손을 올려놓는다.	167	**고무신**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1지를 꼬부려 올려놓고 전후로 움직인다	*	**코신** *	*	* *
***각 단어들의 수어 동작이 다소 변경됨. 한국수어와 일본수어는 대부분이 차이가 많이 있음.**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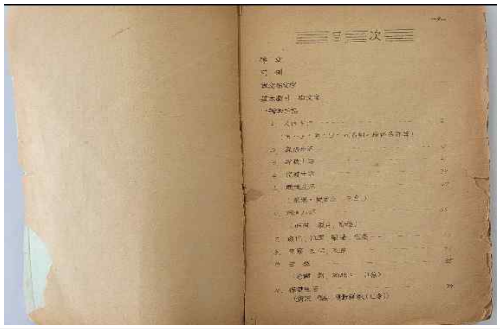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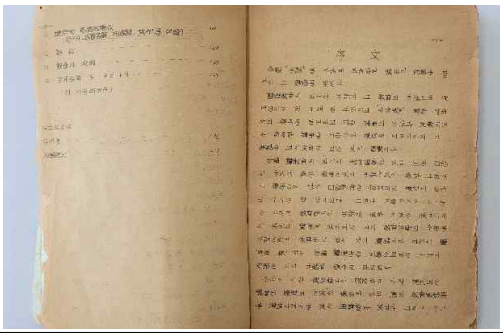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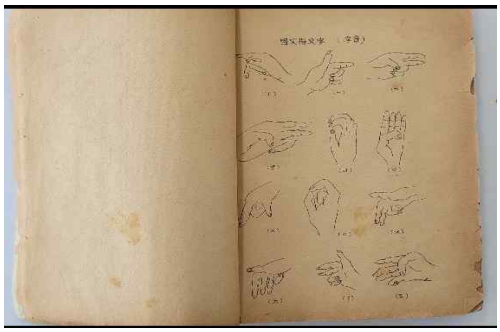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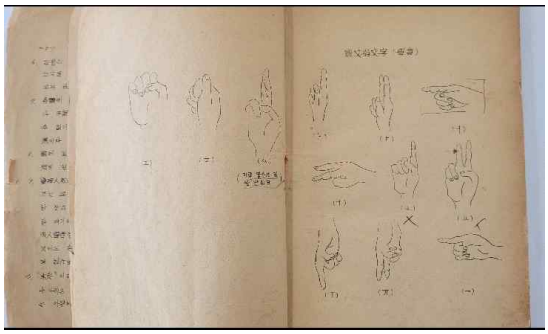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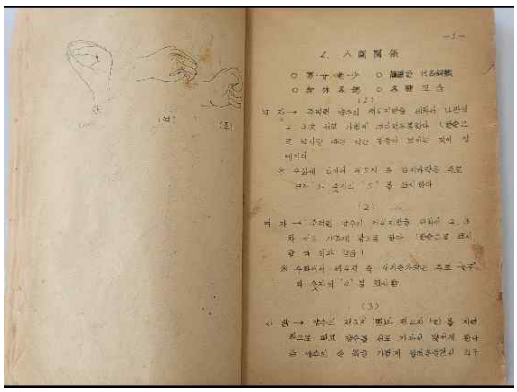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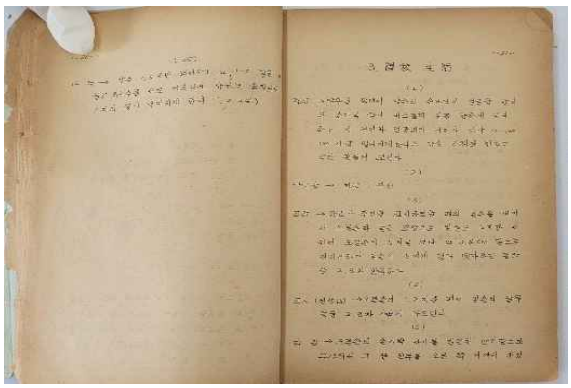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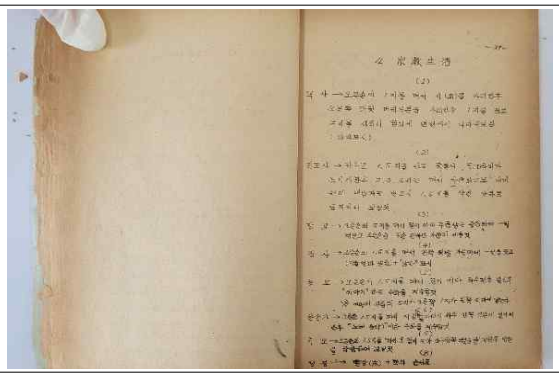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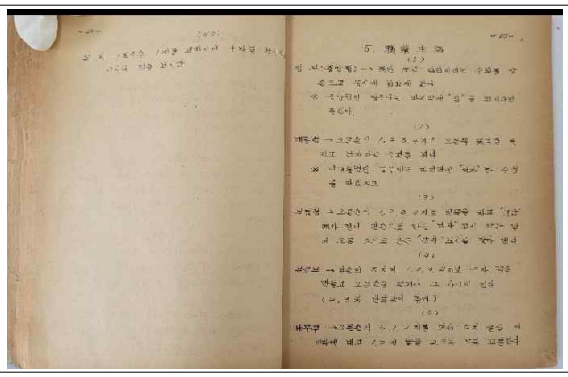
<수화> 1963, 서울농아학교
<표준수화사전> 1982, 금옥학술문화재단
<한국수화사전> 2005, 형설출판사
<손말사전>(북한)2005, 롱아학교용, 교육도서출판사
<일본수화> 2005 すぐに 便える手話辭典6000 ナツメ社
NHK手話CG https://www2.nhk.or.jp/signlanguage/syllsear.cgi?md=search&qw=%E3%81%93&pg=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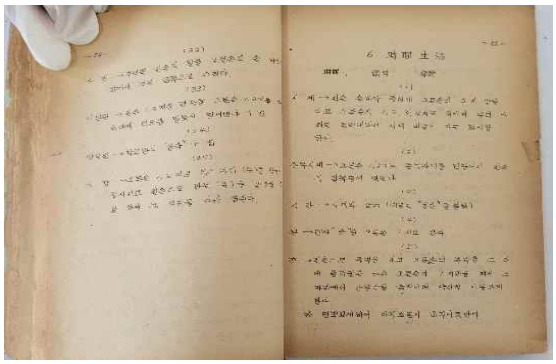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건 2점 중에서 한권<수화-1 사진참조>은 원형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음. 도장이 찍힌 부분도 있음. <수화-2 사진참조>은 책등이 파손되어 있고, 빨간색 볼펜으로 메모한 부분들이 많으며, 줄 표시된 흔적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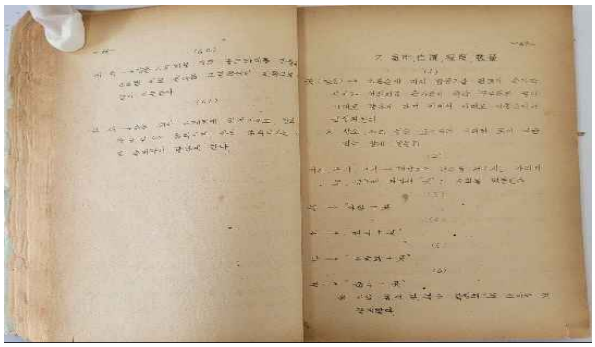
<수화-1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수화 -1	
	
상태양호(겉표지)	상태 양호하나 우측페이지 하단 찢어짐과 도장이 찍혀있음(표지 안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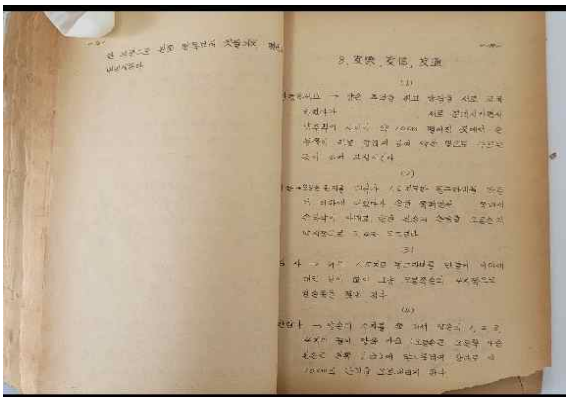
	
상태양호(목차)	상태양호 (목차 및 서문)
	
상태양호(국문지문자-자음)	상태 양호하나 왼쪽 '씨"지문자 아래에 메모위해 줄친게 보임(국문지문자-모음)
	
상태 양호(1과 인간관계)	상태 양호(: 3과 학교생활)
	
상태양호(4과 종교생활)	상태양호(5과 직업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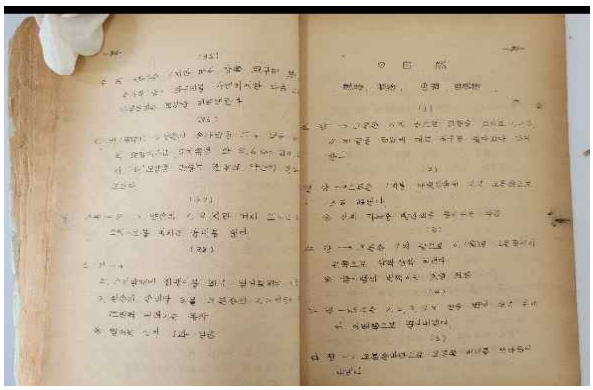
상태양호(6과: 시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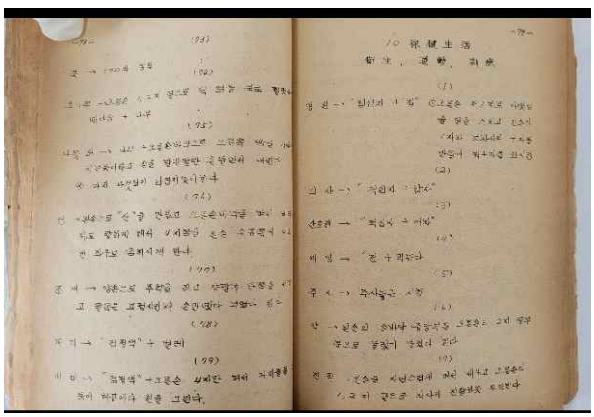
상태양호 (7과 장소.직위.정도.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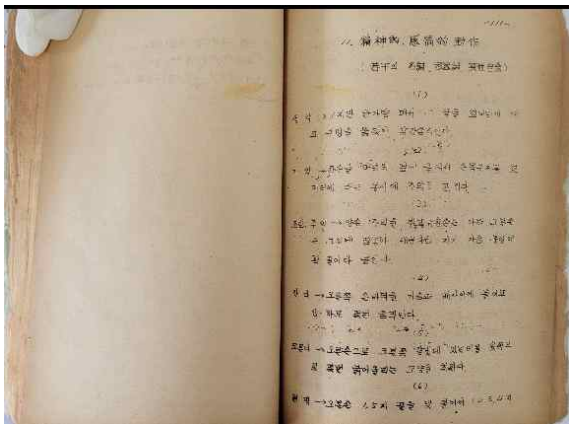
상태 양호하나 오른쪽페이지 하단끝부분 조금 찢어짐(8과 교련. 교신.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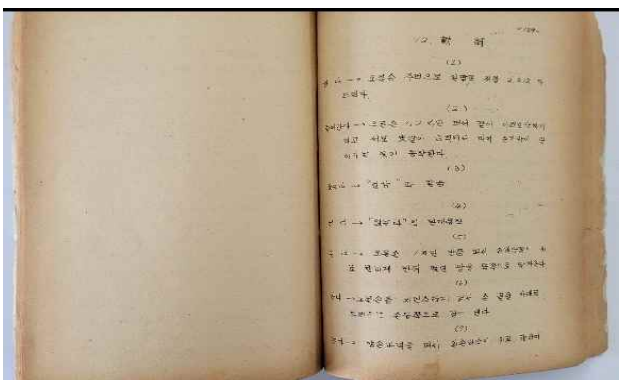
상태양호하나 오른쪽페이지 중앙끝부분이 살짝 오염. (9과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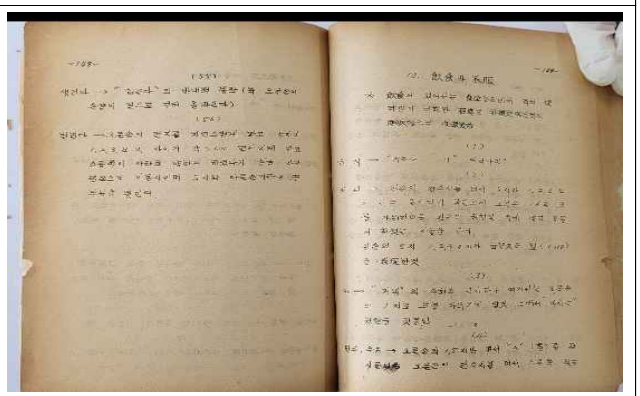
상태양호(10과 보건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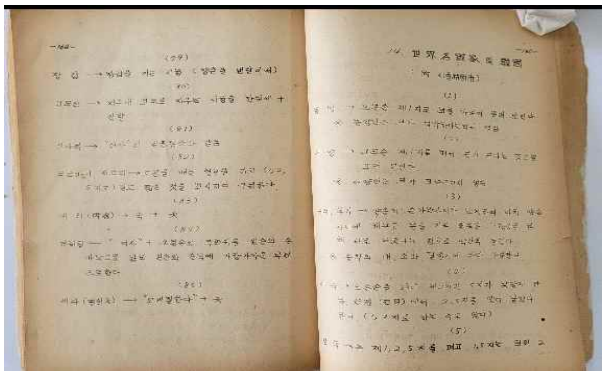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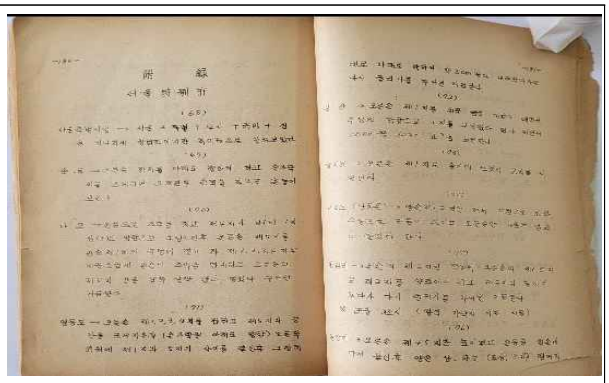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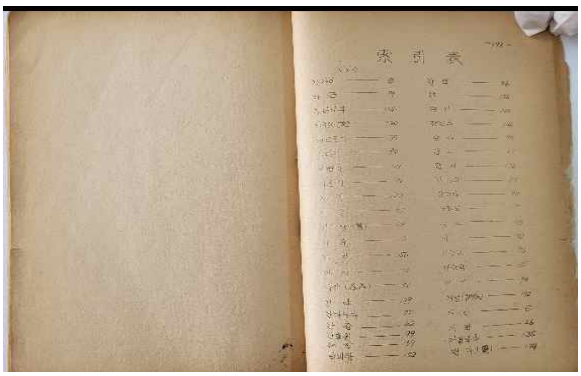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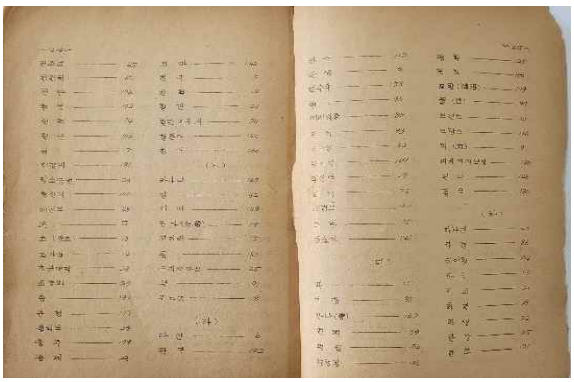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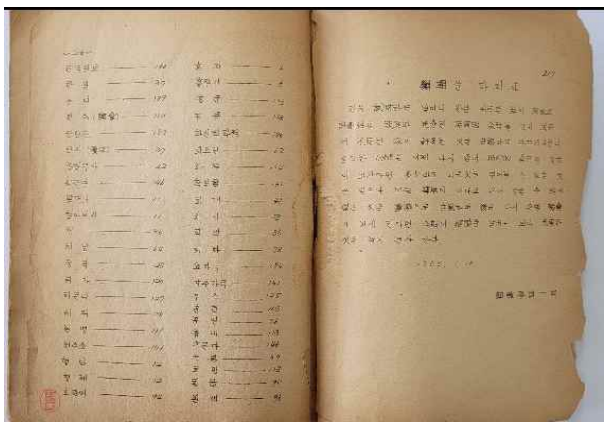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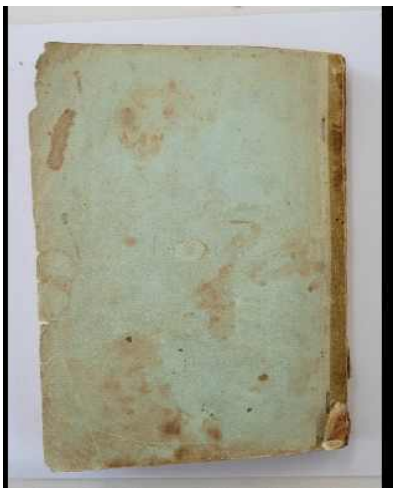
상태 양호 (11과 정신적 감정적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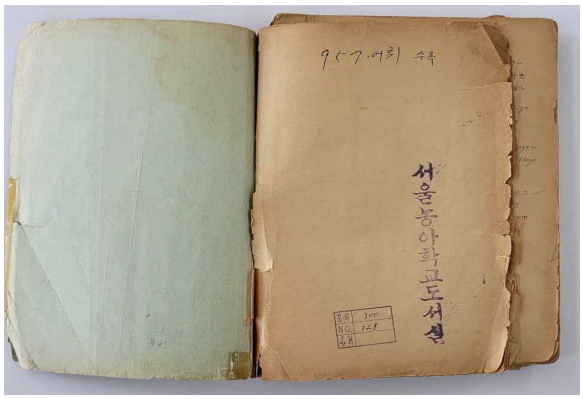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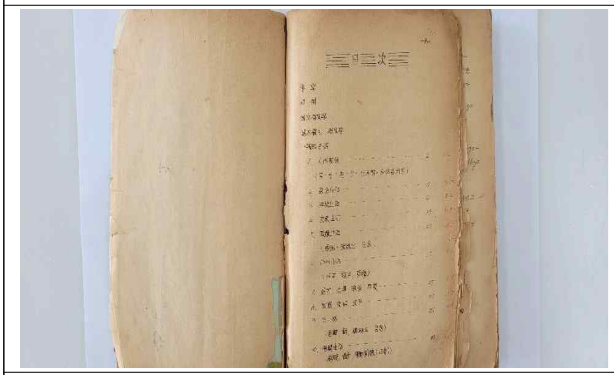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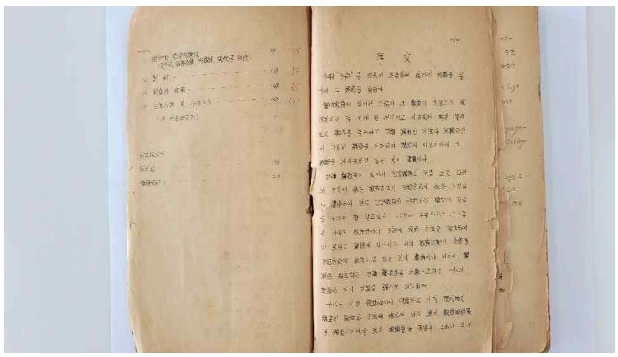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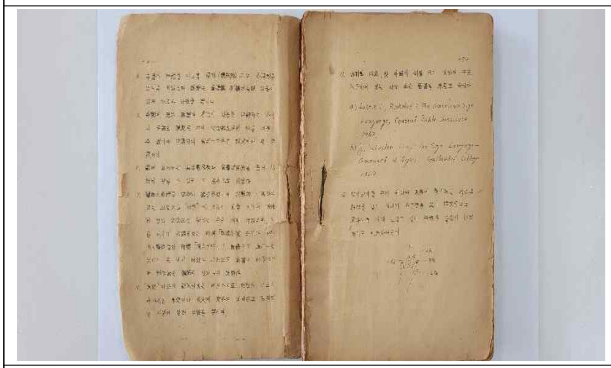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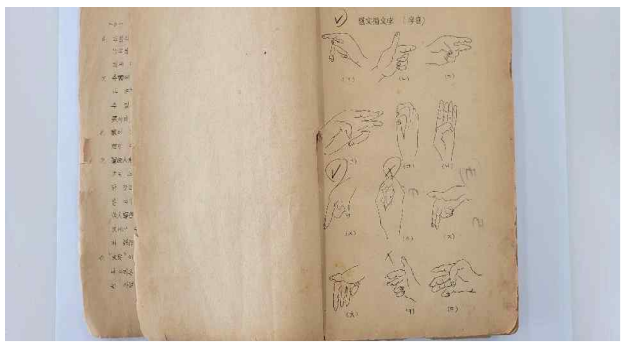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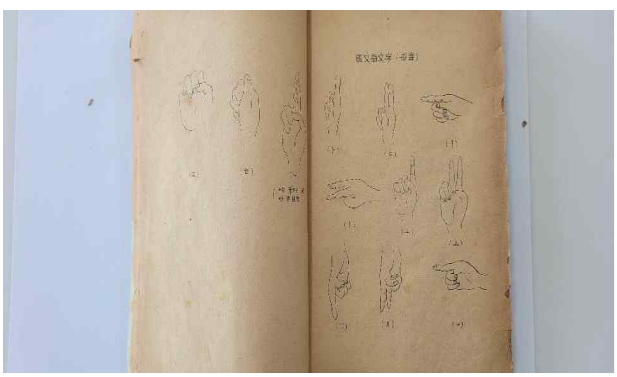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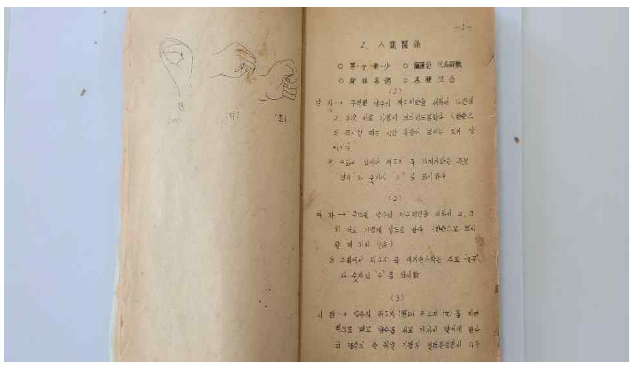
상태양호(12과 동사(動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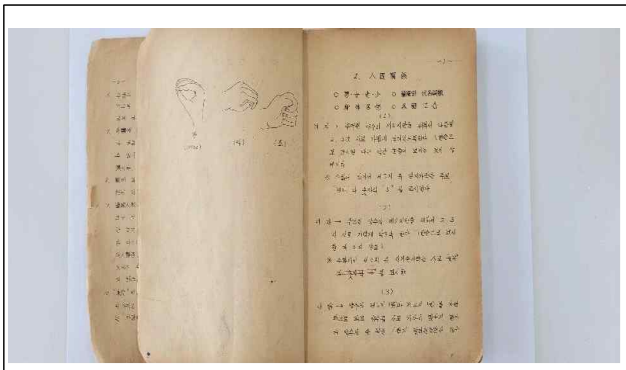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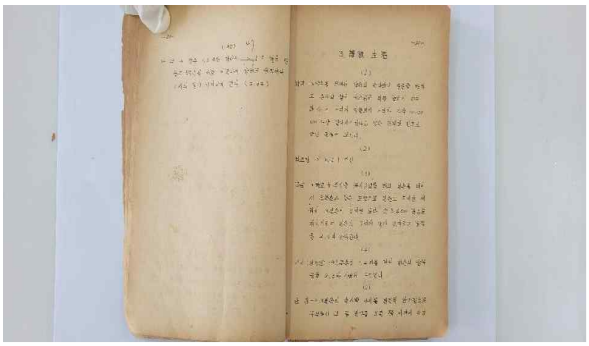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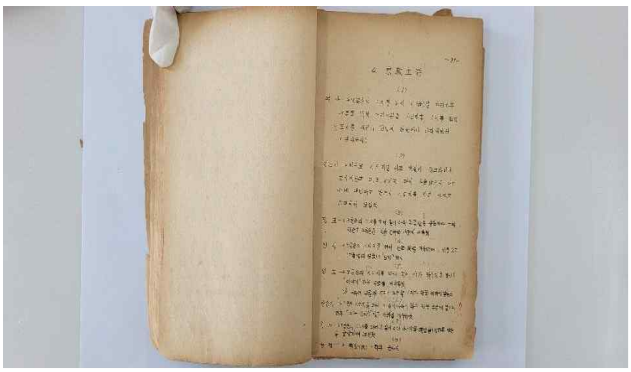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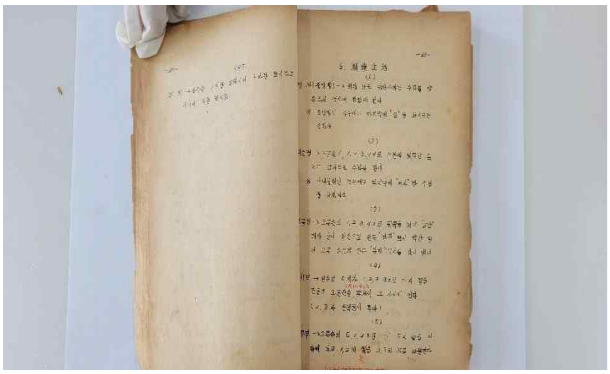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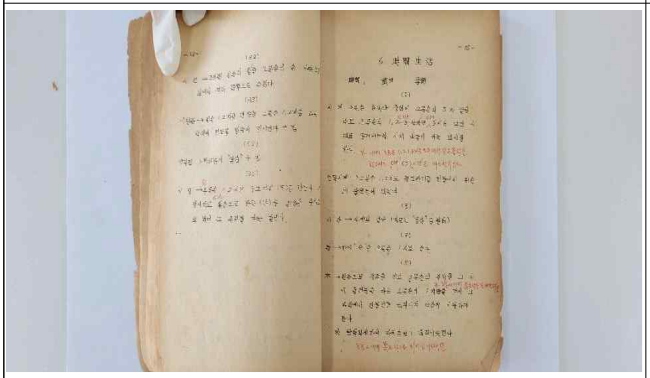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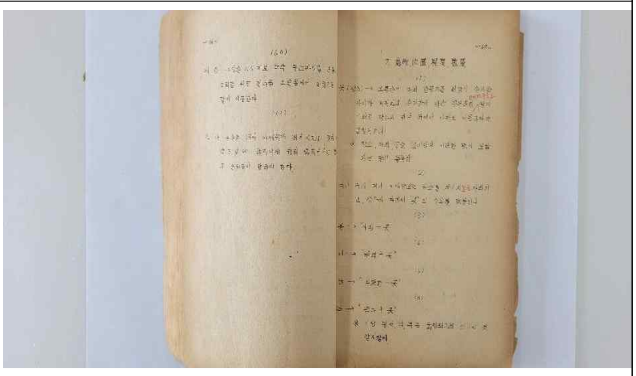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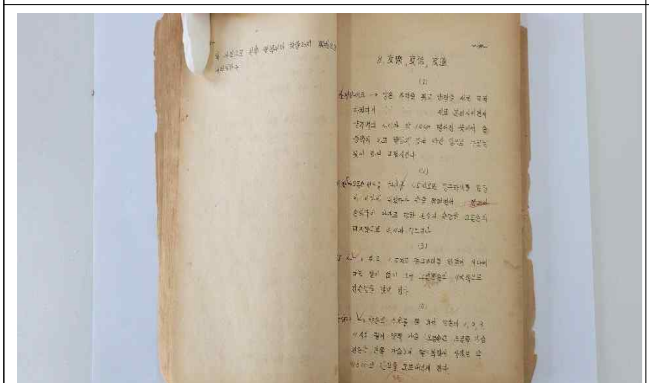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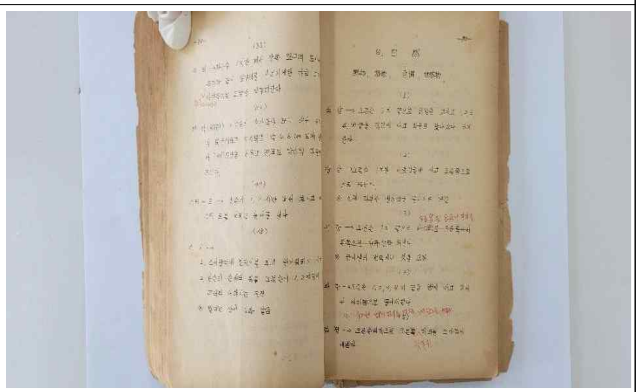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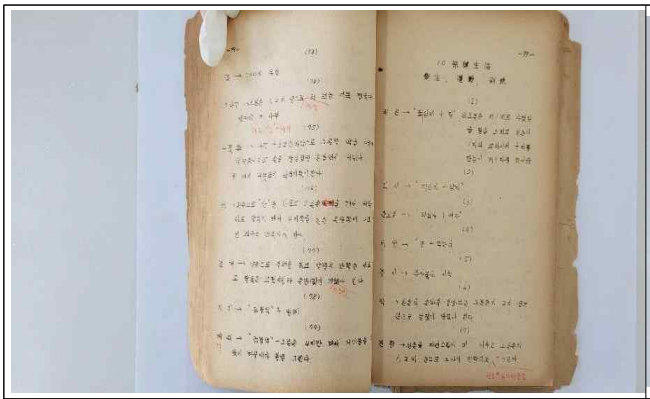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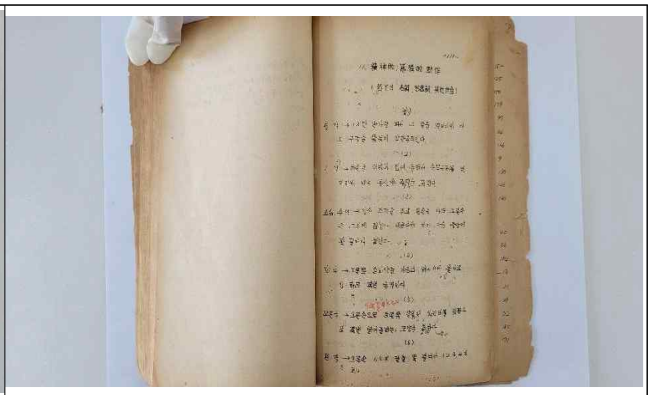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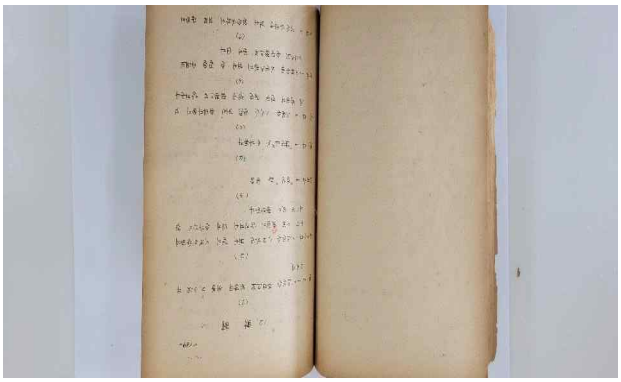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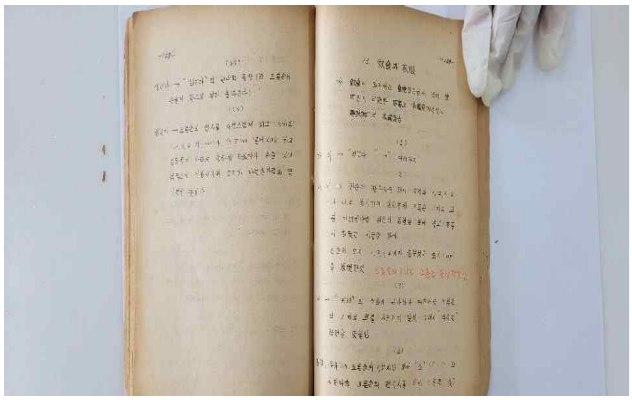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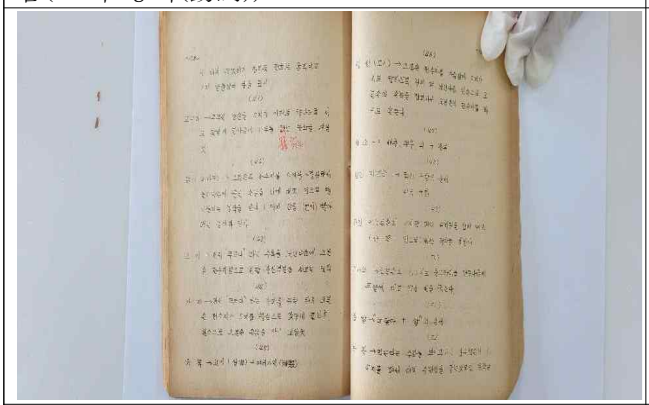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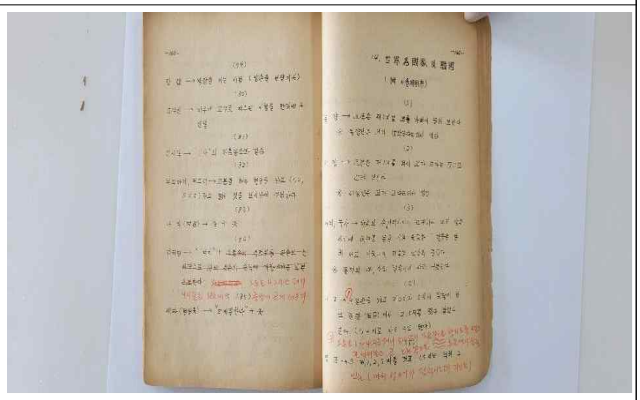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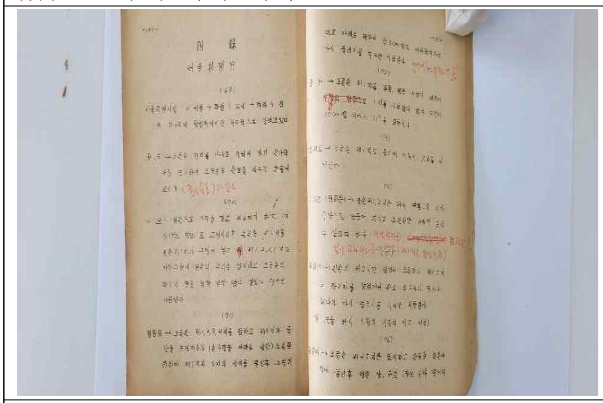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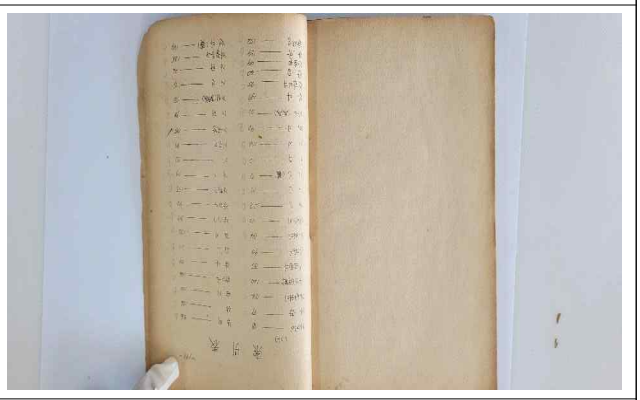
상태양호 (13과 음식과 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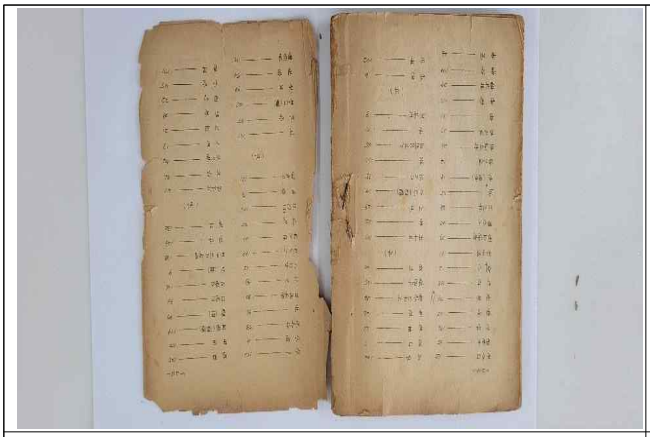
	
상태양호(14과 세계 각 국가 및 국어)	상태양호(부록 : 서울특별시)
	
상태양호하나 좌측페이지 안쪽 끝부분 살짝 오염있음. (색인표)	상태 양호(색인표)
	
상태양호하나 우측페이지 바깥부분찢겨짐. 좌측 맨아래끝쪽 도장찍힘 .(색인표 및 편집을 마치고)	상태양호(뒷표지)

<수화-2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수화 -2	
	
책등파손. (겉표지)	책등파손, 우측에 도장, 메모모있음(겉표지 안쪽)
	
책등파손 안쪽 내용은 상태양호(목차)	책등파손, 안쪽 내용은 상태양호 (목차 및 서문)
	
책등파손으로 안쪽도 찢어짐. 안쪽 글자 상태는 양호. (범례)	책등파손. 안쪽 글자그림 상태는양호(국문지문자-자음)
	
책등파손. 안쪽 상태 양호(국문지문자-모음)	책등파손, 안쪽 상태 양호(지숫자, 1과 인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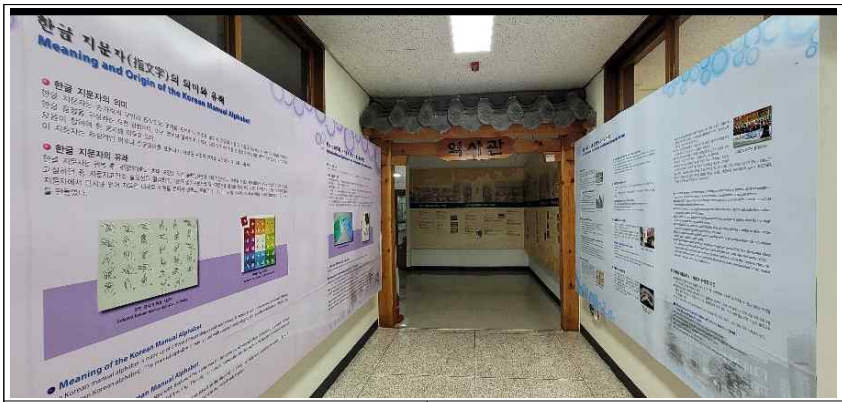
	
책등파손. 안쪽 상태양호하나 우측페이지 빨간색 줄이 그려져있음(지숫자. 1과 인간관계)	책등파손, 안쪽 상태양호. 좌측페이지 위쪽 볼펜 메모있음, (3과 학교생활)
	
책등파손. 안쪽상태 양호하나 빨간색 메모가 종종 보임.(4과 종교생활)	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양호하나 빨간색 메모가 종종 있음(5과 직업생활)
	
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가 많이 있음(4과 직업생활 일부 + 6과 시간생활)	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가 있음.(7과 장소. 직위. 정도. 수량)
	
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가 있음(8과 교련. 교신. 교통)	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가 많이 있음(9과 자연)

<table>
<tr><td>  </td><td>  </td></tr>
<tr><td>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양호하나 빨간 볼펜메모 있음 (10과 보건생활)</td><td>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 있음 (11과 정신적. 감정적 동작)</td></tr>
<tr><td>  </td><td>  </td></tr>
<tr><td>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가 있음(12과 동사(動詞))</td><td>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가 있음(13과 음식과 의복)</td></tr>
<tr><td>  </td><td>  </td></tr>
<tr><td>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가 있음(13과 음식과 의복)</td><td>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가 많이 있음(14과 세계 각 국가 및 국어)</td></tr>
<tr><td>  </td><td>  </td></tr>
<tr><td>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하나 빨간메모가 있음(부록 : 서울특별시)</td><td>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색인표)</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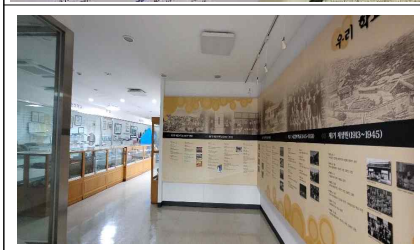
	
책등파손. 안쪽글자상태 양호(색인표)	책등파손. 안쪽 글자상태 양호(색인표. 편집을 마치고)
	책등파손(뒷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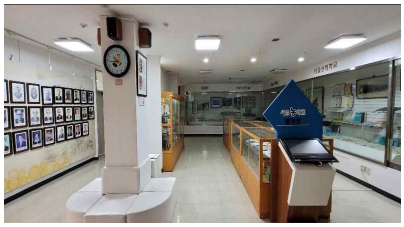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국립서울농학교 내 역사관에서 잘 보존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 내 역사관의 환경은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는 없는 듯함. 종이가 오래된 것인 만큼, 향후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1963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교본 <수화>**는 당시 농학생들이 사용한 수어용어들이 들어있어 한국수어의 역사와 청각장애인 특수교육현장의 역사 및 장애인 역사에 관한 교육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큼.

○ <수화>에서 나오는 용어들 가운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어용어들도 있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수어들도 있음. 그 당시의 생활환경을 엿볼 수 있음. 특히 한국수어 말뭉치 작업 및 한국수어의 언어적 소멸, 변이, 생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해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음. 또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자이며 언어적 소수자이기도 한 농인의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수화>는 문화재로서의 활용가치 뿐만 아니라 연구가치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언어적 소수파인 수화언어 사용자인 농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구어로 교육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한계와 농인의 사회문화적 관점을 수용하여 교육자원으로 교사와 농학생 간에 교육적 소통을 위해 만든 <수화>는 역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60년대까지도 농학생들에 대한 언어교육은 구어교육에 치중되고 있었으며, 농학생들의 수용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음성언어 지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청각 결손의 원인에 따라 음성언어 구사 능력이 천차만별인 농학생들로서는 구어교육을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수어교육보다 구어교육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수어사전이나 교재를 편찬하려는 노력도 미진할 수밖에 없었음.

○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책이나 장소나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구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교육현장에서도 구어주의자와 수어주의자의 논쟁이 계속되어 오는 동안 언어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수어는 1983년 12월 31일 제 3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부터 농학교에서 수어를 가르치도록 한 것임.

○ 다시 거슬러 올라가 광복전후, 1980년 전후, 1980년대 이후 동향으로 대별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광복전후

○ 우리나라에서 수어가 농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총독부 제생원 맹아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광복 이전 우리의 특수학교 교육은 평양맹아학교(사립)와 제생원 맹아부(국립)의 설립으로 비롯됨. 모두 외국인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셔우드홀 여사에 의해 농교육(1909)을 시작한 평양맹아학교에서의 수어사용이 그 시효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문헌은 없음.

○ 1913년 총독부가 제생원 맹아부(盲啞部)를 설치하고 수업 연한이 5년제인 아본과(啞本科) 학생들에게 일본수어를 가르침. 1920년에는 일본농아인협회 조선지부인 '조선농아협회'가 발족되었으며, 이는 농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우리나라 특수교육 전문 단체였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그 당시의 농인들끼리 자생적 수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광복이후에는 1946년 3월 동경에서 귀국한 정동섭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농아인협회'와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귀국한 이윤희에 의해 만들어진 '대한농아협회'등 2개 단체에서 문맹 청각장애인퇴치운동을 위해 수어로 농인들을 지도하고, 수어를 통한 연극발표를 해 한국수어를 크게 발전시킴.

○ 1947년 4월 서울농아학교(현 국립서울농학교) 초대교장 윤백원(尹伯元)에 의해 창안된 '한글지문자'의 보급으로 한국수어가 정립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됨.

(2) 1980년 전후

○ 1963년 서울농아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수화>란 책자 간행함. 이는 수어기호를 해설한 설명서로서 방법적 · 인위적 · 문법적 수어는 되도록 피하고 자연적 수어를 정리함. 농(聾)성인들의 관용적 수어와 표정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손대지 않았음. 이 <수화>책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사용되어 온 수어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해설해줌으로써 수어의 통일을 기해 보자는 목적에서 간행됨.

○ 1963년 서울농학교에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수화』를 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표준 수화사전>의 간행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한국표준수화사전 편찬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1979년이며, 다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표준수화사전>이 1982년에 출판됨. 국가가 나서서 수어사전을 만들기 약 20년전에 학교의 일선 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교재가 간행되었다는 것임.

○ 1963년 6월 전세계 80개국에서 1,200여명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국제농아교육대회'가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림(당시 한국구화학교 초대교장이었으며, 1950년대에는 국립맹아학교서 교사로 재직한 최병문이 한미재단의 도움으로 참석함).

○ 종교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978년 서울의 영락농아인교회에서 <우리들의 수화>란 책자를 손천식, 신동진 이외 몇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함. 뒤이어 손천식의 <백만인의 수화(1984)>, 강주해의 <종교수화(1987)>, 문영진의 <새수화교실(1988)>, 남순석의 <생활수화(1991)>, <밀알수화(1993)> 등이 발간 보급됨.

○ 천주교는 별도의 <종교수화(미사수화, 1993)>란 책자를 발간하였으나 기독교 수화와는 아주 많은 차이를 보임. 불교에서도 불교청각장애신도들을 위한 <불교수화용어>를 제작하였음. 이러한 '종교수화'들은 농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사회단체에서는 청각장애인 모임의 큰 단체인 한국농아복지회(현, 한국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만든 <사랑의 수화교실>이라는 사진집 책자를 1984년 국내 최초로 편찬됨. 1994년에는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 그 책을 같은 이름으로 보완 편집하여 편찬하였음.

○ 1975년 농교육 국제회의 이후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종합적 의사소통(Total Communication)의 영향 아래 농학교 교육현장에서도 1983년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에서 처음으로 초등부 요육의 목표에 '지문자' 및 '표준수화'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1989년 서울 농아학교에서는 국내 최초로 의도적인 수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화'를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주 1시간씩 지도하기 위한 학생지도용 <수화교본 3권>을 간행함.

○ 이 외에도 청각장애학교 4차 교육과정을 통한 토털커뮤니케이션의 이념적 수용, 장학자료 <한글식 표준수화(1991)>의 편찬, 중학부의 수어교재 <수화1. 2.3 (1993~1995)>의 편찬, 초등부 '국어 4 · 5 · 6' 에서 수어의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모두가 수어를 교육과정체제 내에 끌어들이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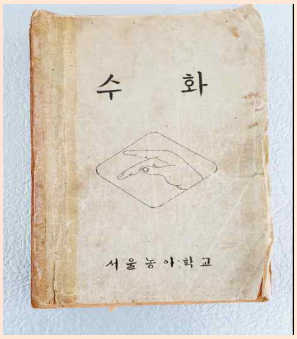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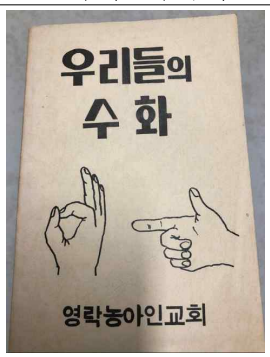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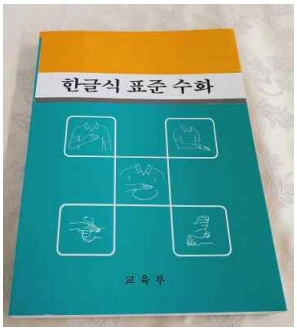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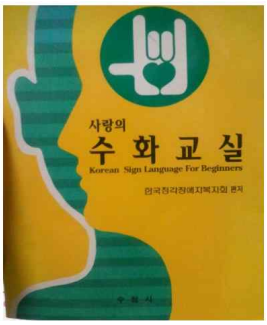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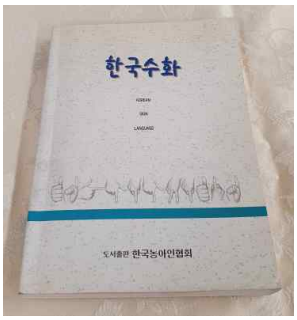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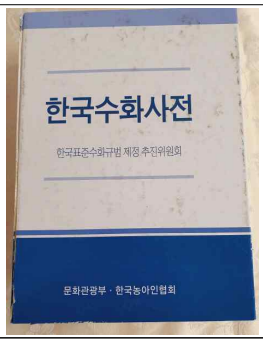
(3) 1980년대 이후 동향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기 시작한 수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사회적 문화적 복지서비스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어교실을 1981년부터 운영해 옴. 종교별로는 초반기에는 기독교 신자가 많았으나 요즘 천주교, 불교 신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단연 기독교가 앞서고 있음.

○ 이처럼 농인들은 음성언어와는 다른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수어를 사용하는 공간 안에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함. 따라서 농인들은 여타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농학교나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이들은 청인(聽人) 사회에서 느껴온 고립감과 소외감,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옴.

○ 이에 따라 1963년 서울농학교에서 교육활용을 위한 <수화> 제작을 계기로 다양한 수어관련 교재 및 수어사전 발행 등에 영향을 끼쳤으며, 최초의 수어기호를 해설한 책자로서 농인들의 삶과 교육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볼 수 있음

(다양한 한국수화 관련 책자들: 참고로 보기)

1963년 <수화>	1978년 <우리들의 수화>	1982년 <표준수화사전>	1991년 <한글식 표준수화>
			
1993년 <한국표준수화>	**1995년 <사랑의 수화교실>**	**1997 <밀알수화>**	**1998년 <불교수화>**
			
1999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수화>	**2001년 <한국수화>**	**2005년 <한국수화사전>**	**2005 <한국수화사전>**
			

○ 1963년 서울농아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간행한 <수화> 책자는 수어기호를 해설한 설명서로서 방법적, 인위적, 문법적 수화는 되도록 피하고 자연적 수어를 정리한 것임. 그 당시 농(聾)성인들의 관용적 수어와 표정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손대지 않았으며, 수어의 통일을 기해보자는 목적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사용되어 온 수어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해설해 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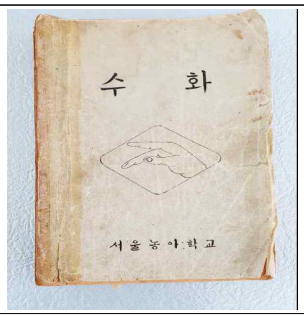
○ 우리나라 최초로 종교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978년 서울의 영락농아인교회에서 <우리들의 수화>란 책자를 간행함. 몇 명의 농인들이 중심이 되어 708개의 수어기호를 알기 쉽게 도해(圖解)로 편찬한 책으로서, 이 책자의 발행이 기독교 단체와 천주교 단체 그리고 불교단체에서도 나름대로의 수어책자 발행에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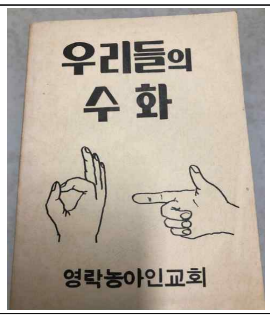
○ 1960년에와 1970년대에는 농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는 주로 청각장애특수학교(농학교) 교사들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농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도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수어가 발전해왔지만, 수어통역 부분에서의 역할 오늘날의 전문적인 수어통역서비스와 차이가 있으며 미흡하였음. 영락농아인교회에서 <우리들의 수화>를 교재로하여 청인들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해오면서 당시 농학교 교사들과 종교단체 수어교실을 통해 수어를 배운 청인들이 농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역할과 교사 생활을 함께 하는 것에 도움을 준 책자였다고 볼 수 있음.

○ 이 외에도 1975년 청각장애인교육 국제회의 이후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토털 커뮤니케이션 영향 아래 이루어진 수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수어 어휘를 체계화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됨. 그 결과 금옥학술문화재단(1982)의 <표준수화사전>이 편찬됨. 이 수어사전은 수어연구의 불모지였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수어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책자임. 198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전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농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수어 용어들과 다양한 수어교육교재 및 수어사전의 보완, 편집, 수어보급 및 편찬을 위해 귀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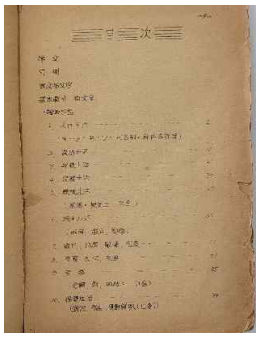
○ 이러한 이유들로 <수화> 외에 <우리들의 수화>와 <표준수화사전>이 유물들도 문화재로 등록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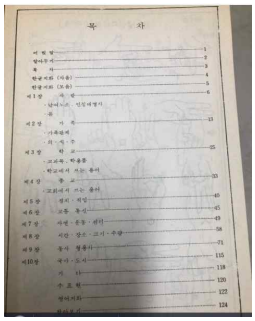
1963년 <수화>	1978년 <우리들의 수화>	1982년 <표준수화사전>
***1963년 1월10일 발간** * 4.6배판, 횡철 150쪽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기호를 해설한 책자임. 방법적 인위적 문법적 수화는 가급적 피하고 자연적 수어로 되어있으며, 농성인들의 관용적 수어와 표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손대지 않았음. *이 책의 특징은 수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문장으로 설명함. 1,011개의 용어가 수록됨.	***1978년 간행** *당시는 표준적인 수어화보급이 없던 시대로서 그림이 그려있는 수어책 조차 없었음, 전국 각 지역마다 수어가 약간씩 다르고 비장애인들에게도 수어가 거의 소개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단체인 영락농아인 교회에서 간행함. *몇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708개의 수어기호를 알기 쉽게 도해(圖解)로 만들어짐.	***1982년 8월30일 편찬** *4.6배판, 1,400쪽 *금옥학술문화재단 재정부담으로 당시 서울농학교 정택영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국표준수화사전 편찬위원회를 구성, 3년여에 걸쳐 완성하여 6,500여 어휘가 수록됨. *1984년 6월13일 서울농학교 강당에서 기증식을 거쳐 당시 재학중인 농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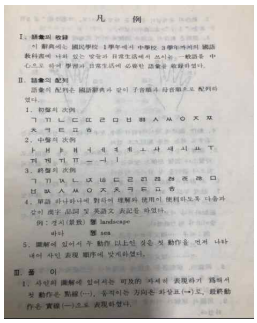

수 화
서울농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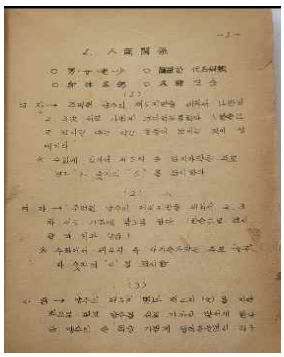

우리들의
수 화
영락농아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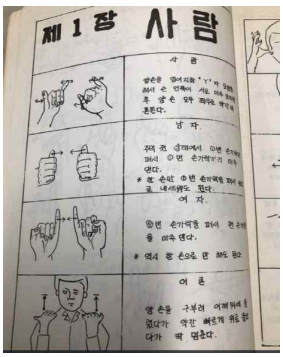

標準手話辭典
KOREAN STANDARD SIGN LANGUAGE DICTIONARY
財團法人 金玉平和文化財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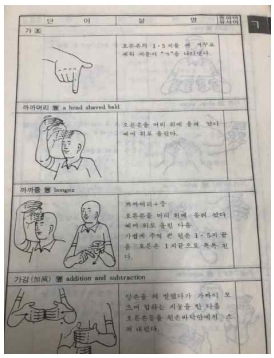

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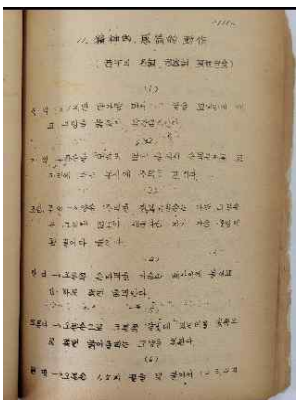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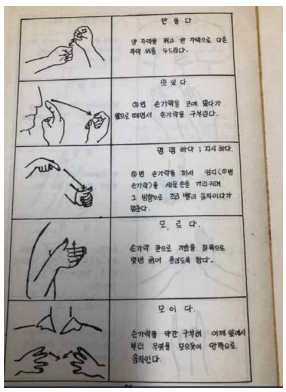

凡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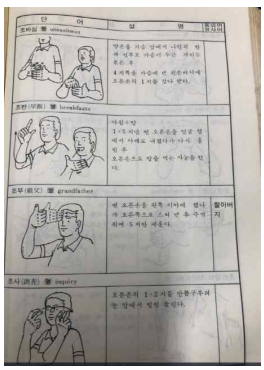



제 1 장 사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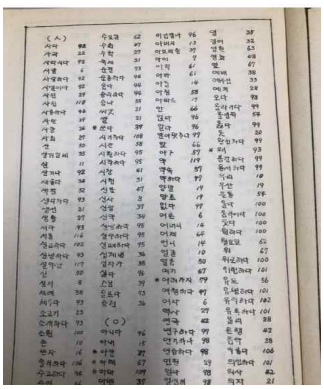

단 어 설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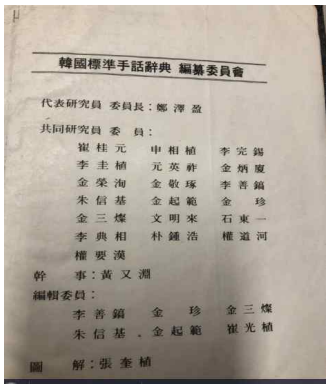





단 어 설 명






韓國標準手話辭典 編纂委員會
代表研究員 委員長：鄭 澤 盈
共同研究員 委 員：
崔桂元 申相植 李完錫
李圭植 元英赫 金炳慶
金榮洵 金敬琢 李善鎬
朱信基 金起範 金 珍
金三煥 文明來 石東一
李典相 朴鍾浩 權道河
權要漢
幹 事：黃又淵
編輯委員：
李善鎬 金 珍 金三煥
朱信基 金起範 崔光植
圖 解：張奎植

7) 등록가치 의견

○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수어 기호 해설교재 <수화>는 당시 농교육에 헌신하던 교사(교장 김기용)들이 자발적 주축이 되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수어어휘를 등사판을 이용해서 1963년 1월10일 '서울농아학교' 이름으로 발간함.

○ <수화> 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기호를 해설한 책으로서 문화재적 가치는 첫째, 한국수어의 역사적 차원의 가치가 있음. 두번째로는 시각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파인 그 시대 농인의 사회를 보여주는 역사, 세번째로는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특수교육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서 라고 볼 수 있음.

○ 1960년대 초에는 전국의 청각장애특수학교인 농학교에 중·고등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극소수였음. 따라서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 서울농아학교에 전국의 학생들이 몰려둘었으며, <수화>의 발간으로 지역이나 연령대에 달리 사용하는 수어의 통일에 기여하였음.

○ 이 수어서적의 특징은 수어의 통일을 목적으로 방법적·인위적·문법적 수어는 되도록 피하고 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수어를 체계적으로 해설해줌으로써 누구나 쉽게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음.

○ <수화>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있음. 인간관계,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수어와 더불어 당시 농인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사료임.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교본인 <수화>는 수어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임에 따라 문화재 등록 가치가 매우 큼.

○ 그 당시 사용되던 수어를 정리하여 소개한 이 책은, 자연적 수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임. 현재 원본 2권만이 서울농학교 역사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외 복본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교육현장에서 구어교육의 한계점을 느껴 수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소통이 가능한 교육환경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임.

○ 역사가 긴 만큼 서울농학교에는 역사관을 따로 설치하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유물 유적들을 전시하고 있음. 여기서 특히 한국 최초의 수어교재인 <수화>는 농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이어서 수어는 농인에게는 교육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장애인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한국에서 청각장애 분야의 근현대 유물·유적은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으므로 현대 유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큼.

○ <수화>를 계기로 다양한 수어관련 도서들이 만들어졌으며, 농인들이 교육과 사회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수어 보급의 중요성에도 관심을 갖도록 마련해준 계기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책자는 청각장애인들의 교육환경 뿐만 아닌 언어로서 한국수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각장애 특수교육의 역사 차원에서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임.

○ 이러한 이유들로 이 유물들은 문화재로 등록하여야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최초의 **한국수어 기호 해설교재 <수화>**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 최초의 수화기호를 해설한 책으로서 당시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자연적 수화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음.

○ 당시의 교육현장이 구화교육으로 대세를 이루던 시기에 유일하게 만들어진 책자로서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교육현장에서 활용을 위해 사용됨. 이처럼 <수화>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수화에 대한 다양한 책자들이 발간과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수화의 역사를 잘 대변해 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안건번호 근대 2021-02-08

8.「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강원도 고성군 소재「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1.26.)를 거쳐 등록 예고한「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고성군수

(2) 심의내용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 년대	소유자	소 재 지
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	2건 2점 *동단점, 서단점	- 동단점 반석 : 18×18cm - 서단점 반석 : 30×30cm	1912년	강원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976-25(동단) / 해상리 643-2(서단)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9.1.16.) : 문화재 등록 신청(강원도→문화재청)

○ ('20.11.1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1.1.12.) : 유사 유물(영산포 기선)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1.1.26.)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

- 동단점 주석은 제외

(4) 등록예고 : '21.2.3.~3.4.(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1910년대 국토 전역에서 실시된 토지조사 및 측량 사업과 관련하여 삼각측량의 기준이 되었던 역사적 유물인 점을 고려할 때, 예고내용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11.13.)

- 해당 유물은 1910년대 국토 전역에서 실시된 토지조사 및 측량 사업과 관련하여 삼각측량의 기준이 되었던 유물임. 당시 국토 전역을 23개의 삼각망으로 구획하고 정확한 삼각측량을 위해 전국에 13개소(남한에 6개소)의 기선을 설치하여 각 기선 사이의 거리를 정밀하게 실측하였는데, 이때 간성 기선은 강원도 지방의 지형, 거리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음.
- 해당 유물은 통일적 정량적 근대 측량 기법을 통한 전국 면적, 지형을 계량한 사업이 남긴 유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11.13.)

- 해당 유물은 1910년~1924년 우리나라 전역에서 실시한 근대적 개념의 토지·임야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측량을 위해 설치된 유물임. 현재 비록 서단의 주석은 소실되었지만, 기본이 되는 동·서단의 반석이 모두 원래의 위치에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 ○○○('20.11.13.)

- 해당 유물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정밀한 삼각측량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측량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한 13개의 기선 중 하나임. 측량 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선측량 기술력을 사용하였다는 기술적인 의의가 있으며, 토지조사사업의 기초가 되는 기선으로 사용되어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 성립의 기틀 마련 등에 기여하였음. 해당 유물은 우리나라 측량의 기틀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성 구 간성기선점 반석

2. 소 재 지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976-25(동단) / 해상리 643-2(서단)

3. 소 유 자 : 강원도

4. 조사자 의견('20.11.13.)

<문화재위원 ○○○>

1) 개요

○ 1910년대 국토 전역에서 실시된 토지조사 및 측량과 관련한 유물임
○ 근대적인 측량기술에 필수적인 유물로 이 기선이 삼각측량의 기준이 됨
○ 국토 전역을 23개의 삼각망으로 구획하여 삼각측량을 실시
○ 정확한 삼각측량을 위해 전국에 13개소(북한지역 7개소 남한지역 6개소)의 기선 설치
○ 각 기선 사이의 거리를 정밀하게 실측
○ 이 기선을 기준으로 강원도 지방의 지형, 거리 등을 정밀하게 측정,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연혁

○ 1898년 칙령 제25호 「양지아문직원급 처무규정」의 공포로 하는 광무양전사업
○ 1905년 재정고문 메가타(目賀田種太郎), 사세국 양지과 주도로 한성 측량기술견습소를 필두로 견습소 설치, 측량 교육, 이후 대구, 평양, 전주 출장소 설치
○ 이 출장소 및 견습소에서 양성한 측량 기술자들의 견습으로 토지 측량 수행: 소삼각측량과 도근측량, 세부측량
○ 1910. 3. 전국 단위의 측량실시: '토지조사국' 설치 및 관련 법령인 '토지조사법' 제정 및 공포를 통해 본격적 측량 시행
○ 1912.5.23.~1912.7.15. : 간성기선 설치 및 측량(실제 기선 설치 작업은 지형적 특성으로 406여 정도가 걸렸다고 전해짐
○ 1950~53년 : 6. 25전쟁 당시 간성기선 서단 망실
○ 1981년 : 46번 국도 확장 시, 간성기선 동단 망실
○ 1997년 : 동·서단 발굴 및 복구
○ 2008년 : 동·서단 주변 부지 매입
○ 2009년 : 매입부지 기반정비 및 측량성과 검증
○ 2010년 : 부지 정비 마무리 및 활용기반(기선로 모형 등) 구축(정비된 유물 가운데 대한제국 탁지부가 설치한 삼각점 포함됨)

나) 주요 내용

(1) 1910년 이래 일제에 의해 실시된 측량사업 관련 유물임

ㅇ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 구축을 '근대적 기술'로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식민(植民)정책을 구현한 사업임

ㅇ 토지 소유권 확정

* 조선의 중층적 토지 소유 관계의 정리

* 토지 소유 문건의 조건 확보(정확한 경계 규명을 통한 지형의 확보)

ㅇ 세금 부과 등의 식민통치 수월성 확보

(2) 근대 측량 기법의 전국적 확산

ㅇ 전국에 걸친 정량적 계량으로 통일성 확보

(3) 측량 사업 진행 과정

ㅇ 일본 육지측량부가 일본 내 대삼각망(大三角網)에 연락(連絡)해 최단거리인 쓰시마(對馬島)에 설치한 대삼각본점인 미타케(御嶽)와 아리아케산(有明山)을 기선으로 삼음

ㅇ 그로부터 해상 10만 미터 떨어진 절영도(絶影島)와 거제도(巨濟島)에 구점(求點)을 설치해 남에서 북으로 23개의 삼각망을 구성

ㅇ 일본 본토의 대삼각보점에 해당하는 정밀도를 적용(상대정확도가 높지 않은 정밀하지 않은 1: 50,000 수준의 지형도 구성을 위해서는 대삼각본점의 정밀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ㅇ 13개(남한 6개, 북한 7개) 기선 설치

ㅇ 전국 34,447점의 삼각점 설치[대삼각본점(1등삼각점) 총 400점, 대삼각보점(2등삼각점) 총 2,401점, 소삼각1등점(3등삼각점) 총 6,297점, 소삼각2등점(4등삼각점) 총 25,349점]

ㅇ 전 국토의 지형, 지모(地貌) 및 일 필지에 대한 경계 조사:조직적 체계적 시행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친 조사

ㅇ 토지 소유권 등의 조사

ㅇ 현재 국가기본도인 1: 50,000의 지도, 지적도 완성

※ 참고: 한반도에서의 근대측량사업

ㅇ 사업 개시: 1898년 칙령 제25호 「양지아문직원급 처무규정」의 공포에 따른 광무양전사업(양전 및 지계 사업)으로 시작

ㅇ 목적: 근대적 토지제도와 지세제도 수립

ㅇ 목표: 개별토지의 형태 및 경계 파악을 통한 장부 등재

ㅇ 주무부서: 양지아문(量地衙門)

- 근대적 측량제도 도입, 전국 토지 측량
- 1904년까지 전국 331개 군 가운데 218개 군의 측량 실시
- 양지아문에서 128개군, 1901년 설치된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94개 군 실시
- 광무양안: 간단한 땅 모양 그림(도시, 圖示), 면적의 척수(尺數) 표시
- 이 양안은 1924년 총독부에 의해 대부분 폐기, 규장각 39개 군의 양안 소장

ㅇ 근대 측량제도 도입

- 수기사(首技師)로 미국인 측량기사인 크럼(巨廉 : Raymond Edward Leo Krumm) 고용
- 업무: 측량, 국내 전지(田地)의 설보인수(設洑引水) 및 도로, 교량, 건축포대요애처(建築砲臺要隘處)의 파악

- 견습생 양성 지도
- 최초 측량: 1898년 한성부

다) 간성기선 특징

(1) 강원도에 설치된 유일 기선임

ㅇ 1912년 5~7월, 동단점과 서단점의 설치 지점 지정

ㅇ 거리 실측 완료: 3,126.11155m(최근 GPS 측량과 8mm 정도 차이 남)

(2) 양 단점의 반석을 발굴하여 그 위치가 확인된 기선임

ㅇ 기선 설정 방식

- 삼각망과 기선과의 관계: 전국을 삼각망으로 나누어 측량을 실시하면서 적당한 지점에 기선을 설치 활용
- 기선 설치 요건

① 기선장의 선정

· 2~4km 정도의 직선 거리에 고저차가 없는 평탄한 구간
·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공고한 지반
· 후속 측량을 위한 시야 확보 가능 지역

② 기선의 설치

· 선정된 기선장 지역에 기선으로 사용할 일직선의 양 끝점의 위치를 결정
· 양단점간의 수평거리를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기선로 설치
· 기선로는 넓이 3m, 경사는 1/25을 넘지 않도록 토목공사 진행
· 측량에 방해가 될 초목, 암석 등 제거
· 기선로 중에 구거, 하천, 습지 등은 메우거나 다리를 놓아 측량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③ 기점의 표식

· 기선 양 끝에 대삼각보점에 쓰는 점표를 세우고 추후 기선측량이 완료되면 대삼각본점 규격의 표석을 매설(표석을 지지하는 주석은 70~80cm정도의 돌을 사용)
· 기선 양단 점표 밑에는 넓이 1.5m, 깊이 1.7m의 구덩이를 파고
· 그 바닥 중앙에는 사방 30cm 두께 9cm의 화강암 석재의 반석을 매설
· 주위를 콘크리트로 굳힘
· 반석의 중앙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황동제로 중심간(점침, 點針) 꽂아 고정
· 구덩이 위에는 마형가(馬形架)라는 목조가대를 설치해 표석 매설 지역임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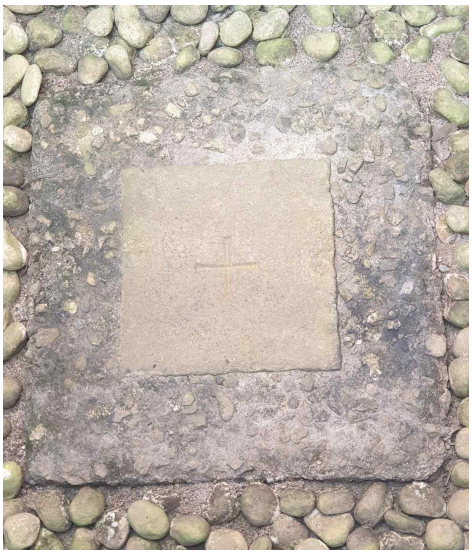
(3) 간성기선의 동서 양단은 위 기선 설치 요건으로 제시된 사항을 갖추어 만들어 졌으나(구덩이, 콘크리트 보호단) 두 단점 모두 황동제의 점침, 마형가(馬形架)라 불리는 목조가대는 소실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가) 간성기선

ㅇ 서단기점:

- 6.25로 망실
- 1997년 발굴
- 발굴 당시 표석,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 화강암 반석과 가로 60cm, 세로 60cm 두께 12cm의 보호 콘크리트로 구성
- 발굴 이래 표석 보호를 위한 정비 사업 진행





○ 동단기점:

- 국토 확장 사업으로 매몰
- 1997년 발굴 당시 표석, 가로 18cm, 세로 18cm의 화강암반석, 가로 28cm, 세로 28cm, 두께 8cm의 1차 보호 콘크리트 및 가로 75cm, 세로 75cm 두께 30cm의 2차 보호콘크리트로 구성
- 발굴 이래 표석 보호를 위한 정비 사업 진행
- 기선 설치 당시의 기선장의 상태를 그대로 확보하기는 어려움(도로 정비, 보토(補土) 등에 의한 지형 변형)
- 동서단 모두 주변 정비: 대한제국 탁지부의 삼각점, 대삼각본점, 대삼각보점, 소삼각점 등을 모두 모아 진열(대리석과 콘크리트를 이용 위치 고정, 삼각점들 가운데 측량 교육상 필요한 삼각점들은 새로 제작해 설치하기도 함)
- 동단 주변에 금속판에 삼각망 · 기선 · 대삼각점 설치 · 분포 현황이 새겨진 한반도 지도와 보호각
- 국가지적기준점 변천사를 설명한 금속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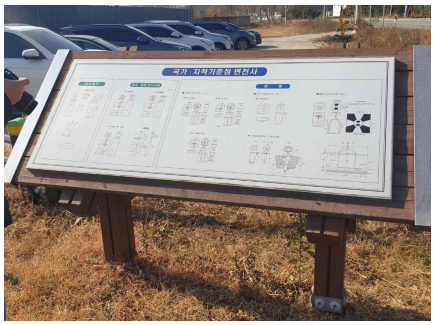




금속판에 삼각망 · 기선 · 대삼각점 설치 · 분포 현황이 새겨진 한반도 지도



동단기점 옆에 정리 진열된 각종 기준점들:층위별 기준점을 구비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한 삼각점들을 함께 진열함. 삼각점들을 지지하는 주석은 진열대 밑에 매설되어 있다고 설명



국가지적기준점 변천사를 설명한 금속 패널

○ 나주 영산포에서 발굴된 나주기선[동단점(나주시 관정동 83-1), 1988년 6월 발굴, 서단점(나주시 영산동 330-2) 1994년 6월 발굴]

- 기선 길이는 3400.901m
- 동단점의 경우, 발굴 이후 원형을 매설하고 그 위에 표석 및 반석, 보호석을 복제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정비 사업을 진행.
- 서단점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수몰 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표석 수직 위 7m지점에 수변 시설을 마련하고 복제품을 설치하는 정비 사업을 진행
- 동서 단점 모두 원형을 원통 기둥을 세워 보호하고 매설, 시멘트로 마감한 후 그위에 '원형'과 원형의 보호 방식을 그대로 옮김: '복제 표석', 반석, '보호각'을 방위가 새겨진 팔각 화강암으로 마감한 보호대 위에 세움-보호각은 오석으로 만들어 설치했으나 이것이 원형의 재질인지는 불분명
-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형이 매설되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움



나주기선 동단점. 인근은 논



나주기선 서단점,



4대강 사업으로 수몰된 서단점을 7m 높이에 복제품으로 표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기선 동서단점의 보호를 위한 구조물(석재 및 목재) 설치
○ 구조물이 목조 및 석재 등으로 되어 습기와 강우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됨
○ 동단점 주변 창고 유사 시설
○ 서단점 주변 군부대



동단 기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보호 구조물 측면



동단 기점 보호 구조물 정면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근대 측량의 시작과 관련한 교육 및 역사적 유물로서의 교육적 역할
○ 근대의 기술로 땅의 경계와 확정하고 소유권을 합법화한다는 수사로 진행된 토지 수탈의 남아있는 역사적 유물임
○ 근대 과학 관련 기술의 도입 흔적: 삼각점 진열대에 함께 놓인 대한제국 탁지부 설치 삼각점을 통해 국가 정책 수행을 위해 조선(대한제국)정부가 근대 과학기술 도입을 주도했음을 알릴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가) 1910년 이래 일제에 의해 실시된 전국 단위의 측량사업 관련 유물임
나) 통일적 정량적 근대 측량 기법을 통한 전국 면적, 지형을 계량한 사업이 남긴 유물임
다) 현재 시점에서 전국 기선이 남겨진 유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기선의 양단 표석을 포함한 반석 및 보호 콘크리트(보호시설물 내)
○ 주변에 전시된 삼각점들은 제외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간성 기선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기선(基線)은 소위, 삼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하며, 1910년~1924년 우리나라 전역에서 실시한 근대적 개념의 토지·임야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측량을 위해 일종의 기준이 되는 기선을 오늘날 남한지역 6개, 북한지역 7개 등 모두 13개 곳에 설치하였음.

○ 이번 등록 신청한 ‘간성기선(杆城基線)’은 1912년 오늘날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설치하였던 기선으로 당시 남한지역에 있었던 6개 중 본래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간성기선의 측량은 1912년 5월에서 그해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동・서 양단까지의 총 길이는 3126.11155m, 정밀도 1/6,280,000로서 당시 탁지부 소속 한국인 기수인 최영로(崔永老)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선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기선의 동・서 양단부가 되는 지점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표면 아래에 일종의 초석으로 놓은 ‘반석’과 그 위에 세로로 길게 세워 일부가 지상에 표지석의 형태로 노출되는 ‘주석’으로 구분됨.
○ 이번 등록 신청한 대상물은 간성기선 동단에 설치한 반석과 주석 각 1개, 서단 반석 1개로 이들은 각각 한국전쟁 기간과 오늘날 46번국도 확포장 과정에서 망실되었던 것을 1997년 발굴, 복구한 것이며 이후 2008년 부지 매입을 거쳐 2010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전라남도 나주 영산강변에서 당시 설치되었던 ‘영산강기선’의 동・서단점 발굴을 통해 땅속에 매장되어 있던 서단점의 반석과 주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및 동단점의 반석을 확인하였음.
○ 이후, 서단점의 경우 영산강변의 지형 변화로 본래의 위치가 수몰되는 등 훼손이 불가피하여 주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는 별도의 시설로 옮기고 본래의 자리는 물 위에 데크시설을 마련하여 그 위에 재현하였으며, 동단점은 본래의 위치에 주석을 재현하였음.

2) 형식 및 주요 특징

○ 동・서단점의 시설물은 크게 반석과 주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동단이 반석과 주석 모두 현존하는 반면 서단은 주석만 남아 있는 상태임.
○ 반석의 형식과 규모는 동・서단의 것이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동단 반석이 가로(18㎝)×세로(18㎝)로 치석한 화강석을 1차(가로(28㎝)×세로(28㎝)×높이(8㎝))와 2차(가로(75㎝)×세로(75㎝)×높이(30㎝))의 2개 층으로 된 보호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반면, 서단은 가로(30㎝)×세로(30㎝)로 치석한 화강석의 반석을 가로(60㎝)×세로(60㎝)×높이(12㎝) 규모의 1개층 보호콘크리트 상부에 위치하고 있음.
○ 동단에 남아 있는 주석은 소위, 장주(長柱)의 석주(石柱) 형태로 전체 높이 67㎝ 중 상부 12㎝ 만큼은 가로(12㎝)×세로(12㎝)로 치석하고 한쪽 면에 ‘大三角點’이라고 각(刻)하였는데, 이 부분이 지표면 위에서 노출되는 것으로 일종의 표지석 역할을 하는 것임.
○ 본래, 주석이 반석 상부에서 중심을 맞춰 세워져 있어야 하나, 동단의 주석은 발굴된 이후 정비 과정에서 반석과 분리되어 현재와 같이 별도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설치 당시 작성된 도면 또는, 전반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사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음. 다만, 2010년 정비 과정에서 다소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짐작되나, 구조물의 큰 변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정비 과정에서 보호각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져 노후화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인 강원도와 관할지자체인 고성군에서는 현존하는 진정성 있는 기선 시설로서 지역·역사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 또한, 동·서 양단 지점의 주변 토지를 매입 완료하여 향후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 우려는 적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동·서 양단 지점 주변에 관련 시설 등을 정비하여 보존관리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근대적 개념으로서 기선측량의 역사를 보여 주는 등 일종의 교육 시설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당시 오늘날 남한지역 6곳에 설치하였던 기선의 양단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우리나라에 설치되었던 기선 중 남한지역에 위치한 6개소 중 장소성을 갖고 있고 반석, 주석 등의 시설물 또한 최초 설치 당시의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이 갖는 상징성 및 역사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비록, 서단의 주석은 소실되었지만, 기본이 되는 동·서단의 반석이 모두 원래의 위치에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현존하는 동단의 주석이 정비 과정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별개의 형태로 관리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종 등록 여부 및 범위, 조건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등록 시 등록 명칭에 대해서도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내포될 수 것으로 변경,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고성 구 간성기선 동·서단점 반석 및 주석」

<○○○○○○○○ ○○○>

1) 개요

○ 동 시설은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의 기선으로 사용한 기준점임.

○ 동 기준점은 우리나라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등록문화재 제247호인 대한민국 수준원점과 서울 미래유산 제2013-008호로 지정된 갈산 대삼각본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측량의 기틀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임.

○ 토지조사사업 당시 전국에 13개소의 기선이 있었으며 간성기선은 남측에서 양단 기준점 반석의 원형이 현재 매몰되지 않은 형태로 보존된 유일한 기준점임.
○ 간성기선의 동·서단점은 1997년 4~5월 발굴 및 복구하고 강원도 건설교통국 토지과에서 2008년 이후 주위 토지를 매입하여 환경정비 후 관리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근대 측량사를 복원하고 전시하여 역사와 문화, 측량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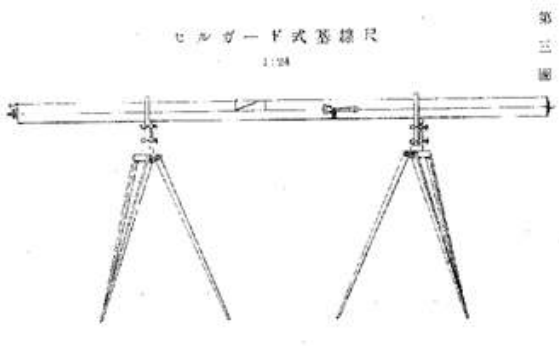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기술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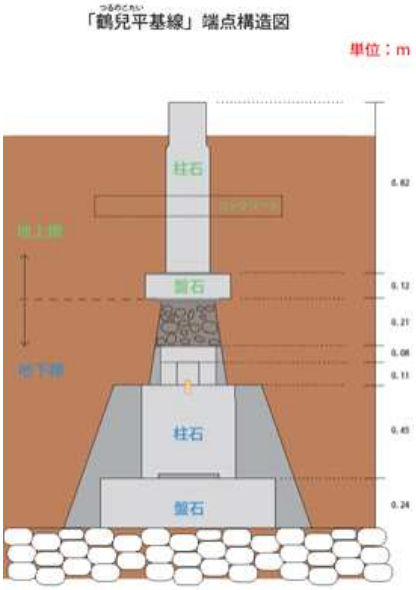
○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가 시행되었지만 그 방법은 일제가 본토 측량을 위해 사용한 방법과 다르고 보다 선진화된 측량방법으로 시행되었음.
○ 일제가 명치15년(1882년)부터 시작한 일본의 기선측량은 4m길이의 히루가도 기선척 3조를 이용하여 척을 접촉시키면서 연결했음. 히루가도 기선척은 4m의 철봉을 나무상자에 넣은 것으로 척의 양 단이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고 기선척을 고정하기 위해 8개의 나무 삼각대를 사용하였고 높이 조절은 상단에 있는 조정나사를 사용함. 이 기선척은 길이의 측정 외에 척의 온도와 경사도 측정했음.



일본의 기선측량 모습



일본이 사용한 기선척



일본의 기선 양단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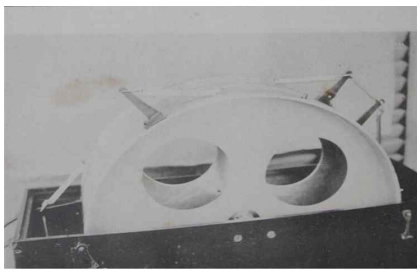


그림 151 일본의 기선 기준점 모습

○ 반면 우리나라에 시행된 기선측량은 이에 비해 상당히 선진화된 방법을 도입하였음. 사용된 장비가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의 최신기계를 도입하여 사용하였고 일제 기계는 사용되지 않았음. 기선척은 당시 최고의 제품인 인바 기선척을 사용하였음.



우리나라의 기선측량 모습



인바 기선척



13cm 다능경위의

○ 즉 기선측량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당시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였고 일제와 다른 형태를 보임.

나) 역사적 측면(근대화)

○ 우리나라 근대화 역사에서 지적측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와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국의 토지를 전부 등록한 것은 1950년 6.25동란으로 황폐화된 우리나라의 복구와 건설의 기초가 되었음.

○ 정확한 토지의 형상과 소유자의 권리를 등록한 지적은 향후 우리나라 재건시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신속한 건설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었음.

○ 측량은 국토개발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각종 건설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기여하기 때문임.

○ 즉, 간성기선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성립의 기틀을 마련한 토지조사사업(1910~1924)의 기초가 되는 기선으로 사용되었으며 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의 초기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 이러한 기초측량을 근거로 지적 일필지 조사를 통해 작성된 지적·임야도는 우수한 성과물로 현재까지도 지적측량에 사용 중임.

다) 기선의 의미적 측면

○ 기선측량과 수준측량은 대삼각본점(현재의 1등삼각점)의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측량이었음.

○ 대삼각본점을 통해 대삼각보점, 소삼각1등점, 소삼각2등점, 도근점 등으로 성과가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측량 성과의 바탕에는 기선측량의 성과가 있었음.

○ 따라서 측량에 있어서 간성기선의 의미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평가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토지조사사업 당시 기선측량을 위해 정비한 기선로는 직선으로 이어졌으나 현재 이 기선로는 확인할 수 없고 도로 등 타 용도로 일부 점유되고 있는 상황임.

○ 간성기선의 동서단점에 있어서도 반석과 주석은 복원되었으나 25m와 400m마다 설치된 목항이 보존되지 않고 있고 마형가의 가대와 점침, 망루, 궤판 등이 보존되지 않고 있음.

○ 반석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원형 그대로를 잘 보존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간성기선 동단점은 고성군청으로 부터 약2.3km, 서단점은 약5.5km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인 형세임.

○ 동단점은 도로에 접해 있고 차량통행이 많아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서단점은 이에 반해 도로에 접해 있기는 하나 도로에서 다소 멀리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보존하기 수월한 이점이 있음.

○ 주변에 특이한 주요 시설이 없고 주로 농경지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장에 체험관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관련 사료의 전시 및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 역사 순으로 한국 측량사를 복원해 내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여 토지와 측량의 역사성과 연계성을 복원하여 학술적 의미를 고찰하는 장소로 활용.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간성기선의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넓게는 측지학과 지리학에서 측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이며 더불어 우리나라의 근대 지적측량사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간성기선과 유사 시설로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로 '대한민국 수준원점(국가등록문화재 제247호)'이 있음. 수준원점은 측량의 높이를 결정하는 수직위치의 기준이며 간성기선은 대삼각보점 등 수평위치의 좌표를 계산하기 위한 삼각형 한 변의 길이의 기준이 되는 점임.

○ 또한 서울 미래유산 제2013-008호로 등록된 갈산 대삼각본점은 기선과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음.

○ 당시의 수준원점을 대표하는 인천만의 수준점과 더불어 기선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원형이 보존된 기준점으로서 간성기선의 가치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간성기선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정밀한 삼각측량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측량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한 13개의 기선 중 하나임

○ 우리나라에 시행된 기선측량은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일본 본토에서 시행된 기선측량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사용하였음.

○ 영산포기선은 1988년(동단)과 1994년(서단)에 양단의 반석을 발견 및 복구하였음. 동단은 주석은 없었고 서단의 주석은 깨진 상태였음. 2011년 4대강 사업으로 서단점이 수몰되어 기선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 따라서 간성기선은 남측에서 양단 기준점 반석과 동단의 주석 원형까지 보존한 유일한 기준점으로 그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고,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안건번호 근대 2021-02-09

9.「조선말 큰사전 원고」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유지

가. 제안사항

사단법인 한글학회 소장 국가등록문화재「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국가등록문화재 유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조선말 큰사전 원고」총 12점 중 8점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따라 잔여 4점의 국가등록문화재 유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 년대	소유자	소 재 지
조선말 큰사전 원고	4점 *기존 12점 중 8점은 보물 지정	25.6x 18.8cm 등	1945년 이후	(사)한글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사)한글학회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유지 여부

(3) 추진경과

○ ('19.7.15./9.5.) 국가등록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 자문회의

○ ('19.11.14.) 제7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검토

* 말모이 원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 등 9건 선정

○ ('20.7~9월) 관계전문가 지정 조사 실시

○ ('20.10.8.) 제5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 '원안가결'

○ ('20.10.30.~11.29.) 문화재 지정 예고

○ ('20.12.10.) 제7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20.12.22.) 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 지정 사항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보고

○ ('21.2.18.)「조선말 큰사전 원고」잔여 4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등록된 문화재 중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면서 남아있는 4점도 보물 지정된 원고들과 더불어 최초의 우리말 사전 발행을 위해 작성된 자료라는 국어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다만 등록 유지 시 명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칭 변경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제5조 제1항 : ①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마. 현지조사 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2.18.)

- 기 등록 제524-1호 「조선말 큰사전 원고」 12책 중 원본 원고인 8책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해방 이후에 전사된 것으로 밝혀진 나머지 4책(수록 표제어 : '우층-웡웡', '유-윷판', '으-읫만이', 'ㅎ-허리')이 논의 대상임.
- 해당 전사본 4책은 6·25 전쟁 때 보존을 위해 부본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유물들은 비록 일제강점기에 필사한 원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 간 발행(1947.10.9. 1권, 1949.5.5. 2권, 1950.6.1. 3권, 1957.8.30. 4권, 1957.6.30. 5권, 1957.10.9. 6권)된 「조선말 큰사전」을 이은 「큰사전」의 원고가 되었음. 본 유물은 6·25라는 민족 전쟁으로 인해 부본을 만들게 된 역사성이 있고, 최초의 우리말 사전의 초석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명칭의 경우 「조선말 큰사전 원고」로 통칭될 수는 있음. 그러나 지정문화재와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해방이후 완성된 원고이므로 「큰사전 원고」로 일컫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 ○○○('21.2.18.)

- 보물로 지정된 원고와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4책의 원고는 원고작성의 시기에만 치이가 있을 뿐, 그 자료의 성격은 동일한 것임. 보물로 지정된 「조선말 큰사전」의 원고만 있고 논의 대상인 4책의 원고가 빠진다면 앞의 보물로 지정된 원고는 그 완성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음.

- 비록 전사본이지만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한,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문화재로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현 명칭을 바꾸면 「조선말 큰사전 원고」와 「큰사전 원고」는 전혀 다른 원고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보물로 지정된 원고와 동일한 성격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문화재전문위원 ○○○('21.2.18.)**

- 논의 대상은 전사본으로 판단되는 4책으로 ① 우층~윙윙 ② 유~윷판 ③ 으~윗만이 ④ ㅎ~허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임.
- 조사본 4책은 한글학회 소장되었던 12책 가운데 일부분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검토하여 그 가치가 입증된 역사적 유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원고본과 전사본이라는 차이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전적 유물 중 필사본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임. 따라서 그 역사성을 고려할 때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명칭은 역사성 및 보물 지정본과의 차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선말 큰사전」으로 시작되어 「큰사전」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주체도 조선어학회에서부터 한글학회로 변화되는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큰사전 원고」를 사용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1>

제524-1호 「조선말 큰사전 원고」 현황 조사보고서

<문화재위원 ○○○>

1) 개요

○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에 압수되었다가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 조선통운 화물창고에서 발견되었음. 당시 재판 증빙자료로 경성고등법원에 보내졌던 것인데, 그때까지 창고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함. 이중에서 한글학회 소장의 12책은 등록문화재 제524-1호(2012.12.24.), 독립기념관 소장의 5책은 등록문화재 제524-2호(2012.12.24.)이었음.

○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22일에 한글학회 소장의 8책(12책 중에서 4책 제외)과 독립기념관 소장의 5책 그리고 새로 발굴한 김민수(金敏洙) 유족 소유의 1책 등 14책은 오리지널 원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2086호)가 되었음. 그래서 지정문화재에서 제외된 한글학회 소장의 4책을 계속해서 등록문화재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것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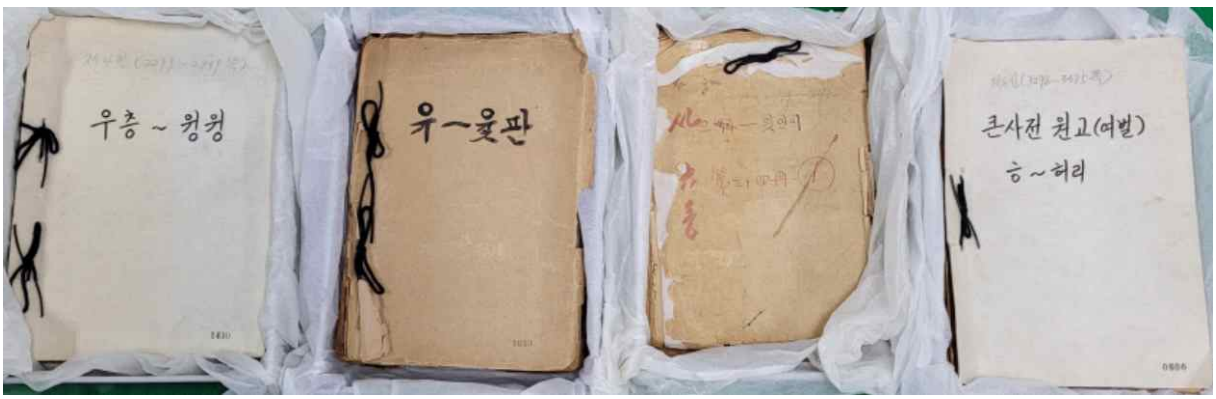
○ 『조선말 큰사전』의 편찬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29년 10월 31일(음력 9월 29일)이었음. 처음 108인의 발기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한 뒤 이극로가 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준비위원들이 마련한 규약을 통과시키고, 조선 민족의 총력으로 조선어사전을 편찬할 것을 결의하면서 시작되었음. 1940년 3월 12일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과 삭제 등을 조건으로 출판 허가까지 받았으나 1942년 10월 1일에 발생한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이 사업은 중단되었음. 해방이후인 1945년 9월 8일에야 정인승, 이극로, 김병제, 이중화, 정태진, 이강로, 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면서 194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선말 큰사전』의 첫째 권의 발행을 보게 되었음. 이후 모두 6권으로 발행되는데, 그 원고는 일제강점기 때 완성한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바탕이 된 것임.

○ 한편 국가문화재에서 제외된 한글학회 소장의 4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12책의 개략을 살필 필요가 있음. <표1>의 지정현황 항목에서 “×”로 표시된 4책이 이번에 조사대상임. 이 4책(‘우층-윙윙’, ‘유-윷판’, ‘으-읫만이’, ‘ㅎ-허리’)은 해방 이후에 전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에는 현재 남아있는 원본과 중복된 내용도 있음. 이렇게 전사본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재환은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에서 “(한글)학회는 난리 통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사전 원고는 무사했다. 9·28 서울 수복 후 학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큰 사전 원고를 한 권 더 베껴놓았고, 1·4후퇴 때 새 원고는 최현배가 부산으로 가져가고, 원본은 유제한이 천안 고향집에 보관하였다.”고 한 바와 같이 6.25전쟁 때 보존을 위해 부본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1> 한글학회 소장본의 각 책별 표제어 수록범위

구분	권수 표시	표제어 수록범위	지정현황
1	제3권	붇다 - 빟다	보물
2	제4권	시 - 싶	보물
3	제4권	외 - 우측통행	보물
4	**제4권**	**우층 - 윙윙**	×
5	**제4권**	**유 - 윷판**	×
6	**제4권**	**으 - 읫만이**	×
7	제5권	절용 - 제밑	보물
8	제5권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보물
9	제6권(6의1)	ㅌ - 팀파니	보물
10	제6권(6의2)	ㅍ - 핑핑히	보물
11	제6권	핸드오르간 - 현훈증	보물
12	**제6권 여벌**	**ㅎ - 허리**	×

○ 한글학회 소장의 4책 역시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마분지 계통의 표지를 앞뒤에 두고 왼쪽 또는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 검정색 철끈으로 매어놓은 가철본임. 가철본의 앞표지에는 첫 번째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를 적어 놓았음. 원고지가 고급지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님. 더욱이 발행을 앞두고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색의 펜을 사용한데다 별도의 원고지나 부첨지를 붙여 놓은 곳이 적지 않아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함. 또 각 책은 분량이 일정하지가 않음.



<사진1>조사대상인 한글학회 소장의 4책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고지의 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성화를 위한 보존처리가 시급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한글학회에는 지류문화재를 보존할만한 시설이나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5) 등록 유지 가치의견

○ 해방직후에 이 원고를 발견하여 한글학회에서는 차례대로 『조선말 큰사전』(『큰 사전』)을 6책으로 완간하였음. 곧 이 원고를 바탕으로 1947년 10월 9일에 1권을 발행한 이후 2권은 1949년 5월 5일, 3권은 1950년 6월 1일, 4권은 1957년 8월 30일, 5권은 1957년 6월 30일, 6권은 1957년 10월 9일 등 모두 6권으로 발행한 것임. 이때 1-2권은 『조선말 큰 사전』(조선어학회), 3-6권은 『큰 사전』(한글학회)이라는 명칭(서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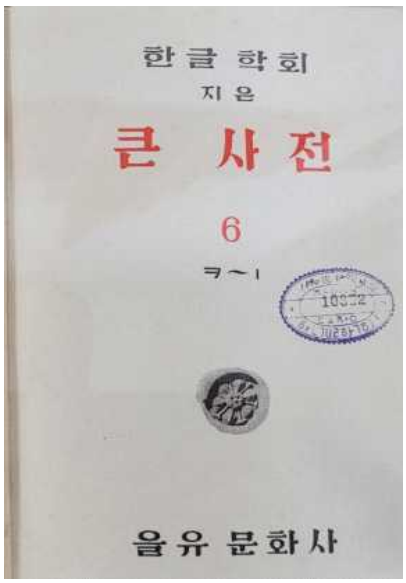
○ 한글학회 소장의 4책은 비록 일제강점기에 필사한 원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간에 걸쳐 발행된 『조선말 큰사전』을 이은 『큰사전』의 원고가 되었음. 또 6.25라는 민족 전쟁으로 인해 부본을 만들게 된 역사성이 있고, 최초의 우리말 사전의 초석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등록문화재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기 타(등록 유지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이 원고는『조선말 큰사전 원고』로 통칭될 수는 있음. 그러나 지정문화재와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해방이후 완성된 원고이므로『큰 사전 원고』로 일컫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또한 수량단위를 “권”에서 “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제1책(1947)[6]



제6책(1957)

7) 문헌자료

○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2019.

○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리의도,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해제.

○ 『등록조사보고서』(조선말 큰 사전 원고), 2012.

6) “숨은책시렁 201”(원본 사진)

<○○○○○ ○○○>

1) 개요

○ 1947년부터 1957년까지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전신)에서 간행한 조선말큰사전과 큰사전의 원고임.
○ 1권과 2권은 『조선말큰사전』으로, 3권부터 6권까지는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음)
○ 1권과 2권은 조선어학회의 이름으로, 3권부터 6권까지는 한글학회 이름으로 출판되었음.
○ 후에는 모두 '한글학회 지은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풀간되었음.
○ 이처럼 사전의 이름과 발행자가 달라진 것은 학회의 이름이 조선어학회에서 한글학회로 바뀌었기 때문임.
○ 1929년에 조선어사전 편찬회에서 시작한 사업을 1936년 4월 1일에 조선어학회가 넘겨 받아 작업하고 다시 한글학회에서 이어서 계속 작업한 원고임.
○ 이 사전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어 작업에 들어간 지 28년 만인 1957년 10월 9일 완간되었음
○ 이 중에서 한글학회 소장과 독립기념관 소장의 16책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었음.
○ 2021년에는 그 중 한글학회 소장의 8책과 독립기념관 소장의 4책과 고 김민수 교수 소장본은 보물로 지정이 되고 4책은 보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음.
○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4책은 모두 전사본으로 알려져 있음.
○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순서	책수 표시	권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쪽수 (기존)	연번표기	장수 (표지 포함)	책크기	비고
1	책수 표시 없음	제4권	2299-2339	우층 - 윙윙	284쪽	188-366	182장	25.6 x 18.8	전사본
2	책수 표시 없음	제4권	2339-2379	유 - 윷판		1699-2028	160장	26.1 x 18.3	전사본
3	책수 표시 없음	제4권	2379-2412	으 - 읫만이		1-135	137장	25.9 x 18.4	전사본 88쪽 누락 / 위넘김
4	여벌	제6권	3298-3385	ㅎ - 허리(큰사전원고 (여벌))	433쪽	0606-1038	431장	26.7 x 19.0	전사본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보물로 지정된 원고는 조선어학회에서『조선말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책의 원고임
○ 위의 4책은 한글학회에서『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책의 원고임.
○ 조선말큰사전의 원고라 해도 모두 전사본임.

① 우층-윙윙 부분
ㅇ 제목이 '우층-윙윙'으로 되어 있음
ㅇ 철끈으로 두 군데가 묶여 있음.
ㅇ 표지는 흰 종이로 되어 있어서 새로 제책을 한 것으로 보임.
ㅇ 원고지 왼쪽 변에 '조선어학회'라고 인쇄되어 있는 전용 원고지임
ㅇ 원고지 하단에는 20X20으로 되어 있어서 400자 원고지임을 보이고 있음.

② 유-윷판 부분
ㅇ 제목이 '유-윷판'으로만 되어 있음
ㅇ 철끈으로 두 군데가 묶여 있음.
ㅇ 표지는 누런 종이에 헌 곳이 있어서 원표지로 보임.
ㅇ 원고지 왼쪽 변에 '조선어학회'라고 인쇄되어 있는 전용 원고지임
ㅇ 원고지 하단에는 20X20이라고 되어 있어서 400자 원고지임을 보이고 있음.

③ 으-읫만이 부분
ㅇ 표지에 '으-읫만이'라는 제목이 있고 아래에 '第三十四冊'이라고 되어 있음
ㅇ 철끈이 위에 한 군데가 묶여 있음.
ㅇ 표지는 누런 종이에 헌 곳이 있어서 원표지로 보임.
ㅇ 400자 원고지임
ㅇ 원고지 왼쪽 변에 '조선어학회'란 학회명이 인쇄되어 있어서 원고지를 별도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음.
ㅇ 원고지 하단에는 20X20이라고 하여 400자 원고지임을 보이고 있음.

④ ㅎ -허리 부분
ㅇ 표지에는 '큰사전 원고(여벌) ㅎ - 허리'라는 제목이 가로로 쓰이어 있음
ㅇ 철끈으로 한 군데가 묶여 있음.
ㅇ 표지는 흰 종이로 되어 있음. 따라서 새로 제책한 것으로 보임.
ㅇ 원고지 왼쪽 변에 '한글학회'란 학회명이 인쇄되어 있음.
ㅇ 원고지 하단에는 20X20이라고 하여 400자 원고지임을 보이고 있음.
ㅇ 이러한 현상을 보면 ㅎ-허리 부분만 '한글학회' 원고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조선어학회' 원고지를 사용한 것임.
ㅇ 큰사전의 원고와 출판된 큰사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에 쓰인 내용과 출판된 사전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함.
ㅇ 각 책마다 주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임의적으로 2개씩만 선택하여 비교하여 보기로 함.

(1) 우층 -윙윙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우치(疣痔)	(이) ((의)) 피가 나오는 치질. (혈치=血痔)	(이) ((의)) 피가 나오는 치질. (혈치=血痔)	동일
우케	찧기 위하여 말리는 벼	찧기 위하여 말리는 벼	동일

(2) 유-윷판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유(類)1	(이) ① =무리 ②‘‘종류(種類)”의 준말	유(類) (이) ① =무리1 ②“종류(種類)”의 준말. ③ ((생)) 생물 분류상(分類上)의 단위. 강(綱)의 아래요, 과(科)의 위	원고의 유(類)1과 유(類)2를 하나로 통합하고 풀이를 달리함
유(類)2	『발』 종류의 뜻을 나타내는 말. [곤충-=昆蟲類. 경골-=硬骨類]		

(3) 의 - 읫만이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으그러뜨리다	(남) 물건의 거죽을 으끄러지게 하다.(으그러떠리다. 으르러터리다, 어그러트리다. 윽을어떠리다 (“으끄러뜨리다”의 센말)	남) 물건의 거죽을 으끄러지게 하다.(으그러떠리다. 으르러터리다, 어그러트리다. 윽을어떠리다 (“으끄러뜨리다”의 센말)	동일
으그르르	(엊) 먹은 음식이나 마신 물 따위가 목구멍으로 끓어 오로는 소리	(엊) 먹은 음식이나 마신 물 따위가 목구멍으로 끓어 오로는 소리	동일

(4) ㅎ -허리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ㆅ(쌍히읗)	((옛)) 혀뿌리가 목젖의 앞쪽에 거의 닿을 듯할 때에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갈아 내는 소리, 곧 ㄱ 소리의 자리를 마찰함. [혀(訓①:預 21). 홍(訓;例홍/7]	((옛)) 혀뿌리로 목젖의 앞쪽을 거의 마주 대면서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갈아 내는 소리, 곧 “ㄱ” 소리 나는 자리를 약간 터놓고 세게 마찰함.	동일
ㅎ건대[컨-)	[준} “하건대”의 준말		‘ㅎ건대’ 항목은 삭제됨.

○ 이러한 비교를 통해 몇 가지 발견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음.
① 원고로 남아 있는 자료는 대부분 사전을 간행할 때의 내용에 부합함.
② 최종적으로 출판할 때에 수정한 부분이 꽤나 있음.
③ 모든 원고가 출판된 큰사전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님.
④ 최종적인 교정은 교정지 상태에서 수정한 것으로 보임.
⑤ 그래도 위의 4책의 원고는 큰사전 편찬의 중요한 원천인 것은 틀림이 없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모두 양지를 사용하였고, 잉크를 사용하여 쓴 것이어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이지만, 산화되어 훼손될 위험성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한글학회에서 한지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보존 관리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국어사전은 그 나라의 학문의 총결산이며 그 나라의 문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임.

○ 국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며, 언어 단위 중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요소가 어휘이어서, 어휘를 수집 정리하여 편찬한 그 나라의 국어사전은 곧 그 나라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

○ 한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한국어에 대한 단일어사전은 1938년에 출판된 문세영 편찬 「조선어사전」임.

○ 편찬된 원고는 남아 있으나 출판되지 않아 원고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것이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말모이'이며,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사전' 원고임. 전자는 조선광문회에서, 후자는 계명구락부에서 계획한 것이었음.

○ 최초의 국어사전이라고 하는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은 책은 남아 있지만, 그 사전을 간행하였던 기초가 되는 원고는 남아 있지 않음. 비록 문세영 사전은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희귀성이 없어서 문화재로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음.

○ 조선어사전 편찬회에서 편찬을 시작하여 조선어학회를 거쳐 한글학회에 이르기까지 편찬해 왔던 조선말큰사전도 이미 책으로 출판되어서 그 희귀성의 부족으로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그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작성된 원고가 남아 있어서, 이 원고들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조선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되었던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마땅함.

①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무형적인 한국어를 유형적인 한국어로 바꾼 최초의 한국어 문화재임.

②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국어사전 중에서 원고가 남아 있는 유일한 것임.

③ '조선말큰자전 원고'는 20세기 초기부터 중기까지의 한국어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자료임.

④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의 문화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록임.

⑤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그 이후에 등장할 많은 한국어사전 편찬의 모형을 제시하여 국어사전 편찬의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료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보물로 지정된 조선말큰사전 편찬 원고와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상기 4책의 원고는 원고작성의 시기에만 치이가 있을 뿐, 그 자료의 성격은 동일한 것임.

○ 보물로 지정된 조선말큰사전의 원고만 있고, 상기 4 가지 원고가 빠진다면 앞의 보물로 지정된 원고는 그 완성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음.

○ 보물로 지정된 원고와 상기 4 가지 책의 원고는 동일 가치가 있음.

○ 비록 전사본이지만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한,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

7) 등록 유지 가치의견

○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상기 4 책의 원고는 그대로 문화재로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 유지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보물로 지정된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그 명칭이 '조선말 큰사전 원고'인 반면에 상기 4책의 원고는 '큰 사전 원고'로 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명칭을 바꾸면 '조선말큰사전 원고'와 '큰사전 원고'는 전혀 다른 원고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음

○ 보물로 지정된 원고와 동일한 성격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미 등록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조선말 큰 사전』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중심이 되어 만들고자 했던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을 지칭함.

○ 『조선말 큰 사전』은 1권과 2권의 책명 만이 '조선말 큰사전'이고 지은이도 조선어학회였으나,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개칭되면서 3권부터 각 권 및 판차가 달라짐.

○ 한글학회로 바뀌고 책명도 『큰 사전』이 되었음. 각 권의 발행일은 1권이 1947년 10월 9일, 2권이 1949년 5월 5일. 3권이 1950년 6월 1일, 4권이 1957년 8월30일, 5권이 1957년 6월 30일, 6권이 1957년 10월 9일임.

○ 조사 대상은 전사본으로 판단되는 4책으로 ① 우층～윙윙 ② 유～윷판 ③ 으～윗만이 ④ ㅎ～허리 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조사본 4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의 표와 같음

소장처	권수 표시	항목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표기	장수 (표지포함)	책크기	비고
한글학회	제4권	2299-2339	우층 - 윙윙	188-366	182장	25.6 x 18.8	전사본
	제4권	2339-2379	유 - 윷판	1699-2028	160장	26.1 x 18.3	전사본
	제4권	2379-2412	으 - 윗만이	1-135	137장	25.9 x 18.4	전사본, 88쪽 누락
	제6권	3298-3385	ㅎ - 허리(큰사전원고)	0606-1038	431장	26.7 x 19.0	전사본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조사본 4책의 표지에는 해당 권에 수록한 표제어가 쓰여 있고, 본문에는 항목별 기술 내용 이외에 해당 사항의 증보를 위한 '부첨지(附籤紙)' 및 기타 교정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도 남아 있으며, 본문 전체에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삭제된 내용 등이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으로 기록된 상태임.

○ 조사 대상 4책의 보존상태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조사본 4책은 지류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한 온습도 환경이 구축된 시설에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글학회는 별도의 보존 공간과 관련 장비 등이 전혀 없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보존 관리시설에 대한 정비가 요구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조선말 큰 사전』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한글사전'의 간행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님.

○ 1942년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의 역사적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료로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도 지님.

○ 『조선말 큰 사전』에 담긴 어휘, 어휘의 소록 순서, 철자, 발음 표시 등 다양한 사전의 기술 방식은 1900년대의 사회 문화상을 복원할 수 있는 1차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님.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한글학회 소장본 12책은 제작된 시기는 큰 차이는 없으나 원고본과 전사본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보존 관리 방안 및 활용 방안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물 및 등록문화재로서 구별됨.

○ 그러나 『조선말 큰 사전』 간행은 1929년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이후 1931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를 거쳐 1949년 한글학회에까지 계승되었고, 1957년에서야 비로서 완료되었던 역사적 의미가 있음.

7) 등록 유지 가치의견

○ 조사본 4책은 한글학회 소장되었던 12책 가운데 일부분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검토하여 그 가치가 입증된 역사적 유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

○ 원고본과 전사본이라는 차이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전적 유물 중 필사본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임.

○ 따라서 그 역사성을 고려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유지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등록 명칭으로 역사성 및 보물 지정본과의 차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 사전은 '조선말 큰사전'로 시작되어 『큰 사전』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주체도 조선어학회에서부터 한글학회로 변화되는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역사성을 고려한 명칭으로 '큰사전 원고'를 사용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붙임2>

○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2호 「조선말 큰사전 원고」 보물 지정 세부현황

소장처	연번	권수 표시	항목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 표기	장수 (표지포함)	책 크기	비고	지정 여부
제524-1호 한글학회 (8책)	1	제3권	1447 -1505	붇다 - 빛다	0011 -0313	274장	27.0 x 19.3	제3권 연필표기	o
	2	제4권	1890 -1961	시 - 싶	1 -315	318장	27.0 x 19.5	51쪽 2장	o
	3	권수표시 없음	2253 -2269	외 - 우측통행	1095-1429	188장	28.0 x 20.4		o
	4	제5권	2666 -2712	절용 -제밑	0360 -0639	201장	27.1 x 19.9		o
	5	제5권 5의 7	2803 -2848,1273-1472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0640 -0882	199장	27.2 x 19.8		o
	6	제6권 (6의1)	3125 -3199	ㅌ - 팀파니	1347 -1746	317장	26.8 x 19.5		o
	7	제6권 (6의2)	3199 -3298	ㅍ - 핑핑히	1747 -2306	452장	27.0 x 19.1		o
	8	제6권	3372 -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쯩]	241 -393	255장	26.8 x 19.7		o
	9	권수표시 없음	2299-2339	우층 - 윙윙	188-366	182장	25.6 x 18.8	**전사본**	**X**
	10	권수표시 없음	2339-2379	유 - 윷판	1699-2028	160장	26.1 x 18.3	**전사본**	**X**
	11	권수표시 없음	2379-2412	으 - 윗만이	1-135	137장	25.9 x 18.4	**전사본,** 88쪽 누락	**X**
	12	여벌	3298-3385	ㅎ - 허리(큰사전원고 (여벌))	0606-1038	431장	26.7 x 19.0	**전사본**	**X**
제524-2호 독립기념관 (5책)	1	5의 1	1 -240	ㅈ -잡제	0011 -0359	249장	27.5 x 19.6		o
	2	5의 8	1473의 1 -1667	찌그러지다 -진도바리	0883 -1117	200장	27.5 x 19.8		o
	3	5의 11	201 -399	척사윤음 -청찰	1118 -1346	201장	27.3 x 20.1		o
	4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 -옇다	0704 -1094	334장	27.5 x 19.8	80쪽 2장, 236쪽 2장, 이면 표기 757,794 889,906 951	o
	5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0007-0425	330장	27.4 x 20.1		o
기존 미등록 개인 소장본 (1책)	1	범례, ㄱ	표시 없음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 (上中下)	없음	51장	26.9 x 19.7		o

안건번호 근대 2021-02-10

10.「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5.11.26)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7.13.)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16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6.) : 보류

· 사유 : 근대기 철길 터널 종합 조사후 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읍시장

(2) 검토내용

○ 문화재명칭(안) : 정읍 호남선 철길 터널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임암면 등천리 산206, 산209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47-1, 1137, 1139-1

○ 소 유 자 : ○○○ 외 1인[○○○(제1터널), ○○○(제2터널)]

○ 수 량 : 2기

○ 건립시기 : 1914년

○ 구조 및 규모

- 제1터널 : 석조 및 적벽돌 / 길이 321m, 폭 4.08m, 높이 5.02m
- 제2터널 : 석조 및 적벽돌 / 길이 945m, 폭 4.08m, 높이 5.02m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4) 추진경과

○ ('15.11.2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북도 → 문화재청)

○ ('16.7.1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16.7.26.) :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보류**'

- 근대기 철길 터널 종합 조사후 검토

○ ('19.12.31.) : 근현대 산업시설 목록화 조사 완료[(정읍 호남선 철길 터널 B**등급**)

* B등급은 시·도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국내 터널 유사 사례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 결과 역사성, 희소성이 뛰어나지 않고 현재 보존상태 및 활용여건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를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서면 검토의견('21.2.15.) : 문화재위원 ○○○

○ 2016년 등록 검토 과정에서 국내 터널 유사 사례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었던 건으로, 2019년 문화재청에서는 '근현대 산업시설 목록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터널에 대해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

○ 2019년 국내 터널 조사 및 평가 결과, 부산 해운대 피암터널 등 3개소가 A등급, 옥천 당재터널 등 5개소가 B등급으로, 정읍 노령제1터널과 장성 노령제2터널 등 23개소가 C등급으로, 6개소가 D등급으로, 20개소가 E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노령 제1터널과 제2터널은 현존하는 국내 터널 중에서 역사성, 희소성이 뛰어나지 않고 현재 보존상태 및 활용여건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바.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전문위원 ○○○('16.7.13.)

-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은 두 기 모두 이미 등록된 왜관 터널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때 건축기법(출입구의 개선문 형식 구성 및 장식), 규모(특히 길이) 등에서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단순히 기존 등록사례와의 비교만을 통해서 그리고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에 대한 단독적 조사만을 통해서, 현 단계에서 등록 가치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됨.
- 철도 터널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종합적 일제조사를 통해서 각 터널의 가치와 대표성에 대한 조사, 평가가 선행된 후,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의 등록 가치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16.7.13.)

- 제1터널은 접근성이 나빠 지정된 이후에도 활용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2터널은 장성군에서의 접근성은 좋으나 정읍시에서의 접근은 어려워 정읍시가 관리주체가 되면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재료의 노후화가 심하고 접근성이 나빠, 지정 후 유지관리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활용성도 낮을 것으로 보임.

- 기 지정된 터널과 비교할 때, 호남선에 있는 터널이고 약간의 장식성은 있으나 우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이유가 없음.

○ 문화재전문위원 ○○○('16.7.13.)

- 현재 등록문화재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사례로는 '밀양 상동터널'과 '구 왜관 터널'이 있다. 이들 철길터널은 1905년 건립된 이래 경부선 철도의 복선화로 인해 각각 1937년과 1960년대에 용도 폐기되었으며 근대건축 도입기의 벽돌 제조와 조적기술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
-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의 경우 위의 두 사례('밀양 상동터널'과 '구 왜관 터널')와 매우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현재 정읍시 이외에도 구 호남선 철길 선상에 이와 유사한 터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등록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 의결사항

○ 부결

- 역사성, 희소성이 뛰어나지 않고 현재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등록가치가 미흡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정읍 구 호남선 철길터널　　(구) 정읍 호남선 철길터널

2. 용　　도 : (현) 농산물 저장시설 및 젓갈 숙성장　(원) 철길터널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임암면 등천리 산206, 산209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47-1, 1137, 1139-1

4. 소 유 자 : ○○○ 외 1인[○○○(제1터널), ○○○(제2터널)]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석조 및 적벽돌
○ 준 공 일 : 1914년 개통
○ 수량 및 규모 : 제1터널 - 길이 321m, 폭 4.08m, 높이 5.02m
제2터널 - 길이 945m, 폭 4.08m, 높이 5.02m
○ 층수(높이) : 1층(5.02m)

6. 조사자 의견('16.7.13.)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호남선 중 정읍-송정리 구간이 1911년 착공된 후 1914년 개통되면서 1914년 완공된 철길 터널로 제1터널과 제2터널 두 기의 터널로 구성.
○ 1987년 호남선이 복선화 및 노선변경이 되면서 두 터널 모두 폐선되었고 미활용되다 현재 제2터널은 젓갈 보관창고로 활용 중.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제1터널과 제2터널은 모두 적벽돌 조적조의 볼트(Vault) 형식 터널로 구축되었으며 터널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건축형식, 기법, 규모는 동일.
○ 각각의 규모는 제1터널은 길이 321m, 폭 4.08m, 높이 5.02m이고 제2터널은 길이 945m, 폭 4.08m, 높이 5.02m.
○ 각각의 터널 내부는 적벽돌을 주재료로 조적조에 의해 볼트를 구축하였고 양쪽 벽면은 하단부로부터 약 3m 정도 높이로 화강석 판재로 마감.
○ 각각의 터널 내부의 한쪽 벽면에는 일정 간격으로 벽감(壁龕, Niche) 형식의 작업자 대피공간을 설치.
○ 각각의 터널 양단부 출입구 부분은 화강석을 주재료로 구축, 마감하였으며 개구부 아치, 상부 수평 돌림띠(Cornice), 붙임기둥(Pilaster) 등 개선문(凱旋門)과 유사한 기법에 의해 장식.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두 터널 모두 전체적으로 구축 당시의 구조체 원형을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 바닥의 철길 궤도는 철거되고 시멘트로 마감된 상태.

○ 터널의 특성상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누수가 진행되며 벽면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제2터널 정읍쪽 출입구 부분은 누수가 심각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두 터널 모두 1990년 개인에게 불하되어 개인 소유자가 등록에 동의하였고 정읍시에서도 등록문화재로서 보존, 활용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상태.

○ 전북 정읍시와 전남 장성군의 외곽 경계부 한적한 산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보존관리를 특별히 저해할만한 요소는 없는 상태.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정읍시에서 두 터널을 활용하여 농산물, 젓갈, 와인 등의 저장고, 판매장, 체험장으로 조성하고 철길 궤도를 복원하여 철길체험시설로 조성하는 활용계획을 고려중이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미수립된 상태.

○ 추후 정읍시에서 구체적 계획 수립시는 실행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주 및 장성군과 협의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청도 와인터널, 김해 와인동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활용 가능성은 있지만,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 활용을 기반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등록문화재 중 터널로는 여수 마래 제2터널(제116호), 통영해저터널(제201호), 밀양 상동터널(제204호), 칠곡 구 왜관터널(제285호)의 사례가 있으며, 이중 왜관터널이 정읍 구 호남선 터널과 성격, 형식이 유사하지만 길이는 약 80m 정도로 매우 짧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은 두 기 모두 이미 등록된 왜관 터널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때 건축기법(출입구의 개선문 형식 구성 및 장식), 규모(특히 길이) 등에서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단순히 기존 등록사례와의 비교만을 통해서 그리고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에 대한 단독적 조사만을 통해서, 현 단계에서 등록 가치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됨.

○ 철도 터널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종합적 일제조사를 통해서 각 터널의 가치와 대표성에 대한 조사, 평가가 선행된 후,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의 등록 가치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일제강점기인 1914년 건설된 호남선 철길 터널로 1987년 호남선 복선화로 철길이 이전할 때까지 활용된 터널로 근대기 교통시설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제1터널과 제2터널은 길이가 다를 뿐 시공방식, 재료 그리고 아치 하부를 석재(화강암으로 추정됨)로 상부 벽체와 천장부분은 적벽돌로 구축하고는 방식이 동일함.

○ 터널 파사드는 석재로 장엄하게 시공돼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제1터널과 제2터널의 아치구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바닥은 철로를 제거하고 시멘트 바닥으로 변경돼 있음.

○ 제1터널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누수현상이 터널 전 길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천장 중앙의 벽돌이 심하게 풍화돼있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임.

○ 제2터널은 현재 젓갈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터널 양끝에서 누수가 심한 상태임.

○ 두 터널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제1터널은 접근성이 나빠 지정된 이후에도 활용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2터널은 장성군에서의 접근성은 좋으나 정읍시에서의 접근은 어려워 정읍시가 관리주체가 되면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보존관리 계획이 부실하여 부합성을 판단할 수 없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 재료의 노후화가 심하고 접근성이 나빠, 지정 후 유지관리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활용성도 낮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지정된 터널과 비교할 때, 호남선에 있는 터널이고 약간의 장식성은 있으나 우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이유가 없음.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상기 2기의 구 호남선 철길터널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단선(單線)으로 개통된 호남선 철도의 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1987년 호남선 철도가 복선화됨에 따라 용도가 폐기되었음.

○ 그 후 제1터널의 용지는 1990년에 유병덕의 명의로, 제2터널은 김완순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현재 제2터널은 젓갈 숙성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나 제1터널은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 2기의 철길터널 모두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군령마을을 통해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함. 주변은 대부분이 산림지역이나 입구 쪽 일부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제1터널과 제2터널은 직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직선거리로 약 1㎞정도 이격되어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제1터널은 길이 321m×폭 4.08m×높이 5.02m의 규모로 양측 벽은 화강석을 견고하게 쌓아 기초부를 형성하고 상부 천장은 붉은 벽돌로 아치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궁릉형의 곡면 구조체를 완성하였음. 터널 입·출구의 외벽은 기초부를 화강석으로 쌓고 상부 아치의 중앙에는 홍예석을 끼워 구조적인 안정감을 높여주고 있음. 제2터널은 길이 945m×폭 4.08m×높이 5.02m의 규모로 제1터널과 비교할 때 길이만 연장되었을 뿐 폭과 높이,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는 동일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기의 철길터널 모두 외형은 1914년 축조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내부 벽면의 화강석 일부에 균열이 보이며 아치로 구성된 천정에서는 곳곳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누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2터널의 경우에는 일부 붉은 벽돌로 쌓은 아치 천정 표면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보수한 흔적이 있으며 또한, 입구 쪽 외벽 일부에서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87년 용도가 폐기되면서 2기의 철길터널 모두 바닥에 설치한 철로를 철거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새로 포장하였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2기의 철길터널이 위치한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군령마을 일대는 대부분 산림지역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유주와 정읍시 모두 보존의지가 확고하므로 철길터널의 시대적 가치와 의미에 기초하여 지역문화의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1터널의 경우 행정구역상 전라북도(정읍)와 전라남도(장성)에 걸쳐 있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등록문화재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사례로는 '밀양 상동터널'과 '구 왜관터널'이 있음. 이들 철길터널은 1905년 건립된 이래 경부선 철도의 복선화로 인해 각각 1937년과 1960년대에 용도 폐기되었으며 근대건축 도입기의 벽돌제조와 조적기술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음.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정읍 구 호남선 철길 터널'의 경우 위의 두 사례('밀양 상동터널'과 '구 왜관터널')와 매우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취하고 는 있지만 현재 정읍시 이외에도 구 호남선 철길 선상에 이와 유사한 터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등록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근대 2021-02-11

11.「상주 주조장」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상주 주조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12.1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11.14.)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상주시장

(2) 검토내용

○ 문화재명칭(안) : 상주 주조장(酒造場)

○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인봉동 73-7

○ 소 유 자 : 상주시

○ 수　　량 : 1동

○ 건립시기 : 사무동(1935년 이후 추정), 굴뚝(1935년 이전 추정)

○ 구조 및 규모 : 사무실 1동(목조2층, 189.3㎡), 굴뚝 1기(17.8m)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12.12.)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상주시 → 문화재청)

○ ('19.11.1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19.12.6.)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상주시, 증·개축 내력 및 고증자료 등)

○ ('20.2.12.) : 보완자료 제출(상주시 → 문화재청)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핵심 시설인 공장이 철거되어 주조장으로서의 기능과 구조가 상실되었고 남아있는 사무동과 굴뚝은 고증자료 부족으로 구체적 건축년도가 확인되지 않고 사무동 건물이 노후화 및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19.11.14.)

- 상주주조주식회사는 1928년 설립되어 당시 경상북도 중심지로 주류 관련 산업이 활발하였던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이므로,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 주조장의 가장 핵심적 시설인 공장이 철거되어 주조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과 특징적 공간구조가 대부분 상실되었고 남아있는 사무동과 굴뚝은 고증자료 부족으로 구체적 건축년도가 확인되지 않고 사무동은 노후화 및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19.11.14.)

- 상주주조장은 관련 사료(史料) 등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삶과 산업화에 중심이 되어왔고, 현재 주조장에 일부시설인 사무동과 굴뚝 등 관련 시설이 남아있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훼손 정도가 크고, 건립시기 등 연혁 등이 명확하지 않음
- 소유자(상주시)의 보존과 활용의지 강하고, 대상시설이 위치한 지리적여건 등 활용도가 높으며, 지역에 산업화 및 생활사 측면에서 의미있는 유산이라고 판단되며, 장소나 대상 시설이 근대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상주주조장은 지역 내 역사적 의미가 크고, 상징적 의미에서 보존과 활용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대상 건물에 훼손 정도가 크고, 당초 주조장 본래 기능을 갖는 시설은 이미 멸실되고, 신청대상은 주조장과 연관된 관련 시설이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 판단에 근거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신청대상에 대한 관련 자료가 부족한 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어렵다고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19.11.14.)

- 현재 증류소주 생산공장으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없는 까닭에 상주 주조장이 공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공장이 없으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상주주조주식회사 글씨가 새겨진 굴뚝의 경우 그 규모가 크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사무실 건물의 경우 역시 원형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존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뒤따르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됨.

- 전체적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보다는 지역의 상징적 구조물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 또한 상주읍성의 복원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핵심시설인 공장이 철거되어 주조 생산설비가 없고, 남아있는 사무동과 굴뚝은 건축년도가 확인되지 않고, 노후화 및 훼손이 심각하여 등록가치가 미흡함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상주 주조장　　(구) 상주주조주식회사

2. 용　　도 : (현)　　(원) 주조장

3.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인봉동 73-7

4. 소 유 자 : 상주시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사무동(목조), 굴뚝(조적조)
  ○ 준 공 일 : 사무동(1935년 이후 추정), 굴뚝(1935년 이전 추정)
  ○ 수량 및 면적 : 사무동 면적 1층 69.42㎡ 2층 69.42㎡(건축물대장)
  ○ 층수(높이) : 사무동 지상 2층, 굴뚝 높이 17.8m

6. 조사자 의견('19.11.14.)

<문화재위원 ○○○>

1) 개요
  ○ 주조관련 법령으로 1909년 주세법(酒稅法)이 최초 공포된 후 주조관련 면허와 세금이 도입되었으며, 일제는 1916년 주세령(酒稅令) 공포와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점차 세금징수를 확대.
  ○ 1920년대 들어서 식민통지 재원확보을 위해 세금징수 확대가 필요하였던 일제는 주세령을 통해 과거 체계적 세원관리와 효율적 세금징수가 어려웠던 자가 제조장, 군소 주조장을 통폐합하여 파악, 관리, 징수가 쉬운 대형 주조장으로의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
  ○ 조선시대 당시부터 경상북도의 행정적 중심지로 역할을 하며 전통적으로 주류 제조와 소비가 활발하였던 상주는, 1920년대부터 일본인 주도로 대형 주조장이 다수 설립되며 주류 관련산업이 성행.
  ○ 조선주조사(朝鮮酒造史, 조선주조협회 1935년 간행)에 의하면 상주주조주식회사는 1928년 4월 설립되었으며, 조각연 등 한국인이 일부 참여하였지만 대부분 일본인의 주도로 설립.
  ○ 상주주조주식회사는 1985년 주조장이 폐업된 이후 각종 공장 등 여러 용도로 임대 활용되다 2019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상주시에 매각되어 공장 건물 등이 철거되고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었으며, 남아있는 사무동과 굴뚝은 2018년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
  ○ 상주주조주식회사 자리는 과거 1912년 해체, 철거된 상주읍성이 있었던 위치로 2019년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5세기 설치된 해자(垓子)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 확인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 상주주조주식회사는 본래 주요시설이 도로에 면한 남향의 사무동을 중심으로 옆쪽으로 사택이, 뒤쪽으로 긴 박공지붕 형태의 공장 건물 3동이 연속되며 배치되었으나 현재는 공장과 사택이 철거되고 변형된 상태.
- ○ 상주주조주식회사 자리에 2019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사무동과 굴뚝만 남기고 나머지 시설은 철거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사무동과 굴뚝은 2018년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상태.
- ○ 사무동은 기본적 건축형식이 장방형 평면, 일식목조, 2층 규모이며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과 다수의 오르내리 창문으로 구성하고 지붕은 일식 시멘트기와 마감과 우진각 지붕 형태로 구성.
- ○ 사무동 평면은 단순한 장방형 형태로 1층은 본래 사무실, 판매장,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거실, 방, 주방 등 주거용으로 변형되었으며 2층은 도코노마(床の間)를 지닌 대규모 방, 소규모 방, 장마루 복도 등에 구성된 원형적 공간구성을 대부분 유지.
- ○ 사무동은 현재 최초 건축년도가 불분명하며 1935년 발간된 조선주조사에 실린 상주주조주식회사 사진에 있는 사무동 건물은 현재 건물과 다른 1층 규모 건물이 나타나 있어 현존하는 사무동은 1935년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개략적 추정이 가능.
- ○ 굴뚝은 기본적 형식이 높이 17.8m, 직경 2.3m 규모의 벽돌조 원통형 구조물로 벽면에 '尙州酒造株式會社'라는 큰 글씨가 쓰여져 있으며 굴뚝 하부와 연결된 연도 일부가 노출되어 전시되고 있는 상태.
- ○ 굴뚝은 현재 최초 건설년도가 불분명하지만 조선주조사에 사무동과 같이 찍힌 상주주조주식회사 사진에 현재와 유사한 굴뚝이 나타나 있어 1935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개략적 추정이 가능.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 상주주조주식회사는 현재 주조공장의 기본적 기능이자 특징적 시설이었던 주조공장 및 생산시설은 모두 없어지고 사무동과 굴뚝만 남아있으므로, 본래 주조공장으로서의 전체적 원형 보존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 사무동은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고 공가로 방치되어 내부와 외부 모두 전체적으로 노후화,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1층은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내부가 변형된 반면에 2층은 본래의 공간구성을 그대로 유지.
- ○ 굴뚝은 사무동에 비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 상주주조주식회사는 2019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상주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장, 관사 등 주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체적으로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상태.
- ○ 상주주조주식회사 본래 건물 중 현재는 사무동과 굴뚝이 남아있으며, 사무동과 굴뚝은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유산 제도에 의해 2018년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

○ 상주주조주식회사는 현재 구시가지 도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 1912년 해체, 철거된 상주읍성이 있었던 위치로 2019년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5세기 설치된 해자(垓子)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상주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상주읍성 복원계획을 추진중.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소유주인 상주시에서는 보존과 복원을 통해 일제강점기 및 주조장과 관련된 전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상주 근대역사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 상주주조주식회사는 상주의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의 근대기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므로, 근대역사관으로의 조성, 활용은 바람직한 활용계획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주류제조 관련시설 또는 양조장으로서 국가등록등록문화재로는 진천 덕산양조장, 양평 지평양조장, 문경 가은양조장, 영덕 영해양조장 및 사택 등의 사례가 있음.

○ 이들은 입국실, 사입실 등 양조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과 특징적 시설을 유지하며 주조장의 기본적, 특징적 공간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주주조장은 주조장으로서 가장 기본적, 특징적 시설인 공장은 철거되고 관련시설로 사무동과 굴뚝만 남아있는 상태.

7) 등록가치의견

○ 상주주조주식회사는 1928년 설립되어 당시 경상북도 중심지로 주류 관련산업이 활발하였던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이므로,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 주조장의 가장 핵심적 시설인 공장이 철거되어 주조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과 특징적 공간구조가 대부분 상실되었고 남아있는 사무동과 굴뚝은 고증자료 부족으로 구체적 건축년도가 확인되지 않고 사무동은 노후화 및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구 상주주조장 또는 구 상주주조주식회사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상주에서 조선인 조각연이 최초 창립(1928년)한 주조장으로, 그 당시의 조선주인 탁주, 약주, 소주를 제조하는 '상조주조주식회사'를 유지들과 창립하고,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이 주도 회사로 바뀜.

○ 해방이후 1958년 대표는 조용연 이었으며, 당시 사진자료에 의하면 1층 규모에 일본식 목조건물로 판단됨.

○ 현재 신청건물에 배치는 상주시 중심부에 인봉2길과 3길이 교차하는 6m도로 인접하고 있으며, 인접하여 도로와의 고저차가 없이 평지에 위치하고 있음
○ 대지는 남북방향으로 장변을 갖는 장방형의 형태이며, 사무실은 대지의 남쪽 인봉2길과 서쪽으로 인봉3길이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북서쪽에 굴뚝이 남아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사무실과 굴뚝으로 주조장 시설은 철거된 상태로 철거전 주조장의 전체 배치 상태는 알 수 없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신청대상은 사무실 건물과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조장 사무실은 상주시 매입 이전까지 건설회사(2016년 매입) 사무실로 사용됨.
○ 건물은 'ㅇ'자형의 장방향 평면이며, 1층은 남쪽 인봉2길에서 진입하는 대문과 현관은 건물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에서 대문으로 연결되는 건물 중앙부 현관으로 진입하면 거실과 주방이 위치하고 있고, 동측으로 방 2개소와 서측으로 방 1개소 및 화장실과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음.
○ 2층 평면은 1층 내부계단을 통해 진입하며, 서측에 위치한 계단실과 작은 방에서 속복도를 사이에 두고 동측으로 큰방이 위치하고 있음, 속복도와 연결되는 남측에 외복도로 둘러쌓인 큰방 내부의 서측으로 장식장(도코노마)과 반침이 위치함.
○ 내부는 노출 기둥에 벽체는 목재 졸대 위에 흙을 바르고 회벽으로 마감되어있고, 천정은 합판 마감으로 훼손된 부분이 많고 일부는 보수된 것으로 확인됨, 전반적으로 원형마감이 유지되고 있으나 목부재의 썩음 등과 목재바닥 훼손 부분이 확인되며 이에따른 위험요소가 것으로 판단됨.
○ 외벽은 시멘트몰탈 거친 마감으로 부분적으로 마감재 훼손과 파손이 확인되며, 우측면(동측)벽체는 골함석으로 덧대어져 있어 창호 등 마감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외부 창호는 원형의 창호와 창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외부창은 수직방향으로 장방형에 길이를 갖는 오르내리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는 장지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창호는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외복도와 방사이 출입문 상부에 난마창 등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판단됨.
○ 지붕은 모임지붕의 시멘트기와 마감으로 되어있으며, 천정재는 목부재의 썩음 등훼손이 확인되고, 천정목구조는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계단실 천정에는 아치스타일의 내림벽이 설치되어 있어 장식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사무실 외에 외부에 설치된 굴뚝은 1935년 조선주조사(朝鮮酒造史)에 실린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굴뚝으로 연결되는 연도 일부가 노출되어 굴뚝과 함께 남아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내·외부 수리이력이 남아있지 않으며, 천정과 바닥 등 목부재의 수로 인해 목재썩음 등 훼손과 변형 부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외부 형태의 보존상태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구조부와 부재의 전반적으로 노후화 및 열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태임
○ 굴뚝부분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잔존하는 연도 일부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사무동과 굴뚝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주조장은 현재 미사용 중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재료의 썩음과 훼손이 확인되며, 열화 등으로 인해 보존관리계획이 시급함.

○ 현재 상주주조장 사무실 및 굴뚝은 관리 주체(상주시)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을 위해서 매입한 상태로 소유자가 근대유산에 대한 활용 의지가 있고, 상주향청과 왕산역사공원이 인접하고, 역사문화공간으로 연계성을 갖는 등 지역 내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보존 및 관리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상주주조장 사무동과 굴뚝의 보존상태에 따른 보존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대상 시설에 대한 보존계획이 필요함

○ 주조장 시설 다수가 멸실된 상태로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활용계획이 구체화 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상주시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근대시기 주조와 관련된 역사와 함께 지역산업사에서 있어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주조장 사무동은 규모와 노후도에 따른 구조 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문화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활용계획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동일 유형의 기등록문화재로 덕산양조장과(등록 제58호, 1930년 건립), 문경 가은양조장(등록 제704호, 일제강점기) 등이 있음

○ 진천 덕산양조장은 단층 목구조로 건립되어 현재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문화재건물은 당시 양조시설로 사용된 건물로 건축적 형태와 구조, 관련시설 등이 잘 남아 있으며, 현재 양조장의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문경 가은양조장은 건물배치와 구조 등이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양조장시설로 건축적 특징과 관련 양조시설 등이 남아 있음.

○ 상주주조장의 건물은 사무동과 굴뚝의 일부가 신청되었으며, 주조시설로 기능을 갖는 건물은 이미 멸실된 상태로 확인됨. 따라서 기등록문화재가 갖는 건축적 특징과 당시의 주조(양조)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 시설의 보존 상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1935년 『조선주조사』에 실린 사진과 현재의 사무동에 모습은 상이하며, 신청대상 건축물의 건립 시기 또는 증개축에 등에 대한 고증이 필요(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1957년 신축 내용에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신청대상 건물에 대한 건립시기 등 확인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상주주조장은 관련 사료(史料) 등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삶과 산업화에 중심이 되어 왔고, 현재 주조장에 일부시설인 사무동과 굴뚝 등 관련 시설이 남아있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훼손 정도가 크고, 건립시기 등 연혁 등이 명확하지 않음

○ 소유자(상주시)의 보존과 활용의지 강하고, 대상시설이 위치한 지리적여건 등 활용도가 높으며, 지역에 산업화 및 생활사 측면에서 의미있는 유산이라고 판단되며, 장소나 대상 시설이 근대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상주주조장은 지역 내 역사적 의미가 크고, 상징적 의미에서 보존과 활용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대상 건물에 훼손 정도가 크고, 당초 주조장 본래 기능을 갖는 시설은 이미 멸실되고, 신청대상은 주조장과 연관된 관련시설이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 판단에 근거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신청대상에 대한 관련 자료가 부족한 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어렵다고 사료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구. 상주주조장 사무동 및 굴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상주시의 동쪽, 상주 향청과 인접하여 자리잡고 있는 (구)상주주조장 부지는 현재 상주읍성을 발굴과정이 진행중인 곳으로 일제 강점기 읍성이 철거된 이후 성벽 자리에 주조장 사무실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 술을 빚던 주조장은 남아 있지 않고 주조 과정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적조의 높은 굴뚝과 남쪽 도로면에 접하여 2층 사무실 건물이 남아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굴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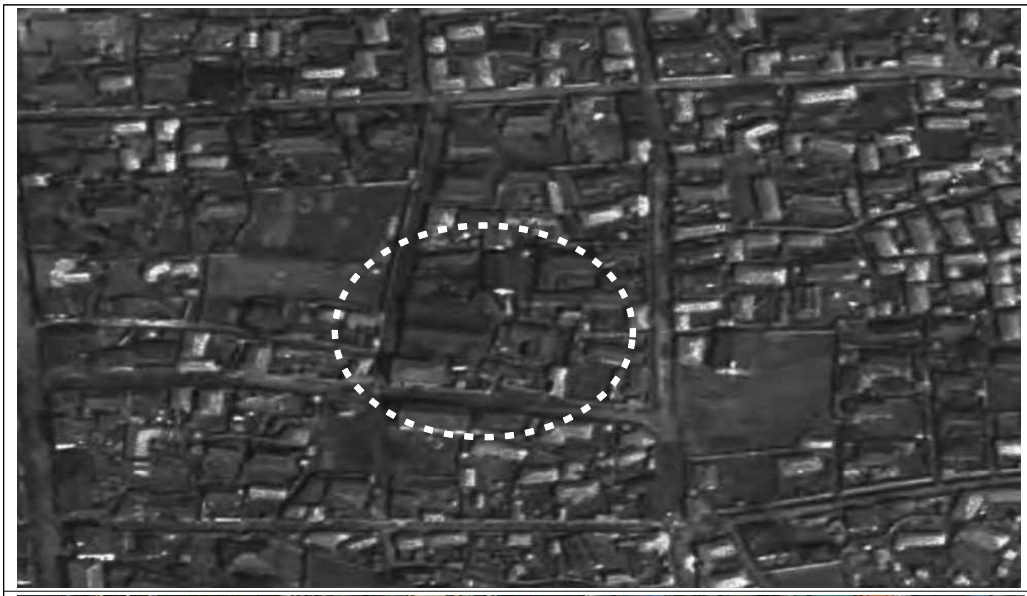
- 재래식벽돌의 마구리면이 밖으로 드러나게 방사형으로 쌓은 굴뚝으로 저변 최대 지름은 약 2M 정도이고 위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형식으로 쌓았다. 주조장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가 일부 남아 있는데, 결원형 아치로 구성되었고 너비와 높이가 각각 1M 정도이다.
- 굴뚝의 남측면으로 세로로 길게 '尙州酒造株式會社'라는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 이곳이 주조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양조장과 달리 이렇게 높은 굴뚝이 주조장과 연결되었던 것은 상주 주조주식회사가 증류식 소주를 생산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사실이다.

○ 주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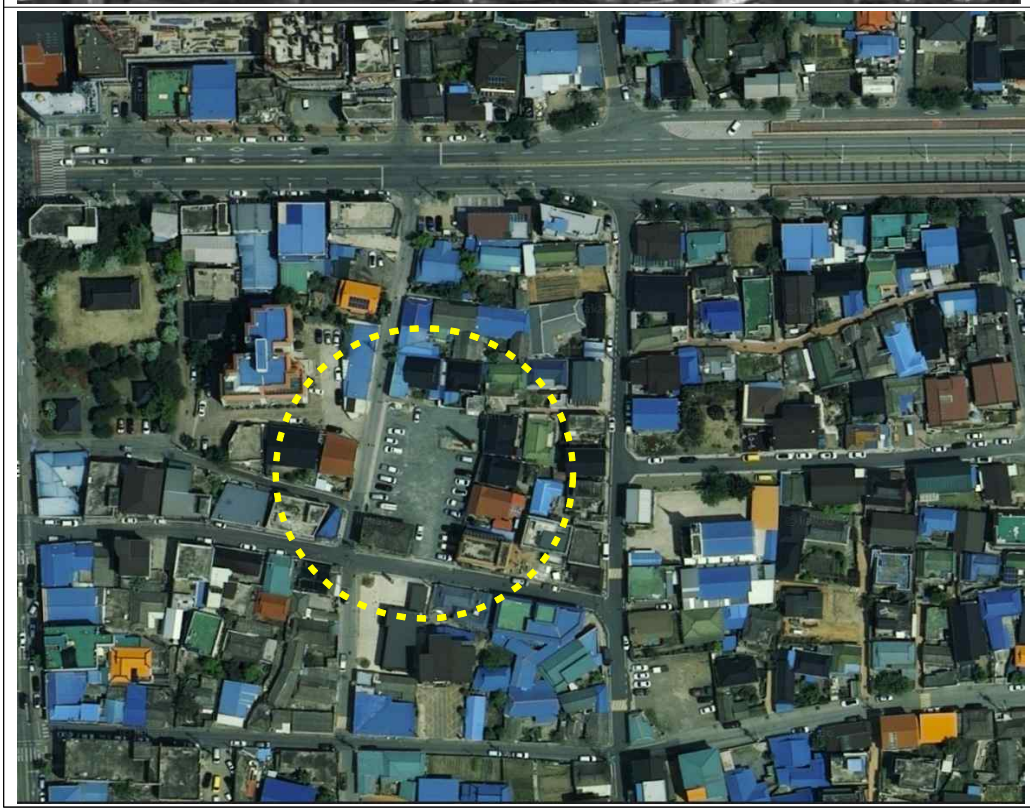
- 현재 주조장이 있던 곳은 빈 공터로 남겨져 있고, 발굴이 진행중이다. 1954년 항공사진을 보면 현재의 사무실 건물 뒤 굴뚝의 서쪽으로 2동의 박공지붕
- 건물이 보이는데, 동서로 긴 형태의 2동 건물이 증류식 소주 생산공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사무실

- 2층 규모로 일본식 경량목구조로 외벽은 타일과 미장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우진각지붕 형식으로 4면으로 처마를 내밀고 있다. 목조의 계단이 있는 부분은 조적조형식으로 코어를 구성하고 층간구조는 마루로 되어 있다.



1954년
항공사진



2020년
항공사진

- 1층은 기둥이 없이 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전에는 판매공간을 겸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2층은 남쪽으로 복도가 위치하고 실이 구분되어 있다.
- 내부 미장벽이 상당부분 탈락되어 원래 장식이 있던 것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계단실과 복도가 접하는 부분의 아치장식과 화장실 벽에 남아 있는 전등 등으로 추정컨대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었고, 지붕의 누수로 인하여 목조 지붕 트러스와 외벽 등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건물 내부는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복도와 실 내부의 벽체 등에 부분적인 변형이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 상주시의 상주읍성 복원을 위한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발굴결과 원래 주조공장이 있던 위치에서 해자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어 향후 발굴결과에 따라 사무실 건물의 존치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 현재 사무실 건물은 과거 읍성이 철거된 곳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상주시에서는 주조장의 문화재 등록과 읍성의 복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왕산과 연결되는 상주 시민들을 위한 공간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존여건과 활용계획은 양호한 편이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 사무실과 굴뚝을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현재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주읍성 복원을 통한 공간활용에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함
- ○ 문화재의 보존과 유적발굴을 통한 복원이 상충되는 상황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 근대기의 양조장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진천 덕산양조장 (제58호)
  양평 지평양조장 (제594호)
  문경 가은양조장 (제706호)
  영덕 영해양조장 및 사택 (제762-2호)
- ○ 이들 양조장은 모두 탁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등록된 것이고 증류소주를 생산하는 주조장으로 등록된 것은 없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류소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주조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증류소주 생산공장으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없는 까닭에 상주 주조장이 공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공장이 없으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 다만, 상주주조주식회사 글씨가 새겨진 굴뚝의 경우 그 규모가 크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사무실 건물의 경우 역시 원형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존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뒤따르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 ○ 전체적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보다는 지역의 상징적 구조물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 또한 상주읍성의 복원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건번호 근대 2021-02-12

12.「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소장「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현대문화유산 장애인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하여 조사된「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2.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연번	유물명칭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 재 지
1	진정서	1점	25.5×19cm	1950 ~60년대	국립 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82
2	물품통계표	1점	25.5×18cm			
3	성명서	1점	28×20cm			
4	청진기	1점	길이 83cm			
5	해부학책	1점	27×19cm			
6	수료증(강선봉)	1점	26.8×38.8cm			
7	수료증(김영설)	1점	26.8×38.8cm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등록 명칭 및 번호 부여(안) 】

○ 문화재 성격 등 고려, 등록 명칭 및 개별 번호 부여

- (4·6사건 관련 유물 / 진정서·물품통계표·성명서) :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 청진기·해부학책·수료증(2점))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3) 추진경과

○ ('20.3~9월) : '근현대문화유산 장애인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용역' 실시

○ ('21.2.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인권을 외쳤던 4·6사건의 직접적인 유물이라는 점과 녹산의학강습소가 소록도 한센인의 독특한 의학교육제도이며 소록도인들의 자활 노력이 결합된 유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다만 유물의 성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2건으로 구분하여 등록 여부와 명칭에 대한 검토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2.16.)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① 소록도 4·6사건 관련 유물과 ②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로 나눌 수 있음.
- 소록도 4·6사건 관련 유물은 '진정서', '물품통계표', '성명서'로, 1950년대 초 소록도에서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록도 갱생원의 부정과 인권 유린에 항거하여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낸 소록도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유물임. 해당 유물은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유물로서, 의료사회학에서뿐 아니라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등록가치가 있음.
- 녹산의학강습소는 환자 관리체계를 민주적이고 환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49년에 개설된 곳으로, 소록도에만 존재했던 특수한 의학 교육 기관임. 관련 유물인 청진기, 해부학 책, 수료증 2종은, 체계적인 환자 위주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소록도만의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관 운영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역사적인 의미나 의료사적인 의미에서 등록 가치가 있음.

○ ○○○○○ ○○○('21.2.16.)

- 진정서·물품통계표·성명서는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관련된 유물로서 김상태 원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된 진정서와 그에 따른 별첨한 물품목록, 성명서임. 해당 유물들은 환자들의 당시 시대상황 인식, 소록도의 운영 상황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어 가치가 상당함.
- 청진기·해부학책·수료증은 소록도만의 독특한 제도로서 환자들을 훈련시켜 다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임. 해당 유물들은 의료자원과 인력이 부족했던 소록도에서 환자 중심적인 의료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들임.

○ ○○○○○ ○○○('21.2.16.)

- 진정서·물품통계표·성명서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서, 1953년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1954년 발생한 4·6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물임. 해당 유물들은 생존과 자존을 위한 사회적 소수자의 집합행동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소록도갱생원의 부정부패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임. 진정서와 진정서에 별첨되어 있는 물품통계표는 1950년대 소수자들의 집합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성이 풍부한 사료이며, 성명서 역시 원생들의 주장이 담긴 중요한 역사 사료로서 가치가 있음.
- 청진기·해부학책·수료증은 소록도에서 의료보조인력을 양성하였던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임. 녹산의학강습소 출신 의료인력은 동환(同患)으로서, 한센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였고, 이들은 의강 출신들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성심성의껏 진료에 나서 환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의료인력이었음. 이들과 관련된 유물은 희소하며, 한센역사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망각되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귀중한 유물이라고 판단됨.

○ ○○○○○ ○○○('21.2.16.)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크게 '4·6 사건' 관련 유물과 한센인이 의료인으로 양성된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임. '4·6 사건' 관련 유물인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 목록은 환자 인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인 4·6 사건의 실제를 보여주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임. 또한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내 한센인의 독특한 의학교육제도와 소록도인들의 자활 노력이 결합된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문화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개별 번호 및 문화재 명칭 부여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

2. 소 재 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82

3. 소 유 자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4. 조사자 의견('21.2.16.)

<문화재위원 ○○○>

1) 개요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크게 소록도 4·6 사건과 관련된 유물과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로 나눌 수 있음. 현재 국립 소록도 병원 한센병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진정서, 물품목록, 성명서)'는 1950년대 초 전쟁 직후 소록도에서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록도 갱생원의 부정과 인권 유린에 항거한 4·6 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자들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낸 소록도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유물임.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청진기, 해부학책, 수료증 2종)'은 소록도에 1952~1961년간 설치되었던 녹산의학강습소와 관련된 유물로, 한센인들에게 의학을 강습하여 환자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했던 소록도만의 고유한 방식을 알 수 있는 유물임.

	명칭	재질	가로 세로(cm)
1	진정서	종이	19*25.5
2	물품통계표	종이	18*25.5
3	성명서	종이	20*28
4	청진기	플라스틱, 고무	길이 83
5	해부학책	종이	19*27
6	수료증 - 강선봉	종이	38.8*26.8
7	수료증 - 김영설	종이	38.8*26.8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고흥 소록도 4·6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소록도에서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진행되었던 원장 김상태의 부정을 폭로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소록도 한센인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통칭 4·6 사건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물임.

○ 1916년에 개원한 소록도는 1945년 8.15까지 일제의 절대적인 격리정책 하에 있었으나 해방 이후 자치제가 허용되어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의사 밑에서 일했던 김상태가 제8대 원장으로 부임한 뒤 제도가 다시 강압적으로 바뀌었으며, 1951년 이후 수용자의 대폭 증가 및 전쟁으로 인해 구호 물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원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져 1954년 4월 6일 구속자 석방, 원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일으킨 것을 4·6 사건으로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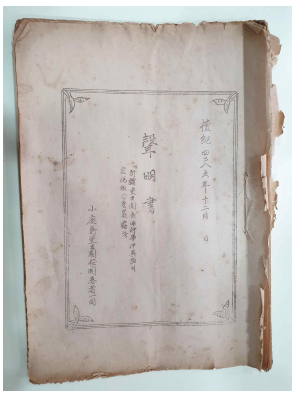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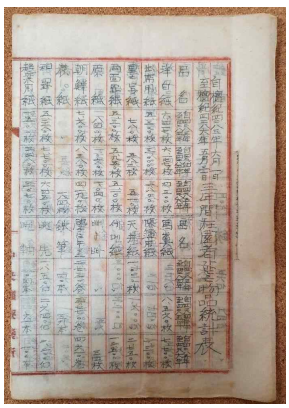
○ 이 사건은 당시 ‘나환자의 호소’(동아일보 1953년 6월 5일자)에 작은 기사로 실리기 시작하여 ‘소록도 갱생원장(김상태)의 비행을 만천하에 공포함’이라는 제목으로 전남 소록도 갱생원 재원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광고 난에 게재(동아일보 1953년 10월 23일자)하여 사회적으로 알려짐. 이후 보건부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명하는 바람에 ‘횡령은 사실 무근’(동아일보 1953년 11월 19일자)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고, 이를 종교 분쟁으로 몰고 가면서 ‘소록도 종파 분쟁’(조선일보 1953년 12월 7일자)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경향신문에서는 1954년 1월 28일부터 3회에 걸쳐 ‘소록도 분규’를 자세히 조사하여 기사화하기도 함. 그러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1954년 4월 6일 소록도 주민들이 시위를 벌인 4 6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를 주도한 혐의로 자치위원장 김민옥이 구속되기도 함. 결국 원장 김상태를 비롯하여 총무과장과 경리계장을 파면하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됨.

○ 주민자치회는 1950년대 당시 6,0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든 민주적인 조직으로, 자치회 총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이 책임을 맡고 산하에 식량부, 의료부, 문교부, 공안부, 후생부, 총무부로 분담하여 장안리, 남생리, 중앙리, 동생리, 서생리, 신생리, 북성리로 나뉘는 7개 부락의 운영을 지원한 기관임. 진정서와 성명서, 물품통계표는 남성교회의 창고 캐비넷 위에서 2015년에 박물관 설립 차 옛 물건 및 문건을 조사하던 준비팀에 의해 발견되었음. 남성교회는 북성교회에 이어 소록도에서 두 번째로 1928년에 세워진 교회로 소록도 주민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으며 자치위원회가 주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므로 당시에 만들었던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진정서는 소록도의 비인권적인 현황을 정부 및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소록도 갱생원 자치회원 일동 명의로 1953년 9월 작성한 문건으로 등사본 10쪽 분량임. 내용은 “지난해 10월 『기독공보』 10월호에 소록도 갱생원장에 대한 종교 탄압 사실 및 경비 부정 착복 등 기사가 실렸으나, 이 본질이 종교탄압이 아니라 원장의 경비 부정 및 인권탄압임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1. 천여 명 유령인구 경비 부정 처분 건, 2. 장태(醬太) 교환 조건으로 백미 반출시 백미반출과 대두입하의 차이량 부정처분건, 3. 광목 부정 착본 건, 4. 연료용 할목(割木) 불법유용건, 5. 선박대출비 부정처분건, 6. 구호물자 부정처분건, 7. 백미 부정처분건, 8. 벌채작업 임금중 부정사실건, 9. 4284년도 연보내의 부정사실건, 10. 종교탄압에 관한 건 등 10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내용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고자 1. 천여명의 유령인구분의 경비 사용처에 대한 사실조사, 2. 전술한 참고재료(10개 항목의 부정사실건)에 대한 국고예산지출결의서와의 문서대조, 3. 별지첨부한 과거 3년간의 자치회 전물품 수령 통계표에 대한 자치회 문서와 직원들의 문서와의 대조, 4. 언론자유 및 신앙자유 확보 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내용에 따르면 물품통계표가 첨부문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성명서는 1953년 12월에 작성한 문건으로 역시 “소록도 갱생원 재원환자 일동” 명의로 등사본 13쪽에 걸쳐 작성한 것임. “갱생원장 비행사건 속보 및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의 허위보고를 폭로함”이라는 부제로 소록도 갱생원 사건을 조사하러온 감찰요원들의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후 원장 및 교도과장이 상경하여 허위 보고를 보건부에 제출했으므로, 원장 김상태의 개인 비리 및 세간에 알려진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나환자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 식량 부족, 강제수용, 직원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遠因)과 경리권 문제, 외부 환자들의 선동, 교도사 문제, 지익풍 목사의 비행, 기독공부 편집책임자의 편법적 행동 등 발단이 된 근인(近因)으로 나누어 밝히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임.

○ 물품통계표는 문서 용지에 필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자로 '中央癩療養所'가 인쇄된 전용 용지임. 제목으로 "自檀紀四二八三年六月一日 至檀紀四二八六年五月三一日 三年間 在園者가 받은 物品統計表"라고 쓰여 있어 1950년 6월 1일~1953년 5월 31일까지의 3년 동안의 기록을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총 10쪽으로 1~6쪽에는 종이, 노트, 먹과 잉크 등 문방구류, 세면기, 국자, 실, 옷, 신발 등 생활용품, 소금, 멸치, 과자 등 식료품, 톱, 지게 등 도구류 등으로 총 123종의 물품이 정리되어 있음. 7쪽과 8쪽에는 3년간의 식량 수입(受入) 내역이 따로 정리되었는데, 쌀, 보리, 밀, 밀가루 등 11종의 물품이 기록되어 있음. 9쪽과 10쪽에는 중요 약품으로, 아스피링, 페니시링, 키니네, 몰핀, 소화제, 한센병 치료제로 쓰인 대풍자유(大風子油), 주사기, 반창고 등 22종의 약품과 기구가 정리되어 있음. 위의 진정서 내용에 첨부되었다고 한 물품통계표의 필사본 원본인 것으로 보임. 자치회는 이처럼 갱생원 재원자들이 실제로 받은 물품에 대한 기록과, 요양소 측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물품 기록을 대조하여 이를 근거로 요양소의 비리 사실을 고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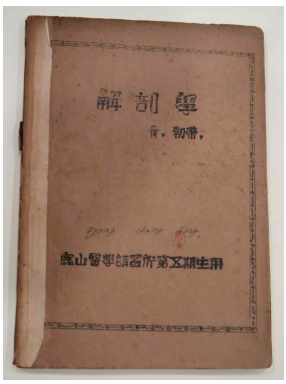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진정서</td>
<td>성명서</td>
<td>물품 통계표</td>
</tr>
</table>

○ 녹산의학강습소(鹿山醫學講習所)는 소록도에만 존재했던 특수한 의학 교육 기관임. 소록도 내에 병원이 있었으나 환자에 비해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했으므로 재원자 및 외지인 중에서 선발하여 진료학, 약리학, 안과학, 조제학, 해부학, 외과학, 세균학, 이비인후과학, 생리학, 내과학 등을 교육시킨 후 소록도 내에서 의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함. 이 제도는 해방 이후 첫 번째 한국인 원장으로 부임했던 김형태 원장이, 환자 관리체계를 민주적이고 환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안한 것으로 1949년에 개설됨. 이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 역량을 준비시키는 병원 운영의 전환점이기도 했음. 강습생들은 소정의 입학시험을 거쳐 입학한 뒤 2년간(초기에는 3년) 의학 교육을 받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임상 각 과에 배치되어 6,000명에 이르는 환자를 매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함.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수료생들은 소록도뿐 아니라 국내 각 요양소나 집단소에 배치되어 의료부분에서 활동함. 녹산의학강습소는 국립 소록도 병원으로 체계가 갖추어지는 1961년까지만 운영됨.

○ 청진기는 녹산의학강습소 제1기 수료생 김주형이 강습소를 수료할 때 기념으로 받은 것을 평생 간직해 온 것임. 이를 제6기생 강선봉이 한센병 박물관 개관(2016년)을 준비하면서 2015년 직접 원주에 가서 받아온 것임.(강선봉 증언, 2021년 2월 16일 조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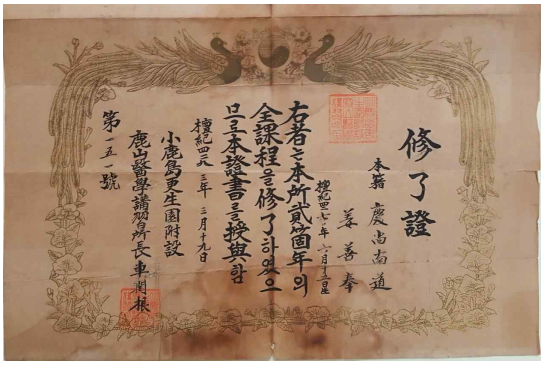
○ 김주형은 강습소를 수료한 뒤 소록도에서 근무하다가 원주로 이주하여 의료활동을 해왔으며 한센복지협회 등의 일을 하며 한센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힘쓴 분으로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가운데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음. 청진기는 82 cm 길이로 플라스틱과 고무로 제작하여 진찰시 사용한 기구임. 고무 관 양쪽에 “ “The Health” I.R.Cu”가 찍혀 있어 1950년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 청진기는 진단에 주로 사용했으나 한센인들이 아프거나 심지어 사망 직전에조차 “그래도 청진기를 한 번씩 대주는 것”이 진찰을 받았다는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 것으로, 한센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물품이었다고 함(강선봉 증언).

○ 『해부학』 책은 1956년에 녹산의학강습소에서 직접 등사본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총 58쪽으로 이루어져 있음. 내용은 해부학 용어와 각 신체부위의 뼈와 근육을 그림으로 그리고 각 부위 명칭을 기재한 도해서임. 표지에는 “解剖學” 이라는 제목과, “鹿山醫學講習所 第五基生用”이 등사로 되어 있으며, 영문 필사체로 “Yang Dong Sng”라고 쓰여 있고, 주문방인으로 “梁銅承”이라는 사용자인이 찍혀 있음. 이 도장은 내지의 중간중간에도 있어, 소유자가 찍었던 것으로 보임. 이 『해부학』 책은 전래된 것은 아니고 한센병 박물관에서 중고 서적 사이트에서 발견해 구입했다고 함. 뒷표지에 “발간사 : 녹산의학강습소”, “년월일 : 1956.8”, “등사인 : G. K. H”로 등사되어 있어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음. 겉표지는 등사용지로 되어 있으나 한 장 안쪽에는 기존의 잡지용지를 끼워넣어 내구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청진기</td>
<td>해부학</td>
</tr>
</table>

○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은 제6기생인 강선봉과 제7기생인 김영설이 받은 것으로 한센병 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강선봉은 1937년생으로 1960년 3월에 제6기생으로 수료한 뒤 1962년까지 소록도에서 근무했고, 김영설은 1935년생으로 1961년에 제7기로 수료한 분임. 강선봉의 수료증은 제151호로 “소록도 갱생원 부설 녹산의학강습소장 차윤근”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김영설의 수료증은 제17호로 “국립소록도병원 부속 녹산의학강습소장 채재위” 명의로 발급됨. 특히 강선봉은 소록도 근무 이후 방사선과 기사로 훈련 받고 타지로 가 의료 활동을 활발히 했으며, 한센병 박물관 설립 시 녹산의학강습소 제1기 수료생인 김주형의 청진기를 기증받아 오는 등 소록도 유물 수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분임.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강선봉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김영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성명서와 진정서는 등사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뒷표지에 일부 손상이 있어 추후 보존을 위한 처리가 요청됨.

○ 물품통계표는 사무용지 5장을 접어 끈으로 묶어 선장되어 있으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

○ 청진기는 사용 흔적은 있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함.

○ 『해부학』 책은 등사본으로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지질이 좋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보존 처리가 요청됨.

○ 강선봉의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은 접힌 자국과 얼룩, 오랜 세월을 통해 바랜 흔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김영설의 수료증은 보존상태가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한센병 박물관에서 수집 보존하고 있어 보존 환경은 매우 양호한 편임.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지류의 경우 전시실에서 오래 노출 전시한다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소록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통제되어 살아온 한센인들의 역사 가운데, 4 6 사건으로 통칭되는 자치회의 활동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애와 배제의 역사를 당사자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적인 힘을 기르고자 했는가를 알 수 있음.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은 한센인 자신들이 의학을 배워 스스로 치료를 담당했던 특정한 시기의 역사를 담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 유물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고흥 소록도의 한센인 관련 유물은 2016년 문화재 조사에 의해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 14점(개인 치료용 칼, 단추 끼우개, 국자, 냄비, 솥들개, 시멘트 블록형틀, 기와틀, 연탄형틀)이 한센인들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등록문화재 제66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록도 내 병원 등 건축물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이번에 조사한 소록도 4 6 사건 관련 유물인 진정서, 성명서, 물품통계표는 생활 유물이 아닌, 소록도의 자치와 인권에 관한 유물임. 진정서와 성명서는 등사본이나 다른 기관 등에는 소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유일본으로 판단됨. 물품통계표는 필사본으로 역시 복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청진기, 해부학 책,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은 소록도에 일정 기간 설치되었던 녹산의학강습소의 교육과 운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청진기는 현재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부학 책도 등사본이나 다른 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음. 수료증은 다른 수료생의 것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파악된 것은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인 진정서, 성명서, 물품통계표는 소록도 4 6 사건의 경과와 내역을 알려주며, 소록도가 해방 뒤 자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일제가 만든 비인도적인 절대적인 격리정책으로 회귀되는 것에 맞서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유물로서, 의료사회학에서뿐 아니라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등록가치가 있음.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청진기와 해부학 책, 수료증 2종은 체계적인 환자 위주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소록도만의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관 운영을 보여주는 유물로 역사적인 의미나 의료사적인 의미에서도 등록 가치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통계표는 4 6 사건과 관련된 유물로서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여 등록시 명칭은 '고흥 소록도 4 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청진기와 해부학 책, 수료증 2종은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로서 등록 시 명칭은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

1) 개요

○ 소록도는 식민지기 시작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격리의 섬이었음. 해방이후 1962년 법적인 격리체제가 해제되었지만, 실질적 격리는 유지가 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격리의 섬임. 환자들은 소록도 격리의 섬에서 단종 수술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음.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을 하기도 했음. 또한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단기교육을 받고 의료보조인 역할을 하기도 했음. 그래서 소록도에는 격리, 폭력, 의료의 역사 뿐 아니라, 환자 공동체가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며 투쟁해온 역사, 인간의 삶을 유지해온 역사가 중첩되어 있음.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심사대상이 되는 유물들은 환자중심의 소록도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이 유물들은 소록도 유물이 문화재로 등록된 시기에는 발굴되지 않았던 유물임. 소록도에 한센병박물관이 만들어진 이후, 학예사들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인해 이전에 방치되었던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이번에 문화재 심사의 대상이 되는 유물들은 다음과 같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고흥 소록도 4 6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진정서, 물품목록, 성명서)



진정서	19*25.5	인쇄
물품통계표	18*25.5	필사
성명서	20*28	철필

○ 1953년 발생한 46사건은 해방 후 한센병 환자들의 소록도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병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저항한 사건임. 해방이후 잠시간의 민주적 소록도 운영을 통해 1947년 도입된 환자 자체단체가 구성됨. 하지만 1947년 김형태 원장에서 김상태 원장으로 원장이 바뀌며, 일제 강점기의 제도와 관행들이 소록도에서 다시 회복되었음. 절대격리의 상징인 무독지대, 유독지대의 구분을 다시 부활하고 엄격한 경계선을 통해 환자에 대한 차별을 통제를 강화했음.

표 3-1 연도별 수용환자 수(1945~1960년)[257]

연도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환자수	4,416	5,748	6,254	5,555	5,299	5,400	6,130	5,729
연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환자수	5,413	5,470	5,587	5,863	5,882	5,856	5,250	5,184

* 출처: 소록도갱생원(1966), 「연보」, 66쪽.

○ 위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방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재원 환자수가 증가했던 상황임. 전쟁과 환자수의 증가로 인해 물자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내부의 운영조차 일제 강점기의 방식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자치회는 김상태 원장에 대한 저항을 시작. 그러나 원장해임운동은 실패하였고 1953년 자치회 내부 갈등과 4.6 데모로 이어져 이후 자치회가 해산되었음.

○ 당시 이런 상황은 신문, 기독신문 등에 소개되어 있음. 기독신문에서는 “ 園長 金尙태氏가 總務課長 敎導課長과 合作하여 敎會彈壓의 野蠻的이고도 惡質的인 行動을 敢行하여 敎會를 괴롭히고 있는데 特殊地帶인 小鹿島의 王座를 占하고 있는 園長의 所行이니만치 그 影響은 甚히 커서 敎會는 萎縮一路에 處하였다 한다.”(기독신문,1952/10/13)

○ 46사건과 관련한 중 유물은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관련된 유물로서 김상태 원장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진정서와 그에 따른 별첨한 물품목록, 그리고 진정서 및 신문의 공개장이 별다른 반향이 없자 발표된 성명서임.

○ 당시 진정서와 성명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천여명에 해당하는 유령인구 경비 불처분, 백부정처분, 연료 비용 불법유통, 광목 부정착복, 선박대출대 부정착복, 구호물자 부정처분 등 내부의 물자와 관련된 부정착복,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었음.

○ **진정서(단기 4286년 9월)**

- 김상태 원장 해임을 위해 진정서에 문제점과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해임 청원운동을 펼쳤음. “과거 6·25동란이후 현금(現今)까지의 갱생원 재원자들은 민주시대에 살면서 민주혜택을 입지못한 한 가련한 나환자이였습니다. 나병이란 선언을 받고 갱생원을 찾어온 저히들은 치료와 수양을 위주한 격리생활로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애국애족자가 되려는 일념밑에 소록도를 제이의 고향과 다름없는 유일의 안주지(安住地)를 삼고 희생적인 정신과 각오로서 민족혈통정화만이 못토(모토)로 하야 묵묵히 로양을 하고 있는 5천에 가까운 료양자이였습니다.”라고 밝히며 김상태 원장을 해임하는 것이 민주적 가치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록도갱생원 자치회의 이름으로 요구했음.

  ① 천여명 유령인구분의 경비 사용처에 대한 사실조사
  ② 전술한 참고재료(10개항목)의 부정사실건에 대한 국고예산지출결의서와의 문서대조
  ③ 별지첨부한 과거3년간의 자치회 전물품 수령 통계표에 대한 자치회문서와 직원들의 문서와의 대조
  ④ 언론자유 및 신앙자유확보 등등

○ **물품 통계표**

- 물품표는 당시 원내 물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정착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필사로 적어둔 것임. 진정서와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 물품 착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물품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

○ **성명서 (단기 4286년 12월)**

- 위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명서를 통해 비위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함.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에 보고된 내용에 중 허위사실로 식량부족, 직원부족, 격리수용 등 소록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지적함. 이는 소록도 갱생원 재원환자 일동의 명의로 정리됨.

○ 위의 문건들은 모두 소록도 교회에서 2020년 말에 발견된 것으로, 철필본의 경우에도 동일 문서가 다른 한센인 유관시설에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나.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청진기, 해부학책, 수료증 2종)

청진기	길이 83
해부학책	19*27
수료증 - 강선봉	38.8*26.8
수료증 - 김영설	38.8*26.8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는 한국과 소록도 만의 독특한 제도로서 해방 후 의료인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환자들을 훈련시켜 다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이었음.

○ 이들은 중졸 이상 학력을 갖춘 한센병 환자로서 영어, 국어, 한문, 산수 등 일반상식을 시험 이후 입학..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당시 소록도 내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메워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이들은 소록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 요양소나 나병환자 정착마을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주변 마을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유능한 의료인력으로 인정받았음.

○ 의학교육의 역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소록도 환자 자치의 측면에서도 녹산의학강습소의 의미는 적지 않았음. 의학강습소를 졸업한 환자들은 임상 각 과와 각 마을 치료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뿐더러 다른 의료인들보다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자부심이 강했음.
○ 현재의 유물들은 의료자원과 인력이 부족했던 소록도에서 환자 중심적인 의료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들임.
○ 청진기 : 이 청진기는 1952년 8월 14일 제1기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16명에게 기념품으로 지급된 것이며, 1회 졸업생인 김주형이 보관하고 있던 것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소록도에서, 청진기는 환자들이 의료를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음.
○ 해부학책 : 녹산의학강습소에서 이용되던 해부학 교과서임.
○ 수료증 : 녹산의학강습소 학생들의 수료증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문서의 경우에는 보존처리가 필요함. 그래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임.
○ 청진기의 경우도 낡았지만 현재 원형이 비교적 보존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록도의 경우 박물관에서 유물 관리를 잘 하고 있음. 단지 소록도 병원의 특성상 연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물의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연구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소록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한센역사, 의료사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곳으로, 이곳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
○ 한센병 박물관이 설립된이후 학예사들이 상주하면서 섬내에 산재해 있는 유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학예사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박물관이 연구, 보전, 교육의 기능을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소록도는 한센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근대 의학사, 사회사, 인권사의 중요한 현장임. 이곳에서 환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면, 향후 소록도의 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환자 인권운동사에 대한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가능함.
○ 소록도와 관련된 유물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박물관에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문화재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에 이 유물이 지정이 된다면 이런 활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존에 소록도 유물은 일상생활사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인권 관련 활동, 의료활동 참여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래서 이 유물들의 지정을 통해 소록도의 환자 인권사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진정서 건과 녹산의학강습소 건 모두, 소록도 환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는 환자 인권사, 의료사, 생활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물임. 소록도 100여년의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진정서/성명서 계열의 경우, 환자들의 당시시대상황 인식, 소록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어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도 상당함. 문화재 등록이 된 이후, 그동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46사건과 환자들의 운동이 연구가 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배제와 격리의 역사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인권운동의 양상이 밝혀질 것임.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고흥 소록도 4 6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 ○○○>

가. 소록도 4·6 사건 관련 유물

1) 개요


진정서 표지


진정서 마지막 쪽


물품통계표 첫 번째 쪽


물품통계표 마지막 쪽


성명서 표지


성명서 마지막 쪽

○ 상기 물품들은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로서, 아래에 설명할 1953년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1954년 발생한 4.6 사건과 직접 관련있는 것들임. 소록도박물관 개관 이전인 2015년 유물 수집차 소록도내 남성교회(1927년 창립)를 방문하여 유물수집 중 강단 옆 방송실 캐비넷 위에서 발견. 타기관 소장은 확인불가.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한국에서 나병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 나질(癩疾)이라는 병명으로 처음 출현함. 1445년에 제주에 구질막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며, 1612년 사간원에서 경상, 강원, 충청도의 대풍창 치료와 방제를 청했다는 기록이 있음.

○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나병원이 부산(1908, 호주장로회), 광주(1911, 미국남장로회), 대구(1913, 미국 북장로회)에 세워졌음. 조선을 병탄한 일본은 이들 서양 선교병원 설립에 자극받아, 1915년 나환자 격리 수용소로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를 선정하고, 1916년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립하여, 1945년 제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철수할 때까지 5명의 일본인 원장 시대를 거치게 됨.

○ 1933년 부임한 제3대 원장 스오 마사스에는 소록도 자혜의원 제1차 확장공사를 시작하고, 벽돌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시설 명칭을 1934년 10월 소록도갱생원으로 개명함. 1935년에는 소록도 신사를 준공하고, 원장의 권한으로 환자를 감금할 수 있는 감금실을 설치하였으며, 1936년에는 정관절제수술을 전제로 부부동거를 허용하기도 함. 1937년에 간호부양성소를 개설하였으며, 총 3차에 걸친 소록도 확장공사 결과 1939년에는 6,020명의 환자를 수용함. 1942년 6월 20일 스오 원장의 압제에 반발한 이춘상이 스오 원장을 척살함. 2021년 현재 이춘상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1945년 광복 이후 공권력의 공백기에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속에서 84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1945년 김형태 원장 취임 후 녹산중학교 개설(1946), 환자 자체제 허용(1947) 등 환자들의 교육과 자치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음.

○ 1948년 4월 15일부터 1954년 10월 2일까지 재임한 제8대 김상태 원장 시기에 소록도갱생원은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운영체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음. 김상태 원장은 일제강점기 스오 원장 시설 의관(6등 8급 正7)으로 근무하였으며,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의 나병학자였음. 그는 질서회복이라는 명분하에 그간 이루어진 여러 발전을 되돌리는 일을 함. 자신이 일제하 소록도갱생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익숙한 관리통제방식을 재생시킨 것임(『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56).

○ 김상태 원장이 주도한 변화는 환자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들이었음. 그 중 몇 가지를 들면:

- 직원지대와 병사지대를 무독지대(無毒地帶), 유독지대(有毒地帶)로 구분하는 절대 격리를 부활. 병사지대로 통하는 도로입구에 감시소와 면회실 설치. 자녀들까지도 월 1회 도로 경계선 양쪽 끝에 일렬로 서서, 자녀는 바람을 등지고, 부모는 바람을 맞는 위치에서 면회기회를 가짐. 이를 '수탄장(愁嘆場)'이라 부름.
- 1949년 5월 6일 대통령령 90호로 소록도갱생원이 중앙나요양소로 명칭이 바뀌고, 육지에 있는 도립 요양소 방식으로 요양소의 준수사항과 일과표를 강제. 중앙나요양소 수용환자 준수사항과 일과표 내용은 일제강점기 소록도갱생원의 '입원환자심득(入院患者心得)'과 그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였음.

수용환자 준수사항

1. 나병은 만성질환으로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치료는 물론, 위생 기타 일상생활에 있어서 직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2. 환자는 상호간에 예의를 존중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일가 단란 공존의 미덕을 함양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의(情誼)를 다하여야 한다.
3. 환자는 항상 정숙 온화하여야 하며 난폭한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환자는 허가 없이 소정 구역 외에 출입할 수 없다.
5. 항상 화재방지에 주의하며 화기취급을 엄밀히 하여야 한다.
6. 화기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직원에게 급보하는 동시에 환자 소방대는 일치 협력하여 중환자(重患者) 유환자(幼患者)의 구호 및 소화에 지력하여야 한다.

7. 병사 내 또는 기타에 비치된 기물은 항상 취급을 정중히 하여 보존에 주의할 것이며 훼손 시는 소정 수속을 거쳐서 직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8. 약병은 사용한 후 각자(중증 또는 부자유 혼자는 그 부첨인)가 청세(淸洗)하여 약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9. 소내 물품 또는 생산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소외 반출을 엄금한다.
10. 병사 내외는 물론 우물, 하수구, 변소, 정원 및 도로 등의 청소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전염병을 매개하는 곤충(모기, 파리, 쥐)의 구제 및 발생을 예방하며 변소 출입구 기타의 개방을 금한다.
12. 남 환자로서 여 병사에, 여 환자로서 남 병사에 출입을 요할 때는 사전에 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공중 집회소, 복도, 도로에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된다.
14. 도박 또는 이에 유사한 부정행위는 엄금한다.
15. 자치회 역원은 특히 소행에 조심하여 일반 환자의 모범이 되고 환자간의 분쟁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자치적인 입장에서 원만 공정한 해결을 하며 풍기단속 기타에 관한 직원의 명령 전달 및 제반 업무수행에 진력하여야 한다.
16. 자치회의 역원은 조석 점호 시에 각 병사를 순시하며 각 사장(舍長) 입회 하에 인원점호, 병증, 화기, 기타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환자는 자기의 취미에 따라 신앙을 가지며 정신적 위안을 얻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18. 환자는 종파로 당을 만들거나 불온한 사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19. 경환자는 치료상 유익한 운동 기타의 노작(勞作)에 노력하여야 한다.
20. 부부동거는 정관수술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21. 미감아동(未感兒童)은 절대로 환자와 동거함을 엄금한다.
22.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학술 연구상 필요에 따라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23. 중환자 이외의 환자는 하기 일과표에 의하여 규율적 생활을 하여야 한다.
(24. 위 각항에 위반하는 자는 의법처단한다. (1956 연보 77쪽))

<일 과 표>

일과기간	기상	점호	아침	점심	저녁	점호	소등	취침
3월 1일 ~ 4월 30일	07:00	07:30	08:00	12:00	18:00	21:00	22:00	22:00
5월 1일 ~ 9월 10일	07:00	07:30	08:00	12:00	18:00	22:30	23:00	23:00
9월 11일 ~ 10월 31일	07:00	07:30	08:00	12:00	18:00	21:00	22:00	22:00
11월 1일 ~ 2월 말일	07:00	07:30	08:00	12:00	17:00	20:30	21:00	21:00

자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58.
(1956년도 연보 78쪽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아침 점호는 08:00, 아침 식사는 08:30으로 30분씩 늦춰졌음).

○ 한국전쟁의 발발로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인민군 치하에 놓여있던 소록도는 10월3일 경찰대에 의해 수복되었음. 인민군치하에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인민재판이 열렸으나, 당시 희생당한 사람은 없었고, 인민군 퇴각 시 따라갔던 인민위원장 등이 공금횡령은닉으로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등 희생이 있었음. 경미하게 가담한 환자들은 불문에 부쳐졌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61-162)

○ 김상태 원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임시수도인 부산을 오가며 애썼고, 병사 내의 질서회복을 위해 환자자치회를 재구성하게 하였음. 전쟁 이후 열악하고 궁핍한 상황이었지만, 위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직원과 환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때보다 신뢰와 일체감이 충만했다고 함.(상동)

○ 당시 5,00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은 열악했고, 생활물자도 순조롭게 배정되지 못했으며, 물가도 급속하게 올라서 수용환자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음. 직원과 의료진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적은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땅을 일구고 낙엽을 긁어모아 연료로 사용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였음.(상동)

○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전반의 걸쳐 모든 물자가 부족하였는데, 소록도 역시 이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음.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ited Nation Civil Assistance Command(이하 UNCAC))를 비롯하여 외국민간원조기관들로부터 지원된 구호물자가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음. 그러나 피복, 침구는 물론 기타 우비, 작업복, 고무신 등은 경비의 어려움으로 이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무엇보다 재원환자들의 피복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였음.

○ 주식과 부식의 공급은 현물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중증 및 부자유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어 공동 취사를 하는 중앙리 병사와 가정병사 중심의 중앙리를 제외한 마을과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주식의 경우 해방 이전 1인 1일 5홉 5작씩 배급하여 오던 것이 해방 후 일시적이기는 하나 많은 양이 감소하여 재원환자들은 빈궁함이 극에 달해 초근목피로 생활하다시피 하였음. 갱생원 당국의 노력으로 여러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1951년 말에는 1인 1일 백미 2홉 8작, 잡곡 1홉 2작을 배급할 수 있었으나 1952년에는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쌀(외국산) 7작, 잡곡 3홉 3작을 배급하였음.

○ 양곡은 대개 조곡(나락)으로 들여와 갱생원 내 신생리에 위치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배급하였으나, 외국 원조물자가 들어오면서 정미와 정맥으로 배급하였음(『소록도 80년사』, 1996, 126). 간장은 콩과 소금을 배급하여 환자들이 직접 양조하도록 하였고, 육고기와 생선은 예산 형편상 명절과 국경일에만 소량 특별 배급을 하였음.

○ 수용환자 1인당 1일 경비통계를 보면 급식비의 경우 전쟁이 치뤄지고 있던 1951년에는 단 2전 50환의 주·부식비를 받았으며 연료 역시 단 30환 뿐이었음. 구호물자들의 투입이 원활화된 1953년부터 점차 나아져 주·부식비의 수준이 26전 이상으로, 일용잡화비도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음. 1955년에는 직전 해의 3배 가까이 예산증가가 있었으며, 개원 40주년이 되는 1957년에는 1인당 1일 경비로 257전 27환까지 신장되었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71) .

<표> 1950년대 수용환자 1인당 1일 경비 통계

(단위 전. 환)

년도	급식비		환자비		피복비	환자1인당1일 경비
	주,부식비	연료비(월동연료비)	일용잡화비	의약품바		
1951년	2.50	0.30	.	0.50	0.137	3.437
1952년	9.037	0.80	.	2.00	0.82	12.657
1953년	26.62	2.00	1.37	3.00	3.31	42.36
1954년	29.68	5.30	2.60	10.60	6.15	54.33
1955년	79.50	0.8(1.4)	1.38	35	0.11	136,28
1957년	158.34	10,00(2.9)	2.90	20.00	58.13	252,27
1959년	149.32	10.00(3.52)	3.53	20.20	19.10	205.48

자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71.

○ 소록도에서의 노동에 대해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3차례에 걸친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전시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벽돌굽기, 가마니짜기 등 쉴새없는 노동력 동원이 지친 상태였음. 해방 후에도 중증 및 부자유 환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환자는 부첨인 노역을 반드시 거쳐야 했음. 부첨인은 소록도병원에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한센인들을 간병하는 사람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경증의 한센병 환자들임. 오늘날로 말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임. 부첨인들은 질병의 경중에 따라 5~10명의 환자들이 거주하는 남녀독신부에 1~2명씩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간병을 도맡아하는데, 병간호, 식사준비 및 보조, 빨래, 청소 등 질병 간호에서부터 일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생활을 수발하는 것임(『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266-267).

○ 부첨인들은 단순히 부첨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작업을 병행해야 했음. 작업의 종류는 소록도 섬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토목공사는 물론이고 각종 제재소, 철공소, 목공소의 각종 도구 생산에까지 두루 포함되었음. 또한 주급을 위한 공급된 벼(나락)의 도정 뿐 아니라 각종 야채 재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급자족토록 하였음. 한국전쟁 중 일부 시설손실에 의해 중단되었던 벽돌공장도 복구 운영하여 병원의 건축자제로 충당하였음. 1954년 7월 19일 자치회 내에 건설대를 창립하고 각 책임부서를 분담하여 본대와 지대로 구분하여 조직함.

○ 이들 건설대는 갱생원 내의 건설 및 수리, 가공, 공사는 물론 15개소의 공장의 합리적 운영과 도내 해안도로 석축공사와 기타 토목공사, 도로공사 등 나아가서는 산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치산(治山), 수로를 관리하는 치수(治水)작업 등을 도맡아 하였으며 심지어는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 소록도를 넘어서까지 인근 고흥지역의 작업을 전담하기도 하였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266-267).

○ 김상태 원장 퇴진운동의 시작은 1952년 10월 기독공보 10월호에 소록도갱생원장에 의 종교탄압사실 및 경비 부정착복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면서 시작되었음. 이 기사에서 김상태원장이 기독교인을 탄압한 것은 천여명에 달하는 유령환자분의 경비착복을 은폐하기 위한 것라는 점이 진정서가 제기한 문제의 요점이었음. 그러나 김상태원장은 강경하게 대처함.

일반사회에 여론화된 이 불미한 기사에 대해서 오해를 일소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가초비상시에 예산편성이라 넉넉지 않는 예산으로서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생활필수품 기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자치회와 상의해달라는 간구를 하였드니 원장은 가진 기만적 수단으로 재원자를 달래는가 하면 결국은 관청기밀이니 알여줄 수 없다 예산지출은 항목이 정해져있으니 국회의 승낙없이는 단 일원도 변경 사용할 수없다. 또는 환자들은 내용도 몰으고 대외적선동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인다. 불평불만자는 싹부터 처치하겠다. 후자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쓰겠다는 등 가진 위협과 공갈로서 함부로 탄압하더니 금춘(今春) 2월에는 언론자유는 민국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도내(島內)의 유일의 여론기관이요 보도기관인 자치회기관지 <녹산주보>도 아무 이유없이 정간령을 내리며 설상가상으로 중증에 가까운 피요양자(자치회 중요간부)를 원장 자신이 기대에 맞이 안는다고 해서 강제진찰을 하여 음성이라고 진단을 붓처서는 퇴원령을 내리가나 하면 이 처사에 너무도 억울하는 7'8명의 친지들이 죄없이 축출을 당하여 증거없이 방랑의 신세가 될 피퇴도자의 거처를 염려하여 죄가 있으면 죄되로 죄를 주거니와 퇴원령만은 철거하여 달라는 애원을 하였드니 원장은 눈물로 애원하는 7'8명마저 퇴원축출하고 마니 이런 얽울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진정서 2-3).

○ 기독신보 1952년 10월 13일자 '소록도갱생원장의 종교탄압' 기사에서는 종교박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상태 원장의 소행을 고발하고 있음.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이 이 사안을 여러 차례 보도함.

○ 1953년 9월에 보건부당국 및 위정자 제씨에게 보냄. 발표된『진정서』는 발표자가 '소록도갱생원자치회원 일동 xx명 대표'로 되어 있음. 진정서는 표지외에 14쪽에 이르며, 별첨으로 10쪽에 이르는 '물품통계표'가 있음. '물품통계표'는 **'1950년 6월 1일부터 1953년 5월 31일까지 재원자가 받은 물품통계표(6쪽)'**를 포함하여 **'1950년 6월 1일부터 195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식량수입내역표(2쪽)', '1950년 6월 1일부터 195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중요의약품수입통계표(1쪽)'**, 그리고 **'1950년 6월 1일부터 195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치료재료품 및 본병약수입통계표(1쪽)'**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 품목들은 환자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및 의약품 등으로 수백종에 달함. 당시 국제기구(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 UNCAC)와 외국민간원조단체들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산물품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서 당시 시설생활을 알 수 있음.

○ 진정서에서는 상기한 종교탄압, 강제퇴원조치,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흉골천자 진단법 시행, 환자의 실명 부작용을 수반하는 광전(光田)씨 반응 실험 시행과 함께 일본여자를 첩으로 들여서 직원 중심의 대한부인회장으로 세우고, 일본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점, 환자 사이의 이간질, 환자와 직원 사이 이간질 및 직원 위주로 갱생원을 운영하는 관료적 색채, 연료대 부정사용, 문교부 폐지, 절대복종 강요 등 일제 이상의 억압과 일제시의 잘못된 전통을 이어받은 점 등을 지적하였음.

○ 진정서에는 위 억압정책 이외에도, 10개항에 달하는 부정사실들이 열거되어 있음. 이들 자료는 갱생원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문서들에서 자치회원들이 조사해낸 것들임

1. 천여명 유령인구 경비부정처분건
2. 장태(醬太) 교환 조건으로 백미 반출시 백미반출과 대두입하의 차이량 부정처분건
3. 광목 부정 착복건
4. 연료용 할목(割木) 불법유용건
5. 선박대출비 부정처분건
6. 구호물자 부정처분건
7. 백미부정 처분건
8. 벌채작업 임금중 부정사실건
9. 4284년도 연보내의 부정사실건
10. 종교탄압에 관한 건

○ 진정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정인들의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해 관계당국이 철저히 밝혀주기를 청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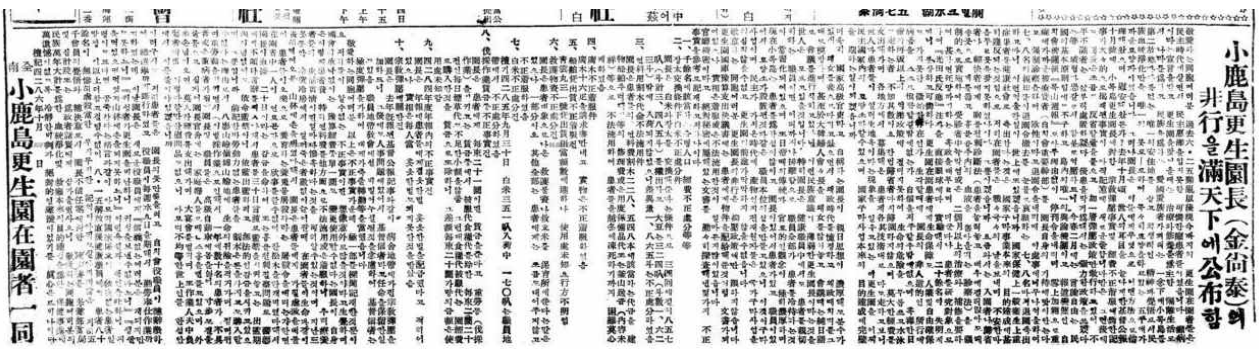
1. 천여명 유령인구분의 경비 사용처에 대한 사실조사
2. 전술한 참고재료(10개항목)의 부정사실건에 대한 국고예산지출결의서와의 문서대조
3. 별지첨부한 과거3년간의 자치회 전물품 수령 통계표에 대한 자치회문서와 직원들의 문서와의 대조
4. 언론자유 및 신앙자유확보 등등

○ 이상의 진정서에 대한 김상태 원장 내지 갱생원 측의 반응으로는 1953년 11월 23일 갱생원 직원과 계장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2가지를 결의한 것과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나타남. 갱생원직원회의에서 결의된 바는 (1) 이번 원장 비행사건을 직원들이 분담책임을 질 것과 (2)원장이 이 섬을 물러가게 되면 직원다수는 총사직할 것을 가결하고 보건부장관 앞으로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이라는 제목하에 직원 연서날인 및 총사직서를 첨부한 보고를 원장 및 교도과장이 상경하면서 감찰요원 및 보건부로 제출하는 것이었음.
○ 이 소식을 접한 갱생원자치회는 1953년 12월에 소록도갱생원재원환자일동 명의로 발표한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의 허위보고를 폭로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함. 이 성명서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갱생원측(원장측) 입장인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원인(遠因) ①나환자는 그 타성*이 곡벽(曲僻)하고 자포자기하며 경거망동하기 쉬우며 항상 사회에 대한 즉 건강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
(2)본원 식량사정은 정원 6,100명분이 양곡을 수배하였음으로 실수용인원 약 5,600명에게 일률적으로 그 기준량 4합(合)을 배급하고 중환자 부첨인 각 공장직공 기타 노동자에게도 그 노동의 경중에 의하여 일일일합 내지 5합의 특배(特配)를 주고 잔여양곡은 차를 저장 하여 현재 약 4개월분 1900석을 보유하고 있음.
(3) 육지요양소의 방종한 자유를 선망함으로 본원 환자중에는 불순분자들이 나날이 늘어가며 항상 도주계획하거나 또는 규합하여 원당국을 괴롭게 하는 방도만 부책하게 되었음.
(4) 본원은 일제시 350명 직원이 있었으나 해방후에는 직원수의 부족을 인해서 환자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병사지대의 말단행정을 맡게 되었으나 자치위원회가 발전강화됨에 따라 세력쟁투전이 전개되며 파벌이 심하여지고 자치위원회내에 소위 여당야당이 생기여 ....
(2) 근인(近因)
(1)(육지의) 각요양소에 있어서는 경리 기타 원행정을 전부 자치회에서 하고 있으며 대구 애락원 여수애양원등은 경리는 직원이 하되 기타 원행정은 환자들이 하고 있으며 선교사회에서 경영하는 상기 요양소는 경작지도 넓고 환자들도 경환자뿐이요 부유층에 속하는 환자들인데다 영선 기타 사업* 풍족하며 구호물자도 본원에 비하여 많이 입*하고 겸하여 본원과 똑같은 환자*를 받고 백미로 계산된 예산으로 잡곡을 수배하고 그 차액은 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예산운용도 자유로저서 환자들의 생활은 본원과는 큰 차이가 있음.
(2) 육지 각요양소의 환자는 본원 6,000환자에게 향하여 "너희들은 억압정치를 받고 만족하고 있는 무골동물"이니 소록도갱생원만이 일제 강점기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심지어는 갱생원직원들은 모조리 죽일놈 뿐이라고 하는 등 언사로서 부단의 자극을 주고 있으며 최근 육지환자들은 <요양소 운영은 환자들의 손으로> <구라사업은 우리들의 힘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소위 대한한센총연맹을 조직하여.... 소록도갱생원을 유일의 공격목표를 삼고 있으며 본요양소의 체계를 파괴하면 구라사업은 전국적으로 동포네들 수중에 들어간다는 신념하에 본원환자들을 선동함으로 본원 극렬분자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우선 현원장을 내여보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각종공작을 꾸미게 된 것임.
(3) 환자교인수 1700명이라고 운운.... 각부락치료소 6동을 환자교인들이 점령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부락 치료소는 신축하여야 될 형편이라고 운운.... 목사는 교인의 환심 사는데만 급급하고 원직원의 인신공격을 공공연히하여 원내현환자생활이 궁핍은 원당국의 무성의와 무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가진 이간책을 써왓든 것임....재원환자에게 대한 원장훈시중 목사에 대한 충고적 언사를 삽입하였든 것을 갖이고 종교탄압이라고 **날조하여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정부 각 요로를 일방진정하는 동시에 기독공보에게까지 대서특필케 한 것임.

(4) (지익풍 목사가) 본도에 래도시 원당국으로부터 누누이 구라사업의 목적과 본원의 사명을 설명하고 전임목사들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협력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었으나 표면상으로는 원당국과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이 하고 환자교회에 가서는 전임목사들의 반복적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여 환자지대 교회에서 비밀리 지하적으로 교인들을 선동하며....
*(5) 기독공보편집책임자 황성수씨는 국회의원이며 이 지방출신으로서 순천노회와의 관계는 *밀하며 본원의 사명도 잘 알 것이며 환자들의 성품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본원을 중상하는 기사를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기사를 2회에 걸쳐 대서 특기함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갱생원측(원장측)의 위와 같은 입장은 위 진정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임. 이에 대해 재원환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하나 하나 반박하는 내용이 성명서의 후반에 담겨 있음(내용 제시 생략). 성명서는 '친애하는 동포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으로서 '각 요로 및 각 요양소'에 성명서를 보내 여론형성을 기대하는 내용임. 아울러 '현명하신 위정자께서는 빨리 대책을 새워 원당국의 환자간 분열공작을 꾸미는 야수적인 이 사건을 빨리 선처해주시는 동시에 김상태원장의 비위비행을 공정히 처단해 주시기 천만바라마지 않습니다' 라고 하여 당국의 개입을 희망하였음. 아울러 재원자일동으로 1953년 10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성명서 내용을 '소록도갱생원장(김상태)의 비행을 만천하에 공포함'이란 제목의 광고로 실었음.


小鹿島更生園長(金尙泰)의
非行을滿天下에公布함
小鹿島更生園在園者一同

○ 동아일보를 통해 환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알게 된 병원 당국은 1953년 10월 25일 새벽 자치회 부위원장 서원갑과 전 문교부장 강영섭을 원규위반으로 감금실에 수감하는 등 적극 진압에 나섰음. 병원 측과 원생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소록도 문제가 여론으로도 환기되었고, 원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났음.

○ 사건이 보도되면서 중앙에서 의정국장, 나병계장, 고흥 경찰서장이 조정에 나섰고, 중앙감찰위원회에서 감사가 내려와 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김상태 원장에 대한 진정은 무혐의로 처리되었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79).

○ 원장 배척운동의 실패는 종교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되었음. 즉, 처음부터 원장 배척운동에 방관만 하던 천주교인 환자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임. 원장 배척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자치회 간부들이었고, 자치회 간부들 모두가 기독교 장로이거나 그에 가까운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원장 배척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뤄진 것이었음.

○ 운동의 주도세력들은 환자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안인 만큼 교파를 초월해 함께할 것을 권유했지만 천주교 측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합세를 하지 않았음. 결국 주동세력들은 천주교인 환자들을 불의(不義)에 가담하는 반역자라고 비난하였였고, 천주교인들은 혹시나 모를 위협에 두려워했고, 천주교 사도회장은 원장에게 천주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됨. 12월 2일 원장은 천주교인 환자 200여 명을 보육소에 수용하였는데, 천주교인들이 보육소에서 생활한지 한 달 여가 지난 1954년 1월 5일, 수원 성라자로마을 하한주 신부가 진상조사를 위해 내원하여 사태수습에 들어감. 교회 측은 천주교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앙생활의 보장을, 천주교인 측은 자치회에 협조하고 병사지대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로 교환하고 천주교인들이 환자지대로 복귀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음(상동).

○ 사태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자치회 내부에서 다시 분열이 발생하였음. 원장배척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자치회 간부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에 머물러 있던 김민옥 위원장을 데려오기로 결의하였고, 1954년 2월 김민옥 위원장은 야음을 틈타 소록도로 돌아왔음.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자치회에서는 '민보단'(단장 김해인)이라는 단체를 새롭게 결성하고, 그 안에 치안대(치안대장 서성국)를 구성하였음. 일련의 과정을 미뤄볼 때, 자신들의 정보가 직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믿고, 환자들의 통행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등 치안활동을 전담하게 한 것임. 이러한 조처에 장규진 부위원장 등은 반기를 들었고, 일부러 통금을 지키지 않는 등 시비를 걸었음. 그러다가 장규진 집에서 11시가 넘게 놀다 돌아가는 환자들과 치안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장규진이 곧바로 감찰계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결국 치안대원 3명이 녹동지서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튿날 민보단장 김해인과 치안대장 서성국도 녹동지서로 연행되었으며, 5명 모두 고흥경찰서로 넘겨졌음. 사건의 여파는 더욱 확대되어 3월 31일에는 김민옥, 서원갑, 강영섭 등도 구속되었고, 4월 5일 녹동지서 순경들에 의해 김병련이 연행되어 감으로써 원장 배척운동의 주모자들 모두가 고흥경찰서에 구속되게 되었음. 이를 지켜본 환자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감정은 격앙되어 4월 6일 오전 10시 수많은 환자들이 경계선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였고 결국 경계선을 뚫고 직원지대로 밀고 올라갔음. 이에 고흥에서 출동한 경찰기동대와 직원들은 공포를 쏘고 곤봉으로 환자들을 제압하며 시위를 진압하였음. 이들이 휘두르는 무력 앞에 환자들은 기겁을 하고 후퇴하여 사방으로 도망쳤는데, 당시 환자들이 얼마나 혼비백산 했는지 도망가느라 벗겨진 고무신짝이 두 가마니요, 의족도 수십 개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음. 무력으로 시위를 진합한 경찰과 직원들은 시위가담 환자들과 주동자들을 색출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실에 입감해버렸음.

○ 병원 측은 가담자들을 출신지역과 가까운 나요양소로 분산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중앙의 허가를 받아 4월 11일자로 이송하였음. 당시 이송 조치된 이들은 총 25명으로(장로 4명, 집사 17명, 권찰 4명) 전북 소생원에 9명, 여수 애양원에 6명, 부산 상애원에 8명, 대전 애경원에 2명씩 각각 이송 조치되었음. 먼저 경찰에 연행되었던 주모급 인사들은 구속 송청(送廳)되었는데, 재판 결과 서성국, 김병련, 김해인의 소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 7월과 6월의 선고를 받고 상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음. 김민옥, 서원갑, 강영섭은 1954년 7월 31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구류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벌금을 납부한 후 석방되었음.

○ 석방 후 김민옥, 강영섭은 익산 소생원으로, 서원갑은 여수 애양원으로 각각 분산 수용되었음. 사태를 마무리한 병원 당국은 사건을 일으킨 자치회를 해산하고 조무원 제도를 실시하였음.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흉골골수천자에 의한 나균 검사도 중지하였으며, 일률적이던 강제노역을 지양하고 건강한 환자 200여 명으로 건설대를 구성하여 환자들의 불만을 상당히 해소하였음. 하지만 소요사태로 인해 어렵게 실시한 자치회가 다시 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급 인사들이 강제 퇴원 당하면서 환자들의 자치권이 크게 훼손되었음. 84인 학살사건 이후 갱생원에서 발생한 가장 큰 분규이자 인권침해사건으로, 환자들의 자치권이 크게 약화되고, 갱생원의 부정부패의 문제가 사회에서 쟁점이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80-181).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을 따서 4.6 사건이라 칭함.

○ 1954년 9월 24일자 경향신문 기사('갱생원 분쟁은 해결, 양배착복직원(糧配着服職員) 처벌')를 보면 김상태 원장 및 총무과장과 경리계장 등 3인이 감찰위원회 징계회의에 따라 파면처분 받은 것을 알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3건(진정서, 물품통계표, 성명서) 모두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변형이나 노후화 흔적 없음. 단 작은 글자크기로 등사한 관계로 일부 읽기 어려운 글자들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3건 모두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 보존관리에 전혀 문제 없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생존과 자존을 위한 사회적 소수자의 집합행동 사례를 잘 보여줌.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략, 관련 핵심 부서를 상대로 한 청원 전략 등을 잘 보여줌. 아울러 사회적 소수자의 집합행동에 대한 주류 사회의 반발과 억압장치의 가동을 잘 보여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실천과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전쟁기와 직후인 1950년대 전반, 외국원조물자에 크게 의존하여 생존해가던 소록도요양원에서의 생활상을 물품통계표의 세부 물품 명칭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미루어 당시의 고아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과 원생들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임.

6) 등록가치의견

○ 역사성 측면에서 진정서는 별첨 자료로 물품통계표가 첨부되어 있음으로써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이 막 종료된 엄혹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집합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성이 풍부한 사료임.

○ 특히 진정서에 첨부되었던 물품통계표는 소록도요양원의 의료, 행정, 환자들의 삶 등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음. UNCAC(UN주한민사원조사령부)와 외국민간원조단체들로부터의 구호품들이 실제 현장에 전달되었던 것을 물품통계표는 자세히 전해주고 있음. 미루어 고아원 등 당시 만들어지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원생들의 생활상을 미루어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보물창고임.

○ 성명서 역시 원생들의 주장이 담긴 중요한 역사 사료로서 가치가 있음. 진정서와 성명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소록도갱생원의 부정부패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음.

○ 희귀성 측면에서 진정서와 물품통계표, 성명서 모두 높게 평가됨. 특히 진정서에 첨부된 물품통계표는 별지 형태로 되어 있고, 반투명한(두께가 얇은) 용지여서 자료정리하면서 망실훼손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보존되어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성명서는 별첨문건 없는 단일 문건으로 한국전쟁 직후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시 희귀한 것으로 평가됨.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2건 모두 약칭으로는 '진정서'('물품통계표'), '성명서'로 표현하였지만, 문화재로 등록 시에는 정확한 이름을 밝혀주어야 할 것임. 그럼으로써 명칭으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명칭의 표지화가 가능할 것임.

○ 진정서--> 인권보장과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소록도갱생원 자치회원 일동의 건의문 및 지급받은 물품명세서

○ (물품통계표--> 소록도갱생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명세서)

○ 성명서-> 소록도갱생원장 김상태 비행사건에 대한 소록도갱생원 재원환자 일동의 성명서

나.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

1) 개요

○ 상기 물품들은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로서, 소록도에서 의료보조인력을 양성하였던 녹산의학강습소(1949~1962)와 관련있음. 즉, 1949년 국립소록도병원(당시명칭은 중앙나요양소)에 개설된 개설된 녹산의학강습소 제1기 졸업생 김주형이 기증한 청진기 1점, 제5기생용 해부학책 1책, 동 강습소 수료생인 강선봉(제6기, 1960년), 김영설(제7기, 1961년)의 수료증 각 1점임.

○ 청진기는 제1기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식에서 김주형이 졸업선물로 받은 것으로, 한센병박물관 개관(2016.5.17.) 이전인 2015년 5월 21일 녹산의학강습소 제6기 출신 강선봉이 국립소록도병원 부탁으로 김주형을 찾아가 받아가지고 온 것임. 해부학책은 제5기 양동승(梁銅承)이 사용하던 것을 한센병박물관이 구입한 것임. 수료증은 강선봉과 김영설이 한센병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 나병원(혹은 나요양원)에서 환자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돕는 의료보조원으로 활동한 일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관찰되나, 환자에게 의학강습을 통해 보조의료원으로 양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듦. 이는 일제강점기 이래 소록도에 대규모 나요양소를 운영해 온 역사와 관련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한국에서 나병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 나질(癩疾)이라는 병명으로 처음 출현함. 1445년에 제주에 구질막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며, 1612년 사간원에서 경상, 강원, 충청도의 대풍창 치료와 방제를 청했다는 기록이 있음.

○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나병원이 부산(1908, 호주장로회), 광주(1911, 미국남장로회), 대구(1913, 미국 북장로회)에 세워졌음. 조선을 병탄한 일본은 이들 서양 선교병원 설립에 자극받아, 1915년 나환자 격리 수용소로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를 선정하고, 1916년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립하여, 1945년 제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철수할 때까지 5명의 일본인 원장 시대를 거치게 됨.

○ 1933년 부임한 제3대 원장 스오 마사스에는 소록도 자혜의원 제1차 확장공사를 시작하고, 벽돌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시설 명칭을 1934년 10월 소록도갱생원으로 개명함. 1935년에는 소록도 신사를 준공하고, 원장의 권한으로 환자를 감금할 수 있는 감금실을 설치하였으며, 1936년에는 정관절제수술을 전제로 부부동거를 허용하기도 함. 1937년에 간호부양성소를 개설하였으며, 총 3차에 걸친 소록도 확장공사 결과 1939년에는 6,020명의 환자를 수용함. 1942년 6월 20일 스오 원장의 압제에 반발한 이춘상이 스오 원장을 척살함. 2021년 현재 이춘상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1945년 광복 이후 공권력의 공백기에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속에서 84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1945년 김형태 원장 취임 후 녹산중학교 개설(1946), 환자자체제 허용(1947) 등 환자들의 교육과 자치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음.

○ 1948년 제8대 김상태 원장 부임 이후,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운영체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음. 1949년 5월에 중앙나요양소로 개칭하였고, 처음에는 3년 과정의 녹산의학강습소를 개설하였음.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간에 의학강습이 중단되었다가, 곧 재개함.

"또한 6·25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의학강습소를 재개하여 1952년 8월 15(14일의 오기인듯함)일 제1기 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부족한 직원 인력을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요원이 절대 부족한 전국 각 나요양원의 의료조무원 확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국립소록도병원, 1996, 소록도80년사, 121-122)

○ 녹산의학강습소는 의료조무원(혹은 자료에 따라 '의료조수', '의료요원', '환자 진료기간요원', '환자의료원' 등으로 표현됨)을 양성했던 교육기관임. 이들은, 정식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자격을 갖춘 의료인은 아니나, 나요양원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하여, 환자들에 대한 의료를 제공한 인력들임. 1953년도 『국립요양소 갱생원 연보』를 보면 의학강습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음.

"*본원 의학강습소는 나환자에게 의학적 기초지식과 임상적 기술을 습득시켜* ***<u>의료조수</u>****를 양성하여 현하 긴급히 요청되는 나요양소내 부족된* ***<u>의료요원</u>****을 충족시킴으로서 구라사업에 기어코자 하는 목적아래 …단기 4285년 8월 14일에 제1기생 16명의 수료를 보아 해당 각요양소에 배치되어* ***<u>환자 진료 기간요원</u>****으로 활약하고 있다. 학제의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는 수료생을 보지 못하였으나 제3기생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제2기생과 더부러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가며 강의를 제속중임으로 앞으로 예산상 합법을 기하여 명실공히 검전한* ***<u>환자의료원</u>*** *양성기관이 될 것을 기하고져 한다"*(87, 이탤릭은 보고자가 강조한 것임).

○ 1949년에 입학한 제1기 교육과정으로 애초 3년 과정으로 계획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중간에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1952년 8월 14일에 수료함. 이후 2년 과정으로 이수년수가 바뀌었음. 1953년 녹산의학강습소에 재학중인 사람들은 소록도 출신이 대다수였지만, 그 밖에도 전국 여러 곳의 나요양원에서 선발되어 왔음. 의학강습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요양원에서 자발적으로 입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음.

<표>1953년 현재 녹산의학강습소 재학생의 출신분포자료)
『국립요양소 갱생원 연보(1953)』, 88.

	1기	2기	3기	계
갱생원	14	17	27	58
애생원	2		1	3
애양원		2		2
애락원		1	2	3
신생원			1	1

○ 의학강습소 입학자격은 남녀 구분없이 중졸 이상의 학력이면 되었음. 국어, 영어, 산수, 상식 과목으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경쟁률이 100:1 정도였음. 처음 3기까지는 3년 과정이었는데, 후일 2년 과정으로 단축됨. 의학강습소 수료후 갖는 자격은 내부(소록도와 육지의 요양소 및 정착촌)에서만 통용되는 제한적인 것으로서, 의강 출신 중에는 이때의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정착농원에서 약국개업(익산농장에서 약국개설한 제8기 김현수, 후일 방사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주 한센복지협회에서 내과주임으로 일한 제1기 김주형 등)

○ 녹산의학강습소에서 강습했던 과목과 담당교사는 1953년도의 경우 다음과 같음.

<표> 강습과목 및 담당교사자료) 『국립요양소 갱생원 연보(1953)』, 88.

과목	직위	성명
수신	원장	김상태
해부학	의무관	남천우
세균학	의무관	최시룡
생리학	의무사	이홍덕
약리학	의무관	신정식
조제학	약제관	홍연호
진단학	의무관	문병렬
내과학	의무사	이홍덕
외과학	의무관	남천우
안과학	의무관	신정식
이비인후과학	의무관	최시룡

○ 표에서 보듯, 나환자 진료를 위한 기본 과목들이 망라되어 있음. 교재는 일본의학교재를 축약하여 등사한 것을 사용하였음. (1956년 사용된 해부학 교재 참고). 의강 제6기생들이 인체표본을 만들어 교육과 실습에 활용함.(강선봉 면담 내용).

○ 녹산의학강습소는 1961년 최재위 원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진 병원 체제와 함께 1962년 제8기 수료를 끝으로 폐지되었음. 의학강습소 출신 환자들이 병원 의료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 의료조무원 체제는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1978년 병원에 간호조무사 양성소가 생겨 간호조무사들이 간호 업무를 점차 전담하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짐.(한센병박물관, 내부자료, 2021.1.16.).

○ 1961년까지 수료생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제7기까지의 수료생 수는 다음과 같음.

<표>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수 자료) 한센병박물관, 내부자료, 2021.1.16.

수료년도	수료생수	비고
1952년	16	제1기생
1953년	20	제2기생
1954년	18	제3기생
1955년	35	제4기생
1956년	53	제5기생
1959년	25	제6기생
1961년	45	제7기생
합계	212	

○ 녹산의학강습소를 수료한 사람들은 소록도병원에서, 그리고 육지의 요양원에서 의료보조행위를 하였는데, 의사가 없는 경우나 상황에서는 직접 의사 역할을 수행하였음. 몇몇 증언이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사망사실 확인: 소록도에서 사망한 환자가 발생하면, 사망사실 확인이 되어야 장례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망자는 김주형 장로의 손을 안거친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청진기를 가지고 출동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었다”.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소록도의 병사지대에 의사가 들어갈 수는 없기에, 그곳에 살고 있거나 혹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강 출신이 청진기를 사망자의 가슴에 대고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하는 사망사실 확인절차는 동료로서 의강출신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였음. (2021.2.16. 강선봉(의강 6기) 면담내용). 그런 의미에서라도 의강 출신에게 청진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정관수술: 전신마취(척추마취) 후 정관수술(단 산부인과 수술은 직원들이 하였음. 위 강선봉 면담내용). 또한 오장열의 구술에 따르면, 21세에 호혜원에 입소하여 결혼한 그는 환자로부터 정관수술을 받았음. (국사편찬위원회, 해방이후 한센병 정책과 질병경험에 관한 구술사, 전자사료관 2004년도 수집 구술자료(사료철 COH005_11_00A0006). 2004.5.23.)
- 환자 사망 후 해부할 때 의강출신들이 거들음. 단, 해부는 의사들이 하였음. 일제강점기부터 소록도에서는 환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해부를 하였는데, 공휴일에는 의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해부하지 않고 바로 화장장으로 보냈음. 그래서 환자들이 두 번 죽지 않기 위해 공휴일에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이 있었음. 소록도에서의 해부가 유명하여 전남대의대에서 견학올 정도였음. (이상 강선봉 면담내용).
- 정착촌에서 근무할 때 맹장수술하여 4명 살린 적 있음. 당시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각하여, 외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한센병 뿐 만 아니라 일반 질병 등은 정착촌에서 의강 출신들이 치료나 수술을 감당함.(강선봉 면담 내용)
- 의사로서의 자아정체성을 갖기도 함: 의사처럼 가운입고, 수술복입음. (강선봉 면담)
- 상황에 즉응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술: 환자들의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혈이 안되어 거의 죽어가는 사례가 있었음. 이 때 봉합사로 혈관 6개를 묶어서 지혈하고 수술 성공한 경우도 있음(강선봉 면담 내용)

- 한센병의 특성 상 환자 신체에 상처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센인들이 자가치료를 위해 보리밥에 비누를 섞어 상처에 붙이는 경우가 많았음. 상처가 아물면 이것을 버리는데, 쥐가 이것을 먹고 결절 등이 생기는 등, 사람에게서 쥐로 한센병이 전염되기도 함.

○ 소록도 혹은 한센병 역사에서 녹산의학강습소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1950~1960년대 한국 보건의료 현실상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늘 부족하였고, 거기에 더해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진료거부 등이 심각하던 때에 녹산의학강습소 체제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 및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에서 한센병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함. 실제 1950년대 소록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찰자에 따르면, '나병의사(Leprosy Doctors)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의사들은 상황을 바꿀 수 없어 한쪽으로 비켜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한센병박물관, 내부자료, 2021.1.16.)
- 한센환자에게 의강 출신은 동환(同患)으로서, 자신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였고, 실제, 의강 출신들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성심성의껏 진료에 나서 환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의료인력이었음.
- 의강 출신들은 환자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까지 보존된 청진기, 해부학, 그리고 수료증은 한센역사에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망각되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귀중한 유물이라 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청진기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고무 호스도 전혀 갈라지지 않은 상태이고, 플라스틱 부분도 깨끗하고 완전함.

○ 해부학의 부제는 골(骨), 인대(靭帶)로 되어 있어 근골격계에 관한 내용임을 보여줌. 하단에 영문 필기체로 yang dong seng이 적혀있고, 타원형 막도장 형식으로 梁銅承이라 새겨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존이 잘 된 것으로 보임. 마지막 표지는 다소 훼손된 상태이나 서지사항이 수록된 페이지는 보존되어 있어 내용상 전권이 보존되었음.

○ 수료증 2매 모두 보존상태가 좋음. 강선봉의 수료증은 위아래가 약간 작은 액자 속에 보관된 듯, 색바램 정도에 차이가 있고, 상단과 하단에 침수 흔적이 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이상없음. 김영설의 수료증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이들 유물들은 2016년 5월 17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문을 연 한센병박물관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는 바, 항온, 항습 등 보존환경이 완벽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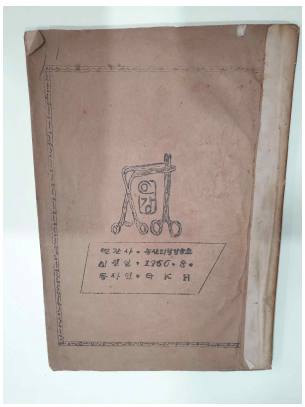
○ 이들 유물들은 역사학을 위한 연구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임: 한국현대사, 한국의학사, 한국한센병사, 사회사, 사회복지사 등

6) 등록가치의견

○ [청진기] 역사성 측면에서, 이 청진기는 1952년 8월 14일 제1기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16명에게 기념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이상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 바, 첫째, 제2기 부터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소록도에서 환자 사망 시 의강 출신이 반드시 '청진기'를 들고 사망진단을 해야만, 그 다음 장례절차에 따라 화장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죽음 이후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심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중요한 상징성을 가졌다는 점. 희소성 측면에서 1952년 8월 14일 제1기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16명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한 청진기는 그 사이에 대부분 망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 희소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등록가치가 높음.

○ [해부학] 역사성 측면에서 이 책자는 일본의료진들이 남겨놓고 간 의학서나 소록도 근무 한국인 의사들이 보았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전문필경사('등사자 G K H'로 표기되어 있음)가 내용을 쓰고, 그리는 과정을 거쳐 등사 및 제본을 거친 책자 형태로서, 변변한 의학교과서가 없던 시절의 의학교육서로서 의미를 가짐.

○ 희소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책자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희귀성도 높다고 평가됨.



○ [수료증] 역사성 측면에서 녹산의학강습소의 수료증서는 환자로서 기초적인 의학 강습을 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귀중한 증명서로서, 사회적으로는 보건의료 전문직들에 대한 자격제도가 성립되기 전에 비록 일부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었지만, 의료자격을 위한 증빙서로서 그 의미가 큼. 특히 8기까지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후,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큼. 희소성 측면에서는 아직 생존해 있는 의학강습소 수료생들은 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임.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관련 :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자세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제1기생에게 기념으로 준 청진기,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해부학 교재,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

<○○○○○ ○○○>

1) 개요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크게 두 가지 역사적 사건과 기관에 관한 유물임. 하나는 해방 후 소록도 한센인 자치활동을 보여 주는 4.6사건에 관한 유물이며 다른 하나는 소록도만의 독특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센인이 의료인으로 양성되었던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임.

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 목록

○ 4.6사건은 해방 후 한센병 환자들의 소록도 자치회가 주축이 된 저항 사건임. 환자자치회는 광복과 민주주의의 바람을 맞아 1947년 도입된 '환자자치제'에 의해 구성된 기구였음. 그러나 한국 전쟁으로 인한 내부 분열, 전쟁으로 물자 부족이 심해진 점, 김상태 원장 부임 후 관리와 통제 위주의 일제강점기 정책으로 회귀한 점 등이 원인이 되어 1952년 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김상태 원장해임운동이 발발하게 됨. 그러나 원장해임운동은 실패하였고 1953년 자치회 내부 갈등과 4.6 데모로 이어져 이후 자치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됨.

○ 4.6사건은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흉골골수천자' 방법으로 촉발되었던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 및 진정 국면으로 1953년 가을부터 1954년 1월까지 지속되었음. 기존에 해임운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다른 하나는 해임운동 실패로 야기된 자치위원회 내부 분열이 4월 6일 소요 사태로 치달았던 195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국면임. 이 중 유물은 첫째 국면인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관련된 유물로서 김상태 원장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진정서와 그에 따른 별첨한 물품목록, 그리고 진정서 및 신문의 공개장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발표된 성명서임.

○ 진정서와 물품목록, 신문의 공개장, 성명서를 함께 보면 4.6 사건 당시 자치회의 주요한 문제의식, 문제제기 내용, 그리고 당시 소록도 갱생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진정서에서 문제가 된 내용들은 경비부정 문제, 녹산주보 정간 문제, 흉골천자진단법과 인체 실험과 같은 가혹한 진단과 의학 연구 문제, 원장의 친일활동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음. 물품목록은 연보와 물품 지급이 맞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치회만으로 물품 통계를 작성한 것임.

나)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는 한국과 소록도 만의 독특한 제도로서 해방 후 의료인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환자들을 훈련시켜 다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이었음.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소록도와 유사하게 한센인을 대규모로 격리시켰던 필리핀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의학교육제도 상에서도 독특한 기관이라 할 수 있음. 1949년 김상태 원장에 의해 처음 개설된 본 강습소는 처음에는 3년, 이후에는 2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총 7회에 걸쳐 212명의 의료인력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1961년 최재위 원장에 의해 폐교되었음.

○ 이들은 중졸 이상 학력을 갖춘 한센병 환자로서 영어, 국어, 한문, 산수 등 일반 상식을 시험 본을 치룬 후 입학을 허락하였음. 처음에는 남성들만 입학하였으나 6기부터는 여성들도 입학하였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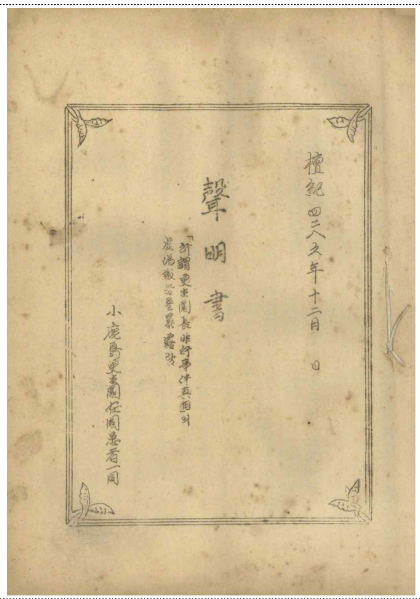
○ 생리학, 해부학 등 기초교과목과 외과학, 이비인후과학, 내과학 등 임상교과목이 함께 교과과정으로 짜여져 있어 일반적인 일제 시대 의학강습소 수준과 유사하다고 생각됨. 일반적인 당시 보조의료인력 양성 수준보다 훨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절단수술이나 맹장수술 등 주요한 수술과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짐.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당시 소록도 내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메워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이들은 소록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 요양소나 나병환자 정착마을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주변 마을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유능한 의료인력으로 인정받았음. 1960년대 말 면허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까지 이들의 진료 활동 또한 많았던 것으로 보임.

○ 의학교육의 역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소록도 환자 자치의 측면에서도 녹산의학강습소의 의미는 적지 않았음. 의학강습소를 졸업한 환자들은 임상 각 과와 각 마을 치료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뿐더러 다른 의료인들보다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자부심이 강했음. 비록 정식 면허를 얻지는 못했지만 환자들로서는 의학강습소에서 의료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이 지원하였고 소록도로 전원한 경우도 많았음. 또한 환자들은 의사들에게서 얻기 부족했던 돌봄의 기회를 동료 한센인 의료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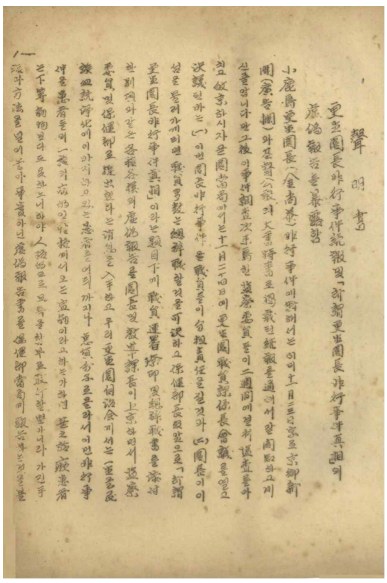
○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은 의학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것 만이 아니라 의학의 주체가 되어 지식을 익히고 연마하고자 한 한센인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점, 그러한 열망을 바탕으로 소록도 내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센인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 등에서 근현대 의료사회사에서 중요한 유물이라고 평가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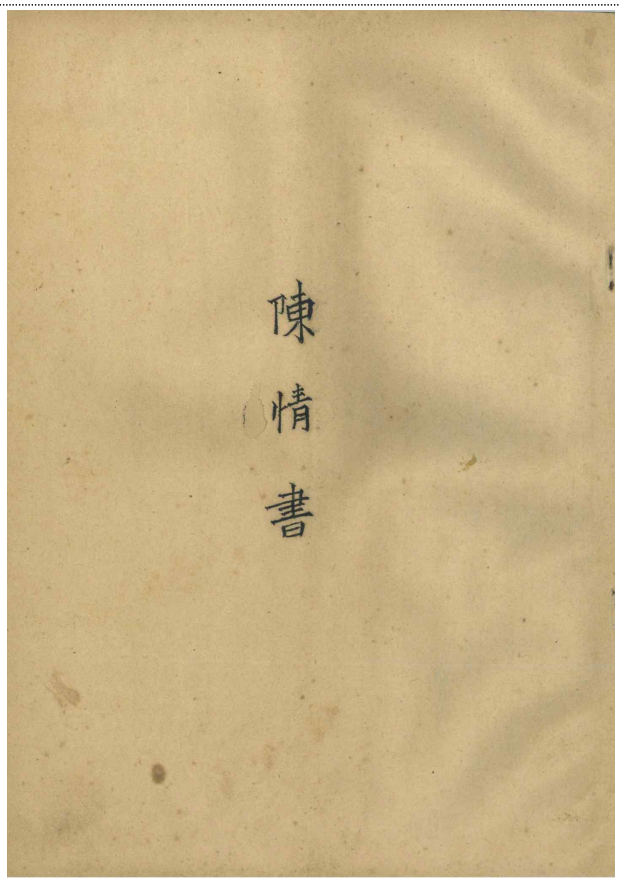
성명서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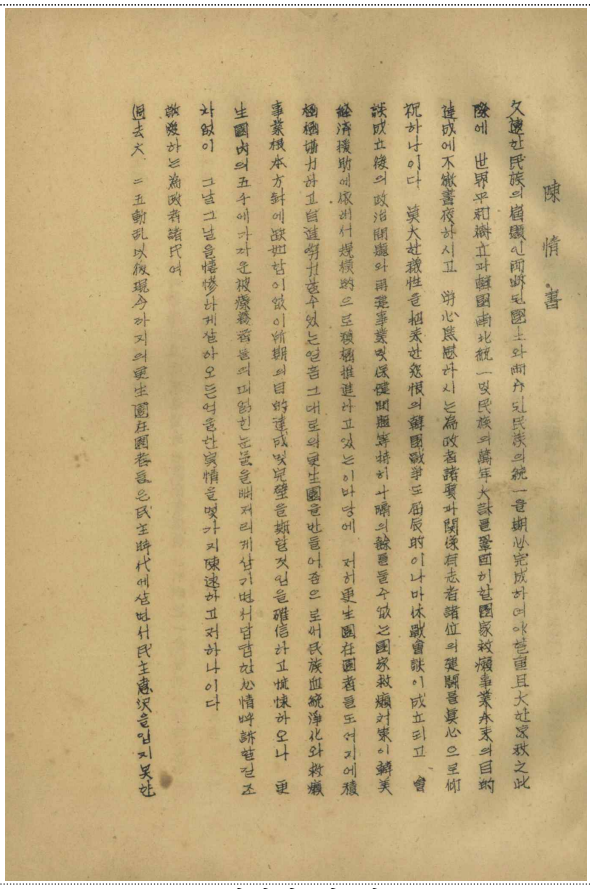
성명서 제1면



물품 통계표



진정서 표지



진정서 제1면

○ 본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목록은 소록도한센병박물관 소장 유물로서 박물관 개관 이전 2015년 유물 수집차 소록도 내 남성교회(1927년 창립)를 방문, 유물 수집하던 도중 강단 옆 방송실 캐비넷 위에서 발견함.

○ 유물 규격은 진정서는 19*25.5cm, 성명서는 20*28cm, 물품통계표는 18*25.5cm임. 진정서와 성명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철필로 쓰고 등사판에 붙여서 잉크를 묻힌 밀대로 인쇄를 하는 방식으로 제작함. 물품통계표는 '중앙나요양소' 원고지에 표로 작성되어 있음.

○ 성명서 표지에는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의 허위 보고를 폭로함>이라는 제 하 소록도 갱생원 재원 환자 일동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진정서는 표지에 진정서라고 되어 있으며 말미에 소록도 갱생원 자치회원 일동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나)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1) 청진기



청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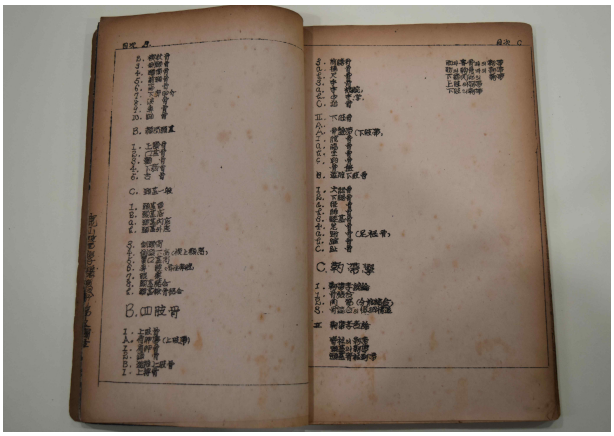
○ 본 청진기는 소록도한센병박물관 소장 유물로서 1952년 졸업한 녹산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생 김주형이 2015년 5월 21일에 기증한 것임. 김주형은 여수애양원 입원 중 손양원 목사의 소개로 녹산의학강습소에 입학한 후 1950년대 말까지 환자 진료에 종사하였으며 이후 강원도로 이주하여 대한나관리협회(현 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에 근무하였음.

○ 청진기를 기증 받은 강선봉(녹산의학강습소 제6기)의 증언에 따르면 김주형은 이 청진기로 소록도 내에 의료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음. 청진기는 강습소 졸업 때 졸업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함.

○ 길이 83cm, 보관 상태가 양호함.

○ 양귀형 청진기이며 재료는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것임. 벨 부분과 귀마개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당시에 흔한 유형이었음. 상표로 'The Idealth'라 칭해져 있음.

(2) 『해부학(解剖學)-골(骨), 인대(靭帶)편』 교재

<table>
<tr><td> 
</td><td>  </td></tr>
<tr><td>『해부학(解剖學)』 교재 표지</td><td>『해부학(解剖學)』 교재 목차</td></tr>
<tr><td> 
</td><td>  </td></tr>
<tr><td>『해부학(解剖學)』 교재 삽화</td><td>『해부학(解剖學)』 교재 뒷면</td></tr>
</table>

○ 『해부학(解剖學)』 교재는 소록도한센병박물관 소장 유물로서 고서·희귀서적 판매처(장서각문고)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구입하였음. 원 소유자 양동승(梁銅承)은 녹산의학강습소 제5기 졸업생으로서 대한나관리협회(현 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에 근무한 바 있음. 교재에 양동승의 성명과 인감이 찍혀 있음. 규격 19*27cm

○ 표지에 녹산의학강습소 제5기생용(鹿山醫學講習所第Ⅴ期生用)(X는 Ⅴ의 오기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어 제10기생용으로 만든 해부학 교재이며, 등사된 것임. 골(骨), 인대(靭帶)라고 적혀 있어 근육, 장기 등 다른 해부 부위별 교재가 따로 있었을 것으로 여겨짐.

○ 해부학 용어와 신체부위, 골학총론, 골학각론, 두골, 사지골, 인대학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일반적인 골학 교재와 유사한 순서이며 인체부위와 골, 인대 부위가 삽화로 정리되어 있어 각 부위의 모양과 명칭을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맨 마지막에 녹산의학강습소의 교표로 여겨지는 포셉 가위 모양의 '의학' 그림이 적혀 있음. 발간사-녹산의학강습소, 연월일-1956년 8월, 등사인 GKH로 기록되어 있어 제작년월일, 장소, 등사인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재 표지 종이를 다른 잡지 내지를 활용하여 만들었으며 종이 질이 좋지 않음.

(3)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 2점



강선봉 선생님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



김영설 선생님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

○ 수료증 2점은 녹산의학강습소 제6기 졸업생 강선봉(姜善奉, 1960년 졸업), 녹산의학강습소 제7기 졸업생 김영설(金永設, 1961년 졸업)의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임. 수료증은 각각 국립소록도병원부속 녹산의학강습소 소장인 차윤근(車潤根)과 최재위(崔在緯)의 명의로 발행되어 있음. 제151호(강선봉), 제173호(김영설)로 번호가 메겨져 있어 수료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음. 졸업학생의 생년월일, 본적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음. 녹산의학강습소 직인을 통해 문서의 공식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수료증의 주인인 강선봉은 1939년 경남 출생으로 녹산초등학교, 녹산중학교를 졸업한 후 녹산의학강습소를 졸업한 소록도 인임. 1962년 소록도를 떠나 정착촌 등에서 의료활동을 함. 김영설은 1935년 함남 출생으로 1961년 의학강습소를 졸업한 후 대구애락원 의료부에 총 책임자로 근무함.

○ 강선봉 선생님 수료증 보관 상태는 김영설 선생님의 수료증보다 종이 질이 좋지 않아 바래져 있고 일부 접혀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함. 규격은 각각 38.8*26.8cm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함. 특히 청진기의 경우 1950년대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좋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록도한센병박물관에서 개별 비닐에 잘 보존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 목록

○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 목록은 소록도 한센인의 자치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임. 해방 이후에도 자치의 관점에서 다양한 갈등이 있었고 정부의 한센인 관리 정책이 강압으로 끝났던 역사와 함께 유물이 제시된다면 더욱 가치를 발할 것으로 여겨짐.

나)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 소록도 한센인들의 의학교육에 관하여 한센인 역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으나 기존의 의학사나 의학교육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항임. 관련하여 자료와 증언들을 잘 발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당시의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을 다른 의료인력 양성기관과 비교하고 이후 의료조무원 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센인의 자체적 의료 활동과 자활 노력과 연결하여 검토함으로써 격리 및 통제의 정책 속에서 한센인들의 자구적 노력을 평가하고 근현대 환자사의 주요한 역사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 목록

○ 해방 후 각종 환자 인권 관점의 저항 운동 관련된 문화재는 현재 전무하며, 등록 가치가 있음.

나)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 한센인 생활 관련 기 등록 문화재로 한센인들이 스스로 제작한 생활유품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이 있으나 교육을 통한 자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 유물의 가치가 크다고 보임.

○ 근대의학교육 관련 문화재로 2016년에 문화재로 지정된 간호교과서 만이 있음. 본 유물은 소록도 한센인 대상 의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 목록

○ 본 유물은 환자 인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인 4.6사건의 실제를 보여주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임. 4.6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 본 유물은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라는 국내 한센인의 독특한 의학교육제도와 소록도인들의 자활 노력이 결합된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전술하였다시피 녹산의학강습소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의학교육제도임.

○ 청진기는 의료인이 된 환자들이 환자 대상 진료에 사용한 도구로서 공동체적 의미가 있으며, 해부학 교재와 수료증은 녹산의학강습소의 실제를 보여주는 문서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임. 녹산의학강습소의 교육 내용과 수료생들의 시술 범위를 좀더 발굴하고 다른 의학 교육 기관과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들에게 의학 교육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고흥 소록도 4.6 사건 관련 유물>,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로 정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안건번호 근대 2021-02-13

13.「진관사 석가불 괘불도 및 괘불함」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진관사 소장「진관사 석가불 괘불도 및 괘불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진관사 석가불 괘불도 및 괘불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3.7.)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2.2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진관사 주지(법명 : ○○)

(2) 검토내용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 재 지
진관사 석가불 괘불도 및 괘불함	1건 2점	○괘불도 (전체)768×457㎝ (화면)720×423㎝ ○괘불함 (길이) 503.2㎝, (높이) 43.4㎝ (너비) 38.0㎝ 등	1935년	진관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진관사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3.7.)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1.2.2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조선 후기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서양화법 및 사진기법 등을 도입한 근대기 작품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인 '진관사 수륙재'의 주불화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다만 원 소장처(삼각사)에 봉안되었던 것을 진관사에서 소장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문화재 명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명칭(안) :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2.26.)

- '진관사 괘불도 및 괘불함'은 족자형식이며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고 그 뒤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한 오존도(五尊圖) 형식의 대형 불화임. 해당 유물은 전통적 도상을 계승하면서도 입체감, 공간감 등 근대기의 새로운 조형언어를 반영한 점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화기를 통해 제작연도와 제작자, 주문자, 시주자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진정성이 있음. 괘불함 역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괘불도의 화기처럼 제작연도, 제작자, 시주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1.2.26.)

- 진관사 괘불도는 1935년 퇴운일섭의 주도 하에 존상 구성과 도상에 있어 조선 후기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전체 화면 구도와 포치, 존상 표현에 있어서는 서양화법이나 사진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감과 입체감을 살린 새로운 기법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수준 높은 불화로 등록가치가 충분한 유물임. 괘불함 또한 동시기 일괄 유물로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1.2.26.)

- 진관사 괘불도는 1935년에 제작된 야외의식용 대형 불화로, 석가삼존과 가섭, 아난 총 5위로 구성된 형식을 지닌 유물임. 근대기 시기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특정한 안료와 적극적인 서양화법인명암법에 의한 입체감의 표현과 그림자 표현을 통한 실재감의 구현을 잘 보여주고 있음. 또한 제작인연과 제작자, 제작상황이 분명한 작품으로, 당시의 큰 스님인 만공월면이 증명으로 참여하고 근현대기 새로운 화풍을 추구한 대표적 화승 5인이 참여한 시기성 짙은 작품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 명칭은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으로 함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진관사 석가불 괘불도 및 괘불함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3.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

4. 조사자 의견('21.2.26.)

<문화재위원 ○○○>

1) 개요

가) 괘불도: 서울 진관사(도 1)가 소장하고 있는 괘불도는 족자형식이며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고 그 뒤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한 오존도(五尊圖) 형식의 대형 불화임.(도 2) 정중앙에 정면관으로 서 있는 본존은 왼손을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고 있는 석가불의 설법 자세를 취하고 있음. 좌우협시보살상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본존불을 향해 합장하고 있으며 그 뒤쪽으로 본존의 광배 좌우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역시 본존불을 행해 합장하고 있음. 하단의 좌우에는 붉은색 바닥에 묵서의 화기가 있음. 장황은 별도의 다른 천을 덧대어 처리하지 않고 괘불과 같은 바닥 천이며 검은색 경계선을 둘러서 시각적으로 본 그림과 구분하였고 푸른 바탕에 흰색으로 당초문양을 그려 장식했음.(도 3)

-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실외에서 사용해온 유물인 만큼 자연 손상이 발생하였음. 특히 향좌측의 화면의 손상이 심한 편인데, 지지체의 바탕천과 후배지가 들떠 어긋나면서 표면에 주름이 발생하였고 안료가 부분적으로 벗겨졌음.

			
도1	도2-1	도2-2	도3

나) 괘불함: 괘불도를 보관하기 위한 나무함으로 표면에 옻칠이 되어있음. 상판 전체를 열어 괘불도를 넣고 꺼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각 모서리에 장석이 달려 있음.[7](도 4) 함의 전면에는 '卍(만)'을 중심으로 梵字(범자)와 마름모꼴 금박이 장식되어 있음(도 5). 함의 밑면(바깥쪽)에 제작연도, 주문자, 시주자 등이 기록된 묵서가 있음.(도 6)

- 보존 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하며 결구의 뒤틀림 등이 보이지 않음. 자물쇠와 경첩의 일부는 사용하면서 교체한 것으로 판단됨.

---

7) '괘불함' 대신에 '괘불궤'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전통 목가구에서 '궤'는 상판이 반만 열리는 형식이며 '함'은 상판 전체가 하나의 문으로 열고 닫히는 구조의 가구이기 때문에 진관사의 경우는 '괘불함'이 적합한 용어로 판단됨.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도4-1</td><td>도4-2</td><td>도5</td></tr>
<tr><td colspan="2">  </td><td>  </td></tr>
<tr><td colspan="2">도6-1</td><td>도6-2</td></tr>
</table>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기록(화기)

○ 본 괘불도 하단에는 붉은 바탕에 묵서의 화기가 2건이 있음. 향우측 화기에 따르면,[8] 이 괘불도는 佛紀 2962년 즉 1935년 4월 8일에 보응문성, 퇴운일섭[9], 송파영순, 우일, 병희가 함께 제작하였으며, 이 괘불도 조성을 주도한 화주는 혜운경상이며 증명으로 만공월면, 초월을 모셨음. 지주질(施主秩)에는 상당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형필과 그의 자부 및 아들, 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향좌측 화기의 마지막에 본 괘불도를 진관사에 시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선 덕화(李善 德華)의 집 주소와 가족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10]

○ 괘불함 바닥에는 “世尊降化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三角山三淸洞三覺寺之奉安也(세존강화이천구백륙십이년을해사월삼각산삼청동삼각사지봉안야)”라는 묵서가 있어서 이 괘불도는 삼각산 삼청동 삼각사(三覺寺)에 1935년 4월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 묵서에는 이어서 혜운의 화주로 괘불도와 다른 시주자들이 괘불함 조성에 동참하였음을 밝히고 있음.[11] 따라서 이 괘불도는 괘불함과 함께 서울 삼각사에 봉안되었다가 이후 이선덕화의 시주로 진관사에서 소장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8) 佛紀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初八日 證明比丘 滿空月面 初月 會主比丘慧雲慶相 誦呪比丘荷翁範碩 持殿比丘荷翁範碩 片手比丘普應文性 金魚比丘退耘日燮 松坡永順 又一 秉熙 鍾頭 永文 供司 錦泉 別供 沈氏 都監 性浩 化主比丘慧雲慶相 施主秩 淸信士甲戌生劉觀我士 淸信女乙酉生朴大慈行 淸信女丁巳生金大願心 淸信女甲申生閔成佛心 長子丙午生全鎣弼 子婦 乙巳生金氏 孫子己巳生全景雨 次孫甲戌生全承雨 孫女庚午生全明雨 淸信女壬戌生朴大願行 坤舍 庚辰生金貞植 信女 甲申生安智慧月 長子壬寅生崔正源 子婦壬寅生郭忠順 孫子 癸亥生崔相益 孫女甲子生崔相順 信女戊寅生金淸淨性子婦 辛丑生李氏 孫子壬戌生李世龍 乾舍庚寅生羅慶石 …

9) 퇴운일섭(1900-1975)의『연보』에 따르면, 36세때인 1935년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혜운의 의뢰로 김보응, 지송파, 김우일, 안병문과 함께 서울 안양암에서 삼청동 삼각사 괘불도를 제작했음. (三十六哉乙亥昭和十年 三月三日發至四月六日京城府昌新町 安養庵畵所中京三淸洞三覺寺 慧雲托掛佛畵 時畫員 金報應 地松坡 金又日 安秉文 同) 이 기록을 통해 진관사 괘불도 조성에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작자의 이름이 화기와 약간 다른 것은 화기의 오류로 판단됨.

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一三三호 十九통四반 乾命癸丑生 金嵱玉 坤命丁巳生 李善 德華 長子戊寅生 金承泰 자부계미생 이인수 손자병오생 김현수 손자무신생 현규 손자경술생 현욱

11) 世尊降化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三角山三淸洞三覺寺之奉安也 …… 坤命黃氏 吳信實 金萬法華 化主慧雲

나) 특징

○ 도상

- 화면 중앙에는 본존불은 왼손은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설법인을 하고 있으며 좌우 협시보살상은 합장을 하고 있고 나이가 든 가섭존자와 젊은 아난존자가 불보살상의 뒤편에서 합장인을 하고 있음. 지물을 들고 있지 않아서 존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는 三身佛(삼신불), 三世佛(삼세불), 석가불, 미륵불 등을 主尊佛(주존불)로 한 괘불도가 유행하였는데,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촉지인 수인의 석가불과 설법인의 아미타불이 중첩된 주불이 등장하였음. 진관사 괘불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제작된 석가불 괘불도로 볼 수 있음.

○ 조형적 특징

- 진관사 괘불도는 존상 구성이나 도상적 특징은 19세기 후반의 괘불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세부 표현에서는 서양화법이 가미되어 있음. 특히 존상의 옷주름 표현에서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고 엷은 물감을 반복적으로 덧발라서 입체감 표현을 시도했으며 본존의 손의 표현에서 그림자를 그려 넣거나 협시보살의 머리카락 등에 하이라이트를 처리하여 자연 광선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현했음. (도 7, 8, 9) 광선에 대한 인식은 본존불의 광배 처리에서도 드러나며,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광배 뒤로 엷은 먹 처리(바림 기법)로 화면에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근대기에는 서양화 기법이 불화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진관사 괘불도는 색채가 전반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선명할 뿐만 아니라 본존의 광배에는 전통불화 표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물감의 번짐 효과를 사용하여 일반 회화적 느낌을 살리고 있음.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새로운 안료를 도입했음을 의미하며 추후에 안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요구됨.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도7</td><td>도8</td><td>도9</td></tr>
</table>

3) 원형 보존 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괘불도와 괘불함 모두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괘불도는 지지체가 바탕천과 후배지가 들뜬 상태이며 괘불도를 말아서 보관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표면 손상이 일어나고 있음. 괘불함은 사용으로 인한 판재의 자연 마모가 보이며 자물쇠와 경첩의 일부가 교체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괘불도의 지지체의 보수 및 화면 안료의 안정화가 필요함. 단, 안료 안정화 이전에 안료의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진관사 괘불도는 매년 수륙재 의식에서 외부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됨. 따라서 날씨를 충분히 고려함을 물론 자연 광선 아래에 걸어두는 시간을 제한할 것을 권함.

5) 등록 가치 의견

○ 진관사 괘불도는 화기를 통해 제작연도와 제작자, 주문자, 시주자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진정성이 있음. 진관사 괘불도에는 전통적 도상을 계승하면서도 입체감, 공간감 등, 근대기의 새로운 조형언어를 반영한 점에 주목할 수 있으며, 금어 퇴운일섭은 1920-50년 사이에 적잖은 불화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만, 진관사 괘불도는 규모, 보존상태, 조형적 특징이 지닌 시대성 등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괘불도 뿐 아니라 괘불함 역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괘불도의 화기처럼 제작연도, 제작자, 시주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지정할 필요가 있음.

6)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의 명칭은 '서울 진관사 괘불도 및 괘불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상의 구성상으로 본존이 석가불로 추정할 수 있지만, 도상적으로 특정할만한 지물이 없고 기록적으로도 존상의 명칭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불화 명칭을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소속을 '서울 진관사'로 밝히는 이유는 이 괘불을 제작할 당시에는 서울 삼각사에 봉안되었지만, 이후에 유출되어 현재 진관사에 기증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1977년부터 시작된 '진관사 수륙재(현재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사용하는 주불화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참고문헌

○ 정명희, 「조선후기 괘불탱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42·243(한국미술사학회, 2004), pp. 159-195.
○ 최엽, 「근대기 불교계와 불화의 제작」, 『동악미술사학』 13(동악미술사학회, 2012), pp. 269-295.
○ 허상호, 「조선후기 명문 괘불궤 연구」, 『불교미술사학』 28(불교미술사학회, 2019), pp. 757-792.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진관사 괘불도는 1935년에 보응문성, 퇴경일섭 등 근현대를 대표하는 화승들이 조성하였음. 진관사 괘불도는 1977년 이래 진관사에서 거행하고 있는 진관사 수륙재(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의 주불화로서 의식 상단(上壇) 중앙에 걸림. 의식이 없는 평상시에는 괘불함(1935년)에 보관함.

○ 진관사 괘불도는 장황 방식과 존상 구성에 있어 조선후기 불화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근대 화승들이 탐구했던 새로운 시각 표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 존상 얼굴과 신체, 옷주름 등에 빛을 인식한 명암법을 사용하여 그림자를 표현하였고 사진기법에 착안해 문양을 묘사하였음. 또한 화면에 하늘 표현을 강조하며 존상 광배 주변에 먹색바림을 주어 공간감과 입체성을 살린 표현 등은 근대 화승들이 성취한 전통기법과 서양의 표현기법의 이해와 수준을 보여줌.

○ 진관사 괘불도를 말아 보관하는 괘불함은 괘불도와 함께 1935년에 제작하였음. 괘불함은 전통 목가구기법으로 만들어졌고 각 모서리와 뚜껑 연결 지점에는 장석을 달았음. 함 밑면에는 제작시기와 시주자 명단이 적혀 있음. 함 앞면에는 '卍'자를 중심으로 범자(梵字)로 '옴마니반메훔'이 적혀 있고 마름모꼴 금박을 붙여 장식하였움. 금박 장식은 19세기 후반 경기도 사찰의 불단(佛壇: 부처 및 보살상을 모신 단상)에 사용한 장식기법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_

○ 기록

- 진관사 괘불도는 불기2962년 즉 1935년 4월 8일에 보은문성, 퇴운일섭, 송파영순 등의 화승들이 참여해 제작하였다. 진관사 괘불도 조성을 주도한 회주이자 화주는 혜운경상이며 증명으로 당대 선지식인 만공월면, 초월스님이 모셔졌음. 괘불도 조성에는 많은 시주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요 시주자로 전형필 일가가 확인됨. 좌측 마지막에는 1970년대 진관사에 괘불도를 기증한 이선덕화 일가가 기존 시주질에 연달아 추가해 기록되어 있음.

[화기 1(좌측)]

佛紀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初八日 證明比丘 滿空月面 初月 會主比丘慧雲慶相 誦呪比丘荷翁範碩 持殿比丘荷翁範碩 片手比丘普應文性 金魚比丘退耘日燮 松坡永順 又一 秉熙 鍾頭 永文 供司 錦泉 別供 沈氏 都監 性浩 化主比丘慧雲慶相 施主秩 淸信士甲戌生劉觀我士 淸信女乙酉生朴大慈行 淸信女丁巳生金大願心 淸信女甲申生閔成佛心 長子丙午生全鎣弼 子婦 乙巳生金氏 孫子己巳生全景雨 次孫甲戌生全承雨 孫女庚午生全明雨 淸信女壬戌生朴大願行 坤禽 庚辰生金貞植 信女 甲申生安智慧月 長子壬寅生崔正源 子婦壬寅生郭忠順 孫子 癸亥生崔相益 孫女甲子生崔相順 信女戊寅生金淸淨性子婦 辛丑生李氏 孫子壬戌生李世龍 乾禽庚寅生羅慶石 이하 생략…

[화기 2(우측)]

이상 생략…서울시강남구논현동一三三호 十九통四반 乾命癸丑生 金嵱玉 坤命丁巳生 李善 德華 長子戊 寅生 金承泰 자부계미생 이인수 손자병오생 김현수 손자무신생 현규 손자경술생 현욱

- 진관사 괘불도는 삼각산 삼각사(三覺寺) 괘불도로 조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은 괘불도를 보관하는 괘불함 밑면에 적혀 있음. 괘불함은 괘불도와 같은 1935년 4월에 제작되었고 혜운의 화주로 괘불도와 다른 시주자들이 괘불함 조성에 동참하였음.

[괘불함 묵서.]

世尊降化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三角山三覺寺之奉安也 ■主錄 高在浩 金桂俊 金大誠心 高元石…중략…坤命黃氏 吳信實 金萬法華 化主慧雲

- 퇴운일섭의 『연보』에는 36세 되던 1935년에 혜운이 의뢰하여 김보응, 지송파, 김우일, 안병문 등과 함께 3월 3일부터 4월 6일에 서울 안양암에서 삼청동 삼각사 괘불도를 조성한 일이 기록되어 있음. 이 기록을 통해 괘불도 조성을 이끌었던 수화승은 퇴운일섭이며, 스승인 보응문성을 모시고 동료 화승인 송파영순 그리고 제자인 우일, 병문 등과 함께 33일만에 괘불도를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음.

[年譜]

三十六哉乙亥昭和十年 三月三日發至四月六日京城府昌新町安養庵畵所中京三淸洞三覺寺 慧雲托掛佛畵時畫員 金報應 地松坡 金又日 安秉文 同

○ 현상과 주제

- 진관사 괘불도의 전체크기는 세로 768cm, 가로 457cm이다. 족자형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반달형 상축에는 2개의 고리가 박혀있음. 화면 가장자리는 푸른 바탕에 흰 모란당초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장황 가장자리 꾸미개천을 그림으로 그리는 불화 특유의 표현법임. 괘불도 뒷면에는 주서(朱書: 붉은 글씨)로 복장(腹藏)과 점안(點眼)을 의미하는 다라니(陀羅尼)와 범자를 적었음.

- 진관사 괘불도의 화면 크기는 세로 720cm, 가로 423cm이다. 화면 중앙에 그려진 여래는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 설법인을 하고, 좌우 협시보살은 합장을 하고 있는데 보관이나 손에 특정 지물을 그리지 않아 존명을 알 수 없음. 화면에서 존명이 파악되는 존상은 노비구인 가섭존자와 젊은비구인 아난존자일 뿐임.
- 조선후기에 괘불도는 18세기를 기점으로 촉지인을 한 석가불을 주존으로 하는 형식이 유행하였으며, 간혹 오른손에 꽃을 든 석가불 즉, 염화불이 표현되었음. 19세기 후반에는 촉지인 혹은 염화불 수인의 석가불과 설법인의 아미타불이 중첩된 주불이 등장하였고, 이와 맞물려 좌우 협시보살도 문수보살·보현보살, 관음보살·대세지보살이 중첩되거나 존명이 불분명하게 특정 도상을 생략하는 경향이 생겨났음. 이런 경향은 화기에도 반영되어 영산회(靈山會)와 같은 정확한 불화명을 적기보다는 괘불탱, 괘불화, 괘불 혹은 상단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음. 진관사 괘불도에서 나타나는 설법인을 한 주불과 도상이 명확하지 않은 협시보살의 표현도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임.

ㅇ 표현과 특징

- 진관사 괘불도는 존상 구성과 도상에 있어 19세기 후반의 괘불도를 계승하는 한편 전체 화면 구도와 포치, 존상 표현에 있어서는 서양화법이나 사진기법을 기반으로 해 공간감과 입체감을 살린 새로운 기법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
- 먼저 구성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괘불도에서 삼존, 오존 등의 존상을 화면 가득 채우는 구성에서 벗어나 화면 상단의 하늘 부분을 확장시키고 여래와 좌우 협시의 배치 간격을 넓혀 여래의 오색광배가 화면에서 드러나게 하였음
- 확장된 하늘 부분은 여래에서 퍼져 나오는 서기와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 기존 불화에서 구름은 매우 도식적이고 평면적으로 표현되지만 진관사 괘불도에서는 이 부분의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 전통적인 구름 표현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몽환적으로 처리한 구름 표현이 혼용되고 있음. 이렇게 표현된 구름과 서기는 여래의 광배,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광배 뒤로 짙게 바림한 먹색과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화면에 깊이감을 더함.
- 깊이 있는 하늘 표현은 여래 광배에 표현된 일본식 화염 표현과 바림기법을 이용해 채색된 적색·녹색·황색의 오색광배와 대비를 이루며 다른 괘불도에 비해 화면에서 작게 그려진 여래의 존재감을 화면 전면에 부각시키는 효과를 줌.
- 진관사 괘불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표현은 빛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반영한 사실적 명암표현과 그림자 표현임. 불화에서 명암법은 19세기 말부터 사용되었다. 진관사 괘불도에서는 이전에 조성된 불화에서 보다 발전된 명암법이 시연되었음. 여래의 눈, 코, 인중, 입술 등에는 한층 발전된 명암법이 사용되었고 코의 표현에는 윤곽선 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사실성을 높였음. 사실성에 기반한 얼굴의 입체적인 표현은 협시보살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
- 진관사 괘불도를 조성한 화승들의 빛에 대한 인식, 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의지는 여래의 수인에 그림자를 표현한 점에서 명확해짐. 수인은 부처의 상호와 함께 불교 도상의 핵심임. 진관사 괘불도에서는 15도에서 비추는 빛을 의식하듯 설법인을 한 오른손의 그림자를 붉은 법의 위로 먹색 바림을 하여 그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였음.

- 이러한 그림자 표현은 여래의 왼손과 여래의 왼편 가사와 대의 등에서 확인됨.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자리한 아난존자는 목 부분에서 사선으로 그림자를 주었음. 이처럼 진관사 괘불도에서 여래의 수인과 법의, 아난의 목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림자는 다른 불화에 적용되었던 서양의 명암법에서 한 단계 진보된 표현이자 당시 화승들의 시도했던 실험 정신을 보여줌.
- 그림자 표현 외에 근대 불화에서 시도되었던 서양의 명암법과 사진기법에 기반한 표현기법이 존상의 복식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 옷자락과 옷주름의 사용된 명암법외에도 근대 진영에 적용되었던 사진기법을 착안한 명암법과 문양 표현은 1920~40년대 불화에서 시도되었던 새로운 표현들임. 진관사 괘불도에서 화면 하단은 녹색을 칠하고 음영을 주어 연꽃대좌가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표현하였음. 이러한 대지의 인식과 표현은 20세기 초 보응문성부터 시도되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진관사 괘불도는 1935년 제작 당시의 화면 상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형 불화에서 나타나는 화면을 지탱하는 상축의 손상과 화면 상단의 바탕천과 후배지의 분리가 뚜렷하게 확인됨. 상축은 현재 가로로 길게 갈라져 있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 금속판을 덧대 보강해 놓은 상태임. 화면은 감고 펴는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화면 전체에 가로 꺾임 현상이 있으며, 바탕천과 후배지가 분리되는 들뜸 현상이 화면 전체에서 확인됨.

○ 괘불함은 판재가 고르고 결구의 뒤틀림 등이 보이지 않으며 내부의 상태도 양호함. 다만 괘불함의 자물쇠와 함 뒷면 경첩 일부는 후에 교체한 금속부재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진관사 괘불도에서는 화면을 지탱하는 상축의 약화와 화면에서 바탕천과 후배지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됨. 이에 괘불도는 금속을 덧댄 상축과 화면의 안정화를 위한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괘불함은 자물쇠와 경첩을 시대에 맞게 복원해야 함.

○ 진관사 괘불도는 해마다 거행되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수륙재의 상단 불화로 무형유산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위상도 상당함. 따라서 괘불도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존처리와 모사도 제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진관사에서는 괘불도를 수륙재의 상단 불화로 현괘함으로써 불교의식에서 괘불도가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 의미 등을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 다만 해마다 거행되는 의식에서 괘불도를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원본과 모사도를 번갈아 사용하기를 권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새로운 문물과 매체, 사상 등이 유입되던 근대에 불화는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시각적 표현이 공존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8점의 괘불도 역시 새로운 시대에 지켜야 하는 전통이 무엇이며,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표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지정하였음.

○ 진관사 괘불도가 제작되던 1930년대는 불화를 주문했던 사찰 승려와 이를 제작하는 화승 사이에 불화 고유의 종교적 특징을 지키면서 근대의 새로운 표현과 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자 했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줌. 진관사 괘불도 제작을 주도했던 퇴운일섭은 불화 제작에 입문한 이후 1920년부터 1950년 사이에 중국과 일본에서 화보와 사진을 활용한 새로운 도상과 형식의 불화 창출, 전통 표현과 재료에 명암법과 사진기법, 다양한 안료와 아교, 천 등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였음. 따라서 퇴운일섭의 불화는 1920년~1950년에 조성된 불화를 중심으로 근대적 의미를 가진 불화를 선별하여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1935년에 퇴운일섭의 주도하에 조성된 진관사 괘불도는 조선후기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에 유입된 명암법, 사진기법만이 아니라 그림자 등 새로운 표현을 뛰어난 기량으로 완성한 수준 높은 불화로 등록 가치가 충분함. 괘불도를 보관하는 괘불함도 동시기 일괄 유물로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진관사 괘불도의 화기에 불화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래와 협시보살에서 불화명을 뒷받침할만한 도상적 특징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명칭은 '괘불도 및 괘불함'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진관사 괘불도의 원소장처는 삼각사이지만, 독립운동가인 춘성스님의 삼각사를 창건한 의도와 다르게 1943년에 창씨개명한 친일승려가 사찰을 운영한 점, 해방과 한국전쟁 중 친일승려 사찰인 까닭에 삼각사가 폐사에 가깝게 방치된 점, 이 과정 중 외부로 유출된 괘불도와 괘불함을 신도가 진관사에 기증한 신도 일가가 화기에 기록된 점, 그리고 괘불도가 기증된 후 이를 계기로 진관사에서 1977년에 시작된 수륙재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이 괘불도가 진관사 수륙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지정명칭은 '진관사 괘불도 및 괘불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이 불화는 1935년에 제작된 야외의식용 대형 불화로 제작당시의 괘불함에 보관되어 있음. 석가삼존과 가섭, 아난 총 5위로 구성된 간략한 형식임.

○ 괘불도의 증명은 만공월면, 회주는 혜운경상, 제작자인 화승은 총 5인이 참여하여 편수는 보응문성이, 금어는 퇴운일섭이 맡아 송파영순(송파정순으로 추정), 우일, 병희(병문으로 추정)이 함께 그림. 이들 5인의 화승들은 명암법을 불화에 자주 사용한 대표적인 화승들임.

○ 이 작품은 본래 서울 삼청동 삼각사의 괘불도로 제작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 경 이선덕화 보살의 시주로 현재는 진관사의 성보로 등록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화기 및 제작상황

○ 1935년 일제강점기 제작됨.

○ 대형의 야외의식용 불화로 근현대를 대표하는 화승 5인이 참여하여 제작.

○ 화면 아래 양쪽에 붉은 칸을 마련하여 기록한 화기를 통해 서울 삼청동 삼각사에서 1935년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맞추어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음.
○ 증명에 당대 큰 스님이자 서예가인 만공월면(1871~1946) 스님이 참여함.
○ 괘불도의 회주 및 화주, 그리고 괘불함의 화주로 혜운경상 스님이 참여하였음. 혜운경상은 서울 삼청동 삼각사의 승려로 이 불사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진관사 괘불도>는 화기를 통해서도 제작 당시 서울 삼청동 삼각사에 봉안되었음이 확인됨. 1960년대 후반 이선덕화 보살의 시주로 진관사에서 소장하게 되었고, 현재는 진관사의 성보로 등록되어있음.
○ 이 불화의 금어로 참여한 퇴운일섭(김일섭, 1900~1975)이 기록한 작업일지(년보)에는 '서울 삼청동 삼각사 혜운의 부탁으로 괘불을 그렸다'는 내용이 있어 삼각사 승려 혜운경상이 직접 제작의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 '3월 3일에서 4월 6일까지' 한 달여 간 서울 창신동 안양암 화소(畵所)에서 김보응(보응문성), 지송파(송파정순), 김우일(우일), 병문(병희)과 함께 제작했음을 기록하여 괘불도 화기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며, 화기의 '병희'는 '병문'의 오기였을 것으로 생각됨. 일섭의 이 기록은 괘불도의 제작의뢰와 제작기간, 제작장소, 정확한 제작자를 특정지을 수 있어 제작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임.(원문: "三月三日發至四月六日京城府昌信町安養庵畵所中京三淸洞三覺寺 慧雲托掛佛畵 時畵員 金普應 池松坡 金又日 安秉文 同")
○ 이 불화에 참여한 5인의 화승은 보응문성이 스승격이며, 퇴운일섭과 병문이 그 제자로 알려져있음. 김우일은 퇴운일섭의 제자로 알려져있음. 또 당시 이들 화승들이 다른 불사에서도 다른 조합으로 몇 명이 함께 작업한 경우가 있어 사승관계 혹은 화연관계로 구성된 제작자로 이루어짐.
○ 시주자 중 간송 전형필의 가족들이 포함됨.

나) 도상과 화면구성

○ 부처와 양 협시보살을 화면 전면에 꽉차게 배치하고 노승의 모습을 한 가섭과 젊은 승려의 모습을 한 아난 불보살 뒤쪽에 상반신만 표현한 총 5위의 존상들로 구성된 간략한 형식임.
○ 설법인을 취한 부처의 모습과 도상만으로는 불보살의 존명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괘불 중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한 영산회 괘불이 많은 점,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제작한 점, 유사한 구성의 다른 괘불들로 미루어볼 때, 이 괘불도는 석가모니불과 그 협시인 문수보살·보현보살로 이루어진 석가삼존과 석가의 두 제자를 그린 것으로 추정됨.
○ 본존은 지면에서 솟아오른 청연화족자 위에 서 있으며, 붉은색 대의와 흰색이 섞인 청록계열의 군의를 입고 있음. 두광과 신광을 갖추었고 원형의 두광 주위에 화염을 두드러지게 그렸음. 두부(頭部)에는 정상계주와 중간계주를 그리고, 정상계주로부터 오색의 빛줄기가 부채꼴 방향으로 솟아오르고 이와 함께 천공은 피어오르는 구름으로 꽉 채움. 본존의 왼손은 복부 부근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해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께로 들어올려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역시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있음.
○ 문수와 보현으로 추정되는 양 협시보살은 청연화족좌위에 합장한 자세로 중앙의 본존을 향해 서 있음. 세로로 긴 타원형의 두광을 갖춤.

○ 석가모니의 제자인 노승의 모습을 한 가섭과 젊은 승려의 모습을 한 아난은 불보살의 뒤쪽에 상반신만 보이게 작게 그려 크기로 위계를 나타내려 하였으며, 중앙의 본존을 향해 합장한 자세임.

다) 표현기법

○ 초본의 경우 특히 본존의 상호, 즉 미간이 유독 넓고 방형의 넓적한 얼굴형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1930년대 보응문성이 금어로 참여해 그린 불화와 매우 유사함(참고도판1). 따라서 초본은 수화승인 보응문성의 초본을 활용하거나 보응문성이 주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렸을 가능성이 큼.

○ 채색과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금어인 김일섭의 화풍이 두드러짐. 전체적으로 공을 들여 그린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명암표현과 그림자 표현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이 특징적임.

○ 전통시대 입체감의 표현은 주로 선묘를 우선으로 하여 바림을 하는 방식이 우세한 것에 반해, 이 불화에서는 윤곽선보다 면적인 붓질을 통해 입체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하였으며, 옷주름과 구름의 표현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짐. 보살의 머리카락에도 면적 붓질의 하이라이트를 주어 표현함.

○ 그림자의 표현도 보다 객관적 표현에 가깝게 하려 시도한 노력이 보임. 광원을 설정하여 그림자의 방향과 모양에서 사실성을 고려한 것이 보이며, 이러한 시도는 불화에서는 매우 희귀한 것임. 과학적 원근법, 빛의 표현에 대한 시도와 이와 같은 화승들의 새로운 시도는 이전 시기 전통 불화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근대기를 통해 유입된 새로운 문물의 영향을 도입해 그리는 근대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임.

○ 다만, 바닥 그림자 표현은 19세기 말부터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충청도 화승들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보응문성의 스승인 금호약효와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자주 쓰인 지역적 특징을 보이는 기법임. 그림자를 표현하겠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정확한 이해 없이 관습적으로 가로로 거칠게 선을 그어 표현함. 회녹색, 혹은 올리브그린 계열의 바닥색에 같은 계열의 채도가 낮은 색, 혹은 옅은 먹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불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임.

○ 불보살의 경우 안면에는 명암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근대기에도 일반적이나, 이 불화에서는 불보살이 경우도 안면에 명암을 표현하여 입체감을 주었으며, 역시 윤곽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색변화를 통해 입체감을 표현. 코 밑의 반사광의 표현은 화승들이 서양화법과 입체감 재현방식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줌. 이러한 표현은 퇴운일섭은 물론 보응문성, 송파정순의 불화에서도 자주보이며, 불보살 상호의 명암표현 방식은 보응문성의 작품과 거의 유사함.

○ 불보살의 옷에 보이는 문양은 전통불화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새로운 문양들을 사용하였음. 두꺼운 광택있는 비단과 같은 복식 천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먹색, 붉은색, 주황, 녹청 등 기본 색을 입히고 그 위에 두께감 있는 백색이나 황색의 단색 선묘로 묘사한 문양은 실제 근대기 불단을 덮은 천의 질감과 문양 등에서 시각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어 역시 실재감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추정됨. 이러한 표현기법 역시 충청도 지역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이 두드러지게 사용하였음.

○ 코발트블루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은 시기적 특징임.

○ 먹선으로 구획한 화면의 바깥쪽은 그림장황으로 하였음. 연청색의 바탕색에 백색으로 몰골법의 꽃과 덩굴을 그려 장식하였음.

○ 부분적으로 금을 사용함.

라) 괘불함

- ㅇ 목제의 괘불함은 괘불함에 기록된 묵서로 보아 괘불도와 같은 해, 같은 달에 제작한 것으로 보임.
- ㅇ 괘불함 바깥쪽에 범자와 만자를 묵서로 기재
- ㅇ 괘불함 바깥쪽에 정사각형 모양의 금박을 부착하여 장식한 것은 근대기 사찰의 목제 공예품(불단, 불보살의 대좌)이나 건축 장식에서 자주보이는 시기적 특징임.

<괘불도 화기>(밑줄은 조사자 강조)

佛紀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初八日**
證明比丘 滿空月面
初月
會主比丘慧雲慶相
誦呪比丘荷翁範碩
持殿比丘荷翁範碩
片手比丘普應文性
金魚比丘退耘日燮
松坡永順
又一
秉熙
鍾頭 永文
供司 錦泉
別供 沈氏
都監 性浩
化主比丘慧雲慶相
施主秩
淸信士甲戌生劉觀我士
淸信女乙酉生朴大慈行
淸信女丁巳生金大願心
淸信女甲申生閔成佛心
長子 丙午生全鎣弼
子婦 乙巳生金 氏
孫子 己巳生全景雨
次孫 甲戌生全承雨
孫女 庚午生全明雨
淸信女壬戌生朴大願行
坤 庚辰生金貞植
信女 甲申生安智慧月
長子 壬寅生崔正源
子婦 壬寅生郭忠順
孫子 癸亥生崔相益
孫女 甲子生崔相順
信女 戊寅生金淸淨性
子婦 辛丑生李 氏
孫子 壬戌生李世龍
乾 庚寅生羅慶石
坤 戊子生朴 氏
坤 甲申生趙 氏
長子 己酉生閔龍奎
孫子 甲戌生閔敬泰
乾 戊子生安英均
長子 壬子生安鍾九
長姪 己酉生安鍾億
次姪 癸卯生安鍾一
坤 庚寅生吳 氏
亡兄 海州吳 氏
童女 壬辰生裵榮淑
信女 生李滿月華

信女戊寅生 李明心行
長子癸卯生 尹洪奎
女息癸亥生 尹淸淨行
孫子戊辰生 尹梁漢
信女庚申生 李普覺善
信女丙辰生 李普覺相
信女乙酉生 尹普覺行
長子己酉生 李鳳周
長孫丁卯生 李哲
信士丙戌生 韓性朱
信女丁丑生 林道德華
信女己巳生 李萬德行
長子癸巳生 洪基范
坤 庚寅生 金明漢
長子辛亥生 白南珠
乾 壬申生 崔允根
信女癸未生 洪金池華
信女丙子生 李正心行
信女 金順德
童子甲子生 李普亨
童子己未生 康禹植
信女辛巳生 李明月性
坤 甲午生 崔 氏
長子癸亥生 閔秉學
女息丙寅生 閔秉姬
信女戊寅生 金大誠心
信女己卯生 鄭萬福華
信女甲午生 申光明心
亡父 平山 申 氏
亡母 全州 李 氏
信女庚子生 金普月光信女辛卯生 梁普日光
童女辛酉生 金貞淑
坤 徐南順
信女乙丑生 金普德行
信女癸酉生 白白蓮華
長子己丑生 金應俊
坤 辛卯生 姜 氏
長子乙丑生 劉洪相
女息癸亥生 劉美相

坤 壬午生 金玉貞
信女甲子生 李法雲行
信女庚午生 金慧日華
信女己卯生 李大道華
信女乙未生 李英姬
信女乙卯生 黃心德行
信女辛巳生 洪靑蓮華
乾 乙亥生 李範泰
坤 甲申生 金 氏
長子己卯生 李啓鍾
乾 壬寅生 李千應
乾 金鍾仁
長子戊午生 金時榮
坤 丙辰生 崔 氏
乾 庚辰生 具 氏
서울시강남구논현동一三三호 十九통四반
乾命癸丑生 金嵱玉
坤命丁巳生 李善德華
長子戊寅生 金承泰
자부계미생 이인수
손자병오생 김현수
손자무신생 현규
손자경술생 현욱

<괘불함 묵서>
世尊降化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三角山三覺寺之奉安**也
■主錄
高在浩
金桂俊
金大誠心
高元石
高在賢
金相奉
金喜延
金命洙
鄭蓮奎
鄭寶相華
尹普覺行
鄭萬福華
李明心行
李自性月
金敬俊
李英鎭
柳妙善華
崔妙善華
崔賢淑
崔元卿
金大慈月
李炳煥
孫相億
金安壽
金昌燁
坤命洪氏
坤命黃氏
吳信實
金萬法華
化主慧雲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가) 괘불도

- ㅇ 괘불도는 현재 목제의 상하 축이 있고, 그림장황으로 되어 있음. 뒷면에 붉은색의 범자 다라니 기재되어 있음. 상축은 제작 당시부터 2개의 목재를 사용하여 결합한 것으로 보이며, 보강을 위해 목재 접합부분에 길게 금속재를 덧대었음. 보강 금속재는 후대의 것으로 보임.
- ㅇ 상축에 걸기 위한 금속제 원형 고리가 양쪽에 있으니 원래 자리에서 이동이 있었던 흔적이 있음.
- ㅇ 화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고 원형의 보존이 잘되어 있음. 화면 상의 회화적 보수 흔적은 없어 보임.
- ㅇ 현재 배접부분의 분리현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며, 화면이 배접지로부터 떠 말아 보관하면서 가로접힘 현상이 군데군데 보임.

○ 군데군데 접힌 부분 중심으로 안료가 떨어지거나 마모된 현상 보임. 현재 안료 중 코발트블루 등 일부 안료는 가루가 묻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래 접히면서 닿는 면에 안료가 묻어나 추후에도 섬세한 취급보관 요함.
○ 군데군데 일정한 굵기로 세로로 길게 안료가 긁힌 흔적 있음.

나) 괘불함

○ 괘불함 모서리 쪽 닳거나 긁인 흔적들 있음.
○ 괘불함 안쪽 이전의 누수 오염 흔적이 보임.
○ 자물쇠 결합 부분은 후대 새로 달았음.
○ 금박장식은 결락된 부분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대웅전 불단 뒤에 괘불함 자리를 마련하여 보관 중임. 항온항습이 되는 환경은 아님.
○ 괘불함과 괘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각 측면에 문을 내었음.
○ 현재 괘불을 말 때 얇은 중성지를 사용하여 덮어주어 보관.
○ 현재의 괘불석주와 괘불대는 후대 새로 제작한 것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진관사의 괘불은 이미 1970년대부터 수륙재에 직접 걸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현재도 의식에 사용 중임. 진관사는 예로부터 수륙재를 전문으로 시행한 왕실관련 주요 사찰로, 불교의 주요한 무형유산인 수륙재와 이에 사용되는 괘불도를 잘 보존 활용함으로써 종교적 의미 뿐 아니라 총체적 문화유산의 구성요소로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진관사의 괘불은 수륙재 시행사찰인 진관사의 사찰 성격 강조, 무형유산인 수륙재 절차와 그 중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괘불 이운 설명,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불보살이 현장에 강림하는 듯한 시각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이 괘불도는 간단한 구성이지만, 서양화법을 매우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실재감을 부여하려는 제작자의 의도가 확실한 작품으로 시기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임.
○ 이 불화의 제작자 5인은 모두 근현대기 활동한 대표적인 화승들로 그 중 특히 보응문성과 퇴운일섭은 전통시기 불화들과 밑그림이나 표현기법에서 의식적으로 차별화를 둔 불화들을 제작한 두드러지는 성과를 낸 화승들임. 이들은 모두 사승관계와 화연관계로 이어져 있어 서양화법을 적극적 수용한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음.
○ 일섭의 본격적인 작품활동은 1920년대 중반 경으로 이 괘불도는 그의 작품활동 중 비교적 젊은 시절 제작한 작품으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형의 야외의식용 불화라는 점에서 가치가 큼. 이 작품 이후 일섭은 1938년 현 조계사의 전신인 태고사 대웅전 불화를 송파정순과 함께 제작하였는데, 당시 제작 직후 불교잡지에 바로 소개되어 주목됨.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태고사 대웅전의 불화의 제작자로 참여하여 서양화법을 두드러지게 사용한 불화를 제작한 것은 당대 일섭의 실력과 명성, 그리고 선호되었던 화풍을 짐작케 함. 진관사의 괘불은 이처럼 일섭의 화명이 높아져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의 작품임.

7) 등록가치의견

- ○ 이 괘불도는 근대기 시기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특정한 안료와 적극적인 서양화법, 즉 명암법에 의한 입체감의 표현과 그림자 표현을 통한 실재감의 구현을 잘 보여줌. 개별 화승들의 화풍도 보이며, 공들여 제작한 수작임.
- ○ 작품의 제작인연과 제작자, 제작상황이 분명한 작품으로, 당시의 큰 스님인 만공월면이 증명으로 참여하고 근현대기 새로운 화풍을 추구한 대표적 화승 5인이 참여한 시기성 짙은 작품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음.
- ○ 현재 배접의 분리현상, 화면 접힘 현상 등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적절한 보수와 보존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1935년 제작당시는 서울 삼청동 삼각사에서 의뢰하여 제작되었으나 현재 문서상으로는 서울 진관사 소유의 성보로 정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소유권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미 1970년대부터 진관사의 불교행사에 사용되어 오기도 하였으므로 <서울 진관사 괘불도 및 괘불함>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함.
- ○ 이 작품이 박물관에 봉안되거나 하였다면 원 봉안처의 명칭을 사용하였겠지만, 현재 진관사의 행사에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유물을 현존하지 않는 사찰의 명칭을 사용하여 규정한다면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단, 원 봉안처로부터의 이동 관련 정보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이후 설명문이나 소개자료 등에는 화기 정보와 소장 연유를 명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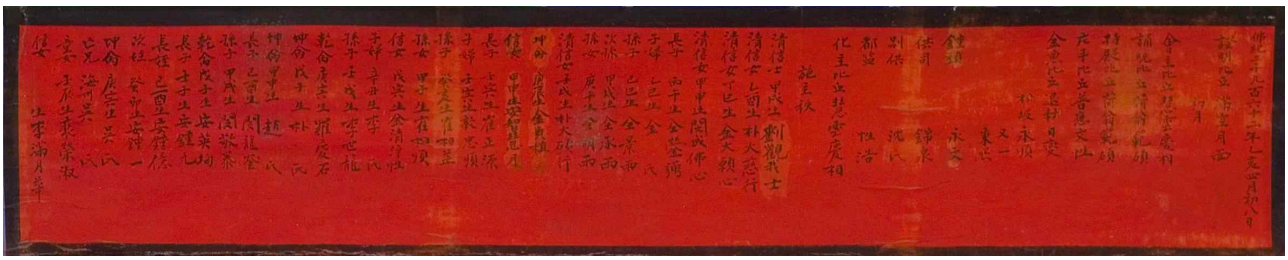
***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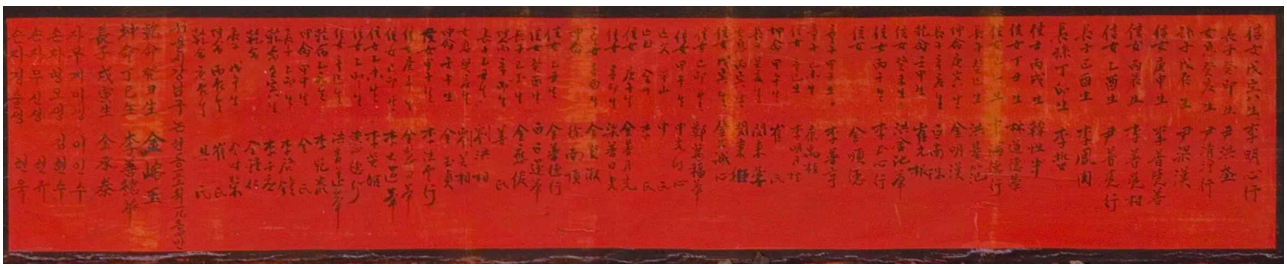
진관사 소장 **석가불 괘불도**



서울 흥천사 <감로회도>(1939)의 부분, 보응문성, 병문 참여



향우측 화기



향좌측 화기



괘불도 상축의 접합분과 금속 보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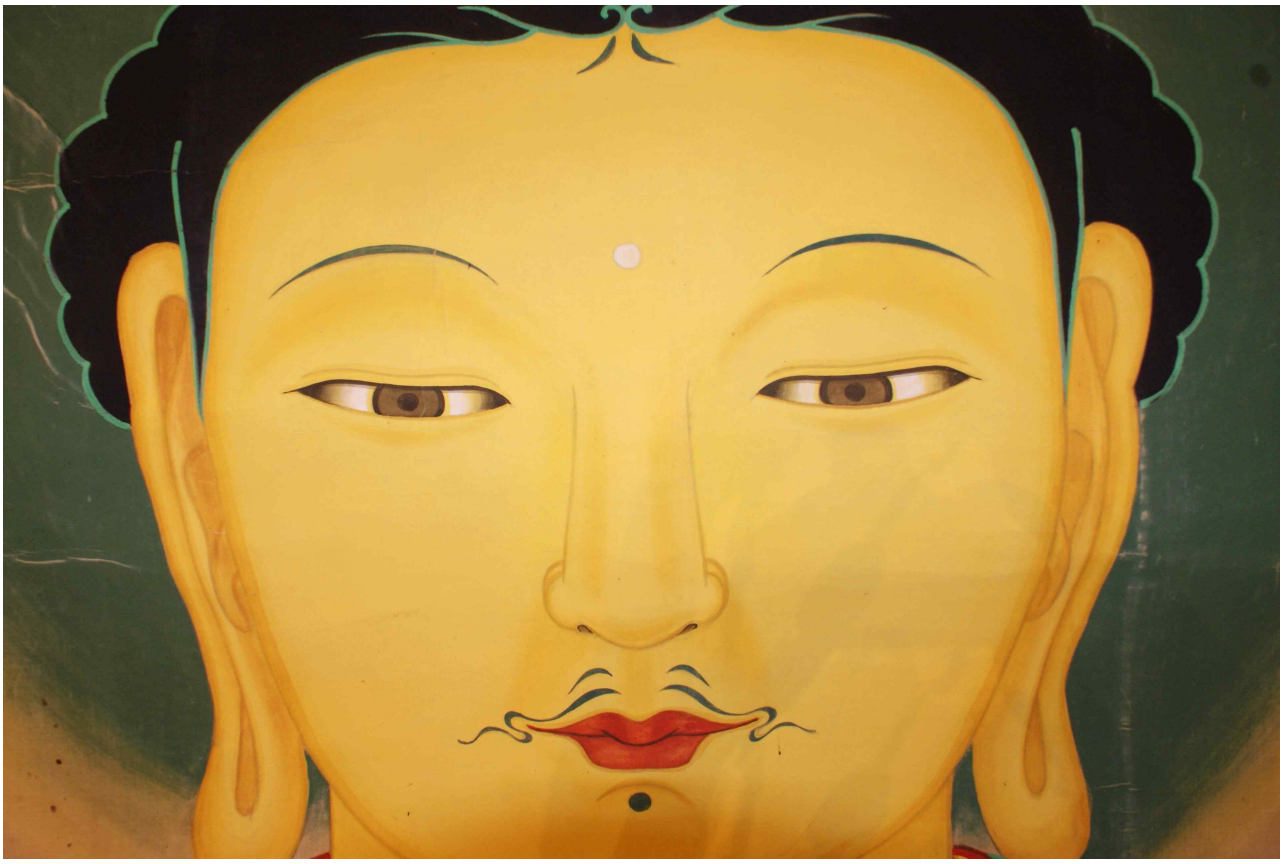
괘불도 상축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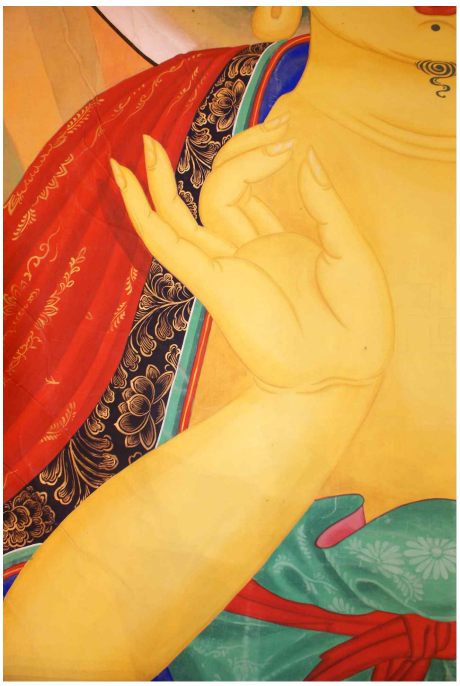
괘불도 가로접힘 부분



괘불도 상축 측면과 배접지 분리진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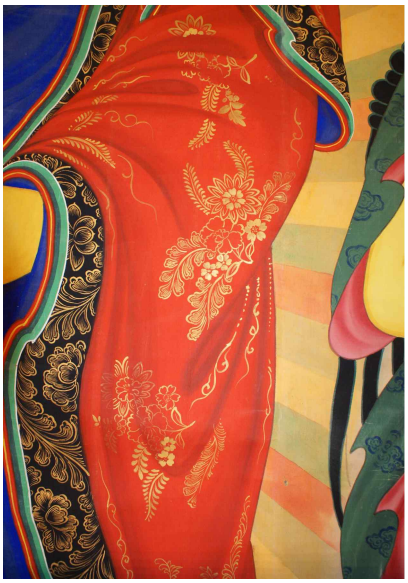
본존 상호와 명암 표현



입체감과 그림자 표현



명암법과 그림자 표현



새로운 문양



바닥 표현



괘불함



괘불함의 상단

안건번호 근대 2021-02-14

14.「각사사료수집」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문경 성불사 소장「각사사료수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각사사료수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6.27.)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2.8.)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성불사 주지(법명 : ○○)

(2) 검토내용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 재 지
각사사료수집	1건 1점	26.8×19cm	1914년	성불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주흘2길 269 성불사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6.27.) : 문화재 등록 신청(경북 문경시→문화재청)

○ ('21.2.8.)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김룡사 말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물이며, 원래 김룡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현재의 소장처로 옮겨지게 된 소장경위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2.8.)

- 문경 성불사 소장의 「각사사료수집」은 1914년 당시 김룡사 말사들의 사적, 불상, 불화, 건축물과 각종 불사의 기록 등이 수록되어 있는 유물임. 1933년경에 완성된 「대본산김룡사본말사연혁」의 초고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으며, 「한국불교전서」 등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도 있어 원천적이고 유용한 사료임.
- 다만 표제면의 기록 중에서 "金龍寺留鎭"이라는 묵서가 있어 이 유물은 원래 김룡사의 유물이라고 판단되며, 내용 또한 김룡사의 말사에 관한 것이므로 김룡사에 소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유물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심의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21.2.8.)

- 「각사사료수집」은 사찰령(1911년) 체제 하에서 30본사였던 경북 문경군 김룡사 본말사 사료조사의 일환으로 작성된 자료임. 해당 유물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이와 연관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현존하지 않는 봉암사·해국사·동해사의 자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 ○○○('21.2.8.)

- 「각사사료수집」은 1914년 문경 김룡사에서 소속 말사들 관련 사료를 수집하여 기록한 1책의 필사본임. 국가등록문화재 제635호 「김룡사 사료수집」과 한 벌로 제작된 것으로서 동등 가치를 지닌다고 사료되며 등록문화재 제636호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의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불교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일제강점기 초기의 본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자료이며, 동 시기 경북 일대 사찰의 역사와 문화, 인물 관련 연구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소장경위에 대한 설명 보완 필요

○ 출석 9명 / 보류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각사사료수집

2.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주흘2길 269 성불사

3. 소 유 자 : ○○○(법명 : ○○)

4. 조사자 의견('21.2.8.)

<문화재위원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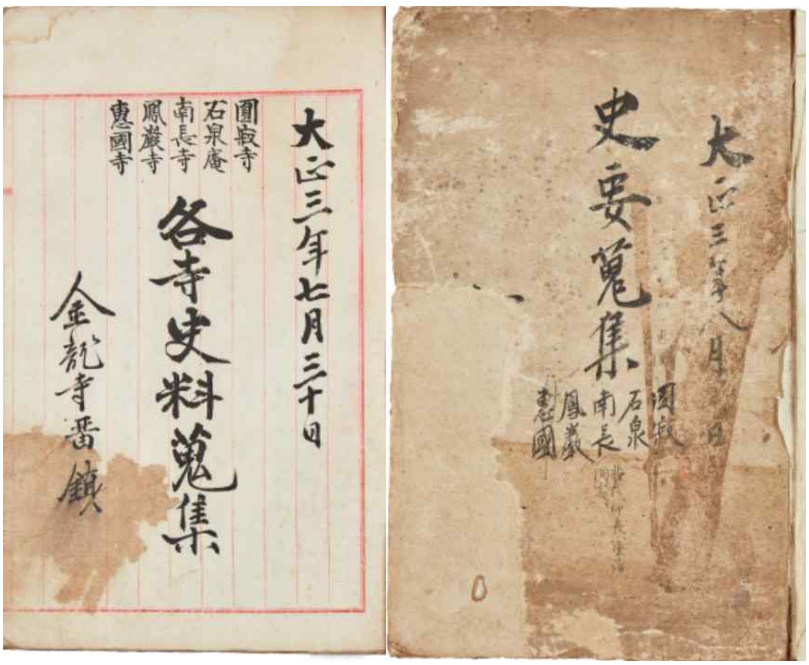
○ 문경 성불사 소장의 『각사사료수집』에는 1914년 당시 김룡사 말사들의 사적, 불상, 불화, 건축물과 각종 불사의 기록까지 수록되어 있음. 이 기록 중의 일부는 『한국불교전서』 등에도 찾아볼 수 없는 등 일제강점기 시대의 불교문화유산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전 사료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각사사료수집』은 김룡사의 말사(末寺), 곧 혜국사(惠國寺), 석천암(石泉庵), 남장사(南長寺), 북장사(北長寺), 갑장사(甲長寺), 동해사(東海寺), 원적암(圓寂庵), 봉암사(鳳巖寺) 등 8개 사찰에 관련된 각종 기록을 엮어 놓은 필사본 1책임. 그런데 앞표지와 표제면에는 원적사, 석천암, 남장사, 봉암사, 혜국사 등 5개 말사만 기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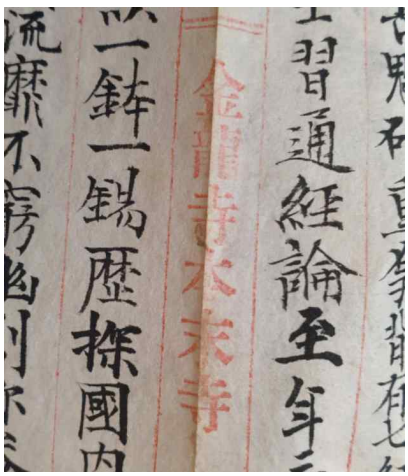
○ 현 상태는 원표지 위아래에 새로 만든 표지를 덧붙여 개장해 놓았으며, 제첨에는 펜으로 쓴 『各寺史料蒐集』이라는 제명이 있음. 원표지에는 "大正三年 八月 日"이라는 시기와 함께 『史要蒐集』이라는 제명 그리고 "圓寂" 등 5개의 말사를 필사해 놓았음. 이에 비해 표제지에는 "大正三年 七月 三十日", 『各寺史料蒐集』, "圓寂寺" 등 5개의 말사 그리고 "金龍寺留鎭"이라고 필사되어 있음. 제명 중의 사료(史料)란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문서, 기록 등", 사요(史要)란 "역사의 개요 또는 그것을 쓴 책"을 의미함. 원 표지와 제첨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이 필사본은 1914년 7월 30일에 『各寺史料蒐集』이라는 제명으로 완성되었음. 그런데 당시 완성된 김룡사 사료 수집류가 이 유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1913년 12월 5일에 완성된 『김룡사사료수집(金龍寺史料蒐集)』도 있었음. 당시 유사한 사료가 몇 종이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사료들이 완성된 이후인 1914년 8월에 이들을 『史要蒐集』이라는 총서명을 부여한 사실은 『김룡사사료수집』과 『각사사료수집』의 앞표지 서명인 표제(表題)를 통해 알 수 있음. 그러나 개개의 기록물로 본다면, 이 유물은 『各寺史料蒐集』이라는 제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표제면의 기록 중에서 “金龍寺留鎭”이라는 묵서는 이 필사본의 소장기관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됨. 곧 이 필사본은 김룡사의 원 소장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임. 많은 동산문화재들이 원래의 소장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장되어 전하는 사례는 많으나 이와 같이 김룡사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내용 또한 김룡사의 말사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 유물은 김룡사에 소장되어 있어야 함.



<그림1> 『문경 성불사 각사사료수집』의 표지(우)와 표제면(좌)

○ 본문은 붉은 색 괘선이 인쇄된 미농지에 먹으로 필사되어 있음. 특히 판심아래에 「金龍寺本末寺」 라는 판심제가 있는 전용지에 필사된 것으로 보아 이 전용지에 필사된 기록물이 이 유물 이외에도 더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그림2> 『문경 성불사 각사사료수집』의 판심제「金龍寺本末寺」

○ 1914년 당시 김룡사는 혜국사, 석천암, 남장사, 북장사, 갑장사, 동해사, 원적암, 봉암사 등 50여개의 사찰을 말사로 거느린 본사였음.『각사사료수집』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기록 24건을 차례대로 살피면 다음과 같음.

1. 혜국사(惠國寺)
① 경상북도문경군문경면혜국사안적암중수기(慶尙北道聞慶郡聞慶面惠國寺安寂庵重修記), 1802년
② 안적암중수기(安寂庵重修記), 1821년
③ 안적암산령각여칠성각중수기(安寂庵山灵閣与七星閣重修記)
④ 경북문경군문경면혜국사중건기(慶北聞慶郡聞慶面惠國寺重建記), 1867년
⑤ 혜국사은선암중수기(惠國寺隱仙庵重修記), 1881년

2. 석천암(石泉庵)
① 경상북도문경군농암면대아산석천암개금탱화기(慶尙北道聞慶郡籠岩面大峨山石泉庵改金幀畫記)

3. 남장사(南長寺)
① 경상북도상주군남장사괘불신화성기(慶尙北道尙州郡南長寺掛佛新畵成記) 1788년
② 남장사금당단연록 (南長寺金堂檀緣錄) 1635년
③ 남장사극락무량수전조사각중건기(南長寺極樂無量壽殿祖師閣重建記) 1856년
④ 남장사보광전중건여단확기(南長寺普光殿重建与丹雘記) 1891년
⑤ 남장사염불당동찰(南長寺念佛堂棟札) 1908년
⑥ 남장사정실동찰(南長寺井室棟札)
⑦ 남장사관음전조실중건찰(南長寺觀音殿祖室重建札)
⑧ 남장사영산전중건병등촉기(南長寺灵山殿重建幷燈燭記) 1868년
⑨ 남장사관음전중건기(南長寺觀音殿重建記) 1797년

4. 북장사(北長寺)
① 경상북도상주군북장사사적기(慶尙北道尙州郡北長寺事蹟記) 1646년

5. 갑장사(甲長寺)
① 상주군내남면갑장사중건기(尙州郡內南面甲長寺重建記)

6. 동해사(東海寺)
① 경상북도상주군내남면동해사중건기(慶尙北道尙州郡內南面東海寺重建記)

7. 원적암(圓寂庵)
① 경북문경군가서면원적암중수기(慶北聞慶郡加西面圓寂庵重修記)

8. 봉암사(鳳巖寺)
① 경상북도문경군희양산봉암사사실약록(慶尙北道聞慶郡曦陽山鳳巖寺事實略錄)1783년
② 희양산봉암사지증국사적조지탑비명(曦陽山鳳巖寺智證國師寂照之塔碑銘)
③ 정진국사원오지탑비명(靜眞國師圓悟之塔碑銘)
④ 백운대미륵비명(白雲臺彌勒碑銘)
⑤ 상봉대사비명(霜峰大師碑銘)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대체로 온전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책함을 마련하여 보존하고 있음.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 제635호 『김룡사사료수집(金龍寺史料蒐集)』(1913년)

- 일제강점기 때 31본산의 하나로서 50개의 말사를 거느렸던 김룡사의 사지로 “1913년 12월 5일에 김룡사 사무소에서 편찬한 김룡사의 역사에 대한 개요”임. [제1]편에는 김룡사 사적과 김룡사와 산내말사들의 중수기, 소장된 목판과 편액 등, [제2]편은 김룡사의 산내말사(山內末寺) 중에서 대성암(大成庵), 화장암(華藏庵), 양진암(養眞庵) 등에 대한 사료를 엮어 놓았음. 김룡사는 현재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에 불과하나 과거에는 31본산의 하나였던 만큼 사지(寺誌)가 방대하나 공개되어 전하는 원본류는 매우 드문 상태임.
- 『김룡사사료수집』은 본사인 김룡사와 산내암자들에 관련된 기록이고, 성불사 소장의 『각사사료수집』은 말사들에 관련된 기록을 수집한 것임. 물론 이 두 종류의 유물은 1914년에 총서명이 부여된 뒤 김룡사에 전하던 유물임.



<그림3> 『김룡사사료수집』의 표지(우)와 표제면(좌)

○ 등록문화재 제636호 『대본산김룡사본말사연혁(大本山金龍寺本末寺沿革)』 10책(1933년)

- 일제강점기 때 김룡사와 말사들의 사지(寺誌)로 1933년경에 김룡사 사무소에서 편찬하였음. 본사인 김룡사의 연혁과 사적 그리고 말사들에 대한 사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 17책 중에서 총목(總目), 제1, 제2, 제6, 제9, 제11, 제12, 제14, 제15, 제16책 등 모두 10책이 남아 있음. 이 원고본들은 기존의 사료에다 다양한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새롭게 편찬한 김룡사의 본말사지임. 현전하는 10책은 「김룡사연혁(金龍寺沿革)」(총목), 「김룡사사료(金龍寺史料)」(제1책), 「대본산김룡사(大本山金龍寺)의 산내말사(山內末寺)」(제2책), 「남장사사료(南長寺史料)」(제6책), 「대본산김룡사말사역사준비(大本山金龍寺末寺歷史準備)」(제9책), 「대본산김룡사본말사료준비(大本山金龍寺本末史料準備)」(제11책), 「희방사 유석사 비로사 진월사사료준비(喜方寺 留石寺 毘盧寺 陳月寺史料準備)」(제12책), 「명봉사사료참고(鳴鳳寺史料參考)」(제14책), 「남장사사료참고(南長寺史料參考)」(제15책), 「김룡사사료준비(金龍寺史料準備)」(제16책) 등임.

- 한편 총목의 표지 아래의 기록을 통해 현재 결본인 나머지 7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3책은 문경의 대승사(大乘寺), 제4책은 예천의 용문사(龍門寺), 제5책은 예천의 명봉사(鳴鳳寺), 제7책은 문경의 봉암사(鳳岩寺), 제8책은 문경의 혜국사(惠國寺)와 운암사(雲岩寺), 제10책은 상주의 용흥사(龍興寺), 갑장사(甲長寺)와 동해사(東海寺), 제13책은 예천의 보문사(普門寺)와 서악사(西岳寺)에 대한 사료임.
- 『대본산김룡사본말사연혁』은 이전의 『김룡사사료수집』, 『각사사료수집』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집대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므로 1933년경에 『대본산김룡사본말사연혁』을 편찬할 때 기초자료가 된 사료, 곧 1914년 또는 그 이후에 김룡사에서 완성한 각종 기록물이 다수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

6) 등록가치의견

○ 『문경 성불사 각사사료수집』은 1914년 당시 김룡사 말사들의 사적과 각종 불사 기록을 살필 수 있는 원천적인 사료임. 아울러 1933년경에 완성된 『대본산김룡사본말사연혁』(총 17책)의 초고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음. 더욱이 『한국불교전서』 등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도 있으므로 원천적이고 유용한 사료임이 틀림없음. 이와 같은 가치적인 측면과 기 등록문화재인 『김룡사사료수집』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문경 성불사 각사사료수집』은 원래 김룡사 소장의 유물임이 틀림없음. 이전에 등록문화재가 된 유사 유물인 『김룡사사료수집』이나 『대본산김룡사본말사연혁』 등도 어느 시기에 김룡사에서 유출되었다가 현재 김룡사의 본사인 직지사로 환수된 뒤 2014년에 등록문화재가 되었음. 그러므로 이 유물에 대한 등록문화재로의 심의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1) 개요

○ 개장한 표지에는 『各寺史料蒐集』으로 되어있으나, 원래의 책표지는 대정 3년(1914년) 8월 『史要蒐集 - 圓寂, 石泉, 南長, 鳳巖, 惠國』으로 되어 있음

○ 속표지는 대정 3년(1914년) 7월 30일 『各寺史料蒐集 - 원적사, 석천암, 남장사, 봉암사, 혜국사』로 되어 있음

○ 본사 김룡사의 말사 중 원적사, 석천암, 남장사, 봉암사, 혜국사 등의 사료를 1914년 7월말까지 조사한 것을 수록함

○ 실제 조사된 사찰은 혜국사, 석천암, 남장사, 봉암사 외에 北長寺, 甲長寺, 東海寺를 추가되어 8개 사암임

○ 1911년 사찰령 체제의 30본사(1924년 이후 31본사)였던 경북 문경군 金龍寺本末寺 史料調査 일환으로 작성된 자료임

○ 본사 김룡사 김혜옹(金慧翁) 주지 시절 작성된 것으로 김혜옹은 1911년 12월 김룡사 초대 주지로 취임하여 1926년 9월 22일 입적할 때까지 본사 주지를 역임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1911년 9월 사찰령 반포 이전에도 각 도에서 <寺刹寶物目錄> 작성을 요구함

○ 사찰령 실시에 따라 1911년 11월 충청남도는 사찰이 관리하는 고적, 보물, 집기 등에 대한 사료 조사를 훈령함

○ 본사 김룡사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본말사별 사찰사료를 조사한 것으로 추정됨
○ 본사 김룡사에서 제작하여 각 말사에서 배포한 '金龍寺本末寺' 판심이 찍힌 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유추됨
○ 각 지역별 말사들을 묶어 조사하여『各寺史料蒐集』으로 정리하여 이후 『金龍寺本末寺誌』편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본사 金龍寺의 말사는 50개로 그중 별격지 수반 말사는 대승사(문경군) 1개였다가 1928년 용문사, 남장사, 봉명사, 봉암사가 추가되어 5개 사찰이 됨
○ 수반지 5개 사찰(대승사, 용문사, 남장사, 봉명사, 봉암사) 중 『각사사료수집』에 **남장사**와 **봉암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큼
○ 본『각사사료수집』자료는 이후 발간을 목표로 한『金龍寺本末寺誌』편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사찰에 임의로 보관되어 있어 도난 가능성이 있고, 항온항습이 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음
○ 향후 가까운 문경새재 옛길박물관 수장고에 위탁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경북 문경과 상주 지역의 전통 사찰인 혜국사, 석천암, 남장사, 봉암사, 북장사, 갑장사, 동해사 등 8개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음
○ 번역 등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직지사 소장『金龍寺沿革』(17책)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이는 1933년 安震湖의 편찬 작업용 원고본으로 추정됨
안진호 스스로 1933년 『김룡사본말사지』를 편찬했다고 기술함
○ 안진호는 봉선사・백양사・석왕사・유점사・김룡사・전등사·봉은사 등 7개 본말사지 편찬에 관여하였고, 이 가운데 봉선사, 유점사, 전등사 등 3개 본말사지는 발간됨
○ 안진호의 수집 원고본『金龍寺沿革』17책으로 완성되어『金龍寺本末寺誌』로 발 간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 1929년 및 1933년 김룡사본말사지 편찬을 논의할 당시 김룡사 주지는 1927년 9월 김룡사 본사 주지로 부임한 최인택(崔仁澤)으로 1934년 8월 이병호(李炳浩)로 교체됨

7) 등록가치의견
○ 문화재로 등록된 1933년 5월 원고로 작성된 『金龍寺沿革』의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이와 연관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본『各寺史料蒐集』(1914)은 1933년 『金龍寺沿革』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17책 가운데 현존하는 제6책 **남장사**, 제9책 **석천암·원적사**·(심원사·황령사)·**북장사** 등에 실린 것으로 보이며 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金龍寺沿革』17책 중 목록에는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 제7책 **봉암사**, 제8책 **혜국사**·(운암사), 제10책 (용흥사)·**동해사**의 자료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큼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경 성불사 소장 金龍寺本末寺 各寺史料蒐集> 또는 <문경 성불사 소장 金龍寺本末寺 各寺史料蒐集- 원적사, 석천암, 남장사, 봉암사, 혜국사>

<○○○○○○○○ ○○○>

1) 연혁·유래 및 특징

○ 본 책은 1914년 문경 김룡사金龍寺에서 소속 말사들 관련 사료를 수집하여 기록한 1책의 필사본임. 문경 김룡사는 1911년 7월 「사찰령시행규칙寺刹令施行規則」에 의해 전국 30개 본사本寺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6월 공포된 「사찰령寺刹令」 3조는 본사에서 본말관계本末關係 등의 사법寺法을 정하도록 하였음. 본 책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 김룡사 측에서 발행한 것임.

○ 본 책에 수록된 김룡사 소속 말사는 혜국사惠國寺·석천암石泉庵·남장사南長寺·북장사北長寺·갑장사甲長寺·동해사東海寺·원적암圓寂庵·봉암사鳳巖寺 등 8개 사암寺庵이며 수록 사료는 총 26건임. 묵필로 정서된 사료는 24건이나, 남장사 기록 말미에 1907년 '염불당성조서念佛堂·成造序'가 추기追記되어 있고 책 마지막 장에도 '남장사무량수전금상영험기南長寺無量壽殿金像靈驗記'가 행초行草로 덧붙여진 것이 확인됨.

○ 또 다른 추기사항은 불사에 참여한 이들의 소임과 이름임. 양진암중수기安寂庵重修記와 남장사극락무량수전조사각중건기南長寺極樂無量壽殿重建記, 남장사보광전중건여단확기南長寺普光殿重建與丹雘記 등에 실무를 맡은 승려 및 화주, 시주인의 이름은 애초 기록하지 않았다가 교정 과정에서 추기한 것으로 보임. 1891년 남장사 보광전의 중건과 단확의 대시주로는 시임 군수 민종렬閔種烈의 이름이 있는데 민종렬은 1885년부터 1899년까지 상주목사를 지냈음.

○ 본문에 사용된 종이는 반엽 광곽 세로 21.5×가로 14.5cm, 10행의 주색朱色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임. 판심구版心口에 '金龍寺本末寺'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김룡사 사료수집』에도 동일한 용지가 사용되었음.

2)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국가등록문화재 635호 『김룡사 사료수집』과 국가등록문화재 636호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 관련 자료임.

○ 본 책 표지와 권수면卷首面의 기록 형식은 국가등록문화재 제635호 『김룡사 사료수집』과 일치함. 두 책의 표지에 기록된 발행 시기는 1914년 8월로 동일하며, 권수면에 기록된 발행 시기는 각각 1914년 7월과 12월로 차이를 보여, 동시대에 기획되고 순차대로 편찬된 것으로 여겨짐. 내용면에 있어서도 수록 대상 사찰을 달리 하여 애초 한 벌로 구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본 책에 수록된 8개 사암의 명칭은 국가등록문화재 제636호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 총목總目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문헌 간의 연계성이 확인됨. 총목 표지 묵서에 의하면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 17책 중 6권은 남장사 사료이고 7권은 봉암사, 8권은 혜국사, 9권은 석천암·원적암·북장사, 10권은 갑장사·동해사임.

○ 따라서 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본 책이 1933년에 제작된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의 작성에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발행시기와 발행처, 형태사항, 종이, 수록 사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책은 국가등록문화재 제635호 『김룡사 사료수집』과 한 벌로 제작된 것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사료되며 국가등록문화재 제636호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의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 불교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본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기념비적 가치를 지녔다고 여겨짐. 아울러 동 시기 경북 일대 사찰의 역사와 문화, 인물 관련 연구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됨.

3)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본래의 장정에 앞뒤로 표지를 덧대어 오침五針의 선장線裝으로 개장한 상태임. 원 표지의 좌측 중단에서 하단까지 훼손되어 있음. 『김룡사 사료수집』의 표지를 참고하면 일실된 글자는 '김룡사사무소金龍寺事務所'로 추정됨. 종이는 전반적으로 침수로 인한 변색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이며 먹물의 탈색도 거의 없어 내용 판독에 문제없음. 장기적 보존을 위해 항온·항습 시설을 갖춘 인근 박물관 등의 시설에 기탁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책에 수록된 사료들은 경북지역 사찰들의 연혁과 불사佛事 및 관련 인물들에 관련된 기록들로서 불교사, 건축사, 미술사, 정치사, 사회사, 지방사 등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안건번호 근대 2021-02-15

15. 국외 환수 국유문화재(백범 김구 유묵 '광명정대') 관리청 지정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지난 '18년 미국 교포의 기증으로 환수되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임시 보관 중인 「백범 김구 선생 유묵 '광명정대(光明正大)'」에 대한 관리청 지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 62조의 1항 및 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청으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유물개요



백범 김구 휘호

○ 유 물 명 : 백범 김구 휘호 '광명정대(光明正大)'
○ 제작시기 : 1949년
○ 제작경위 : 안중근 의사 순국 39주년을 추모하며 김구 선생의 동지인 '김형진'의 손자 'ㅇㅇㅇ'에게 써줌
○ 기 증 자 : ㅇㅇㅇ(미국 시애틀 거주, 원 소장자 'ㅇㅇㅇ'의 6촌 동생)
○ 소장경위 : 원 소장자 'ㅇㅇㅇ'의 6촌 동생(기증자 ㅇㅇㅇ의 친형)이 보관하던 것을 기증자가 받음
○ 반출경위 : 1973년 미국 이민 당시 함께 이동
○ 유물가치
- 백범의 글씨체와 동일
- 같은 휘호를 여러 번 썼던 백범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동 휘호 '광명정대'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휘호라는 점에서 가치 있음

라.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18.4.25.) 소장자(재미교포), 시애틀총영사관에 기증서 제출

※ 기증자 요청(관리기관 관련) :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 ('18.4.28.) 시애틀총영사관, 외교부·문화재청에 관련 내용 보고

○ ('18.5~7월) 유물 사전감정, 운송방법 등 협의(문화재청·외교부-시애틀총영사관)

○ ('18.8.5.) 국내반입(외교행낭), 국립고궁박물관 임시 보관

○ ('18.8.7.) 유물평가위원회 개최 : 진품으로 확인

○ ('18.8.13.) 환수 보도자료 배포

※ 시애틀총영사관 통해 기증자에게 문화재청장명의 감사패 전달('18.11월)

○ ('21.2월) 임시정부기념관, 문화재 관리 이전 요청 협의

※ 개관 예정일 : '21.11.23.(화) 예정

마. 검토의견(국제협력과)

○ 관리청 : 국가보훈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사 유

- 상기 유물은 백범이 안중근의사 순국 39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 당시 동지인 '김형진'의 가족에게 써 준 휘호인 점,
- 기증자가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관리해 줄 것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한바,
- 독립운동의 상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관리,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붙임> 상세 사진



안건번호 근대 2021-02-16

16.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국가등록문화재「대한매일신보」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국가등록 문화재 **대한매일신보 (제509-3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 **(1) 허가 받는 자**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 허가 내용** ○ 대 상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 내 용 :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644매) **(3) 허가(수행)기간 :** '20.7.1. ~ 12.15 **(4) 참고(추진경과)** ○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 (문화재청-서울대 / '16. 6. 24.) *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예산 지원 : 대한매일신보 4,914매에 대한 순차적 보존처리 실시 ○ 현상변경(1차) 허가신청 및 통지('17. 4. 26. / 5.31) ○ 보존처리(1차) 실시('17. 7. 25. ~ 12. 15. / 298매) ○ 현상변경(2차) 허가신청 및 통지('18. 3. 12. / 5.9) ○ 보존처리(2차) 실시('18. 7. 20. ~ 12. 19. / 301매) ○ 현상변경(3차) 허가신청 및 통지('19. 6. 26. / 7.26) ○ 보존처리(3차) 실시('19. 8..1. ~ 12. 18. / 460매) ○ 현상변경(4차) 허가신청 및 통지('20.5.25. / 6.18) ○ 보존처리(4차) 실시('20. 7..1. ~ 12. 15. / 644매)	허가	'20. 6.18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